수호전

水滸傳 · 시내암 120회본(충의수호전)

제3권 (제25회 ~ 제36회)

시내암 (施耐庵, 약 1296–1372) 원작

vLLM Gemma 4 26B-A4B AI 번역 · 2026-06-03

책 정보

원전

시내암 『수호전(水滸傳)』 120회본(충의수호전, 袁無涯 간행본 계열), 引首 + 120회

원전 출처

zh.wikisource.org/wiki/水滸傳_(120回本) (퍼블릭 도메인)

번역

vLLM Gemma 4 26B-A4B FP8 + MTP drafter (GB10 로컬)

번역 방식

2-pass: 회별 인물·사건 사실 시트 추출 → 본문 번역 (누적 사전으로 표기 일관성 강제)

발행

sosig.shop/book · 2026-06-03

번역 정책

- 인명·지명은 한국 한자음(宋江 → 송강, 林沖 → 임충)

- 별호는 본명으로 통일(及時雨 → 송강, 黑旋風 → 이규, 花和尚 → 노지심)
- 옛 번역투(~하더라/이라) 금지, 초등 고학년 가독성 목표
- "話說/卻說" → "이야기는 이러하다/한편", 詩曰/詞曰 → 시·사 형식 유지

> AI 번역의 한계상 어조 흔들림·세부 오역 가능성이 있습니다. 학술 번역본의 대체가 아닌 "읽을거리 한 권 더"로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인용·연구는 원전 또는 정식 번역본을 권합니다.

목차

제25회 — 왕파가 계책을 써서 서문경을 유혹하고, 음탕한 여인이 약으로 무대랑을 해치다 6

제26회 — 유골을 훔친 하구숙이 상을 치르고, 머리를 바친 무이랑이 제사를 지내다 29

제27회 — 모야차 맹주도에서 사람 고기를 팔고, 무 도두가 십자파에서 장청을 만나다 67

제28회 — 무송이 안평채를 위엄으로 진압하고, 시은이 의리로 쾌활림을 빼앗다 86

제29회 — 시은이 맹주도를 거듭 점령하고, 무송이 술에 취해 장문신을 때려눕히다 111

제30회 — 시은이 죽을 죄인의 감옥에 세 번 들어가고, 무송이 비운포를 크게 뒤집다 128

제31회 — 장 도감이 원앙루에서 피를 뿌리고, 무행자 무송이 밤에 오공령을 넘다 155

제32회 — 무행자 무송이 취하여 공량을 때리고, 금모호 임충이 의리로 송강을 풀어주다 181

제33회 — 송강이 밤에 소오산을 살펴보고, 화영이 청풍채를 발칵 뒤집다 216

제34회 — 진삼산을 진압하며 청주도를 뒤흔들고, 벽력화가 밤에 와력장으로 달아나다 238

제35회 — 석 장군 마을 가게에 편지를 부치고, 소이광 양산에서 기러기를 쏘다 268
제36회 — 양산박 오용이 대종을 추천하고, 양양령에서 송강이 이준을 만나다 298

제25회 — 왕파가 계책을 써서 서문경을 유혹하고, 음탕한 여인이 약으로 무대랑을 해치다

王婆計啜西門慶 淫婦藥鴆武大郎

이야기는 이러하다. 운가는 왕파에게 몇 대 맞고 나니 속이 부글부글 끓어 화가 풀리지 않았다. 그는 설리(雪梨) 바구니를 들고 곧장 거리로 달려 나와 무대를 찾아 나섰다. 두 골목을 돌다 보니, 마침 무대가 취병 짐을 짊어진 채 그 길로 걸어오고 있었다. 운가는 그를 발견하고 발을 멈춘 뒤 무대를 빤히 바라보며 말했다.

"요즘 통 안 보이더니, 그새 살이 통통하게 올랐구려?"

무대가 짐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난 늘 이 모양인데, 살이 오르긴 뭐가 오른단 말이오?"

운가가 말했다.

"엊그제 밀껍질을 좀 사려 했는데 아무 데서도 구할 수가 없더군. 사람들이 다 당신 집에 있다고 하기에 찾아왔소."

무대가 말했다.

"우리 집엔 거위나 오리도 안 기르는데, 밀껍질이 어디 있다고 그러시오?"

운가가 말했다.

"밀껍질이 없다면서 어찌 그리 포동포동하게 살이 쪘소? 당신을 거꾸로 들어 올린들 끄떡없고, 솥에 푹 삶아도 김 한 줄기 새어 나오지 않을 만큼 단단히 살이 쪘구려."

무대가 소리쳤다.

"이 망할 놈의 원숭이 같은 놈이 어디서 욕질이야! 내 마누라는 외도 같은 건 안 하니, 내가 왜 오리란 말이오?"

운가가 비아냥거렸다.

"당신 마누라가 사내(漢子)는 안 훔쳐도, 사내(子漢)는 훔치고 있더군."

무대가 운가의 멱살을 잡으며 말했다.

"그놈이 누군지 당장 대라!"

운가가 맞받아쳤다.

"내 멱살만 잡을 줄 알지, 정작 그놈의 왼쪽 살점은 물어뜯지 못하는 구려."

무대가 사정하듯 말했다.

"아우님, 그게 누구요? 내게만 말해주면 취병 열 개를 줄 테니 일러 주시오."

운가가 말했다.

"취병 따위는 소용없소. 당신이 주인 노릇 좀 해서 술 세 잔만 사주면, 그때 말해주리다."

무대가 말했다.

"술을 마실 줄 안단 말이오? 그럼 나를 따라오시오."

무대는 짐을 챙겨 운가를 데리고 작은 주막으로 가서 짐을 내려놓았다. 그러고는 취병 몇 개와 고기를 좀 사고 술 한 병을 시켜 운가에게 대접했다. 그 어린 녀석(운가)이 또 일렀다.

"술은 더 따르지 말고, 고기를 몇 점 더 썰어 오너라."

무대가 운가에게 말했다.

"아우님, 이제 제발 말 좀 해주시오."

운가가 말했다.

"너무 서두르지 마시오. 일단 내가 다 먹고 나서 말해줄 테니. 너무 분해 하지도 마시오. 내가 알아서 당신을 도와 잡아주리다."

무대는 그 원숭이 같은 놈이 술과 고기를 다 먹는 것을 지켜보다가 말했다.

"이제는 정말 말해주시오."

운가가 말했다.

"정말 알고 싶다면, 내 머리에 난 혹을 한번 만져보시오."

무대가 물었다.

"아니, 저 혹이 왜 생긴 것이오?"

운가가 말했다.

"잘 들어보시오. 오늘 내가 이 설리 한 바구니를 들고 서문대랑(西門大郎)에게 외상으로 좀 달아 두려고 찾아갔는데, 아무리 찾아도 없더란 말이오. 그런데 거리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놈이 왕파의 찻집에서 무대 마누라와 눈이 맞아 매일 거기서 살다시피 한다'고 하더군. 거기서 삼사오십 전이라도 벌어 쓸까 했는데, 그 왕파라는 늙은 돼지 같은 년이 방에 들어가 그자를 찾는 것조차 못하게 막고는 사정없이 두들겨 패서 쫓아냈소. 그래서 일부러 당신을 찾아온 것이오. 방금 내가 두어 마디로 당신을 자극한 것도, 그러지 않았다면 당신이 먼저 나에게 묻지도 않았을 것 아니오?"

무대가 놀라 물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단 말이오?"

운가가 말했다.

"또 그러시는구려! 당신이 이렇게 둔한 인간일 줄이야. 그 두 놈은 신이 나서 당신이 나오기만을 기다렸다가 왕파의 방에서 한데 엉켜 있는데, 당신은 아직도 진짠지 가짠지 묻고 있구려."

무대는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아우님, 사실 나도 숨기지 않고 말하리다. 내 마누라가 매일 왕파네 집에 옷을 지으러 가는데, 돌아올 때면 얼굴이 발그레해져 있어 나도 내심 의심스럽긴 했소. 당신 말이 딱 맞구려! 지금 당장 짐을 맡겨두고 가서 현장을 덮치면 어떻겠소?"

운가가 말했다.

"당신은 그리 다 큰 어른이 어찌 그리 식견이 없소? 그 왕파라는 늙은 개가 얼마나 무섭고 영악한 인간인데, 어떻게 그 손아귀에서 벗어나겠소? 그 세 사람이 분명 암호라도 정해 두었을 테니, 당신이 들이닥치는 순간 마누라를 얼른 숨겨버릴 것이오. 게다가 서문경은 보통내기가 아니어서, 당신 같은 사람 스무 명쯤은 거뜬히 패줄 수 있는 자요. 만약 그를 잡지 못하면 당신만 헛수고로 매만 맞게 되고, 그자는 돈도 권세도 있으니 도리어 고소장 한 장으로 당신을 옭아맬 것이오. 그러면 당

신은 한바탕 송사에 휘말려 고생만 하다가, 도와줄 사람도 없이 끝내 그자의 손에 끝장나고 말 것이오."

무대가 말했다.

"아우님 말이 다 옳소. 하지만 이 울화는 어떻게 풀어야 한단 말이오?"

운가가 말했다.

"나도 그 늙은 돼지 같은 개에게 맞고 나니 화가 풀리지 않더군. 내가 묘책을 하나 알려주리다. 오늘 저녁 집에 돌아가거든 절대 화를 내거나 티를 내지 말고 평소처럼 행동하시오. 내일은 취병을 평소보다 좀 적게 만들어 내오시오. 내가 골목 어귀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겠소. 만약 서문경이 들어가는 것이 보이면 내가 당신을 부르겠소. 그러면 당신은 짐을 짊어진 채 그 근처에서 나를 기다리시오. 내가 먼저 그 늙은 개를 건드려 기어이 나를 때리게 만들겠소. 그때 내가 바구니를 먼저 거리로 던지면 당신이 얼른 낚아채시오. 그리고 내가 머리로 그 노파를 들이받아 막을 테니, 당신은 그 틈에 방 안으로 뛰어 들어가 억울함을 외치시오. 이 계책이 어떻소?"

무대가 말했다.

"그렇게 해준다면 참으로 아우님 덕분이오. 내게 돈이 몇 관(貫) 있으니, 이걸 가져가 쌀이라도 사 두시오. 내일 아침 일찍 자석가 골목 어귀에서 기다리겠소."

운가는 돈 몇 관과 취병 몇 개를 챙겨서 떠났다.

무대는 술값을 치르고 짐을 짊어진 채, 취병을 한 차례 팔러 나갔다가 집으로 돌아갔다.

사실 이 여인은 평소 무대를 갖은 방법으로 욕하고 구박해 왔는데, 근래에 들어서는 자신이 무례했음을 스스로 깨닫고 그저 무대에게 조금씩 비위를 맞춰 주며 지내고 있었다. 시로 이르되,

거친 성미와 음탕한 마음을 어찌 돌이키겠는가,
그저 거짓된 마음으로 억지로 곁을 지킬 뿐이라.
다만 이웃집 사내와 몰래 정을 통한 까닭에,
결국 몸속에 흉측한 딴마음을 품게 되었구나.

그날 밤 무대는 짐을 짊어지고 집으로 돌아왔으나, 평소와 다름없이 아무런 말도 꺼내지 않았다. 그러자 아내가 말했다. "여보, 술 한 잔 사 올까요?" 무대가 대답했다. "방금 다른 장사꾼에게서 세 사발을 사서 마셨소." 아내는 무대에게 저녁밥을 차려 대접했고, 그날 밤은 별다른 일 없이 지나갔다.

다음 날 식사를 마친 뒤, 무대는 취병을 서너 덩이 만들어 짐대에 얹어 두었다. 하지만 아내는 온통 서문경 생각뿐이라 무대가 일을 얼마나 준비했는지에는 도통 관심조차 없었다. 그날 무대가 짐을 짊어지고 장사를 나갔다. 아내는 서문경을 빨리 불러내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왕파의 차방으로 가서 서문경을 기다렸다.

한편, 무대가 짐을 짊어지고 자석가 골목 어귀에 나서니, 운가가 바구니를 손에 들고 그곳에서 주위를 살피며 서성이고 있었다. 무대가 물었다. "무슨 일이오?" 운가가 대답했다. "서두르시오. 일단 가서 장사 한 차례를 마치고 돌아오시오. 그자가 올 때가 거의 다 되었으니, 당신은 그 근처에서 대기하고 계시오." 무대는 구름처럼 빠르게 장사를 마치고 돌아왔다. 운가가 말했다. "내가 바구니를 휙 던지면, 그때 바로 안으로 뛰어 들어가시오." 무대는 아무 말 없이 짐을 내려놓았다.

한편, 운가가 바구니를 들고 차방 안으로 걸어 들어가며 욕을 퍼부었다. "이 늙은 돼지 같은 할망구야, 어제는 왜 나를 때린 거야!" 왕파는 예전 성미를 버리지 못하고 벌떡 일어나 호통을 쳤다. "이 망할 녀석! 난 너랑 아무 상관도 없는데, 왜 또 와서 욕질이야!" 운가가 대꾸했다. "이 '마박육(馬泊六)' 같은 년, 뚜쟁이 노릇이나 하는 늙은 개야, 무슨 헛소리를 늘어놓는 거냐!" 왕파는 크게 화가 나서 운가를 붙잡고 매질을 시작했다. 운가가 "네가 나를 때리는구나!"라고 외치며 바구니를 길가로 휙 던져버렸다. 왕파가 다시 그를 붙잡으려 들자, 이 영리한 녀석은 "때려보시지!"라고 소리를 지르며 왕파의 허리띠를 거머쥐고는, 왕파의 아랫배를 향해 머리로 세차게 들이받았다. 왕파는 하마터면 넘어질 뻔했으나, 다행히 벽에 막혀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러자 그 원숭이 같은 녀석이 왕파를 벽에 죽어라 밀어붙였다. 그때 무대가 옷을 걷어붙이고 성큼성큼 차방 안으로 뛰어 들어왔다.

왕파는 무대가 나타난 것을 보고 급히 가로막으려 했으나, 운가가 죽기 살기로 밀어붙이고 있어 도저히 놓아줄 수가 없었다. 왕파는 그저 "무대가 왔다!"라고 소리칠 뿐이었다. 왕파는 방 안에서 한창 수작을

부리던 중이라, 우선 문을 막아서며 버텼다. 그사이 서문경은 침대 밑으로 기어 들어가 몸을 숨겼다. 무대가 방 문 앞까지 들이닥쳐 손으로 문을 밀어보았으나 도무지 열리지 않자, 입으로 "참 잘하는 짓이다!"라고 욕설을 내뱉었다. 무대의 아내는 문을 막아선 채 어쩔 줄 몰라 하며 당황하여 이렇게 말했다. "평소에는 마치 새 부리처럼 잘난 체하며 권법을 뽐내더니, 정작 급한 상황이 닥치니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구나. 종이 호랑이를 보고도 겁에 질려 자빠지다니!" 아내가 이 말을 내뱉은 것은 분명 서문경더러 무대를 때려눕히고 도망가라는 뜻이었다. 침대 밑에서 아내의 말을 듣고 정신이 번쩍 든 서문경이 밖으로 기어 나오며 말했다. "부인, 내가 능력이 없는 게 아니라 잠시 생각이 짧았소." 그러고는 문을 밀어젖히며 "때리지 마시오!"라고 외쳤다. 무대가 그를 붙잡으려던 찰나, 서문경이 재빨리 오른발을 날려 걷어찼다. 키가 작고 체구가 왜소한 무대는 마침 명치에 정통으로 발길질을 당해 뒤로 엎어지며 쓰러졌다. 서문경은 무대를 쓰러뜨린 것을 확인하고는 소란을 틈타 그대로 도망쳐 버렸다. 운가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직감하고 왕파를 내버려 둔 채 자리를 떴다. 이웃 사람들은 모두 서문경의 권세를 알고 있었기에, 감히 누구도 이 일에 참견하려 들지 않았다.

왕파는 즉시 무대를 부축해 일으켰다. 무대가 입으로 피를 토하고 얼굴색이 밀랍처럼 노랗게 질린 것을 보고는, 급히 무대의 아내를 불러 물 한 사발을 떠 오게 했다. 물을 먹여 겨우 정신을 차리게 한 뒤, 두 사람이 무대의 양 어깨를 하나씩 붙잡고 부축하여 뒷문으로 나갔다. 그리고는 2층으로 올라가 침상에 눕혀 쉬게 했다. 시로 이르되,

보잘것없는 난쟁이 놈은 재주도 없는데,
서문가의 당나귀 같은 놈은 그토록 기세등등하구나!
친남편은 도리어 간부에게 해를 당하고,
음란함과 독한 마음이 모두 한 패가 되었네.

그날 밤은 별다른 일이 없었다. 다음 날, 서문경은 별 탈이 없다는 소식을 듣고는 예전처럼 다시 그 여인과 어울리며, 그저 무대가 저절로 죽기만을 바랄 뿐이었다.

무대는 닷새 동안 앓아누워 몸을 일으키지도 못했다. 게다가 뜨거운 국물을 달라고 해도 가져다주지 않고, 물을 달라고 해도 내주지 않아 매일같이 아내를 불러댔으나 대답조차 없었다. 게다가 아내가 화장을 진하게 하고 밖으로 나갔다가 돌아올 때면 얼굴에 생기가 돌아 발그레해진 모습까지 보였다. 무대는 몇 번이나 화가 치밀어 정신이 아득해질 지경이었지만, 돌봐주는 사람 하나 없었다.

무대는 아내를 불러다 꾸짖으며 말했다. "네가 저지른 짓을 내가 직접 눈으로 목격했거늘, 너는 오히려 간부를 부추겨 나를 발로 차게 만들었구나. 나는 지금까지 살려 해도 살지 못하고 죽으려 해도 죽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는데, 너희 둘은 저렇게 즐겁게 지내고 있느냐. 내가 죽는 거야 상관없다만, 너희와는 도저히 다툴 수가 없다! 내 아우 무이(武二)가 어떤 성격인지 너도 잘 알 것이다. 만약 그가 조만간 돌아온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네가 정 나를 가엾게 여긴다면 어서 와서 나를 수발이라도 들거라. 그러면 그가 돌아와도 내가 일절 입에 올리지 않겠

다. 만약 나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가 돌아왔을 때 너희의 일을 다 말해 버리겠다."

여인은 이 말을 듣고도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몸을 빠져나가 왕파와 서문경에게 무대가 한 말을 하나에서 열까지 빠짐없이 전부 일러바쳤다. 그 말을 들은 서문경은 마치 얼음 광에 처박힌 듯 오싹해하며 말했다.

"이거 큰일이군!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 도두(都頭)가 청하현 제일가는 호한이라는 걸 내가 모르는 바 아니지! 내가 지금 그대의 아내와 오랫동안 정을 나누며 마음을 주고받았으면서, 이런 일은 미처 생각지도 못했구나. 이제 일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대체 어찌하면 좋단 말인가? 정말 골치 아프게 되었구나!"

왕파가 비웃으며 말했다. "내가 보기엔 당신이 키잡이 사공인데, 나는 그저 배에 얹혀 탄 손님일 뿐이오. 나는 당황하지도 않는데, 당신이 도리어 손발이 꼬여버렸구려."

서문경이 말했다. "내가 헛되이 사내대장부 노릇을 했지, 이런 지경에 이르러서는 도무지 수습할 방도가 없소. 당신에게 무슨 묘책이 있거든 우리 두 사람을 좀 가려 주시오."

왕파가 말했다. “두 분은 평생 부부로 살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잠시 잠깐 부부로 지내고 싶으신 건가요?”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 평생 부부로 사는 것과 잠시 잠깐 부부로 지내는 것이 대체 어떻게 다르다는 말씀입니까?”

왕파가 말했다. “만약 잠시 잠깐 부부로 지내는 것이라면, 오늘 당장 헤어지면 그만입니다. 무대가 병이 나아 기운을 차리고 나면, 무대와 화해하고 무이도 돌아오면 그만이지요. 그러다 무대가 다시 심부름을 보내면 또 몰래 만나는 식, 이것이 잠시 잠깐 부부로 지내는 법입니다. 하지만 두 분이 평생 부부로 살고 싶다면 매일 같은 곳에서 마음 졸이며 살 필요가 없게 해드릴 수 있습니다. 제게 아주 기막힌 계책이 하나 있는데, 다만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군요.”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께서 저희를 잘 보살펴 주시기만 한다면, 저희는 그저 평생 부부로 살고 싶을 뿐입니다.”

왕파가 말했다. "이 계책을 쓰려면 물건이 하나 필요한데, 다른 집에는 없고 천지자연이 절로 만들어낸 것으로서, 마침 대관인(大官人) 댁에는 있는 것입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제 눈이라도 내놓으라면 기꺼이 뽑아 드릴 텐데, 대체 무엇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왕파가 말했다. "지금 저 키 작은 놈이 병이 깊으니, 꼴이 말이 아닐 때를 틈타 손을 써야 합니다. 대갓집에서 비소를 좀 가져오시고, 대낭자는 직접 가서 심경약(心疼藥) 한 첩을 지어 오십시오. 그다음 그 약에 비소를 섞어 저놈을 해치워 버리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불을 질러 흔적도 없이 깨끗이 태워 버리면, 설령 무이(武二)가 돌아온들 어쩌겠습니까? 예부터 '형수와 시동생은 서로 말을 트지 않는다'고 했고, '처음 시집갈 때는 친가 법도를 따르나 다시 시집갈 때는 본인의 뜻에 따른다'고 했습니다. 시동생이 무슨 수로 간섭하겠습니까? 그 뒤로 반년

이고 일 년이고 몰래 왕래하시다가, 남편의 상기(喪期)가 끝나는 날을 기다려 대관인께서 저 낭자를 정실로 맞아 댁으로 데려가시면, 이야말로 영원한 부부로서 함께 늙도록 즐거움을 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계책이 어떻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어머니, 그 계책이 참으로 절묘합니다. 예부터 '쾌락을 얻으려면 죽을 힘을 다해야 한다'고 했으니,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시작했으니 끝장을 봅시다!"

왕파가 말했다. "이제야 말이 통하는군요! 이것이야말로 풀을 벨 때 뿌리까지 뽑아 싹이 나지 못하게 하는 법입니다. 뿌리를 뽑지 않고 풀만 베면 봄이 왔을 때 다시 싹이 돋는 법이지요. 나으리께서는 비소를 구해 오십시오. 제가 알아서 낭자가 손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이 끝나면 제게 두둑이 사례하셔야 합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그건 말 안 해도 당연한 일입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다음과 같다.

꽃빛에 홀려 멈출 줄 모르더니
꾀를 내어 물처럼 서로 어우러지길 바랐네
무송의 칼끝이 이토록 독할 줄 누가 알았으랴
비소보다 한층 더 매섭고 모질구나

한편, 서문경은 얼마 지나지 않아 비소 한 봉지를 싸 들고 와서 왕파에게 건네주었다. 왕파는 그 여인을 바라보며 말했다.

"대낭자, 약을 먹이는 법을 알려드리지요. 지금 무대가 대낭자더러 자기를 보살펴 살려달라고 하지 않습디까? 그러면 살갑게 굴며 그의 비위를 맞춰 주십시오. 그놈이 약을 달라고 하거든 이 비소를 심경약에 섞어 넣는 겁니다. 그놈이 한 차례 몸을 움직일 때를 기다려 얼른 약을 입에 부어 넣고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피하십시오. 독이 퍼지기 시작하면 분명 창자가 뒤틀리고 터져나가며 비명을 지를 텐데, 그때 얼른 이불을 덮어버려 아무도 듣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미리 솥에 물을 끓여 행주 하나를 삶아 두십시오. 독이 퍼지면 반드시 일곱 구멍에서 피가 흐르고 입술에는 이빨 자국이 남을 텐데, 만약 그놈이 숨을 거두면 이불을 들치고 삶아둔 행주로 슥 닦아내면 피 자국이 다 사라집니다. 그러고 나서 관에 넣어 들고 나가 불태워 버리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그 여인이 말했다. "계책은 참으로 좋으나, 제 손이 워낙 약해서 급히 시신을 수습할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왕파가 말했다. "그건 식은 죽 먹기지요. 대낭자는 벽을 두드리기만 하십시오. 그럼 제가 바로 달려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두 분이 마음 써서 잘 정리해 두십시오. 내일 오경(五更, 새벽 3~5시)쯤에 결과를 들으러 오겠습니다."

서문경은 말을 마치고는 곧장 떠났다. 왕파는 비소를 손으로 잘게 빻아 가루로 만든 뒤, 그 여인에게 주어 숨겨두게 했다.

그 여인은 얼른 집으로 돌아가 2층에 있는 무대를 살펴보니, 무대는 숨이 가쁘고 기운이 하나도 없어 금방이라도 죽을 것만 같았다. 여인은 침상 곁에 앉아 거짓으로 울음을 터뜨렸다. 무대가 말했다.

"왜 울고 있는 거요?"

여인은 눈물을 훔치며 말했다.

"제가 잠시 정신이 나갔었나 봐요. 그놈에게 속아 넘어갔으니 어쩌면 좋아요! 그런데 세상에, 그놈이 당신을 발로 차버리다니요! 제가 좋은 약을 알아봐 두었거든요. 얼른 지어다 당신을 치료해 주고 싶지만, 혹시라도 당신이 의심할까 봐 차마 가지 못하고 있었어요."

무대가 말했다.

"당신이 나를 살려만 주면 아무 일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 잊어버리겠소. 무송(武松)이 돌아오더라도 절대 입 밖에 꺼내지 않을 테니, 어서 가서 약을 지어다 나를 좀 살려주시오!"

그 여인은 동전을 좀 챙겨 들고는 곧장 왕파의 집으로 가서 앉아, 왕파에게 약을 지어 오라고 시켰다. 그러고는 약을 가지고 2층으로 올라가 무대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 심경약은 의원이 밤중에 먹으라고 한 거예요. 이걸 먹고 바로 이불을 한두 채 덮고 한숨 푹 자면서 땀을 좀 내면, 내일 아침이면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무대가 말했다.

“그거 참 좋구려. 형수님, 정말 고맙소. 오늘 밤엔 잠 좀 자고 있을 테니, 한밤중에 약을 타 오시오.”

여인이 말했다.

“걱정 말고 푹 주무세요. 제가 옆에서 정성껏 모실게요.”

어느덧 날이 어둑해지자, 여인은 방 안에 등잔을 켜고 아래층에서 커다란 솥에 물을 한 솥 끓였다. 그러고는 행주 한 조각을 가져다가 그 끓는 물 속에 넣고 함께 삶았다. 북소리를 들으니 마침 삼경(밤 11시~새벽 1시)이었다. 여인은 먼저 독약을 잔에 부어 놓은 뒤, 끓인 맹물 한 사발을 떠서 2층으로 올라가며 외쳤다.

"형님, 약은 어디 있어요?"

무대가 말했다.

"내 돗자리 밑 베개 옆에 있으니, 어서 가져다가 타서 먹게 해 주시오."

여인은 돗자리를 들치고 약첩을 잔에 털어 넣었다. 약첩을 잔에 담은 뒤 끓인 물을 부어 붓고, 머리에 꽂고 있던 은비녀로 휘휘 저어 골고루 섞었다. 그러고는 왼손으로는 무대를 부축해 일으키고, 오른손으로는 약을 입에 들이부었다. 무대가 한 모금을 마시고는 말했다.

"형수, 이 약은 맛이 참 쓰구려!"

여인이 말했다.

"병만 고칠 수 있다면 맛이 쓰든 말든 무슨 상관이에요."

무대가 두 번째 모금을 마시려 하자, 여인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약을 냅다 들이부어 잔에 든 약을 통째로 목구멍 속으로 넘겨버렸다. 그러고는 무대를 쓰러뜨린 뒤 황급히 침대 아래로 뛰어내렸다. 무대가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지르며 말했다.

"형수, 약을 먹고 나니 뱃속이 도리어 아파오오. 아프다, 아파! 도저히 못 참겠소!"

여인은 발치에 있던 이불 두 채를 끌어당겨 무대의 머리고 얼굴이고 가릴 것 없이 덥석 덮어버렸다. 무대가 소리쳤다.

"숨이 막혀 죽겠소!"

여인이 말했다.

"의원이 분부하시기를, 땀을 좀 내야 금방 나을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무대가 다시 말을 하려 하자, 여인은 그가 몸부림칠까 봐 겁이 나 침대 위로 뛰어올라 무대의 몸 위에 올라탔다. 그러고는 두 손으로 이불 끝을 꽉 움켜쥐어 조금도 늦추려 하지 않았다.

바로 이러하였다.

창자가 기름에 튀겨지는 듯하고 간과 내장이 불에 타는 듯하니, 심장 한복판은 눈처럼 차가운 칼날에 찔리는 듯하고 뱃속은 강철 칼로 어

지러이 휘젓는 듯하구나. 온몸은 얼음처럼 차갑게 식어가고 일곱 구멍에서는 피가 흘러나오네. 어금니를 꽉 깨문 채 세 혼(三魂)은 왕사성(枉死城) 안으로 떠나고, 목구멍은 바짝 말라붙어 일곱 백(七魄)은 망향대(望鄕臺) 위로 던져지는구나. 지옥에는 독을 먹은 귀신이 새로 한 명 늘어났고, 이승에는 간통을 잡아내려던 이가 사라지고 말았도다.

무대가 비명을 두어 번 내지르더니 한참을 헐떡거렸다. 그러다 창자가 끊어지는 듯한 고통 속에 결국 숨을 거두고는 몸을 움직이지 못하게 되었다. 여인은 이불을 들치고 무대를 보았는데, 그가 이를 악문 채 일곱 구멍에서 피를 흘리고 있는 모습에 소스라치게 놀랐다. 혹여나 소동이 일어날까 두려워진 여인은 얼른 침대 아래로 뛰어내려 벽을 두드렸다.

그 소리를 들은 왕파가 뒷문 쪽에서 헛기침을 하며 다가왔다. 여인은 아래층으로 내려가 뒷문을 열었다. 왕파가 물었다.

"다 끝냈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다 끝냈어요. 그런데 손발에 힘이 풀려서 뒷수습을 못 하겠네요."

왕파가 말했다.

"어려울 게 뭐 있니, 내가 도와줄 테니 어서 마무리하자."

왕파는 소매를 걷어붙이고는 끓는 물 한 통을 떠서 그 속에 행주를 담아 들고 위층으로 올라갔다. 이불을 걷어낸 왕파는 먼저 무대의 입가

와 입술을 두루 닦아내고, 일곱 구멍에서 흘러나온 어혈(瘀血) 자국을 깨끗이 닦아낸 뒤 그의 옷을 시신 위에 덮어주었다. 두 사람은 위층에서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시신을 옮겨 아래층으로 내려온 뒤, 낡은 문짝 한 장을 가져다가 그 위에 시신을 안치(停)하였다. 이어 무대의 머리를 빗겨주고 두건(巾幘)을 씌운 뒤 옷을 입히고, 신발과 버선까지 신겼다. 그러고 나서 한 폭 흰 비단으로 얼굴을 덮고, 깨끗한 이불을 골라 시신 위에 덮어준 뒤 다시 위층으로 올라가 뒷정리를 깔끔하게 마쳤다. 왕파는 그제야 홀로 자기 집으로 돌아갔다.

그 여인은 마치 가장(家長)을 잃은 듯이 목놓아 가짜로 울어댔다. 독자 여러분도 들어보라. 원래 세상 여인들의 울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눈물과 소리가 함께 있으면 '곡(哭)'이라 하고, 눈물은 있으되 소리가 없으면 '읍(泣)'이라 하며, 눈물은 없는데 소리만 요란하면 '호(號)'라고 한다. 그 여인은 밤새도록 눈물도 없이 소리만 내어 울어댔다.

다음 날 새벽 다섯 시경, 날이 채 밝기도 전에 서문경이 소식을 들으러 급히 달려왔다. 왕파가 사건의 전말을 상세히 말해주자, 서문경은 은자를 꺼내 왕파에게 주며 관을 사서 장례를 치르라고 일렀다. 그러고는 무대의 아내를 불러 상의했다. 아내는 서문경에게 다가와 말했다. "내 남편 무대가 오늘 죽었으니, 이제 나는 오직 당신만 믿고 의지하겠습니다." 서문경이 대답했다. "그건 말 안 해도 당연한 일 아니오." 왕파가 거들었다.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이 지역의 단두(團頭)인 하구숙은 아주 눈치가 빠르고 꼼꼼한 사람입니다. 혹시라도 빈틈을 찾아내어 시신을 수습해 주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서문경

이 말했다. "그건 걱정할 것 없소. 내가 직접 그에게 일러두면 되니까. 그는 내 말을 거역하지 못하오." 왕파가 다시 말했다. "대관인(大官人)께서 어서 가서 그에게 말씀하십시오. 조금이라도 늦어지면 안 됩니다." 서문경은 곧장 그곳을 떠났다.

날이 완전히 밝자 왕파는 관을 사고 향과 초, 종이돈 같은 장례 용품을 사 왔다. 그러고는 무대의 아내와 함께 갱반(羹飯, 영전에 올리는 국과 밥)을 차리고 수신등(隨身燈) 하나를 켜놓았다. 이웃 사람들이 모두 찾아와 문상을 왔다. 아내는 화장한 얼굴을 가린 채 가짜로 울어댔다. 이웃들이 물었다. "무대 대랑이 무슨 병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러자 여인이 대답했다. "심장이 아픈 병이 있었는데, 날이 갈수록 심해지더니 도저히 나을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불행히도 어젯밤 삼경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러고는 다시 흐느끼며 가짜로 울음을 터뜨렸다. 이웃들은 무대가 죽은 내막이 수상하다는 것을 빤히 알고 있었지만, 감히 대놓고 묻지는 못했다. 그저 위로의 말을 건넬 뿐이었다. "죽은 사람은 어쩔 수 없다지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가야 하니 부인께서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여인은 그저 가식적으로 고맙다며 인사를 건넸고, 사람들은 각자 흩어졌다. 왕파는 관을 챙겨 단두(團頭) 하구숙을 부르러 갔다. 입관에 필요한 물건들과 집안의 장례 용품들도 모두 준비해 두었다. 그리고 스님 두 명을 불러 밤에 영전을 지키게(伴靈) 했다. 잠시 후, 하구숙이 먼저 화가(火家, 장례를 돕는 일꾼) 몇 명을 보내 시신을 정리하게 했다.

한편, 하구숙이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무렵에 천천히 걸어 나와 자석가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서문경이 그를 맞이하며 물었다.

"하구숙, 어디 가시는 길입니까?" 하구숙이 대답했다. "이놈은 그저 앞에 있는 취병 장수 무대랑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길입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잠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눕시다." 하구숙은 서문경을 따라 모퉁이에 있는 작은 주막으로 가서 2층 방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서문경이 말했다. "하구숙, 어서 앉으시오." 하구숙이 말했다. "제가 어찌 대관인과 나란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하구숙, 어찌 그리 서먹하게 구시오? 어서 앉으시오." 두 사람이 자리를 잡고 앉자 좋은 술을 한 병 가져오게 했다. 점원은 술안주로 쓸 채소와 과일 등을 차려 내오고 곧바로 술을 거르기 시작했다. 하구숙은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들어 생각했다. '이 사람이 평소 나에게 술 한 잔 대접한 적이 없는데, 오늘 이 술잔에는 분명 무슨 속셈이 있을 것이다.' 두 사람이 반 시진 동안 술을 마시던 중, 서문경이 소매 안에서 은자 열 냥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하구숙, 액수가 적다고 개의치 마시오. 내일 따로 사례를 더 하겠소." 하구숙이 손을 모아 깍듯이 인사하며 말했다. "소인이 힘을 보탠 것도 없는데 어찌 감히 대관인께서 내려주시는 은자를 받겠습니까? 혹여 대관인께서 저에게 시키실 일이 있다면 그 말씀만 따를 뿐, 돈은 감히 받을 수 없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하구숙, 서먹하게 굴지 말고 일단 받으시오." 하구숙이 말했다. "대관인께서 말씀만 하십시오. 소인이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서문경이 말했다. "별다른 일은 아니고, 잠시 후 그 집안사람들도 고생한 대가가 필요할 것이오. 다만 지금 무대의 시신을 수습할 때 모든 일을 빈틈없이 처리하되, 비단 이불 하나만 덮어주고 다른 말은 일절 하지 마시오." 하구숙이 말했다. "고작 이런 사소한 일인데 무슨 큰 대가가 필요하다고 감히 은자를 받겠습니까?" 서문경이 말했다. "받지 않는다면 거절하는 것으로 알겠소." 하구숙은 평소 서문경이 관아의 사람들까지

휘어잡고 있는 악독한 자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결국 은자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이 술을 몇 잔 더 마신 뒤, 서문경은 점원에게 장부를 적어두었다가 내일 가게로 와서 계산하라고 일렀다. 두 사람이 계단을 내려와 함께 가게 문을 나섰다. 서문경이 말했다. "하구숙, 이 일은 절대 입 밖에 내지 마시오. 조만간 따로 보답하겠소." 이 말을 남기고 서문경은 곧장 떠나갔다.

하구숙은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들어 생각했다. '이 일이 참으로 수상하구나! 나는 그저 무대랑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는 것뿐인데, 어찌 저 사람이 내게 이토록 많은 은자를 준단 말인가? ……이 일에는 분명히 무슨 속셈이 있다.'

무대의 집 앞에 도착하니, 이미 화가(火家) 몇 명이 문앞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하구숙이 물었다. "무대는 무슨 병으로 죽었소?" 화가가 대답했다. "심장이 아픈 병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하구숙은 주렴을 걷고 안으로 들어갔다.

왕파가 맞이하며 말했다. "아저씨, 한참을 기다렸습니다." 하구숙이 대답했다. "사소한 일에 발이 묶여 조금 늦었습니다." 그러자 무대의 아내가 수수한 옷차림을 하고 안에서 가짜로 울며 나왔다. 하구숙이 말했다. "부인, 너무 마음 쓰지 마시오. 대랑이 세상을 떠난 것은 안타까운 일이나……." 여인이 눈물을 훔치는 척하며 말했다.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못난 남편이 심장병으로 며칠 못 가더니 이렇게 가버려, 저만 홀로 남겨져 괴롭기 짝이 없습니다."

하구숙은 여인의 얼굴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나는 무대 부인에 대해서는 말만 들었지 직접 본 적은 없었는데, 무대가 저런 아내를 얻었단 말인가! 서문경이 준 은자 열 냥에는 분명히 내막이 있구나.'

하구숙은 무대의 시신을 살피기 위해 천추번(千秋幡, 장례용 깃발)을 걷어내고 흰 비단 천을 걷어냈다. 그리고 오륜팔보(五輪八寶)의 검시법으로 신수(神水) 두 방울을 눈에 떨어뜨린 뒤 눈을 똑바로 뜨고 살펴보았다. 그런데 시신을 확인한 하구숙은 비명을 한 번 지르더니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입으로 피를 뿜어냈다.

그의 손톱은 푸르스름하고 입술은 자줏빛이었으며, 얼굴 피부는 누렇게 뜬 데다 눈에는 생기가 전혀 없었다. 그 모습은 마치 오경(五更)에 산에 걸린 달처럼 빛을 잃었고, 삼경의 기름 다한 등불처럼 생명이 다한 상태였다.

결국 하구숙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6회 — 유골을 훔친 하구숙이 상을 치르고, 머리를 바친 무이랑이 제사를 지내다

偷骨殖何九叔送喪 供人頭武二郎設祭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하구숙이 땅에 쓰러지자 화가(火家, 장례 일을 돕는 사람들)들이 그를 부축했다. 그러자 왕파가 급히 말했다. "이건 사악한 기운에 중독된 것이니, 어서 물을 가져오너라!" 왕파가 물을 두어 번 뿜어 대자 하구숙은 서서히 몸을 움직이며 점점 정신을 차리기 시작했다. 왕파가 말했다. "우선 하구숙을 집으로 데려가서 처리합시다." 화가 두 사람이 널문(板門) 한 짝을 들것 삼아 하구숙을 곧장 집까지 메고 갔다. 식구들이 맞이하니 하구숙은 그대로 침상에 누워 잠이 들었다. (하구숙의) 아내가 울며 말했다. "싱글벙글하며 나갔던 사람이 어찌 이리 처참하게 돌아온단 말인가! 평소에 중악(中惡)을 앓은 적도 없었는데." 그녀는 침상 곁에 앉아 통곡했다.

하구숙은 화가들이 눈앞에 없는 것을 확인하고는 아내를 발로 툭 차며 말했다. "걱정 마시오, 난 아무 일 없소. 방금 무대의 집에 입렴(入殮)하러 가다가 그 골목 어귀에 이르렀을 때, 현청 앞에서 약방을 차린 서문경을 마주쳤소. 그자가 나를 청해 술 한 자리 대접하더니 은자 열 냥을 내게 건네며 '입렴할 시신에 관한 일은 무엇이든 덮어 주시오'라고 하더이다. 내가 무대의 집에 가 보니 그 아내는 행실이 좋지 않은 여인이었소. 마음속에 의심이 팔구 할이나 들어, 그곳에서 천추번(千秋幡, 장례용 깃발)을 들춰 보니 무대의 얼굴은 자줏빛으로 검게 변해 있었고, 칠규(七竅, 일곱 구멍)에서는 피가 배어 나오고 있었으며, 입술 사이로 이빨 자국이 살짝 보였소. 이건 틀림없이 독살당한 것이오. 내 본디 소란을 피우려 했으나, 무대에게 (나서서) 일을 봐줄 사람도 없는 마당에 서문경의 비위를 거슬렀다간 도리어 벌집을 쑤시고 전갈을 건드리는 격이 될까 두려웠소. 어물쩍 입렴해 묻어 버리려 했지만, 무대에게는 형제가 하나 있지 않소? 바로 엊그제 경양강(景陽岡)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도두(武都頭) 말이오. 그는 사람 죽이는 데 눈 하나 깜짝 안 하는 사내이니, 머지않아 그가 돌아온다면 이 일은 반드시 들통나고 말 것이오."

(하구숙의) 아내가 말했다. "저도 며칠 전에 누가 말하는 걸 들었어요. '뒷골목에 사는 교(喬) 영감네 아들 운가(鄆哥)가 자석가에 가서 무대를 도와 간통 현장을 덮치려다 찻집에서 소동을 일으켰다더라' 하는 소리였는데, 분명 그 일 때문일 거예요. 그러니 천천히 그 아이를 찾아가 물어보세요. 지금 이 일은 어려울 게 없어요. 그저 화가들만 시켜 입렴하게 하고, 장례를 언제 치를지만 물어보면 됩니다. 만약 시신을 집에 모셔 두었다가 무송이 돌아온 뒤에 발인할 거라면 별로 복잡할 일

(皁絲麻線, 골치 아플 일)도 없을 거예요. 그냥 나가서 묻어 버린다면 그것도 상관없어요. 하지만 곧장 나가 화장(燒)하려 한다면 분명 수상한(蹺蹊) 구석이 있는 거예요. 그때가 되면 당신은 그저 발인 행렬을 따라가는 척하다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뼈 두 조각을 슬쩍 챙겨 두세요. 그것과 이 은자 열 냥을 함께 보관해 두면, 그것이야말로 더없이 큰 증거가 될 거예요. 만약 무송이 돌아와 따지지 않는다면 그만이지만, (따지고 들거든) 서문경의 체면 따위 봐줄 것 없이 그를 미끼로 한 밥벌이(一碗飯)를 챙길 수 있으니, 어찌 좋지 않겠어요?"

하구숙이 말했다. "집안에 현명한 아내가 있으니 사태를 아주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구려." 그러고는 곧장 화가들을 불러 분부했다. "나는 사악한 기운에 중독되어 움직일 수가 없으니, 너희가 알아서 시신 수습을 마치거라. 장례를 언제 치를지만 물어보고 빨리 보고해라. 받은 돈이나 물품이 있으면 너희끼리 나누어 갖고, 모두 각자 맡은 일을 잘 처리하도록 해라. 다만 나에게 돈을 가져다주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화가들은 그 말을 듣고 곧장 무대의 집으로 가서 시신을 수습하고, 영좌를 마련하여 제사를 지내며 장례 준비를 마쳤다. 그 후 하구숙에게 돌아와 보고했다. "그 집 큰댁 부인이 말하기를, '사흘 뒤에 발인하여 성 밖에서 화장을 하겠다'고 합니다." 화가들은 각자 돈을 나누어 가지고 흩어졌다. 하구숙이 아내에게 말했다. "당신 말이 딱 맞소. 나는 장례 날짜에 맞춰 가서 슬쩍 뼈 두 조각만 챙겨오겠소."

한편, 왕파가 온 힘을 다해 부추긴 덕분에 그 여인(무대의 아내)은 그날 밤 영전을 지켰다. 이튿날에는 스님 네 명을 청해 경문을 외게 했다. 사흘째 되는 날 아침, 화가들이 와서 관을 메고 나섰으며 이웃 몇

집도 따라 송장을 나섰다. 그 여인은 상복을 입고 길을 가는 내내 가장(家長, 가족을 부양하던 남편)을 위하는 양 거짓 울음을 짜내며 따라갔다. 성 밖 화장터(化人場)에 도착하자 곧 불을 지펴 태우게 했다.

그때 하구숙이 종이돈 한 묶음(一陌)을 손에 들고 화장터로 들어왔다. 왕파와 그 여인이 그를 맞이하며 말했다. "구숙(九叔)께서 몸이 나으셨다니 다행입니다." 하구숙이 말했다. "엊그제 무대랑한테서 자모취병(子母炊餠) 한 바구니를 샀는데 값을 치르지 못해, 일부러 이 종이돈을 가져와 무대랑을 위해 태우려 합니다." 왕파가 말했다. "구숙의 정성이 참으로 지극하십니다." 하구숙은 종이돈을 태우고는 곧 관을 어서 태우라고 재촉했다. 왕파와 그 여인은 "구숙께서 이렇게까지 거들어 주시니, 집에 돌아가서 따로 사례하겠습니다"라며 감사를 표했다. 하구숙은 "저는 어디서든 그저 발 벗고 나설 뿐입니다. 부인과 어머님(왕파)께서는 편히 계시고 재당(齋堂)에 가서 이웃 분들을 대접하시지요. 제가 대신 잘 살피겠습니다"라고 말하며 두 사람을 (재당 쪽으로) 돌려보냈다.

그러고는 (직접) 부젓가락(火挾)을 들고 가서 뼈 두 조각을 골라내어 산골지(澈骨池, 유골을 씻는 못)에 잠깐 담가 보니 뼈가 검게 부서져 있었다. 하구숙은 그것을 챙겨 두고는 재당으로 가서 사람들과 한바탕 어울려 시간을 보냈다. 관이 다 타자 화부들이 불을 끄고 유골을 수습하여 못에 뿌렸고, 이웃들도 각자 흩어졌다. 하구숙은 뼈를 집으로 가져가, 종이 한 폭에 연월일과 송장(送喪)에 따라온 사람들의 이름을 모두 적은 뒤, 그 은자와 함께 싸서 천 주머니에 담아 방 안에 잘 보관해 두었다.

한편, 그 여인(무대의 아내)은 집으로 돌아와 칸막이(槅子) 앞에 신주(영패)를 세우고 그 위에 '망부 무대랑의 위(亡夫武大郎之位)'라고 적었다. 영상(靈床) 앞에는 유리 등잔 하나를 켜 두었고, 안쪽에는 경번(經旛), 종이돈 다발(錢垛), 금은괴(金銀錠), 채색 비단(采繒) 따위를 붙여 두었다. 그러나 그녀는 매일같이 서문경과 함께 누각 위에서 마음껏 즐겼다. 예전에 왕파의 방에서 만날 때는 닭이나 개를 훔치듯 몰래 누리던 즐거움에 지나지 않았지만, 이제는 집안에 거치적거리는 사람이 없으니 마음대로 밤새도록 함께 자고 지냈다. 그때부터 서문경은 사나흘 밤을 (자기) 집에 돌아가지 않고 (이곳에) 머무르기 일쑤였고, (자기) 집안의 위아래 식구들 또한 저마다 좋아하지 않게 되었다. 본디 이 여색이라는 것이 사람을 빠뜨려 망치게 하니, 흥할 때가 있으면 반드시 망할 때도 있는 법이다. 시로 이르되,

풍류라는 두 글자의 참뜻을 깨닫고 나니,
좋은 인연인지 나쁜 인연인지 알 길이 없구나.
아내와 첩이 차려준 소박한 밥상 한 끼가
그리움에 가슴 앓지 않아도 되고 돈 들 일도 없으니.

한편, 서문경과 무대의 아내는 온종일 즐거움에 빠져 마음껏 노래하고 술을 마시며 지냈다. 둘의 사이가 깊어지자 남들이 알까 봐 걱정하는 기색조차 없었다. 이 거리에 사는 근처 이웃들 중 이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었으나, 다들 서문경이 워낙 악독하고 안하무인인 놈이라 두려워하여 감히 누구도 참견하려 들지 않았다.

흔히 말하기를 "즐거움이 극에 달하면 슬픔이 생기고, 막힘이 극에 이르면 형통이 온다(樂極生悲, 否極泰來)" 하였다. 세월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앞뒤로 사십여 일이 또 지났다.

한편, 무송은 지현(知縣)의 분부를 받들어 수레와 마차를 호송하여 동경(東京, 송나라의 도성)의 친척 집에 이르러 가져간 편지를 전하고 상자와 짐을 인수인계하였다. 거리에서 며칠간 한가로이 거닐다가 답서를 받고는 일행을 데리고 양곡현(陽穀縣)으로 돌아오는 길에 올랐다. 갈 때부터 돌아올 때까지 꼭 두 달 가까이 걸렸다. 갈 때는 새봄의 날씨였으나 돌아오니 어느덧 3월 초였다. 길에서 내내 마음이 어쩐지 불안하고 몸과 마음이 어수선하여, 서둘러 돌아가 형을 만나고 싶었다. 우선 현청에 들러 답서를 바치니 지현이 그를 보고 크게 기뻐하였다. 답서를 읽어 보고 금은보화가 명확히 잘 전달되었음을 확인한 지현은 무송에게 큰 은자 한 덩이(一錠大銀)를 상으로 내리고 술과 음식을 대접하였으니, 그 후의 일은 말할 것도 없다.

무송은 거처로 돌아와 옷과 신발, 버선을 갈아입고 새 머리띠까지 질러 맸다. 그러고는 방문을 걸어 잠근 뒤 곧장 자석가로 향했다. 양옆의 이웃들은 무송이 돌아온 것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며 가슴을 졸였다. 사람들은 속으로 이렇게 수군거렸다. "이제 집안에 큰 화가 닥치겠구나! 저 무서운 태세(太歲, 재앙을 불러오는 존재)가 돌아왔으니, 가만히 있을 리가 있겠나? 분명히 큰 사건이 터지고 말 거야!"

한편, 무송이 문 앞에 이르러 발을 걷어 올리고 몸을 안으로 쑥 밀어 넣었다. 그러다 제사상이 차려진 영상을 보게 되었는데, 거기에는 '망부 무대랑의 자리'라는 일곱 글자가 적혀 있었다. 무송은 멍하니 있다

가 눈을 크게 뜨며 말했다. "내 눈이 잘못된 것인가?" 그러고는 소리쳤다. "형수님, 무이가 돌아왔습니다!"

서문경은 마침 이 여인과 함께 2층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중이었다. 무송의 외침을 듣자마자 그는 혼비백산하여 똥오줌을 지릴 듯 놀라, 곧장 뒷문으로 빠져나가 왕파의 집을 통해 달아났다. 여인은 위층에서 (무송에게) 응답했다. '도련님, 잠시만 앉아 계세요. 제가 곧 내려갈게요.'

사실 이 여인은 무대를 독살한 뒤로 상복을 입을 마음이 전혀 없었고, 매일같이 진한 화장을 하고 곱게 치장한 채 서문경과 함께 즐기며 지내고 있었다. 그러다 무송이 '무이가 돌아왔다!'라고 외치는 소리를 듣자, 황급히 세숫대야에 얼굴을 씻어 화장을 지우고 머리에 꽂았던 비녀와 장신구들을 빼냈다. 그러고는 머리를 부스스하게 틀어 올리고 붉은 치마와 수놓은 저고리를 벗어 던진 뒤, 얼른 상복 치마와 상복 저고리로 갈아입고는 2층에서부터 흐느끼며 거짓 울음을 울며 내려왔다.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 잠시 그만 우십시오! 형님은 언제 돌아가셨습니까? 무슨 병이었고, 누구의 약을 드셨습니까?'

여인은 고개를 떨구고 한편으로 울면서 한편으로 대답했다. '네 형님은 네가 떠나고 한 열흘 또는 스무 날쯤 지났을 때부터 갑자기 가슴이 격렬하게 아파오기 시작했단다. 여드레, 아흐레를 앓으면서 신령께 빌고 점도 쳐보고 안 먹어본 약이 없을 정도로 애를 썼지만 결국 고치지 못하고 죽고 말았어. 나를 이렇게 고생스럽게 만들고 가다니!'

옆집의 왕파는 이 말을 듣고 혹여 일이 들통날까 겁이 나, 얼른 건너와 여인의 말을 거들며 얼버무렸다.

무송이 다시 물었다. '우리 형님은 평소에 이런 병을 앓은 적이 없는데, 어찌 가슴이 아프다고 갑자기 돌아가셨단 말입니까?'

왕파가 말했다. '도두(都頭)님께서는 어찌 그리 말씀하십니까? "하늘에는 예측할 수 없는 풍운이 있고, 사람에게는 한순간의 화복이 있다"고 하지요. 누구인들 영원히 아무 일 없을 거라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여인이 말을 이었다. '이 의모(乾娘, 왕파 아주머니) 덕을 톡톡히 봤지요. 저는 다리 없는 게처럼 의지할 데 없는 신세인데, 이 의모가 아니었으면 이웃집 누가 저를 도우러 와주었겠어요?'

무송이 물었다. '지금 형님은 어디에 묻혀 있습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나 혼자뿐인데 어디서 묘자리를 구하겠니? 어쩔 수 없이 사흘 동안 모셨다가 들어내어 불태워 화장해 버렸단다.'

무송이 다시 물었다. '형님이 돌아가신 지 며칠이나 되었습니까?'

여인이 말했다. '이틀만 더 지나면 단칠(斷七, 49재)이 된단다.'

무송은 한참 동안 깊은 생각에 잠겨 있다가, 곧장 현청으로 향했다. 자물쇠를 열고 방으로 들어가 깨끗하고 수수한 옷으로 갈아입은 뒤, 토병에게 시켜 삼끈 한 가닥을 엮게 하여 허리에 둘렀다. 그리고 끝이 뾰족하고 길며 자루는 짧고 등은 두껍고 날은 얇은 해완도(解腕刀, 단도)

한 자루를 몸에 감추고, 은자 몇 냥을 챙겨 품에 지녔다. 이어 토병 하나에게 방문을 잠그게 한 뒤, 현청 앞에서 쌀과 밀가루, 후추 등의 양념류와 향, 초, 그리고 저승에 보낼 지전(冥紙) 등을 사 들고 저녁때가 되어서야 집에 도착해 문을 두드렸다.

여인이 문을 열어주자, 무송은 토병에게 시켜 제사에 쓸 국과 밥을 준비하게 했다. 무송은 곧장 영좌(靈床) 앞으로 가서 등불과 초를 켜고 술과 안주를 차려 놓았다. 두 경(更, 약 네 시간)이 지나 제상이 정갈하게 차려지자, 무송은 몸을 엎드려 절하며 외쳤다.

'형님의 혼령이 멀리 계시지 않으리라! 살아생전에는 연약하시더니, 오늘 죽어서도 그 진상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습니다. 만약 누군가에게 해를 입어 억울함을 품으신 것이라면, 부디 이 아우의 꿈에 나타나 알려주십시오. 이 아우가 형님을 대신해 원수를 갚아드리겠습니다!'

무송은 술을 제상에 부어 올리고 지전(冥紙)을 태운 뒤, 목을 놓아 크게 통곡하기 시작했다. 그 울음소리에 양옆의 이웃들까지 모두 슬퍼하며 안타까워하지 않는 이가 없었다. 여인 또한 안에서 거짓 울음을 섞었다. 통곡을 마친 무송은 준비된 음식과 술을 토병들과 함께 먹고는 멍석 두 장을 가져다 토병들에게 중문(中門) 옆에서 자게 했다. 무송은 멍석 한 장을 가져다가 영좌 바로 앞에 펴고 누웠다. 여인은 위층으로 올라가더니 위층의 문을 닫아걸고 그곳에서 잠을 청했다.

삼경(밤 11시~새벽 1시 사이)이 다 되어갈 무렵, 무송은 이리저리 뒤척이며 잠을 이루지 못했다. 토병들을 보니 코를 골며 마치 죽은 사람처럼 깊이 잠들어 있었다. 무송은 몸을 일으켜 영좌 앞의 유리등을 바

라보았다. 등불은 꺼질 듯 말 듯 가물거리고 있었다. 귀를 기울여 북소리를 들어보니 마침 삼경 세 점(새벽 1시경)을 알리고 있었다. 무송은 한숨을 내쉬며 멍석 위에 앉아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우리 형님은 살아생전 나약하셨으나, 돌아가신 뒤에는 부디 명확히 밝혀져야 하거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다. 영좌 아래에서 한 줄기 찬 기운이 말려 올라오더니, 정말로 뼈를 깎는 듯하고 살갗을 파고드는 듯한 서늘한 한기가 휘몰아쳤다. 주위는 어둑어둑하여 제상 앞의 등불은 빛을 잃었고, 처량하고 음산한 가운데 벽에 붙여둔 종이돈들이 어지럽게 흩날렸다. 그 찬 기운에 무송은 온몸의 털이 쭈뼛 섰다. 눈을 크게 뜨고 살펴보니, 영좌 밑에서 어떤 형체가 기어 나오는 것이 보이며 "아우야, 내가 너무도 고통스럽게 죽었구나!"라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무송이 자세히 보려고 앞으로 다가가 물으려던 찰나, 찬 기운은 흩어지고 사람은 간데없이 사라져 버렸다. 무송은 깜짝 놀라 멍석 위에서 엉덩방아를 찧으며 앉아, 이것이 꿈인지 생시인지 가늠하려 애썼다. 고개를 돌려 토병들을 보니 여전히 잠들어 있었다. 무송은 생각했다.

'형님의 죽음은 분명히 억울한 것이로다. 이제 막 나에게 알려주려 하였는데, 내 기운에 눌려 형님의 혼백이 흩어져 버렸구나…….'

무송은 차마 입 밖으로 내뱉지 못하고 마음속으로만 삼키며, 날이 밝기를 기다려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시로 이르되,

사람들이 '삼촌정(三寸丁)'이라 부르던 자가 이상도 하다,
살아생전엔 흐리멍덩하더니 죽어서는 정령이 되었구나.
한 핏줄 형제가 서로 감응할 수 있음이 아니었다면,
원혼이 어찌 밤중에 그 모습을 드러낼 수 있었으랴?

날이 서서히 밝아오자 토병들이 일어나 국을 끓였다. 무송도 세수를 하고 몸을 정돈했다. 여인 또한 아래층으로 내려오더니 무송을 보며 말했다.

'서방님, 어젯밤에 마음이 번거로우셨습니까?'

무송이 물었다.

'형수님, 우리 형님은 도대체 무슨 병으로 돌아가신 겁니까?'

여인이 대답했다.

'서방님, 어찌 벌써 잊으셨습니까? 어젯밤에 이미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가슴이 아픈 병(心疼病)으로 돌아가셨다고요.'

무송이 다시 물었다.

'그러면 누구에게서 약을 지어다 드신 겁니까?'

'여기 그 약 처방이 붙어 있습니다.'

무송이 또 물었다.

'관은 또 누가 샀습니까?'

'옆집 왕 의모(乾娘)께 부탁해서 사 오게 했습니다.'

'그럼 시신을 메고 나가는 일은 누가 했습니까?'

'이곳의 단두(團頭, 시신 운반 일꾼들의 우두머리) 하구숙(何九叔)이 모두 알아서 처리해 내갔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선 현청에 가서 출근 도장(畫卯)을 찍고 다시 오겠습니다.'

무송은 자리에서 일어나 토병들을 데리고 자석가 골목 어귀로 나갔다. 그리고 토병에게 물었다.

'네가 단두 하구숙을 아느냐?'

토병이 대답했다.

'도두님, 벌써 잊으셨습니까? 얼마 전에도 그분이 도두님께 축하 인사를 드리러 오지 않았습니까. 그분 댁은 사자가(獅子街) 골목 안에 있습니다.'

'그럼 나를 그곳으로 안내해라.'

토병이 무송을 하구숙의 집 앞까지 안내하자 무송이 말했다.

'너는 먼저 가 있거라.'

토병이 물러가자 무송은 발을 걷어 올리며 큰 소리로 불렀다.

'하구숙, 집에 있는가?'

하구숙은 막 잠에서 깨어났다가 무송이 찾아왔다는 소리를 듣고는 혼비백산했다. 두건도 제대로 쓰지 못한 채 허둥지둥 은자와 유골(骨殖)을 챙겨 몸에 감추고는 급히 마중을 나왔다.

'도두님, 언제 돌아오셨습니까?'

무송이 말했다.

'어제 막 이곳에 돌아왔네. 잠시 드릴 말씀이 있으니, 함께 좀 가주어야겠네.'

하구숙이 말했다.

'소인이 곧바로 따라가겠습니다. 도두님, 우선 차라도 한 잔 드시고 가시지요.'

무송이 대답했다.

'그럴 필요 없네. 사양하겠네.'

두 사람은 함께 골목 어귀의 주막으로 가서 자리를 잡고 앉아, 술을 파는 사람에게 술 두 항아리를 가져오라고 시켰다. 하구숙이 일어나며 말했다.

"소인이 도두님을 위해 환영하는 자리조차 마련하지 못했는데, 어찌 이리 갑작스럽게 찾아오셨습니까?"

무송이 말했다.

"일단 앉게."

하구숙은 속으로 이미 짐작 가는 바가 팔구 할은 되었다. 술을 파는 사람이 술을 거르고 있는 동안 무송은 입을 열지 않고 오로지 술만 마셨다. 하구숙은 무송이 아무 말이 없자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끼며, 슬쩍 말을 건네 보았다. 하지만 무송은 대꾸도 하지 않고 아예 말을 꺼내지도 않았다. 술이 몇 잔 오갔을 무렵, 무송이 갑자기 옷을 걷어올리더니 날카로운 단도를 휙 꺼내 탁자 위에 꽂았다. 술을 파는 사람은 너무 놀라 멍하니 서서 감히 가까이 오지도 못했다. 하구숙은 안색이 창백해져서 감히 숨도 크게 쉬지 못했다. 무송은 소매를 걷어붙이고 단도를 움켜쥔 채 하구숙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놈아, 내가 비록 무식하나 '원한에는 제 주인이 있고, 빚에는 제 채권자가 있다'는 말은 안다. 겁먹지 말고 사실대로만 말해라. 우리 무대가 왜 죽었는지 하나하나 다 말한다면 네 일에는 관여하지 않겠다! 만약 내가 너를 해친다면 내가 호걸이 아니다! 하지만 만약 한 마디라도 거짓을 말한다면, 이 칼로 네 몸에 수백 개의 구멍을 뚫어버리겠다! 쓸데없는 소리는 집어치우고, 우리 형님의 시신이 대체 어떤 모습이었는지 똑바로 말해라!"

무송은 말을 마친 뒤 양손으로 무릎을 짚고, 눈을 부릅뜬 채 하구숙을 노려보았다.

하구숙은 소매 안에서 주머니 하나를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도두님, 부디 노여움을 푸십시오. 이 주머니 안에 모든 증거가 들어 있습니다."

무송이 손으로 주머니를 열어보니, 그 안에는 검게 탄 뼈 두 조각과 은자 열 냥이 들어 있었다. 무송이 물었다.

"이것이 어째서 결정적인 증거가 된다는 말이냐?"

하구숙이 말했다.

"소인은 앞뒤 사정을 자세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저 정월 이십이일에 집에 있는데, 찻집을 운영하는 왕파가 찾아와 무대 님의 시신을 수습해 달라고 부르더군요. 그래서 자석가 골목 어귀로 나갔더니, 현청 앞에서 약방을 하는 서문경 대랑이 마중 나와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붙잡아 술집으로 데려가더니 술 한 병을 대접했습니다. 그러고는 서문경이 이 은자 열 냥을 꺼내 제게 건네며 이렇게 분부했습니다. '수습하는 시신에 대해서는 모든 일을 덮어 가려 주시오.' 소인은 그자가 본디 못된 놈이라는 걸 잘 알고 있었기에 거절할 수도 없었습니다. 술과 음식을 먹고 은자를 받은 뒤 무대 님 댁으로 가서 천추번(千秋旛, 장례용 깃발)을 들어 올리고 살피니, 칠규(七竅, 일곱 구멍) 안에 어혈(瘀血)이 맺혀 있고 입술에는 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분명 살아생전에 독을 먹고 죽은 시신이었습니다. 소인도 원래는 이 사실을 떠벌리려 했으나, 하필이면 고주(苦主, 피해자 측 가족)가 없었습니다. 게다가 무대 님의 아내는 이미 남편이 가슴앓이(心疼病)로 죽었다고 말해 버린 뒤였습니다. 그래서 소인은 차마 입을 떼지 못하고, 스스로 혀끝을 깨물어 갑자기 중악(中惡, 악기에 쐬는 병)에 걸린 것처럼 꾸며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화가(火家, 장례 일꾼)들이 알아서 시신을 수습하였고, 소인은 단 한 푼도 받지 않았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시신을 메고 나가 화장한다는 소식을 듣고 소인이 종이 한 뭉치(一陌)를 사 들고 산소(山頭)에 가서 조문을 드리는 척하면서, 왕파와 영형수(令嫂, 도두님의 형수)를 다른 데로 따돌린 다음 몰래 이 뼈 두 조각을 주워서 싸 가지고 집에 보관해 두었습니다. 이 뼈가 푸석하고 검게 변한 것이 바로 독약에 죽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이 종이에 적힌 연·월·일·시와 상여를 메고 간 사람들(送喪人)의 이름이 바로 소인의 진술입니다. 도두님께서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무송이 물었다.

"간통한 놈은 또 누구냐?"

하구숙이 말했다.

"그게 누구인지는 소인도 잘 모릅니다. 다만 평소에 듣기로는, 배를 파는 운가라는 소년이 있는데, 그 아이가 예전에 무대 님과 함께 찻집에 가서 간통 현장을 잡으려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거리에서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없으니, 도두님께서 자세한 내막을 알고 싶으시다면 운가에게 물어보십시오."

무송이 말했다.

"알았다. 마침 그 아이가 있다면 함께 가서 확인해 보자꾸나."

무송은 칼을 거두고 뼈와 은자를 챙긴 뒤, 술값을 계산하고는 하구숙과 함께 운가의 집으로 향했다.

마침 운가의 집 앞에 도착하니, 그 어린 원숭이(小猴子) 같은 녀석이 손에 버들고리(柳籠栲栳)를 들고 쌀을 사서 돌아오는 길이었다. 하구숙이 소리쳐 불렀다.

"운가야, 이 도두님을 알아보겠느냐?"

운가가 대답했다.

"호랑이(大蟲)를 잡아 압송해 오실 때 이미 뵈었습니다. 두 분께서 저를 무슨 일로 찾으십니까?"

운가도 분위기를 어느 정도 짐작했는지 이렇게 말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저희 노부친께서 예순이신데 돌봐드릴 사람이 없습니다. 두 분과 함께 관가에 가서 송사에 휘말릴 형편이 못 됩니다."

무송이 말했다.

"착한 아우로구나."

그러고는 곁에서 은자 다섯 냥을 꺼내 건네며 말했다.

"운가야, 이 돈을 가져다가 노부친 노자(盤纏)로 쓰시게 해드린 뒤, 나를 따라와서 이야기 좀 하자."

운가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은자 다섯 냥이면 어찌 서너 달 노자가 안 되겠는가? 그분과 함께 송사에 휘말려도 무방하겠다.'

운가는 은자와 쌀을 노부친께 가져다드린 뒤, 두 사람을 따라 골목 어귀의 한 식당 이층으로 올라갔다. 무송이 점원(過賣)을 불러 밥 세 사람분을 차려오게 한 뒤 운가에게 말했다.

"아우야, 네 나이가 어림에도 집안을 돌보고 효도하려는 마음이 참으로 기특하구나. 방금 너에게 준 은자는 우선 노자로 쓰거라. 너에게 부탁할 일이 있다. 일이 다 끝나면 네 밑천(本錢) 삼게 은자 열네다섯 냥을 더 주마. 자, 이제 네가 예전에 어떻게 우리 형님과 함께 찻집에 가서 간통 현장을 잡으려 했는지 자세히 말해 보아라."

운가가 말했다.

"말씀드릴 테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올해 정월 열사흘에 설리(雪梨, 흰배) 한 바구니를 들고 나갔을 때였습니다. 서문경 대랑을 찾아가 한 푼이라도 얻어볼까(掛一勾子) 하여 돌아다녔는데, 도무지 보이지 않더군요.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그자는 자석가 왕파의 찻집에서 떡 장수 무대의 아내와 한데 어울려, 요즘 두 년놈이 붙어먹어 매일 그곳에만 처박혀 있다'고 하더군요. 그 말을 듣자마자 곧장 그곳으로 달려갔는데, 아뿔싸, 그 왕파 늙은 돼지개(老豬狗) 같은 년이 저를 가로막고 방 안으로 못 들어가게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제가 그년의 비밀스러운 밑바닥을 건드리는 말을 좀 쏘아붙였더니, 그 돼지개 같은 년이 저에게 한바탕 알밤(栗暴)을 먹여 두들겨 패고는 사정없이 밖

으로 내쫓고, 제가 들고 있던 배까지 길바닥에 다 쏟아버렸습니다. 너무 분하고 억울해서 무대 형님을 찾아가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렸더니, 형님께서도 직접 간통 현장을 잡으러 가겠다고 하시더군요. 제가 말했습니다. '형님 혼자서는 안 됩니다. 서문경 그놈은 손발이 보통내기가 아니어서, 형님이 그놈을 잡지 못하시면 도리어 형님이 무고당할 테니 좋지 않습니다. 내일 골목 어귀에서 만나기로 합시다. 형님은 떡을 좀 적게 만들어 가지고 나오십시오. 제가 서문경이 찻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면 먼저 안으로 들어갈 테니, 형님은 짐을 맡겨두고 기다리세요. 제가 바구니를 밖으로 던지는 것을 보시면 그때 들이닥쳐서 현장을 잡으십시오.' 그래서 그날 제가 다시 배 한 바구니를 들고 곧장 찻집으로 갔습니다. 제가 그 늙은 돼지개 같은 년에게 욕을 퍼붓자, 노파가 저를 때리려 하기에 제가 먼저 바구니를 길가로 던져버리고는 머리로 그 늙은 개 같은 년을 벽에 처박았습니다. 무대 형님이 안으로 뛰어 들어갈 때 노파가 가로막으려 했지만, 제가 머리로 그년을 받쳐 막고 있어서 그년은 그저 '무대가 왔다!' 하고 소리만 질러댔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두 놈(서문경과 반금련)이 [안에서] 방문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형님은 그저 방문 밖에서 소리만 치고 계셨는데, 서문경 그놈이 [느닷없이] 방문을 열고 튀어나와 형님을 발로 차서 넘어뜨릴 줄은 미처 대비하지 못했습니다. 그 여자가 뒤따라 나와 형님을 부축하려 해도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저는 황급히 자리를 피했습니다. 그러고 닷새 이레쯤 지났는데, 형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신 건지 저는 전혀 모릅니다."

무송이 물었다.

"네 말이 사실이냐? 거짓을 말해서는 안 된다."

운가가 대답했다.

"관가에 가더라도 저는 똑같이 말할 것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잘 말했다, 아우야."

무송은 밥을 시켜 먹고 밥값을 계산한 뒤 세 사람은 아래층으로 내려왔다. 하구숙이 말했다.

"소인은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잠시 나를 따라오너라.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줘야겠다."

무송은 두 사람을 곧장 현청으로 데려갔다.

현령이 보고 물었다.

"도두, 무슨 일로 고하러 왔는가?"

무송이 고했다.

"소인의 친형 무대가 서문경과 형수가 통간하여 독약을 먹여 살해당했습니다. 여기 이 두 사람이 증인입니다. 사또께서 부디 처분해 주십시오."

현령은 먼저 하구숙과 운가의 진술을 들은 뒤, 그날 현의 아전들과 상의를 했다. 알고 보니 현의 아전들은 모두 서문경과 결탁한 사이였고, 현령 또한 말할 것도 없었다. 그리하여 관리들은 입을 맞추어 이렇게 말했다.

"이 일은 법대로 처리하기가 어렵겠군."

현령이 말했다.

"무송, 자네도 이 고을 도두이면서 법도를 모른단 말인가? 예부터 '간통을 잡으려면 [두 사람이] 쌍으로 있는 것을 보아야 하고, 도둑을 잡으려면 장물을 보아야 하며, 사람을 죽인 일은 상처를 보아야 한다(捉姦見雙, 捉賊見贓, 殺人見傷)'고 하였다. 자네 형의 시신은 이미 사라졌고, 간통 현장도 직접 잡지 못했지 않은가. 지금은 그저 이 두 사람의 말뿐인데, 이 근거만으로 살인죄를 묻는다면 너무 편파적인 처사가 아니겠는가? 함부로 일을 저지르지 말고, 스스로 잘 생각해서 마땅히 행할 일이면 행하라."

무송은 품 안에서 푸석하고 검게 변한 뼈 두 조각과 은자 열 냥,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보이며 고했다.

"사또께 거듭 아룁니다. 이것들은 결코 소인이 지어낸 것이 아닙니다."

현령이 그것들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일단 일어나게. 내가 두고 좀 더 의논해 보겠네. 처리할 만한 일이면 자네를 위해 잡아 심문하겠네."

하구숙과 운가는 무송에 의해 방 안에 남겨졌다. 그날 서문경은 이 소식을 듣고 즉시 심복을 보내 현청 관리들에게 은자를 뿌리며 매수했다. 다음 날 아침, 무송은 다시 관청에 가서 현령에게 사람을 잡아달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관리가 뇌물에 욕심을 내어 내놓았던 뼈와 은자를 도로 내주며 이렇게 말했다.

"무송, 남의 부추김을 받아 서문경과 적대 관계를 맺으려 하지 말게. 이 일은 명백하지 않으니 법대로 따지기 어렵네.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눈으로 본 일도 오히려 진실이 아닐까 두려운데, 등 뒤에서 들리는 말을 어찌 온전히 믿을 수 있겠는가?(經目之事, 猶恐未真; 背後之言, 豈能全信?)'라고 하셨네. 한순간의 경솔함으로 일을 저지르지 말게."

옥리(獄吏)도 거들었다.

"도두님, 무릇 사람의 목숨이 걸린 사건은 시신(屍)·상처(傷)·병증(病)·물증(物)·종적(蹤) — 이 다섯 가지가 모두 갖춰져야 비로소 추궁할 수 있는 법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기왕 사또께서 제 고발을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그렇다면 [소인이] 따로 강구하겠습니다."

[무송은] 은자와 뼈를 거두어 다시 하구숙에게 맡겨 보관하게 했다. 관청에서 내려와 자기 방으로 돌아온 뒤, 토병(土兵)들에게 명령하여 밥을 차려와 하구숙과 운가에게 함께 대접하게 하고는 말했다.

"방에서 잠시 기다리고 있거라. 나는 잠시 다녀오마."

무송은 따로 토병(土兵) 두세 명을 데리고 현청을 나서며 벼루(硯瓦)와 붓·먹을 챙기고 종이 서너 장을 사서 몸에 숨겼다. 그러고는 토병 두 명에게 돼지머리 하나·거위 한 마리·닭 한 마리·술 한 짐(一擔)과 과일 따위를 사 가지고 가서 집에 차려 놓도록 시켰다. 대략 사패(巳牌, 오전 9~11시) 무렵, 토병들을 거느리고 집으로 돌아왔다. 그 여자는 고발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소식을 이미 알고 있었기에 마음을 놓고 무서워하지도 않고, 무송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며 배짱 좋게 그를 맞이했다. 무송이 외쳤다.

"형수님, 내려오십시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 여자가 천천히 계단을 내려오며 물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무송이 말했다.

"내일은 돌아가신 형님의 단칠(斷七, 7×7=49일째 되는 종재)입니다. 형수님께서 지난번에 여러 이웃 사람들을 노엽게 하셨기에, 제가 오늘 특별히 술 한 잔을 마련하여 형수님을 대신해 여러 이웃들에게 사례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자 그 여자가 뾰루퉁하게 대꾸했다.

"그자들에게 사례는 무슨 사례를 한단 말입니까!"

무송이 말했다.

"예의를 빠뜨릴 수는 없습니다."

무송은 토병들을 시켜 먼저 영전(靈床) 앞에 가서 환하게 촛불 두 자루를 켜고 향을 한 화로 피우게 한 뒤, 종이돈(紙錢) 한 묶음(一陌)을 늘어놓고 제물들을 영전에 진설하니, 쟁반 가득 차고 잔치상이 가득해 술·음식·과일 따위가 차곡차곡 놓였다. 한 토병에게는 뒤에서 술을 데우게(盪酒) 하고, 두 토병에게는 문 앞에 탁자와 의자를 놓게 했으며, 또 두 명에게는 앞뒤로 문을 지키게 했다. 무송이 직접 분부를 마치고는 외쳤다.

"형수님, 손님 맞이를 좀 거들어 주십시오. 제가 가서 모셔 오겠습니다."

먼저 옆집 왕파를 청했다. 왕파가 말했다.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도두께서 사례하시는 게지요."

무송이 말했다.

"건낭(乾娘, 의어머니/수양어머니)께 폐를 많이 끼쳤으니 그럴 만한 까닭이 있습니다. 우선 변변찮은 술·안주 한 잔 차려 놓았으니 사양하지 마십시오."

노파는 [가게의] 간판(招兒)을 거두고 문단속을 한 뒤, 뒷문으로 건너왔다.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은 상석에 앉으시고, 건낭은 마주 앉으십시오."

노파는 서문경이 이미 답을 보내온 것을 알고 있었기에 마음 놓고 술을 마셨다. 두 사람 모두 속으로 '저놈이 대체 어쩔 셈인가?' 하고 생각했다. 무송은 이어 이쪽 옆집 은방(銀鋪)을 하는 요이랑(姚二郎) 요문경을 청했다. 요이랑이 말했다.

"소인은 좀 바빠서 도두께서 수고하실 것 없습니다."

무송은 그를 붙들며 말했다.

"변변찮은 술 한 잔이니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댁으로 가시지요."

요이랑은 어쩔 수 없이 따라와 왕파의 아래 자리에 앉게 되었다. 또 맞은편 두 집을 청했는데, 한 집은 지마포(紙馬鋪, 종이로 만든 제수용 그림·인형을 파는 가게)를 하는 조사랑(趙四郎) 조중명이었다. 조사랑이 말했다.

"소인은 장사를 팽개칠 수가 없어 모실 수가 없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여러 이웃분들이 다 거기 와 계십니다."

그는 거절하지 못하고 무송에게 끌려 들어와, '어르신은 아버지와 같으십니다' 하며 형수의 아래 자리에 앉게 되었다. 이어 맞은편의 찬 술

을 파는 주점(冷酒店) 주인 호정경(胡正卿)을 청했다. 그 사람은 원래 아전(吏員) 출신이라 뭔가 께름칙한 것을 눈치채고 오려 하지 않았으나, 무송이 아랑곳하지 않고 끌고 와 조사랑의 아래 자리에 앉혔다. 무송이 왕파에게 물었다.

"왕파, 옆집은 누구입니까?"

왕파가 대답했다.

"저 집은 골돌아(餶飿兒, 작은 만두/완자)를 파는 장공(張公)입니다."

마침 [장공이] 방 안에 있다가 무송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물었다.

"도두님,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무송이 말했다.

"집안일로 이웃들에게 폐를 많이 끼쳤으니, 변변찮으나마 술 한 잔 드시라고 모시러 왔습니다."

노인이 말했다.

"아이고! 이 늙은이가 도두님 댁에 예의를 갖춰 찾아간 적도 없는데, 어찌 도리어 술을 대접하신단 말씀입니까?"

무송이 말했다.

"미미한 정성이오니 부디 와 주십시오."

노인은 무송에게 끌려 들어와 요이랑의 아래 자리에 앉았다.

이야기가 이러하다. 그런데 왜 사람들이 자리를 뜨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것인가? 알고 보니 군사들이 앞뒤로 문을 지키고 서 있어서, 마치 모두가 감금된 것과 같은 형국이었기 때문이다.

한편, 무송이 이웃 네 집과 왕파, 그리고 형수까지 모두 청하니 도합 여섯 사람이었다. 무송은 의자를 가져다 옆쪽 끝에 앉고는 토병들에게 앞뒤 문을 모두 닫게 했다. 뒤에 있던 토병은 직접 술을 걸렀다. 무송이 크게 읍(大喏)하며 말했다.

"여러 이웃분들, 소인이 거칠고 무례한 점을 탓하지 마시고 변변찮으나마 모셨으니 받아 주십시오."

이웃들이 말했다.

"우리가 도두님께 도리어 세니접풍(洗泥接風, 먼 길을 다녀온 이를 위한 환영연)도 못 차려 드렸는데, 오히려 폐를 끼치게 되었군요."

무송이 웃으며 말했다.

"성의가 없으니 여러 이웃분들께서는 부디 비웃지 마십시오."

토병들은 계속해서 술을 걸러 따랐다. 사람들은 속에 꿍꿍이가 있어 어찌해야 할지 몰라 했다. 술이 세 잔쯤 돌았을 때, 호정경이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소인이 좀 바빠서 이만 가보겠습니다."

무송이 외쳤다.

"못 가십니다! 이미 여기까지 오셨으니 바쁘시더라도 잠시 앉아 계십시오."

호정경은 마음속에 '열다섯 개의 두레박이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올리듯 칠상팔하(十五個弔桶打水, 七上八下)'로 두근거려, 속으로 '좋은 뜻으로 술을 대접한다더니, 어찌 이리 사람을 붙잡아두고 일어나지도 못하게 한단 말인가?' 하며 의아해했다. 그는 결국 다시 앉을 수밖에 없었다. 무송이 다시 말했다.

"술을 더 걸러 따라라."

토병이 네 잔째를 따르고, 앞뒤로 모두 일곱 잔을 마실 동안, 사람들은 마치 여태후(呂太後, 한 고조의 황후로 잔혹하기로 악명 높음)의 천번 연회에 끌려간 듯 [한 잔 한 잔마다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이었다. 그때 무송이 토병에게 술잔과 접시를 일단 거두라 호령하고, 잠시 후 다시 마시자고 했다. 무송이 탁자를 닦자, 이웃들이 슬슬 일어나려 하니 무송이 두 손을 쫙 뻗어 가로막으며 말했다.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 이웃분들이 다 여기 계신데, 이 가운데 글을 쓸 줄 아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요이랑이 바로 대답했다.

"여기 계신 호정경 님이 글씨를 아주 잘 쓰십니다."

무송이 다시 읍하며 말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양 소매를 걷어붙이더니 옷 속에서 '쉭' 하는 소리와 함께 그 첨도(尖刀, 끝이 뾰족한 칼) 한 자루를 뽑아 들었다. 오른손 네 손가락으로 칼자루(刀靶)를 감싸 쥐고 엄지손가락으로 엄심(掩心, 칼등)을 누른 채, 부릅뜬 두 둥글둥글한 무서운 눈을 번뜩이며 말했다.

"여러 이웃분들 잘 들으십시오. 원한에는 원한의 임자가 있고 빚에는 빚의 임자가 있는 법(冤各有頭, 債各有主), 그저 여러분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무송이 왼손으로는 형수를 붙잡고 오른손으로는 왕파를 가리키니, 이웃 네 집 사람들은 너무 놀라 눈이 휘둥그레지고 입이 다물어진 채 어찌할 바를 몰랐다. 모두가 서로 눈치만 살필 뿐 감히 소리도 내지 못했다. 무송이 말했다.

"여러 이웃분들, 탓하지 마시고 놀라지도 마십시오. 이 무송이 비록 거친 사내이고 죽음조차 두렵지 않지만, 그래도 '원한이 있으면 원한을 갚고, 원수가 있으면 원수를 갚는다(有冤報冤, 有讎報讎)'는 도리는 알고 있어 결코 여러분께는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이니, 그저 여러 이웃분들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기만을 부탁드립니다. 만약 한 분이라도 먼저 일어나 가시려 한다면, 그때는 이 무송이 안색이 변해도 탓하지 마십시오. 그자에게 먼저 나의 다섯에서 일곱 자루의 칼을 받게 한 뒤, 이 무이(武二)가 [제 목숨으로] 그자의 목숨값을 갚는다 해도 무방합니다."

이웃들은 모두 멍하니 입을 벌린 채, 다시는 감히 움직이지 못했다.

무송이 왕파를 노려보며 호통을 쳤다.

"이 늙은 돼지 같은 년아, 똑똑히 들어라! 내 형님의 목숨이 네놈 손에 달려 있으니, 천천히 다 물어봐 주마!"

그러고는 고개를 돌려 형수를 바라보며 꾸짖었다.

"이 음탕한 여편네야, 잘 들어라! 내 형님의 목숨을 네가 어떻게 해쳤는지 사실대로 자백한다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마."

형수가 말했다.

"서방님, 너무 무리한 말씀을 하시는군요! 형님께서는 스스로 가슴 통증을 호소하시며 병으로 돌아가신 것인데, 저와 무슨 상관이란 말입니까! ……"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무송은 칼을 탁자 위에 쾅 하고 꽂아버리더니 왼손으로는 여인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오른손으로는 가슴팍을 낚아챘다. 그러고는 발로 탁자를 걷어차 넘어뜨린 뒤, 탁자 너머로 여인을 가볍게 끌어당겨 제상 앞에 엎어놓고는 두 다리로 짓눌렀다. 무송은 오른손으로 칼을 뽑아 들어 왕파를 겨누며 말했다.

"늙은 돼지 같은 년아, 사실대로 말해라!"

왕파는 빠져나가려 했으나 도망칠 길이 없자 결국 말했다.

"도두님께서 화를 내실 것 없습니다. 이 늙은이가 알아서 말하겠습니다."

무송은 군사들에게 종이와 먹, 붓, 벼루를 가져오게 하여 탁자 위에 가지런히 놓게 한 뒤, 칼끝으로 호정경을 가리키며 말했다.

"부탁하건대, 내가 한 마디 하면 한 문장씩 써 주시오."

호정경이 벌벌 떨며 대답했다.

"소인이 쓰겠습니다."

벼루에 물을 받아 먹을 갈게 한 뒤, 호정경이 붓을 들고 종이를 펼치자 무송이 말했다.

"왕파, 사실대로 말해!"

왕파가 말했다.

"저와는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인데 어찌 말하라는 것입니까?"

무송이 말했다.

"이 늙은 년아, 나는 이미 다 알고 있으니 어디서 발뺌을 하려느냐! 네가 말하지 않는다면, 내가 먼저 이 음탕한 여편네를 베어버리고 그다음에 너 같은 늙은 개를 죽여버리겠다."

무송이 칼을 들어 여인의 얼굴을 향해 내리치려 하자, 여인이 당황하며 비명을 질렀다.

"서방님, 제발 살려주세요! 저를 일으켜 세워만 주시면 다 말하겠습니다!"

무송은 여인을 번쩍 들어 올려 제상 앞에 무릎을 꿇렸다. 그리고 호통을 쳤다.

"음탕한 여편네야, 어서 말해라!"

여인은 혼비백산하여 어쩔 줄 모르더니 결국 사실대로 자백하기 시작했다. 그날 주렴을 내리다가 (받침대가) 서문경을 친 일로부터 시작하여, 함께 옷을 짓고 만나 정을 통하게 된 일까지 하나하나 털어놓았다. 그다음에 어떻게 (서문경이) 무대(武大)를 걷어찼는지, 어떤 계략으로 독약을 먹였는지, 그리고 왕파가 어떻게 부추기고 사주했는지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낱낱이 자백하였다. 무송은 여인이 한 마디 하면 호정경에게 한 문장씩 받아쓰게 했다. 왕파가 말했다.

"교충(咬蟲)아, 네가 먼저 다 불어버렸으니 내가 어찌 발뺌하겠느냐, 이 늙은 몸만 고생이로구나!"

결국 왕파도 자백할 수밖에 없었다. 이 노파의 진술 또한 호정경에게 받아 적게 하였다.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내용이 종이 위에 기록되었다. 무송은 두 사람에게 손가락으로 지장을 찍고 서명하게 한 뒤, 이웃 네 집 사람들에게도 이름을 쓰고 서명하게 했다. 그러고는 토병에게 명하여 전대(搭膊)를 풀어 이 늙은 개 같은 왕파의 두 팔을 뒤로 묶게 하고, 작성된 자백서를 둘둘 말아 품속에 갈무리하였다. 또 토병에게 술 한 사발을 가져오게 하여 제상 앞에 올린 뒤, 여인을 끌어와 영전 앞

에 무릎 꿇리고, 왕파에게도 호통을 쳐 영전 앞에 무릎 꿇게 했다. 무송이 말했다.

"형님, 영혼이 멀리 있지 않으시리니, 아우 무이(武二)가 형님의 원수를 갚고 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무송은 토병에게 명하여 지전(紙錢)을 사르게 했다.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여인이 비명을 지르려 하자, 무송은 그녀의 머리채를 잡아 눕히고는 두 발로 그녀의 양팔을 짓밟아 가슴팍의 옷을 헤쳐 젖혔다. 말하는 순간보다 손이 더 빨랐으니, 날카로운 칼로 가슴팍을 단번에 도려내고는 입에 칼을 문 채 양손으로 가슴을 파헤쳐 심장과 간, 오장(五臟)을 끄집어내 영전에 바쳤다. 그러고는 단칼에 여인의 머리를 베어 버리니 피가 바닥에 흥건히 흘렀다. 이웃 네 집 사람들은 소스라치게 놀라 모두 얼굴을 가렸고, 무송의 기세가 너무 흉포하여 감히 움직이지 못한 채 그저 시키는 대로 따를 뿐이었다.

무송은 토병에게 위층에서 이불 한 채를 가져오게 하여 여인의 머리를 싸게 했다. 그러고는 칼을 닦아 칼집에 꽂고 손을 씻은 뒤, 한 차례 읍(揖)하며 말했다.

"이웃 여러분, 번거롭게 해드려 정말 송구합니다. 부디 위층에 올라가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저 무이가 곧 올라가겠습니다."

이웃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감히 거역하지 못하고, 모두 위층으로 올라가 앉았다. 무송은 토병들에게 분부하여 그 노파(왕파)도 위층으로 압송해 올려보내게 하였다. 그러고는 위층 문을 닫게 한 뒤, 토병 두 명을 시켜 아래층에서 지키게 했다.

무송은 여인의 머리를 이불에 싸서 곧장 서문경의 약방으로 달려갔다. 약방의 관리인을 보고 예를 갖추어 물었다.

"서문 대관인이 계시는가?"

관리가 대답했다.

"방금 나가셨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잠시 따로 이야기 좀 나누세."

그 관리인도 무송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기에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따라나섰다. 무송은 그를 인적이 드문 옆 골목으로 끌고 갔다. 그러고는 얼굴을 싹 바꾸며 말했다.

"죽고 싶으냐, 아니면 살고 싶으냐?"

관리가 당황하며 말했다.

"도두님, 소인이 도두님께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습니까?"

무송이 말했다.

"죽고 싶다면 서문경이 어디로 갔는지 말하지 마라. 하지만 살고 싶다면 서문경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사실대로 말해라."

관리가 대답했다.

"그게, 방금 아는 사람과 함께 사자교 아래에 있는 큰 주루에 술을 마시러 갔습니다."

무송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몸을 돌려 떠났다. 관리인은 한동안 너무 놀라 발이 떨어지지 않아 멍하니 서 있다가, 겨우 정신을 차리고 자리를 떴다.

한편, 무송은 곧장 사자교 아래 주루로 달려가 주보(酒保, 술집 점원)에게 물었다.

"서문경 대랑이 누구와 술을 마시고 있는가?"

주보가 대답했다.

"비슷한 처지의 재주(財主, 부자) 한 분과 함께 위층 거리 쪽 누각방에서 술을 드시고 계십니다."

무송은 곧장 위층으로 올라가 누각방 앞으로 다가갔다. 창문 틈으로 엿보니 서문경이 상석에 앉아 있고, 맞은편 손님석에는 한 사람이 앉아 있었으며, 양옆에는 노래하는 기녀(粉頭) 둘이 앉아 있었다. 무송이 이불 보따리를 풀어 흔들자, 피가 뚝뚝 떨어지는 사람 머리가 데굴데굴 굴러 나왔다. 무송은 왼손으로 머리를 치켜들고 오른손으로는 날카로운 칼을 뽑아 들었다. 그러고는 발을 젖히고 안으로 뛰어들어, 여인의 머리를 서문경의 얼굴을 향해 내동댕이쳤다. 서문경은 상대가 무송인 것을 알아보고는 깜짝 놀라 "아이고!" 하고 비명을 질렀다. 그는 급히 의자 위로 뛰어오르더니, 한쪽 발을 창틀에 걸치고 도망칠 길을 찾으려

했다. 하지만 아래가 바로 거리라 뛰어내릴 수도 없어 마음속으로 어찌할 바를 몰라 당황하고 있었다.

말하는 순간보다 일이 더 빨랐다. 무송은 손으로 살짝 짚는가 싶더니 어느새 탁자 위로 훌쩍 뛰어올라 술잔과 접시들을 모두 발로 차서 떨어뜨렸다. 노래하던 기녀 둘은 너무 놀라 발이 떨어지지 않았고, 맞은편에 앉아 있던 재주(財主) 양반 역시 어찌할 바를 모르며 자빠지고 말았다. 서문경은 무송의 기세가 흉포한 것을 보고 손으로 허투루 한 번 가리키는 척하더니 어느새 오른발을 번쩍 들어 찼다. 무송은 거침없이 달려들다가 그의 발이 올라오는 것을 보고 살짝 몸을 피했다. 그 바람에 그 발길이 마침 무송의 오른손을 걷어차, 들고 있던 칼은 그대로 거리 한복판으로 날아 떨어져 버렸다.

서문경은 칼을 차서 떨어뜨리자 오히려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오른손으로 허투루 한 번 겨누는 척하면서 왼주먹으로 무송의 명치를 향해 내질렀다. 그러나 무송은 가볍게 피한 뒤 그대로 상대의 입 아래로 파고들어, 왼손으로 머리를 끼고 어깨까지 한 번에 치켜올리는 동시에, 오른손으로 서문경의 왼쪽 다리를 낚아채며 외쳤다.

"내려가라!"

서문경은 첫째로 (무대의) 원혼이 휘감아 매이고, 둘째로 천리(天理)가 용납지 않으며, 셋째로 무송의 용력을 당해낼 재간이 없으니, 머리는 아래로 가고 발은 위로 향한 채 거꾸로 거리 한복판에 내리꽂혀, 정신을 잃고 까무러치고 말았다. 거리 양옆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소스라치게 놀랐다.

무송은 의자 옆에 놓인 음부의 머리를 집어 들고는 창밖으로 몸을 날렸다. 그는 거리 한복판으로 단번에 뛰어내린 뒤, 먼저 떨어져 있던 칼을 잽싸게 낚아챘다. 서문경은 이미 반쯤 죽은 채로 바닥에 빳빳이 뻗어 눈만 끔뻑이고 있었다. 무송은 그를 짓누른 채 단칼에 서문경의 머리를 베어냈다. 그리고 두 사람의 머리를 하나로 묶어 손에 들고, 칼을 쥔 채 곧장 자석가(紫石街)로 달려갔다.

무송은 토병(土兵, 지방 군졸)에게 문을 열게 한 뒤, 두 사람의 머리를 영전 앞에 올렸다. 그러고는 차가운 술 한 사발을 제상에 부어 헌작(獻酌)하며 말했다.

"형님, 영혼이 멀리 가지 않으셨으리니 어서 천계(天界)에 오르소서! 아우가 형님을 대신해 원수를 갚아, 간부(姦夫)와 음부(淫婦)를 죽였습니다. 오늘 곧 형님을 화장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러고는 토병에게 위층으로 올라가 이웃들을 내려오게 하라 일러, 그 노파(왕파)를 앞세워 끌어내리게 하였다.

무송은 칼을 쥔 채 두 사람의 머리를 들고는, 다시 네 명의 이웃을 향해 말했다.

"여러분께 드릴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네 명의 이웃은 손을 맞잡고 공손히 서서 대답했다.

"도두(都頭, 포교)님, 말씀하십시오. 저희 모두 귀한 말씀을 듣겠습니다."

무송이 이 말을 내뱉으니, 마치 다음과 같이 읊는 듯했다.

경양강의 호걸이 억울하게 죄수가 되었고, 양곡현의 도두는 행자가 되었구나. 그 이름 천 년만 년, 역사에 길이 남으리라.

결국 무송이 무슨 말을 더 했는지, 그 뒷이야기는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27회 — 모야차 맹주도에서 사람 고기를 팔고, 무 도두가 십자파에서 장청을 만나다

母夜叉孟州道賣人肉 武都頭十字坡遇張青

이야기는 이러하다. 무송이 네 이웃에게 말했다.

"제가 형님의 원수를 갚은 것이니, 죄를 지었다 해도 마땅한 도리입니다. 죽는다 해도 원망은 없습니다. 다만 이웃 어르신들을 너무 놀라게 해드린 것 같아 송구할 따름입니다. 제가 이번에 떠나면 살아서 돌아올지 죽을지 알 수 없으니, 형님의 위패는 지금 바로 태워 없애 주십시오. 그리고 집에 남은 물건들은 번거로우시겠지만 네 분 이웃 어르신께서 잘 처분하여 돈으로 바꿔 주십시오. 관아로 가는 길에 쓸 비용으로 남겨두었다가 필요할 때 쓰겠습니다. 이제 현청에 가서 자수할 터이니, 제 죄가 무거운지 가벼운지는 따지지 마시고 그저 제가 한 일을 사실대로만 증언해 주십시오."

말을 마친 무송은 곧바로 위패와 종이돈을 가져다 태워 버렸다. 그러고는 다락방에 있는 상자 두 개를 내려와 열어본 뒤, 이웃들에게 맡기며 잘 보관했다가 팔아달라고 부탁했다. 그런 다음 왕파를 압송하고 서문경과 형수의 머리 두 개를 들고 곧장 현청으로 향했다.

이 일로 양곡현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거리에는 구경꾼들이 셀 수 없이 몰려들었다. 지현은 보고를 듣고 깜짝 놀랐으나, 곧바로 집무실로 올라갔다. 무송은 왕파를 압송하여 정청 앞에 무릎을 꿇렸고, 범행에 쓰인 칼과 머리 두 개를 계단 아래에 놓았다. 무송은 왼쪽에 무릎을 꿇고, 왕파는 가운데에, 네 이웃은 오른쪽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무송은 품 안에서 호정경이 작성한 자술서를 꺼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다. 지현은 영사(행정 실무를 담당하는 관리)를 불러 왕파에게 먼저 자백을 받아 적게 했다. 네 이웃 또한 지목하며 사실대로 명확히 증언했다. 이어 하구숙과 운가를 불러 모두 명확한 공술을 받아 적게 했다. 그러고는 담당 오작(검시관)과 행인, 그리고 위리(관아의 하급 관리) 한 명을 불러 이들을 모두 자석가로 데려가 여인의 시신을 검사하게 하고, 다시 사자교 아래 주막 앞으로 가서 서문경의 시신을 검사하게 했다. 검사가 끝나자 시신 검사 보고서의 항목들을 명확히 기입하여 현청으로 돌아온 뒤, 정식으로 사건을 접수했다. 지현은 긴 칼을 가져오게 하여 무송과 왕파에게 칼을 씌워 옥에 가두었고, 나머지 관련 참고인들은 문간방에 임시로 가두어 두었다.

한편, 현령은 무송이 의리가 넘치는 사내라는 점을 생각했다. 또한 그가 이번에 경사(수도)까지 다녀온 것을 떠올리며 어떻게든 그를 보

살펴 주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다. 게다가 그의 좋은 점까지 따져본 현령은 관련 관리를 불러 상의하며 말했다.

"무송 그자는 의리가 있는 사내다. 저들의 자술서를 새로 작성해라. 내용을 이렇게 고치는 것이다. '무송이 죽은 형 무대를 위해 제사를 지내려는데, 형수가 제사를 허락하지 않아 다툼이 일어났다. 형수가 위패가 놓인 영상(靈床)을 밀어 넘어뜨리자, 무송이 형의 신주(神主)를 지키려다 형수와 몸싸움을 벌여 그만 죽이게 되었다. 그 뒤 서문경이 본부인(형수)과 간통한 일이 있던 까닭에 (형수를) 비호하려 달려와 다툼이 벌어졌고, 서로 굽히지 않고 사자교 근처까지 뒤엉켜 싸우다 결국 서문경을 때려 죽이게 되었다'라고 적어라."

현령은 이렇게 고쳐 쓴 공문을 무송에게 읽어준 뒤, 압송 공문을 작성하여 이 죄인들을 관할 구역인 동평부로 압송해 판결을 신청하도록 명령했다. 양곡현은 비록 작은 현이었으나 의로운 사람들이 많았다. 부유한 집안에서는 무송에게 은자를 보태주기도 했고, 어떤 이들은 술과 고기, 돈과 쌀을 보내주기도 했다. 무송은 머무는 곳에 도착해 짐을 관리하는 토병에게 맡긴 뒤, 은자 십이삼 냥을 운가의 아버지에게 건넸다. 무송을 관할하던 토병들도 대부분 끊임없이 술과 고기를 대접했다. 그사이 현청 관리는 공문을 받아 서류 뭉치와 하구숙이 준 은자, 유골, 자술서, 칼과 몽둥이를 챙겨 죄인들을 이끌고 동평부를 향해 길을 떠났다.

사람들이 부(府)에 도착하자, 관아 입구는 구경꾼들로 북새통을 이뤘다. 한편, 동평부윤 진문소는 보고를 듣고 곧바로 집무실로 올라갔다. 그 관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평생을 곧게 살았고, 타고난 성품은 어질고 명철하네.
어릴 적엔 눈빛에 비춰 책상에서 글을 읽고, 자라서는 금란전(金鑾殿)에서 대책을 논했네.
호구는 늘어나고 세금은 잘 거두어지니, 백성들은 덕망을 칭송하며 거리에 가득하고,
송사는 줄어들고 도둑도 사라지니, 마을 어른들은 노래하며 시장을 가득 메우네.
기개 넘치는 문장은 이백과 두보를 무색하게 하고, 어진 덕정(德政)은 공수(龔遂)와 황패(黃霸)를 능가하네.

진문소 부윤은 총명하고 사리에 밝은 관리여서 이미 이 사건의 내막을 알고 있었다. 그는 먼저 죄인들을 압송해 오게 한 뒤, 집무실에서 양곡현의 신청 공문을 먼저 살폈다. 이어 각자의 자술서와 진술서까지 꼼꼼히 읽어본 뒤, 죄인들을 한 명씩 불러 다시금 심문하여 기록했다. 범행에 쓰인 흉기와 칼, 몽둥이 등은 봉인하여 창고지기에게 넘겨 창고에 보관하게 했다. 무송에게는 무거운 칼(장가) 대신 가벼운 죄를 지은 자에게 쓰는 칼을 채워 옥에 가두었고, 왕파에게는 무거운 죄를 지은 죄수용 칼을 채워 제사사(提事司)의 사형수 감옥에 가두었다.

이어 현청 관리를 불러 회신 공문을 내리며 하구숙, 운가, 그리고 이웃 네 집 사람들에게 명했다.

"이 여섯 명은 다시 현으로 데려가서, 각자 집으로 돌려보내 처분을 기다리게 하라. 본 사건의 본주(本主)인 서문경의 처는 본부(府)에 남

겨 구금 상태로 대기시키고, 조정의 명확한 판결이 내려지면 그때 최종 결단을 내릴 것이다."

현청 관리는 하구숙과 운가, 그리고 이웃 네 집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본래의 현으로 돌아갔다. 무송은 옥에 갇혔으나, 몇몇 토병들이 알아서 밥을 가져다주었다.

한편, 진문소 부윤은 무송이 의로운 사나이라는 점을 가엾게 여겨 수시로 사람을 보내 그를 보살피게 했다. 덕분에 옥의 절급(節級)과 간수들은 무송에게 돈 한 푼 받지 않고 오히려 술과 음식을 가져다주며 대접했다. 진문소 부윤은 자술서와 사건 기록을 모두 가벼운 죄로 고쳐 쓴 뒤, 이를 성원(省院)에 올려 자세한 심의를 요청했다. 그러면서 심복 한 명을 보내 요긴한 비밀 편지를 들려 보냈으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경사(京師, 수도)로 달려가 대신 일을 처리하게 했다.

마침 형부의 관리 중에 진문소와 친분이 있는 자가 있었는데, 그는 이 사건을 성원의 관리에게 직접 보고하여 죄를 논의했다.

"왕파는 일을 꾸며내고 본부인(반금련)을 꾀어 간통하게 하였으며, 본부인으로 하여금 친남편에게 약을 먹여 독살하게 사주하였다. 또 본부인으로 하여금 무송을 쫓아내게 하여 친형의 제사를 지내지 못하게 함으로써 사람의 목숨을 앗아가는 일에 이르게 했으니, 남녀로 하여금 인륜을 저버리게 한 죄를 물어 능지처사(凌遲處死)에 처함이 마땅하다. 무송의 경우, 비록 형의 원수를 갚으려 간부(姦夫) 서문경을 싸움 끝에 죽인 것이며 스스로 자수하였으나, 그래도 죄를 면하기는 어렵다. 척장(脊杖) 마흔 대를 치고, 이천 리 밖으로 자배(刺配)한다. 간통

한 남녀는 비록 중죄에 해당하나 이미 죽었으니 논하지 않는다. 나머지 죄인들은 풀어 집으로 돌려보내라. 서류가 도착하는 대로 즉시 집행하라."

동평부윤 진문소는 내려온 공문을 확인한 뒤 즉시 집행에 들어갔다. 하구숙과 운가, 이웃 네 집 사람들과 서문경의 처를 포함한 죄인들을 모두 관아 앞뜰로 불러 모아 판결을 듣게 했다. 옥에서 무송을 데려와 조정의 명확한 판결을 읽어준 뒤, 무거운 칼을 풀어주고 척장(脊杖) 마흔 대를 치게 했다. 위아래 공인들이 모두 무송을 가엾게 여겨 봐주었기에, 실제로 살에 닿게 제대로 친 매는 다섯에서 일곱 대에 불과했다. 그러고는 칠 근 반짜리 둥근 머리[團頭] 철엽(鐵葉) 호신가(護身枷)를 채워 못을 박았고, 얼굴에는 두 줄의 '금인(金印, 자자)'을 새기는 것을 피할 수 없었으며, 이 상태로 맹주(孟州) 뇌성영(牢城)으로 압송하게 했다. 나머지 사람들에게는 타일러 처분을 내린 뒤 각자 집으로 돌려보냈다.

대옥에서 왕파를 끌어내어 관아 앞뜰에서 명을 듣게 했다. 조정의 판결문을 읽고 범유패(犯由牌, 죄목패)를 작성한 뒤, 자복장(伏狀)에 손도장을 찍게 했다. 그러고는 이 노파를 나무 나귀(木驢)에 태우고, 네 개의 긴 못을 박고 세 줄의 밧줄로 단단히 묶었다. 동평부윤은 '과(剮, 능지처사)' 한 글자를 판결로 내리고, 그대로 큰 길가로 끌어냈다. 깨진 북소리가 두 번 울리고 깨진 징소리가 한 번 울려 퍼졌다. 범유패를 앞세우고 곤장으로 뒤에서 재촉하며, 날카로운 칼 두 자루를 높이 들고 종이꽃 한 송이를 흔들며 행렬이 이어졌다. 이들은 동평부 저잣거리 한복판으로 끌려가 능지처사를 당했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무송이 무거운 칼을 쓴 채 왕파가 처형되는 것을 지켜보고 있자니, 예전부터 알고 지내던 이웃 요이랑이 찾아왔다. 그는 무송의 가재도구를 처분해 얻은 은자를 무송에게 건네준 뒤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관아에서는 즉시 판결문을 작성하고, 두 명의 방송공인(防送公人, 죄인을 압송하는 관리)을 붙여 무송을 맹주로 압송하여 사건을 인계하도록 명했다. 부윤의 처분이 모두 내려진 것이다. 무송은 두 공인과 함께 길을 떠났고, 그를 따르던 병사들도 짐을 전달해 준 뒤 각자 본 현으로 돌아갔다. 무송은 그렇게 두 공인을 따라 동평부를 떠나, 맹주를 향해 길을 재촉하며 나아갔다.

두 공인은 무송이 대단한 호걸임을 알고 있었기에, 길을 가는 내내 무송을 정성껏 모시며 감히 함부로 대하지 못했다. 무송은 두 사람이 조심스럽게 구는 것을 보고도 굳이 따지거나 괘념치 않았다. 보따리 안에는 금과 은이 넉넉히 들어 있었으므로, 마을이나 주막을 지날 때마다 술과 고기를 사서 두 공인과 함께 나누어 먹었다.

이야기는 길게 늘어놓을 것 없이 이와 같다. 무송은 3월 초에 사람을 죽이고 두 달 동안 옥살이를 한 뒤, 이제 맹주로 가는 길에 올라 있으니 때는 마침 6월 전후였다. 불볕더위가 기승을 부리고 돌이 달궈질 만큼 뜨거운 날씨라, 그저 조금이라도 서늘한 이른 아침에 서둘러 길을 나설 뿐이었다. 그렇게 스무 날 남짓을 걸어 큰길에 다다랐을 때, 세 사람이 고개 위에 올라서니 때는 이미 사패시(巳牌時, 오전 9시~11시 사이)였다. 무송이 말했다. "그만 앉아 계시고 어서 고개를 내려가서 술과 고기를 좀 사 먹읍시다." 두 공인이 대답했다. "그 말씀이 옳습니다." 세 사람이 고개를 달려 내려가니, 멀리 흙 언덕 아래로 초가집 십여 채가

보였고, 시냇가 옆 버드나무에는 술집임을 알리는 술 가림막이 드리워져 있었다. 무송이 그것을 보고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저기 주막이 있지 않습니까!" 세 사람이 고개를 달려 내려가는데, 산기슭에서 한 나무꾼이 땔감을 짊어지고 지나가고 있었다. 무송이 그를 불러 물었다. "여보게, 이곳 지명이 어디인지 좀 알려주겠나?" 나무꾼이 대답했다. "이 고개는 맹주로 가는 길입니다. 고개 앞 큰 숲 옆에 있는 곳이 바로 이름난 십자파입니다."

무송이 물은 뒤 두 공인과 함께 곧장 십자파 근처로 달려가 살펴보니, 앞쪽에 커다란 나무 한 그루가 서 있었는데 대여섯 사람이 달라붙어도 다 안을 수 없을 만큼 굵었고, 나무 위에는 마른 덩굴이 뒤엉켜 있었다. 나무 옆을 지나쳐 보니 일찍이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문과 창가 쪽에는 한 여인이 앉아 있었는데, 초록색 비단 저고리가 살짝 보이고 머리에는 황금빛 비녀를 꽂았으며 귀밑에는 들꽃을 꽂고 있었다. 무송과 두 공인이 문 앞에 도착하자 여인이 몸을 일으켜 그들을 맞이했다. 여인은 선명한 붉은색 비단 치마를 두르고 얼굴에는 연지와 분을 곱게 발랐으며, 가슴을 풀어헤친 사이로 분홍빛 비단 조끼가 드러났는데 그 위에는 금단추가 가득 달려 있었다. 그 여인의 모습이 어떠했겠는가?

눈썹에는 살기가 서려 있고 눈빛에서는 흉악한 빛이 뿜어져 나왔다. 허리는 마치 물레축처럼 굵고 단단했으며, 손발은 몽둥이처럼 억세고 투박했다. 얼굴에는 분을 두껍게 발라 그 험상궂은 기운을 가리려 했고, 연지를 진하게 찍어 발라 흐트러진 머리카락 사이로 붉은 기운이

번져 보였다. 금팔찌는 마녀 같은 팔을 단단히 가두고 있고, 붉은 저고리는 마치 야차 귀신의 형상을 비추는 듯했다.

그때 여인이 문에 기대어 서서 맞이하며 말했다. "손님들, 여기서 좀 쉬어 가시지요. 저희 집에는 좋은 술과 고기가 있고, 간식거리로는 아주 커다란 만두가 있답니다!"

두 공인과 무송이 안으로 들어서니, 측백나무로 만든 탁자와 의자가 놓여 있었다. 두 공인은 곤봉을 기대어 세워두고 전대(纏袋)를 풀어 내려놓고는 상석과 하석에 나누어 앉았다. 무송은 먼저 등에 멘 보따리를 풀어 탁자 위에 내려놓고, 허리에 두른 띠를 푼 뒤 베 적삼을 벗었다. 두 공인이 말했다. "여기는 보는 사람도 없으니, 위험을 좀 무릅쓰고서라도 이 칼(枷)을 벗겨 드릴 테니 시원하게 술이나 두 사발 들이킵시다." 그러고는 무송의 봉피(封皮)를 떼고 칼을 풀어 탁자 아래에 놓아두었으며, 자신들도 상의를 반쯤 벗어 한쪽 창틀에 걸쳐 두었다.

여인은 싱글벙글 웃으며 물었다. "손님, 술은 얼마나 드릴까요?" 무송이 대답했다. "얼마나 줄지는 묻지 말고 그저 데워서 들고 오시오. 고기는 서너 근쯤 썰어 오고, 나중에 한꺼번에 셈하리다." 여인이 말했다. "아주 커다란 만두도 있답니다." 무송이 말했다. "간식으로 만두도 스무서른 개쯤 내오시오."

여인은 히히거리며 안으로 들어가더니 커다란 술통 하나를 들고 나왔다. 큰 사발 세 개와 젓가락 세 쌍을 놓고, 고기 두 접시를 썰어 내왔다. 술을 네다섯 순배 연달아 따라 내오고, 부엌에서 만두 한 광주리를 가져와 탁자 위에 놓았다. 두 공인은 곧장 집어 들고 먹기 시작했다. 무

송이 만두 하나를 집어 쪼개 보더니 외쳤다. "주모, 이 만두 속은 사람 고기요, 개 고기요?"

여인이 히히 웃으며 말했다. "손님, 농담도 잘하시네요. 태평한 세상, 광명한 천지에 어디 사람 고기로 만든 만두나 개 고기 맛이 있겠습니까? 저희 집 만두는 조상 대대로 황소 고기로 만든 것이랍니다." 무송이 말했다. "내가 강호를 떠돌며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소. '큰 나무 십자파, 손님 누가 감히 그곳을 지나가랴? 살찐 놈은 잘라 만두소로 삼고, 마른 놈은 강물에 던져 메운다'라고 말이오." 여인이 말했다. "손님, 그런 말은 어디서 들으셨답니까? 손님이 지어낸 이야기 아닙니까?" 무송이 말했다. "만두 속 고기에 털이 몇 가닥 보이기에, 꼭 사람의 소변보는 곳에 난 털 같아서 의심스러워 묻는 것이오."

무송이 다시 물었다. "부인, 그런데 당신의 남편은 어찌하여 보이지 않소?" 여인이 대답했다. "제 남편은 객지에 나가 아직 돌아오지 않았어요." 무송이 말했다. "그렇다면 혼자 있으면 참 적적하겠구려."

여인은 웃으며 속으로 생각했다. '이 죄수 배군(配軍) 놈이 죽지 못해 안달이 났구나, 감히 이 몸을 희롱하려 들다니! 그야말로 「등불의 나방이 불길로 뛰어들어 제 몸을 불사르는」 격이로구나. 내가 먼저 찾아 나선 게 아니라, 저놈을 먼저 손봐 줘야겠다.' 여인이 곧바로 말했다. "손님, 농담은 그만하시고 술이나 몇 사발 더 드시지요. 뒤편 나무 아래에서 바람이라도 쐬십시오. 쉬어 가고 싶으시면 저희 집에서 묵어가셔도 무방합니다."

무송은 이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여자가 좋지 않은 마음을 품었구나. 어디 한번 내가 먼저 골려 줘 볼까.' 무송이 다시 말했다. "큰댁(大娘子), 이 집 술은 너무 싱겁구려. 따로 좋은 것이 있다면 우리에게 몇 사발 권해 보시오." 여인이 말했다. "아주 향긋하고 맛 좋은 술이 있긴 한데, 좀 탁하답니다." 무송이 말했다. "그게 제일이지. 탁할수록 맛이 좋은 법이라오."

여인은 내심 쾌재를 부르며 안으로 들어가 탁한 빛깔의 술 한 선(鏇)을 들고 나왔다. 무송이 그것을 보고 말했다. "이게 바로 제대로 된 술이오. 따뜻하게 데워 마시는 게 가장 좋겠소." 여인이 말했다. "역시 손님께서 잘 아시는군요. 제가 데워 올 테니 맛을 보십시오." 여인은 속으로 생각했다. '이 죄수 배군 놈이 정말로 죽으려고 환장했구나, 도리어 뜨겁게 데워 달라니. 이 약은 효과가 아주 빠르니, 저놈은 이제 내 손아귀에 떨어진 물건이나 다름없다.'

술을 뜨겁게 데워 세 사발에 나누어 따라 내오며 여인이 말했다. "손님, 이 술을 한번 드셔 보십시오." 두 공인은 배고픔과 목마름을 참지 못하고 정신없이 들이켰다. 무송이 말했다. "큰댁, 내가 원래 안주 없는 술은 못 마시오. 고기를 좀 더 썰어 와서 입가심을 하게 해 주시오."

여인이 몸을 돌려 안으로 들어가는 틈을 노려, 무송은 그 술을 으슥하고 어두운 구석에 쏟아 버리고는 입으로만 혀를 차는 척하며 말했다. "좋은 술이네! 역시 이 술이 사람을 확 달아오르게 하는구먼!"

여인은 고기를 썰러 가는 척하더니 한 바퀴 헛돌고 나와서는 손뼉을 치며 외쳤다. "넘어졌다! 넘어졌어!"

그 순간 두 공인은 하늘과 땅이 빙글빙글 도는 것을 느끼며 입이 굳어 다물어진 채 뒤로 푹 쓰러졌다. 무송 역시 눈을 슬쩍 감고는 의자 옆으로 털썩 뒤로 쓰러졌다. 여인이 웃으며 말했다. "걸렸구나! 네놈이 귀신처럼 영악하다 한들, 결국 이 어미가 내준 발 씻은 물(洗腳水)이나 마신 격이로구나!" 그러고는 안을 향해 소리쳤다. "소이(小二), 소삼(小三), 어서 나오너라!"

그러자 안에서 멍청한 사내 둘이 튀어나오더니, 우선 두 공인을 둘러메고 안으로 들어갔다. 여인은 뒤이어 탁자로 다가가 무송의 보따리와 공인들의 전대(纏袋)를 집어 들고는, 손으로 만져 보니 그 안에 금은이 들어 있는 듯했다. 여인이 기뻐하며 말했다. "오늘 이 세 덩어리 물건(三頭行貨)을 잡았으니, 이틀은 만두 장사할 거리가 생긴 데다 이런 귀한 물건까지 얻었구나!"

보따리와 전대를 챙겨 안으로 들였다가 다시 나와 보니, 두 사내가 무송을 옮기려 했으나 도무지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바닥에 꼿꼿이 누운 무송이 마치 천백 근 무게라도 되는 듯 꿈쩍도 하지 않는 것이었다. 여인은 사내들이 끌어당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는 옆에서 꾸짖었다. "이 빌어먹을 놈들아(鳥男女)! 밥 먹고 술 마시는 데만 정신이 팔려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니, 결국 이 어미가 직접 손을 대게 만드는구나. 이 빌어먹을 덩치 큰 놈이 감히 이 몸을 희롱하려 들다니. 이렇게 살이 두툼하니 황소 고기로 팔기 딱 좋겠다. 저 마른 두 놈은 물소 고기로 팔면 되겠구나. 안으로 들고 가서 우선 이놈부터 발라내거라."

여인은 그렇게 말하면서 동시에 초록색 비단 적삼을 벗고 붉은 비단 치마를 풀어 헤친 뒤, 상반신을 드러낸 채 무송을 가볍게 들어 올리려

했다. 그때 무송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여인을 덥석 껴안더니, 두 손을 한데 모아 가슴팍에 꽉 끌어안고 두 다리로 여인의 하체를 꽉 끼워 눌렀다. 여인은 돼지 멱따는 듯한 비명을 질러댔다. 두 사내가 급히 달려들려 했으나, 무송이 크게 호통을 치자 깜짝 놀라 멍하니 멈춰 섰다. 바닥에 눌린 여인은 그저 "호걸님, 살려 주십시오!"라고 울부짖을 뿐 감히 저항할 엄두도 내지 못했다. 정녕 이러하다.

호랑이 잡은 사내를 약으로 쓰러뜨려, 만두소로 발효시키려 했네.
누가 알았으랴, 진짜 영웅이 도리어 짓궂은 장난으로 골탕 먹일 줄을.
소고기는 팔아 보지도 못하고, 도리어 돼지 멱따는 비명만 지르게 되었구나!

문 앞에서 한 사내가 땔감 한 짐을 지고 오다가 문간에 멈춰 서서, 무송이 여인을 바닥에 짓누르고 있는 것을 보고는 성큼성큼 달려와 외쳤다. "호걸님, 노여움을 거두십시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소인이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무송이 벌떡 일어나 왼발로 여인을 짓밟고 두 주먹을 치켜든 채 그 사내를 살펴보니, 머리에는 푸른 비단으로 만든 요면건(凹面巾)을 쓰고 흰 베 적삼을 입었으며, 다리에는 행전(腿綁)과 무릎 보호대(護膝)를 차고 발에는 여덟 가닥으로 엮은 삼베신(八搭麻鞋)을 신었으며 허리에는 전대를 매고 있었다. 얼굴은 광대뼈가 갈래갈래 튀어나온 형상에 수염이 몇 가닥 나 있었고, 나이는 서른대여섯쯤 되어 보였다. 사내는 무송을 향해 두 손을 가슴 앞에서 맞잡은 채 떼지 않으며 말했다. "호걸님의 존함을 여쭙고자 합니다."

무송이 말했다. "나는 다녀도 이름을 바꾸지 않고 앉아도 성을 바꾸지 않는, 도두(都頭) 무송 바로 그 사람이오!"

사내가 말했다. "혹시 경양강(景陽岡)에서 호랑이를 잡으셨다는 무도두님이 아니십니까?" 무송이 대답했다. "그렇소."

사내는 머리를 조아리며 절하고는 말했다. "존함은 익히 들었사오나 오늘에야 비로소 뵙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무송이 물었다. "그대는 혹시 이 여인의 남편이오?" 사내가 말했다. "이 사람이 바로 소인의 처(渾家)입니다. '눈이 있어도 태산을 알아보지 못한(有眼不識泰山)' 격으로 어찌하여 도두님께 거역하는 짓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소인의 박한 체면을 봐서라도 그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녕 이러하다.

예부터 화내는 주먹은 웃는 얼굴에 지고,
예로부터 예의 바른 처신은 간사함을 굴복시키는 법.
오직 의롭고 용맹한 참된 사내이기에,
흉악하고 사나운 「모야차(母夜叉)」를 굴복시켰도다.

무송은 그가 이토록 조심스레 구는 것을 보고 황급히 여인을 놓아주며 물었다. "내가 보기에 두 부부가 예사 인물이 아닌 듯한데, 성함을 좀 일러 주시오."

사내는 여인에게 옷을 입게 한 뒤 어서 가까이 오라 하여 도두에게 절을 올리게 했다. 무송이 말했다. "방금은 내가 결례를 범했으니, 형수께선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그러자 여인이 말했다. "제가 눈이 있

어도 좋은 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잠시 잘못 본 것이니 도련님(伯伯)께서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자, 안으로 드시지요."

무송이 다시 물었다. "그대들 부부의 존함은 무엇이며, 어찌하여 내 이름을 아시오?"

사내가 대답했다. "소인의 성은 장(張)이고 이름은 청(青)이라 합니다. 본디 이곳 광명사(光明寺)의 채소밭을 가꾸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사소한 다툼 끝에 성질이 나서 광명사의 승려들을 죽이고 불을 질러 폐허로 만들고 말았습니다. 그 뒤로도 마땅히 대적할 자가 없고 관아도 따지러 오지 않기에, 소인은 그저 이 대수파(大樹坡) 아래에서 길손을 털며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노인이 짐을 지고 지나가는 것을 보고 늙었다 만만히 여겨 달려들어 싸웠는데, 스무 합 남짓 겨루다가 그 노인의 편담(扁擔)에 맞아 나가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젊었을 때 오로지 길손 터는 일을 업으로 삼아 온 사람이었습니다. 노인은 소인의 손발이 민첩한 것을 보고는 소인을 데리고 성안 자기 집으로 돌아가 여러 무예를 가르쳐 주었고, 또 자기 딸을 소인에게 시집보내어 데릴사위(招贅)로 삼았습니다. 성안에서는 어찌 살 수가 있어야지요. 결국 다시 이곳으로 돌아와 초가집을 짓고 술을 팔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실은 오가는 상인이나 길손을 기다렸다가, 눈에 드는 자가 있으면 몽한약(蒙汗藥)을 먹여 죽인 뒤 큰 살코기는 황소 고기로 썰어 팔고 자투리 자잘한 고기는 소를 만들어 만두에 싸 팝니다. 소인이 매일 그것을 마을에 가지고 가 팔며 이렇게 하루하루를 보냅니다. 소인이 강호의 호걸들과 사귀기를 좋아하는지라 사람들이 소인을 '채원자(菜園子) 장청(張青)'이라 부릅니다. 제 처는 성이 손(孫)

씨인데 그 아비의 솜씨를 그대로 물려받아 사람들이 '모야차(母夜叉) 손이랑(孫二娘)'이라 부릅니다. 소인이 마침 돌아오는 길에 처의 비명을 듣고 달려왔다가 뜻밖에도 도두님을 뵙게 된 것입니다. 소인이 처에게 몇 번이나 당부했었습니다. '세 부류의 사람은 절대 해쳐서는 안 된다. 첫째는 떠도는 운유(雲遊) 승려와 도사들이다. 그들은 세상의 부귀를 누려 본 일도 없을 뿐 아니라 출가한 사람들이지 않느냐.' 그런데도 하마터면 천지를 뒤흔드는 큰 인물 한 분을 해칠 뻔했지요. 그분은 본디 연안부(延安府) 노종(老种) 경략상공(經略相公) 휘하의 제할(提轄)이었는데, 성은 노(魯)이고 이름은 달(達)입니다. 주먹 세 방으로 '진관서(鎭關西)'를 때려죽이고 오대산으로 도망쳐 머리를 깎고 승려가 되었는데, 등에 꽃 자수 같은 문신이 있어 강호에서는 그를 '화화상(花和尙) 노지심(魯智深)'이라 부릅니다. 그분은 무게가 육십여 근이나 되는 무쇠 선장(渾鐵禪杖) 한 자루를 쓰는데, 그분 또한 이곳을 지나가셨습니다. 처가 그분이 살찌고 건장한 것을 보고 술에 몽한약을 타서 작업장으로 끌고 들어가 막 발라내려던 차에 소인이 마침 돌아왔습니다. 그분의 선장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보고 황급히 해독약을 써서 구해 드리고 형제의 의를 맺었습니다. 듣자 하니 그분이 근래 이룡산(二龍山) 보주사(寶珠寺)를 점거하시고 '청면수(青面獸) 양지(楊志)'라는 분과 함께 그곳을 근거지로 삼고 있다 합니다. 소인이 그분의 부르는 서신을 몇 차례나 받았으나 아직 갈 수가 없었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그 두 사람의 이름은 나도 강호에서 익히 들었소."

장청이 말을 이었다. "다만 안타까운 것은 한 두타(頭陀) 한 분입니다. 칠팔 척이나 되는 장한이었는데도 그만 몽한약에 쓰러져 버렸습니

다. 소인이 좀 늦게 돌아오는 바람에 이미 사지를 발라내 버린 뒤였습니다. 지금은 머리에 두른 철계척(鐵界尺) 하나, 검은 직철(皂直裰) 한 벌, 그리고 도첩(度牒) 한 장만 남아 있습니다. 다른 것은 대수롭지 않으나 가장 얻기 어려운 두 가지 물건이 있는데, 하나는 사람의 정수리뼈 백여덟 개(一百單八)로 만든 염주이고, 또 하나는 설화빈철(雪花鑌鐵)을 두드려 만든 계도(戒刀) 두 자루입니다. 생각건대 이 두타도 죽인 사람이 적지 않았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 칼은 한밤중이면 휘파람 같은 울음소리를 내곤 합니다. 소인은 그분을 구하지 못한 것이 한이 되어 늘 마음에 두고 있습니다. 또 처에게 당부했습니다. '둘째는 강호를 떠도는 행원(行院)의 기녀(妓女)들이다. 그들은 이 고을 저 고을을 떠돌며 마당이 펼쳐지면 거기서 연희를 펼치고, 온갖 비위를 맞춰가며 어렵사리 벌어들이는 돈과 물건이다. 만약 그들의 목숨을 끊는다면, 그자들이 서로 입에서 입으로 전하여 무대 위에서 우리 같은 강호 호걸들을 영웅답지 못한 자라고 떠벌릴 것이다.' 또 당부했습니다. '셋째는 각지에서 죄를 짓고 유배 가는 자들이다. 그들 가운데 호걸이 많이 섞여 있으니 절대로 해쳐서는 안 된다.' 그런데 처가 소인의 말을 듣지 않고 오늘 또 도두님께 거역하는 짓을 했으니, 다행히 소인이 좀 일찍 돌아온 덕분입니다. 도대체 어찌하여 이런 마음을 일으킨 것이오?"

'모야차' 손이랑이 말했다. "본디 손을 댈 생각은 아니었습니다. 첫째는 도련님의 보따리가 묵직해 보였기 때문이고, 둘째는 도련님께서 농지거리(風話)를 하시기에 얄미워 잠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나는 목을 베고 피를 뿌리는 거친 사내인데, 어찌 양민(良人)을 희롱하겠소! 내가 보니 형수께서 내 보따리를 유심히 살

피기에, 미리 도둑처럼 경계심이 들어 일부러 농지거리를 던져 그대가 손쓸 틈을 보이도록 한 것이오. 그 술 사발은 내가 이미 쏟아 버리고 중독된 척한 것인데, 그대가 정말로 와서 나를 끌어 옮기려 했더구려. 잠시 붙잡는 통에 형수께 큰 결례를 범했으니, 너무 나무라지 마시오."

장청은 크게 웃으며 무송을 뒤편 객석으로 안내하여 자리에 앉혔다. 무송이 말했다. "형님, 우선 저 두 공인부터 좀 풀어 주시오."

장청이 무송을 인육을 손질하는 작업장으로 안내하여 가 보니, 벽에는 사람 가죽 몇 장이 팽팽히 펼쳐져 있고 들보에는 사람 다리 대여섯 개가 매달려 있었다. 그 두 공인은 한 명은 거꾸로, 한 명은 바로 박힌 채 인육 발라내는 의자 위에 쭉 뻗어 있었다. 무송이 말했다. "형님, 저 두 사람을 좀 일으켜 구해 주시오."

장청이 물었다. "도두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번에 무슨 죄를 입으시어 어디로 유배를 가시는 길입니까?" 무송은 서문경(西門慶)과 형수를 죽이게 된 자초지종을 하나하나 다 털어놓았다. 장청 부부는 그 이야기를 듣고 칭찬을 아끼지 않다가 무송에게 말했다. "소인이 한마디 드릴 말씀이 있는데, 도두님 생각은 어떠하실지요?" 무송이 말했다. "형님, 거리낌 없이 말씀해 보시오."

장청은 서두르지 않고 무송에게 몇 마디 말을 꺼냈는데, 바로 이 말 때문에 마침내 무송이 맹주성(孟州城)을 크게 어지럽히고 안평채(安平寨)를 떠들썩하게 만들게 되었으니, 곧 코끼리를 끌고 소를 잡아끄는 장사들을 때려눕히고, 용을 사로잡고 호랑이를 붙잡는 사내들을 거

꾸러뜨리게 만들 일이었다. 결국 장청이 무송에게 무슨 말을 꺼냈는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 들으시기 바란다.

제28회 — 무송이 안평채를 위엄으로 진압하고, 시은이 의리로 쾌활림을 빼앗다

武松威鎮安平寨 施恩義奪快活林

이야기는 이러하다. 장청이 무송에게 말했다.

"제가 나쁜 마음을 품은 것이 아닙니다. 도두님께서 뇌성영(牢城營)에 가서 고생을 겪으시느니, 차라리 여기서 이 두 공인을 처치해 버리고 저희 집에 며칠 머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만약 도두님께서 낙초(落草, 산적이 됨)할 뜻이 있으시다면, 제가 직접 이룡산 보주사까지 모셔다드려 노지심과 만나 함께 무리에 들게 해드리겠습니다. 어떠십니까?"

무송이 대답했다.

"형님께서 이 아우를 생각해 마음 써주시니 참으로 고맙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저 무송은 평생 천하의 굳센 사내(硬漢, 악한)들만 쳐 왔습니다. 이 두 공인은 저에게 있어 그저 조심스럽게 대하며 길 내내 시중을 들어 주었을 뿐입니다. 만약 제가 이들을

해친다면 하늘의 이치도 저를 용서하지 않을 것입니다. 형님께서 저를 진정으로 아껴주신다면, 이들을 해치지 말고 다시 깨워 살려주십시오."

장청이 말했다.

"도두님께서 이토록 의로운 분이시니, 제가 이들을 깨워 살려내겠습니다."

장청이 즉시 하인들을 불러 두 공인을 벤치에서 부축해 일으키게 했다. 손이낭은 해독제 한 사발을 가져와 장청에게 건넸고, 장청은 공인들의 귀를 붙잡고 해독제를 억지로 들이부었다. 반 시진도 채 지나지 않아, 두 공인은 마치 꿈속에서 잠을 자다 깨어난 사람처럼 비틀거리며 일어났다. 그들은 무송을 보고는 말했다.

“우리가 어쩌다 여기서 이렇게 취해 있었던 거지? 이 집 술이 어찌나 좋은지! 별로 많이 마시지도 않았는데 벌써 이렇게 취해버리다니! 이 집을 꼭 기억해 두어야겠군. 다음에 다시 와서 술과 음식을 사 먹어야겠어.”

무송은 웃음을 터뜨렸고, 장청과 손이낭도 함께 웃었다. 두 공인은 영문도 모른 채 어리둥절해할 뿐이었다. 그사이 하인들은 알아서 닭과 거위 등을 잡아 요리해 왔고, 식탁에는 그릇과 잔이 정갈하게 차려졌다.

장청은 (음식을) 뒤편 포도 시렁 아래에 차려 놓게 하고, 탁자와 의자, 좌석을 마련해 두었다. 그러고는 무송과 두 공인을 뒷마당으로 정중히 안내했다.

무송은 두 공인을 상석에 앉히고, 장청과 무송은 그 아래에 마주 앉았으며, 손이낭은 옆자리에 앉았다. 건장한 사내 둘이 번갈아 가며 술을 따르고 음식을 나르며 상을 차렸다. 장청은 무송에게 술을 거듭 권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장청은 그 계도(戒刀) 두 자루를 꺼내 무송에게 보여주었다. 과연 빈철(鑌鐵)로 잘 벼린 것이라 하루아침에 만들 수 있는 물건이 아니었다. 두 사람은 또 강호 호걸들의 일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내용은 살인과 방화 같은 일들이었다. 무송이 다시 입을 열었다.

"산동의 '급시우(及時雨)' 송 공명(宋公明)은 의로운 일에 재물을 아끼지 않는 호걸이라네. 그런 분도 지금은 사건에 연루되어 채 대관인(柴大官人) 장원에 피해 있다고 하지."

두 공인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멍하니 있다가,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무송이 말했다.

"그대들이 나를 여기까지 데려다주었는데, 설마 해를 끼칠 마음이 있겠는가? 우리 같은 강호의 호걸들이 하는 이야기에 너무 놀라지 말게나. 우리는 결코 선한 사람을 해치지 않으니, 그저 술이나 즐기게. 내일 맹주에 도착하면 반드시 사례하겠네."

그날 밤 무송은 장청의 집에서 묵었다. 다음 날 무송이 길을 떠나려 했으나 장청이 차마 보내지 못하고 사흘 동안이나 계속 머물게 하며 극

진히 대접했다. 무송은 장청 부부의 두터운 정에 깊이 감격했다. 나이로 따지면 장청이 무송보다 다섯 살이 많았기에, 무송은 장청을 형님으로 모시기로 하고 의형제를 맺었다. 무송이 다시 작별을 고하자 장청은 또 술을 차려 배웅했다. 그러고는 무송의 짐과 보따리, 전대(纏袋)를 모두 돌려주었고, 다시 은자 열 냥쯤을 무송에게 건네고, 따로 두세 냥의 잔돈 은자로 두 공인에게 노자를 쥐여 주었다. 무송은 자기가 받은 그 열 냥을 모두 두 공인에게 넘겨주었다. 그러고는 다시 형틀을 쓰고 봉인된 종이를 붙인 채, 장청과 손이낭의 배웅을 받으며 공인들과 함께 맹주를 향해 길을 떠났다.

시로 이르되,

의리를 맺으니 형제처럼 친밀한데,
산적질을 권해도 여전히 망설이네.
간악하고 음탕한 자를 분하여 죽이되,
법을 어기며 죄를 짓지는 말아야 하리.

정오가 되기도 전에 일찍 성안에 도착했다. 곧장 주아(州衙, 관아)에 이르러 대청에 동평부의 문첩(文牒)을 제출했다. 주윤(州尹)이 이를 확인하고 무송을 수령한다는 도장을 찍은 뒤 회답 문서를 두 공인에게 주어 돌려보냈다. 그 일은 더 말할 것이 없다. 이어 무송은 이곳(맹주)의 뇌성영(牢城營)으로 첩서와 함께 보내졌다. 당일 무송이 뇌성영 앞에 도착하니, 현판 하나에 '안평채(安平寨)'라는 세 글자가 크게 적혀 있는 것이 보였다. 공인들은 무송을 단신방(單身房, 독방)으로 데려간

뒤, 자기들은 따로 가서 서류를 제출하고 수령증을 받았다. 그 절차는 더 말할 것이 없다.

무송이 독방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열댓 명의 죄수가 무송을 보러 왔다. 그중 한 명이 말했다.

"호걸님, 이곳에 새로 오셨으니 보따리 안에 사람들에게 줄 편지나 쓸 은자가 있다면 미리 꺼내 두십시오. 그래야 차발(差撥, 관청의 심부름꾼)이 왔을 때 얼른 건네줄 수 있고, 그래야 살위봉(殺威棒, 매질)을 맞더라도 가볍게 지나갈 수 있습니다. 만약 줄 뇌물이 없으면 정말이지 낭패를 보고 말 겁니다! 나도 당신처럼 죄를 지은 처지라 특별히 알려주는 것이니, '토끼가 죽으면 여우가 슬퍼한다'는 말처럼 같은 처지의 사람을 돕는 것이라 생각하십시오. 당신이 새로 와서 이런 사정을 모를까 봐 알려주는 것입니다."

무송이 대답했다.

"여러분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제 곁에 물건이 조금 있기는 합니다. 만약 그자가 좋게 말하며 요구한다면 좀 나누어 주겠지만, 만약 강제로 뺏으려 든다면 단 한 푼도 줄 생각이 없습니다."

죄수들이 말했다.

"호걸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옛말에 '관리는 무섭지 않아도 관리하는 자는 무섭다'고 했고, '남의 처마 밑에 살면서 어찌 고개를 숙이지 않을 수 있겠느냐'고 했습니다. 그저 조심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한 죄수가 외쳤다.

“차발 관원이 왔다!”

그러자 사람들이 모두 흩어졌다.

무송이 보따리를 풀고 독방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이 들어오더니 물었다.

"어느 쪽이 새로 온 죄수냐?"

무송이 대답했다.

"제가 그렇습니다."

차발이 말했다.

"너도 눈썹 있고 눈 있는 멀쩡한 놈이거늘, 굳이 내가 입을 열어야겠느냐.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잡은 호걸에 양곡현 도두까지 지냈으니 사정을 잘 알 줄 알았더니, 어찌 이리도 세상 물정을 모른단 말이냐! 감히 내 앞에 이렇게 나오다니, 너는 고양이에게 맞아도 못 당할 놈이다!"

무송이 말했다.

"네가 이리 와서 말을 꺼내며 이 어르신(老爺)에게서 인정(人情, 뇌물)을 받기를 바라는 모양인데, 반 푼도 없다. 대신 내 단단한 주먹 한 쌍을 너에게 선사해 주마! 금은이 좀 있긴 하나 술 사 먹으려고 남겨둔 것이니, 네가 나를 어떻게 하려는지 어디 한번 해보아라! 설마 나를 양곡현으로 돌려보내기야 하겠느냐!"

차발은 크게 화를 내며 나가버렸다. 그러자 죄수들이 다시 몰려와 말했다.

"호걸님, 저자에게 맞서셨으니, 곧 고생을 당하실 겁니다! 저자가 지금 관영 상공(管營相公)에게 가서 일러바치면 분명 당신의 목숨을 해치려 들 것입니다!"

무송이 대답했다.

"두렵지 않다! 그자가 나를 어떻게 하려 들든, 글로 오면 글로 상대하고 무력으로 오면 무력으로 맞서주마!"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서너 명의 사람이 독방으로 찾아와 새로 온 죄수 무송을 불러냈다. 무송이 대답했다.

“내가 여기 있지 어디 도망이라도 가겠느냐? 소란 피우지 말고 조용히 해라!”

사람들은 무송을 끌고 점시청(점검하는 관청) 앞으로 데려갔는데, 그곳에는 관영 상공이 대청에 앉아 있었다. 군관 대여섯 명이 무송을 그 앞에 압송했다. 관영 상공이 호통을 치며 형틀을 풀라고 시키더니 말했다.

“저 죄수는 태조 무덕 황제께서 정하신 옛 법도를 모르는구나. 배군(유배된 죄수병)으로 처음 들어오면 반드시 살위봉(매질)을 백 대 맞아야 한다. 저기 저 놈은 죄수를 등에 업어라.”

무송이 말했다.

"너희들이 소란 피울 것 없다. 때릴 거면 그냥 때려라, 업어올 것도 없다. 만약 내가 매 한 대라도 피한다면 호걸이 아니요, 이전에 맞은 건 치지 말고 지금부터 새로 다시 때려라. 내가 비명이라도 지른다면 사내 자식이 아니다!"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웃으며 말했다.

"저 미친놈 좀 보게, 저 고집을 어떻게 견디려고 저러나!"

무송이 다시 말했다.

"때릴 거면 아주 독하게 때려라. 봐주는 매는 치지 마라, 맞으면서 즐겁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또 한바탕 웃음을 터뜨렸다. 군관이 몽둥이를 들어 막 내리려는데, 관영 상공의 곁에 한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키는 여섯 자가 넘고 나이는 스물네댓 살쯤 되어 보였는데, 얼굴은 희고 깨끗하며 수염은 세 갈래로 가지런히 나 있었다. 이마에는 흰 손수건을 두르고 푸른 비단 옷을 입었으며, 어깨에는 흰 비단 띠를 두르고 있었다. 그 사람이 관영 상공의 귓가에 다가가 몇 마디를 속삭였다.

그러자 관영 상공이 말했다.

"새로 온 죄수 무송아, 오는 길에 무슨 병이라도 앓았느냐?"

무송이 대답했다.

"오는 길에 아무 병도 없었습니다. 술도 마셨고, 고기도 먹었고, 밥도 먹었으며, 길도 잘 걸어왔습니다."

관영 상공이 말했다.

"이놈은 오는 길에 병이 들어서 온 모양인데, 내가 보니 안색이 좋아 보이니 이번 살위봉은 그냥 넘어가 주겠다."

옆에서 매를 들고 있던 군관들이 무송에게 나지막이 말했다.

"어서 병이 있었다고 말해라! 상공께서 네 사정을 봐주시는 것이니, 얼른 병이 있었다고 둘러대란 말이다."

무송이 말했다.

"병 같은 건 없었다! 없다고 했으니 매를 시원하게 때려라! 아까 말한 매를 아껴두었다가 나중에 다시 때리려 한다면, 그건 내 창자를 낚아채는 채무나 다름없으니 언제쯤 갚으려느냐!"

구경하던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관영 상공도 웃으며 말했다.

"아마 이놈이 열병을 앓았는데 땀을 흘리지 못해 저렇게 미친 소리를 하는 모양이구나. 저놈 말은 듣지 말고, 그냥 독방에 가두어라."

서너 명의 군관이 무송을 끌고 다시 독방으로 데려갔다. 죄수들이 모두 몰려와 물었다.

"혹시 관영 상공과 친분이 있거나 편지를 주고받은 사이가 아니냐?"

무송이 대답했다.

"전혀 없다."

죄수들이 말했다.

"만약 아는 사이가 아니라면, 방금 아껴둔 그 매질은 호의가 아니다. 밤이 되면 분명히 네 목숨을 끊어놓을 것이다!"

무송이 물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죽인다는 말이냐?"

죄수들이 대답했다.

"밤이 되면 마른 쌀밥 두 사발과 썩은 생선 몇 토막을 가져다줄 것이다. 그걸 먹여 배를 불리게 한 뒤에는 흙 감옥으로 끌고 가, 밧줄로 몸을 꽁꽁 묶어 뒤집어 놓을 것이다. 그러고는 마른 짚단으로 몸을 돌돌 만 다음, 일곱 구멍(눈, 코, 입, 귀 등)을 다 막고 벽에 거꾸로 매달아 놓는다. 그러면 반 시진도 안 되어 목숨이 끊어질 것이다. 이것을 '분조(盆弔)'라고 한다."

무송이 다시 물었다.

"또 어떤 짓을 하려 하느냐?"

사람들이 말했다.

“또 하나 있다. 그것 역시 몸을 묶어 놓은 뒤, 모래를 가득 채운 천 주머니를 네 몸 위에 올려놓는 것이다. 그러면 한 시진도 채 되지 않아 죽게 된다. 이것을 ‘토포대(土布袋)’라고 한다.”

무송이 또 물었다.

“그 밖에 나를 해칠 법도가 또 있느냐?”

사람들이 말했다.

“방금 말한 두 가지가 가장 무서운 것이지, 나머지는 별것 아니다.”

사람들이 말을 채 마치기도 전에, 한 군인이 상자 하나를 받쳐 들고 들어오더니 물었다.

"새로 유배되어 온 무도두(武都頭)가 누구냐?"

무송이 대답했다.

"내가 그 사람이오. 무슨 일이오?"

그 사람이 말했다.

"관영(管營) 상공께서 여기 간식을 좀 가져다 드리라고 하셨소."

무송이 살펴보니, 큰 주전자(鏇) 하나 가득한 술과 고기 한 접시, 국수 한 접시, 그리고 국물이 가득 담긴 큰 사발 하나가 놓여 있었다. 무송은 속으로 생각했다.

'설마 이 간식을 먹게 한 뒤에 나를 해치려는 것인가? ……일단 먹어 두고 나서 다시 생각해 보자.'

무송은 그 큰 주전자의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고기와 국수도 남김없이 먹어 치웠다. 그러자 그 사람은 그릇을 챙겨서 돌아갔다.

무송은 방에 앉아 생각에 잠기더니 냉소하며 혼잣말을 했다.

"어디 어떻게 나를 해치려 하는지 두고 보자!"

어느덧 날이 저물어 가는데, 아까 그 군관이 다시 상자 하나를 머리에 이고 들어왔다. 무송이 물었다.

"또 무슨 일이냐?"

그가 대답했다.

"저녁 식사를 여기 가져다 놓으라고 하셨다."

채소 몇 접시와 함께 커다란 술 항아리 하나, 고기 볶음 한 접시, 생선탕 한 사발, 그리고 밥 한 사발이 차려졌다. 무송은 그것을 보고 속으로 생각했다.

'이 밥을 먹고 나면 분명히 내 목숨을 끊으려 들겠지. ……에라 모르겠다, 죽더라도 배부른 귀신이 되자. 일단 먹고 나서 그다음에 어떻게 할지 생각하자.'

그 군관은 무송이 식사를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릇을 챙겨 돌아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아까 그 군관이 웬 사내 하나를 더 데리고 들어왔다. 한 명은 목욕통을 들고 있었고, 다른 한 명은 뜨거운 물이 담긴 큰 통을 들고 있었다. 그들이 무송을 보며 말했다.

"도두님, 목욕하십시오."

무송은 속으로 생각했다.

'목욕을 마칠 때까지 기다렸다가 손을 쓰려는 것인가? ……뭐, 겁날 건 없다. 차라리 씻는 게 낫겠지.'

두 사내가 뜨거운 물을 쏟아붓도록 준비하자, 무송은 목욕통 안으로 뛰어 들어가 몸을 씻었다. 그러자 곧바로 목욕 가운과 수건을 가져와 무송이 몸을 닦고 옷을 입도록 도왔다. 한 명은 남은 물을 비워내고 목욕통을 들고 나갔다. 다른 한 명은 등나무 돗자리와 사(紗)로 만든 휘장을 가져와 걸고, 돗자리를 깐 뒤 시원한 베개까지 갖다 놓은 뒤 돌아갔다.

무송은 문을 닫고 빗장을 걸어 잠근 뒤, 방 안에서 홀로 생각했다.

'이게 대체 무슨 뜻일까? 뭐, 어떻게 되든 두고 보자.'

그는 머리를 뉘어 잠을 청했고, 밤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날이 밝아 무송이 방문을 열고 나서니, 어젯밤 그 사람이 세숫물이 담긴 통을 들고 들어왔다. 그는 무송에게 세수를 시키고 양칫물을 가져와 입을 헹구게 하였다. 이어 머리를 빗겨 주는 시중꾼(篦頭待詔)을 데려와 무송의 머리를 빗기고 상투를 틀어 올린 뒤 두건(巾幘)을 둘러 주

었다. 또 한 사람이 상자 하나를 들고 들어와, 밥에 곁들일 채소 반찬과 큰 사발 가득한 고깃국 한 그릇, 큰 사발의 밥 한 그릇을 차려 놓았다. 무송은 속으로 생각했다.

'네가 어떤 수작을 부리든, 나는 일단 먹어두기나 하자.'

무송은 밥을 다 먹고 차 한 잔을 마셨다. 차를 다 마시자 밥을 가져왔던 그 사람이 다가와 청하였다.

"이곳은 쉬시기에 마땅치 않으니, 도두님께서는 저쪽 방으로 옮겨 가셔서 쉬십시오. 그래야 차와 밥을 나르기에도 편합니다."

무송이 (속으로) 말했다.

'드디어 오는구나! ……내 일단 따라가서 어찌 되는지 보자……'

한 사람이 짐과 침구를 챙기러 간 사이, 다른 한 사람이 무송을 이끌고 단신방(單身房)을 나와 앞쪽에 있는 곳으로 데려갔다. 방문을 밀어 열고 들어가 보니, 안에는 아주 깨끗한 침상과 휘장이 갖추어져 있었고, 양옆에는 새로 마련한 탁자와 의자, 갖가지 세간이 놓여 있었다. 무송이 방 안을 둘러보며 속으로 생각했다.

'토옥(土牢)에 처넣을 줄 알았더니, 어떻게 이런 곳으로 데려온 것이지? 단신방보다 훨씬 정갈하고 깔끔하구나!'

닭 울음 흉내, 개도둑의 좀스런 재주라고 그대 비웃지 마라,
일찍이 그 재주 덕에 맹상군(孟嘗君)이 함곡관(函谷關)을 빠져나갔다

네.
오늘 유배 온 죄수(配軍)가 상객(上客)으로 모셔지니,
맹주(孟州) 땅에서 그 이름을 널리 떨치게 되었네.

무송이 한낮까지 앉아 있자, 그 사람이 다시 상자를 들고 들어왔는데 손에는 술 한 병을 들고 있었다. 방 안으로 들어와 상자를 열어 보니 네 종류의 과일과 잘 익은 닭 한 마리,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가 놓여 있었다. 그 사람은 닭을 먹기 좋게 찢고 술을 잔에 따라 무송에게 권했다. 무송은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어떻게 되려는 걸까? ……'

저녁이 되자 또다시 풍성한 밥상이 차려졌다. 이어 무송은 씻고 나서 바람을 쐬며 휴식을 취했다. 무송은 스스로 생각했다.

'다른 죄수들도 다 이렇게 말하던데, 나도 똑같이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대체 왜 나를 이렇게까지 대접하는 거지? ……'

사흘째 되는 날에도 전과 다름없이 밥과 술이 들어왔다. 무송은 그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영채(寨) 안을 한가로이 거닐었다. 그러자 다른 죄수들이 뙤약볕 아래서 물을 긷거나 장작을 패고, 잡일을 하며 고생하는 모습이 보였다. 마침 5~6월의 한여름이라 더위를 피할 곳이 전혀 없었다. 무송이 뒷짐을 진 채 그들에게 물었다.

"그대들은 어찌하여 이 뙤약볕 아래서 일을 하고 있는가?"

죄수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리며 대답했다.

"호걸님, 모르시는 말씀입니다. 저희가 이곳에 배치되어 이렇게라도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은, 그야말로 인간 세상의 천국이나 다름없습니다! 어찌 감히 덥다고 그늘에 앉아 쉴 엄두를 내겠습니까? 그 밖에 인정머리 없는 처분이 따로 있어서, 큰 옥(大牢)에 가두어 두면 살려고 해도 살 수 없고 죽으려 해도 죽을 수 없으며, 굵은 쇠사슬로 꽁꽁 묶어 놓아도 그저 견뎌 내야 합니다!"

무송은 그 말을 듣고 천왕당 앞뒤를 한 바퀴 돌아보았다. 그러다 화로 옆에서 장대를 묶어두는 구멍이 뚫린 커다란 청석 돌덩이를 발견했다. 무송은 그 돌 위에 잠시 앉아 있다가 방으로 돌아와 바닥에 앉아 생각에 잠겼다. 그때 다시 그 사람이 술과 고기를 들고 들어왔다.

이야기는 이러하다. 무송이 그 방에 머문 지 며칠이 지났다. 매일같이 좋은 술과 음식이 들어와 무송에게 권해졌으나, 그를 해치려는 기색은 전혀 보이지 않았다. 무송은 마음속으로 도무지 결론을 내릴 수가 없었다.

그날 정오, 그 사람이 다시 술과 음식을 들고 오자 무송은 참지 못하고 상자를 눌러 놓으며 물었다.

"너는 누구 집의 사람이냐? 어찌하여 자꾸 나에게 술과 음식을 가져와 권하는 것이냐?"

그 사람이 대답했다.

"소인이 일전에 도두님께 이미 말씀드렸듯이, 저는 관영(管營) 상공 댁의 심복(梯己人)입니다."

무송이 다시 물었다.

"내 다시 묻겠다. 매일 보내오는 이 술과 음식은 대체 누가 너더러 나에게 가져다 권하라 한 것이냐? 먹고 나면 어찌 되는 것이냐?"

"관영 상공 댁의 소관영(小管營)께서 도두님께 드시도록 보내신 것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나는 죄를 지어 들어온 죄수일 뿐, 관영 상공께 손톱만큼이라도 잘 보인 일이 없는데, 어찌 나에게 이런 것을 보내신단 말이냐?"

"소인이 어찌 알겠습니까? 소관영께서 분부하시기를, 우선 반년이나 석 달쯤 보내드린 뒤에야 말씀드리라고만 하셨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이거 참 괴이한 일이로구나! 설마 나를 살찌게 길러 놓고서 처치하려는 것인가? —— 이 빌어먹을 답답한 수수께끼(悶葫蘆)를, 내 어찌 풀어낼 수 있겠느냐? 술과 음식의 출처도 분명치 않은데 어찌 마음 편히 먹을 수 있겠느냐? 너는 그저 이것만 일러다오. 그 소관영이라는 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디서 나와 만난 적이 있느냐? 그래야 내가 그의 술과 음식을 먹겠다."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일전에 도두님께서 처음 오시던 날, 청(廳) 위에 흰 손수건으로 머리를 싸매고 오른손을 (수건으로) 감싸고 서 있던 그분이 바로 소관영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혹시 푸른 사(靑紗) 윗옷을 입고 관영 상공 곁에 서 있던 그 사람을 말하는 것이냐?"

"그렇습니다. 바로 노관영(老管營) 상공의 아드님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그럼 내가 살위봉(殺威棒)을 맞으려 할 때, 그분이 말려서 나를 구해 주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소관영께서 부친께 말씀드리신 덕에 도두님께 매를 치지 않은 것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참으로 기묘한 일이로구나! 나는 본디 청하현(淸河縣) 사람이고 그는 맹주(孟州) 사람이라 본래 일면식도 없는 사이인데, 어찌 이리 나를 살뜰히 돌봐 준단 말이냐. 반드시 그럴 만한 까닭이 있을 터. 내 다시 묻겠다. 그 소관영의 성명은 무엇이냐?"

"성은 시(施)요 이름은 은(恩)입니다. 권법과 봉술에 뛰어나, 사람들이 '금안표(金眼彪)' 시은이라 부릅니다."

무송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라면 분명 훌륭한 사내일 것이다. 가서 그를 청하여 나와 만나게 해 다오. 그러면 네가 가져온 이 술과 음식을 기꺼이 먹으마. 만약 그를 청해 만나게 하지 않는다면, 나는 반 술도 입에 대지 않겠다."

그 사람이 말했다.

"소관영께서 소인에게 분부하시기를, 자세한 내막은 말하지 말고 반 년이나 석 달이 지난 뒤에야 만나 뵙도록 하라 하셨습니다."

무송이 외쳤다.

"헛소리 마라! 그저 소관영을 청해 나와 만나게만 하면 그만이다."

그 사람은 겁이 나서 감히 가지 못하였다. 무송이 초조해하며 다그치자, 그제야 그는 안으로 들어가 소관영에게 이 사실을 전하러 갔다.

얼마 지나지 않아 시은이 안에서 급히 달려 나오더니 무송을 보고 절을 올렸다. 무송도 황급히 답례하며 말했다.

"소인은 그저 관할 아래의 죄수일 뿐이라 본래 귀하신 얼굴을 뵌 적도 없는데, 지난번에는 매 한바탕 맞을 위기에서 구해주시고, 또 매일 같이 좋은 술과 음식을 대접해 주시니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조금의 일거리도 시키지 않으시니, 그야말로 공도 없이 녹을 받는 격이라 자고 먹는 것이 편치 못합니다."

시은이 대답했다.

"형님의 큰 명성은 오래전부터 우레가 귀에 쏟아지듯 들어왔습니다. 다만 구름 길이 멀리 막혀 뵙지 못함을 한할 따름이었지요. 오늘 다행히 형님께서 이곳에 오시니 마침 위엄 있는 얼굴을 뵙고자 하였으나, 마땅히 대접할 것이 없어 부끄러운 마음에 감히 뵙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송이 물었다.

"방금 일꾼에게 들으니, 무송으로 하여금 반년이나 석 달을 지내고 나면 할 말이 있다고 하더이다. 도대체 소관영께서 소인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는 것이오?"

시은이 말했다.

"촌놈 종이 사리를 모르고 입에서 나오는 대로 형님께 말해 버렸으니, 어찌 제가 지금 경솔하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까?"

무송이 말했다.

"관영께서 그러시면 마치 수재(秀才)가 장난치는 격이오! 도리어 무송으로 하여금 뱃속이 터지도록 답답하게 만드시니 어찌 견디겠소? 그저 내게 무엇을 시키시려는지 시원하게 말씀해 주시오."

시은이 말했다.

"이미 촌놈 종이 말을 해버렸으니 저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형님은 대장부이자 참된 사내이시기에, 한 가지 부탁드리고자 하는 일이 있는데 오직 형님만이 능히 해내실 수 있는 일입니다. 다만 형

님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 기력이 쇠하여 아직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셨으니, 우선 반년이나 서너 달 정도 몸을 보살피며 쉬십시오. 형님의 기력이 온전히 회복되면 그때 자세한 내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은 그 말을 듣고 허허 크게 웃으며 말했다.

"관영께서 들어보시오. 나는 작년에 석 달 동안 학질을 앓고서도 경양강(景陽岡)에서 술에 취한 채 호랑이 한 마리를 때려잡았는데, 그저 주먹 세 번 발길질 두 번에 절로 죽어 버렸소. 하물며 오늘이야 오죽하겠소!"

시은이 말했다.

"지금은 아직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형님께서 좀 더 몸을 추스르시고 귀체가 완전히 회복되시면, 그때야 비로소 감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그저 내가 기력이 없다고만 하시는구려. 정 그렇다면, 내가 어제 천왕당(天王堂) 앞에서 본 그 돌덩이가 대략 몇 근이나 나가오?"

시은이 대답했다.

"아마 사오백 근은 나갈 것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내 그대와 함께 가서 한번 봅시다. 무송이 그것을 뽑아 들 수 있을지 없을지 말이오."

시은이 말했다.

"술을 다 드신 뒤에 함께 가시지요."

무송이 말했다.

"갔다 와서 마셔도 늦지 않소."

두 사람이 천왕당 앞으로 가자, 죄수들이 무송과 소관영이 함께 오는 것을 보고 모두 몸을 굽혀 인사를 올렸다. 무송이 돌덩이를 살짝 흔들어 보더니 허허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가 정말 몸이 약해졌나 보군. 도저히 뽑아 들 수가 없겠어.”

시은이 말했다.

“사오백 근이나 나가는 돌덩이를 어찌 그리 가볍게 여기십니까!”

무송이 웃으며 말했다.

“소관영, 정말로 못 들 것 같소?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모두 물러나시오. 무송이 한번 들어 보겠소.”

무송은 먼저 상의의 윗부분을 벗어 허리에 묶었다. 그러고는 돌덩이를 덥석 껴안더니 가볍게 들어 올렸다. 이어 양손으로 돌덩이를 휙 비

틀어 던지자, 돌덩이가 땅속으로 한 자(약 30cm) 깊이만큼 박혀 들어갔다. 이를 본 죄수들은 모두 깜짝 놀라 경악을 금치 못했다.

무송은 다시 오른손을 땅속으로 집어넣어 돌덩이를 쑥 뽑아 올리더니, 허공을 향해 휙 던졌다. 돌덩이는 지면에서 한 장(약 3m) 높이까지 솟구쳐 올랐다. 무송은 두 손으로 그것을 낚아채듯 받아 다시 원래 있던 자리에 가볍게 내려놓았다.

몸을 돌려 시은과 죄수들을 바라보는 무송의 얼굴은 붉어지지도 않았고, 심장은 요동치지도 않았으며, 숨소리조차 거칠지 않았다. 시은이 다가와 무송을 붙잡고 절하며 말했다.

"형님은 평범한 분이 아니십니다! 참으로 하늘에서 내려온 신선이십니다!"

죄수들도 일제히 머리를 조아리며 외쳤다.

"참으로 신인(神人)이로다!"

시가 이르되,

놀라운 신력에 사람의 간담이 서늘해지니,
모두 의로운 용기가 가득하기 때문이라.
하늘과 땅을 뒤흔드는 영웅의 손길로,
커다란 바위도 공놀이하듯 가볍게 뽑는구나.

시은은 무송을 자신의 사저 대청으로 모셔 자리에 앉혔다. 무송이 말했다.

"소관영께서 이번에는 반드시 내게 말씀하셔야겠소. 도대체 내게 무엇을 시키려는 것이오?"

시은이 말했다.

"우선 잠시 앉아 계십시오. 저희 아버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나누신 뒤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사람을 부려 일을 시키려거든 그렇게 계집애처럼 이랬다저랬다 하지 마시오. 그렇게 말을 돌리는 걸 보니 일을 맡길 만한 사람 같지가 않구려. 설령 칼로 한 번 베고 한 번 가르는 험한 일이라도 무송이 그대 대신 해주겠소! 하지만 만약 아첨하고 간사한 일이라면, 그건 사람이 할 짓이 아니오!"

그제야 시은은 두 손을 모아 가슴에 붙이고 비로소 그 일을 꺼내 놓았다.

이로 인해 무송은 사람 죽이는 수단을 드러내고, 호랑이 잡던 그 위풍을 다시 한번 떨치게 되었으니, 바로 이러하다.

두 주먹 휘둘러 일어나는 곳에 구름과 우레 울부짖고, 날아차기 들어오는 때에 비바람이 놀라네.

결국 시은이 무송에게 무슨 일을 말했는지, 다음 회에서 풀이를 들어보시라.

제29회 — 시은이 맹주도를 거듭 점령하고, 무송이 술에 취해 장문신을 때려눕히다

施恩重霸孟州道 武松醉打蔣門神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시은이 무송을 향해 말했다. "형님, 우선 앉으십시오. 제가 이 억울한 사정을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소관영, 구구절절 길게 늘어놓지 말고 요점만 바로 말하게." 시은이 말했다. "저는 어려서부터 강호의 스승님들께 창술과 봉술을 조금 배웠는데, 덕분에 맹주 일대에서 '금안표(金眼彪)'라는 별호로 이름이 좀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있는 동문 밖에는 '쾌활림'이라 불리는 저잣거리가 있는데, 산동이나 하북에서 온 상인들이 모두 그곳으로 모여듭니다. 그곳에는 큰 객점도 백여 곳이나 되고, 도박장과 환전소도 이삼십 곳쯤 됩니다. 예전에는 제가 가진 무술 실력을 믿고, 또 진영에 있는 목숨을 아끼지 않는 사생결단의 죄수 팔구십 명을 거느리고 그곳에 술집과 고깃집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다른 가게나 도박장들과도 나누어 운영했지요. 길을 지나던 기생들이 그곳에 오려면 반드시 저를

먼저 찾아와 인사를 해야만 장사를 할 수 있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서 매일같이 돈이 들어왔고, 달마다 이백에서 삼백 냥 정도는 거뜬히 벌어들였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본영의 장 단련(군사 직책)이 동로주에서 새로 부임해 오면서 한 사람을 데려왔습니다. 그놈의 성은 장이고 이름은 충인데, 키가 아홉 자나 되는 거구라 강호에서는 '장문신'이라 불립니다. 그놈은 덩치만 큰 게 아니라 무술 실력도 대단해서 창술과 권법, 발차기에 능하고 특히 씨름을 제일 잘합니다. 제 입으로 늘 이렇게 큰소리를 치더군요. '삼 년 동안 태산에서 비무를 해도 상대가 없었다. 천하에 나 같은 놈은 없다!'라면서 말입니다. 그래서 그놈이 제 생계 수단을 빼앗으려 합니다. 제가 물러서지 않고 맞서 싸웠더니, 그놈에게 두들겨 맞고 두 달 동안 침상에서 일어나지도 못했습니다. 형님께서 오셨던 엊그제도 저는 머리에 붕대를 감고 손을 싸매고 있었는데, 지금까지도 상처가 다 낫지 않았습니다.

원래는 사람들을 모아 그놈과 한판 붙으려 했지만, 그놈에게는 장 단련이 데려온 정예병들이 있습니다. 만약 싸움이 커지면 진영 측에서 먼저 손해를 보게 될 터라, 이 억울함을 풀지 못하는 것이 한이 됩니다. 형님께서 대장부라는 소문은 익히 들었습니다. 부디 형님께서 제 한을 풀어 주신다면 저는 죽어도 눈을 감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형님께서 먼 길을 오시느라 고생하셨으니, 아직 기운이 다 회복되지 않으셨을까 염려됩니다. 그러니 반년이나 석 달 정도는 푹 쉬시면서 기력을 보충하신 뒤에 다시 의논했으면 했습니다. 그런데 입싼 하인 놈이 그만 말을 흘리는 바람에, 이렇게 사실대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무송은 그 말을 듣고 허허 크게 웃으며 물었다. "그 '장문신'이라는 놈이 머리가 몇 개고 팔이 몇 개나 된다더냐?" 시은이 대답했다. "그놈도 머리는 하나요, 팔은 두 개뿐입니다. 왜 그러십니까?" 무송이 웃으며 말했다. "나는 그놈이 무슨 나타(哪吒)처럼 머리 셋에 팔 여섯 달려서 나타 같은 재주가 있는 줄 알았다면 두려워했겠지. 그런데 알고 보니 머리 하나에 팔 두 개뿐이라니! 나타 같은 모습이 아니라면 내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느냐?" 시은이 말했다. "다만 제가 힘도 약하고 무예도 서툴러서 그놈을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내가 허튼소리 하는 게 아니다. 내 가슴 속에 든 실력으로 평생 천하의 거친 놈들과 도덕도 모르는 무뢰한들을 때려눕혀 왔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지금 여기서 무얼 하고 있느냐? 술이 있다면 가져와서 길에서 마시자. 내가 지금 당장 너와 함께 가서, 저놈을 호랑이 잡듯 해치워 버리겠다. 내 주먹이 무거워 그놈을 때려죽인다면, 그 목숨값은 내가 책임지겠다." 시은이 말했다. "형님, 잠시만 앉아 계십시오. 저희 아버님께서 나오셔서 인사를 나누신 뒤에 바로 움직여야지, 함부로 서두를 수는 없습니다. 우선 내일 사람을 보내 그곳 사정을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만약 그놈이 집에 있다면 모레 가고, 만약 집에 없다면 그때 다시 생각하겠습니다. 괜히 갔다가 '풀을 쳐서 뱀을 놀라게 하듯(打草驚蛇)' 그놈이 미리 손을 써버리면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무송이 조급하게 말했다. "소관영, 어쩐지 자네가 그놈에게 얻어맞을 만했군! 알고 보니 사내답게 일을 처리하지 못하는 자였구나! 가려면 갈 일이지 오늘이니 내일이니 따질 게 무어 있나! 가려면 지금 당장 가야지, 그놈이 대비할까 봐 겁이 난단 말이냐!"

그곳에서 아무리 권해도 둘이 다투는데, 마침 병풍 뒤에서 노관영이 나타나며 외쳤다. "의사(義士)님, 이야기를 한참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 다행히 이렇게 의사님을 뵙게 되니, 못난 제 자식에게는 마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뜨는 것과 같습니다. 부디 안채로 모셔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무송은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다. 노관영이 말했다. "의사님, 어서 앉으십시오." 무송이 말했다. "저는 죄수 신분인데, 어찌 감히 어르신 앞에서 함부로 앉겠습니까?" 노관영이 말했다. "의사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못난 제 자식이 그대를 만난 것은 천행이거늘 어찌 사양하십니까?" 무송은 그 말을 듣고 "이거 실례합니다" 하고 공손히 읍한 뒤 맞은편에 앉았다. 시은은 여전히 그 앞에 서 있었다. 무송이 물었다. "소관영, 자네는 왜 계속 서 있는가?" 시은이 대답했다. "아버님께서 상석에서 모시고 계시니, 형님께서는 편히 앉으십시오." 무송이 말했다. "그렇게 되면 내가 오히려 마음이 불편하네." 노관영이 거들었다. "의사님께서 정 그러하시다면, 여기엔 남도 없으니 괜찮습니다." 그러고는 시은에게도 앉으라고 일렀다. 하인들이 술과 안주, 과일과 여러 가지 음식들을 날라오자, 노관영은 직접 무송에게 술을 따라주며 말했다. "의사님 같은 영웅을 뵙게 되었으니 누가 경외하지 않겠습니까. 제 못난 자식이 본래 쾌활림에서 장사를 하던 것은 재물을 탐해서가 아니라, 실로 맹주의 위상을 빛내고 호걸의 기상을 더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뜻밖에 '장문신' 그놈이 권세를 믿고 횡포를 부려 공공연히 그 터를 빼앗아 갔습니다. 의사님 같은 영웅이 아니면 이 원수를 갚고 한을 풀 길이 없습니다. 의사님께서 못난 제 자식을 버리지 않으신다면, 부디 이 잔을 다 비워 주시고 제 자식의 네 번 절을 받으시어 큰형님이 되어 주십시오. 그리하여 공경하는 마음을 표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무송이 대답했다. "제가 무슨 재주가 있다고 감히 소관

영의 예우를 받겠습니까? 괜히 이 무송의 복(녹)만 깎을 뿐입니다!" 이윽고 무송이 술을 들이켜자, 시은이 머리를 조아리며 네 번 절을 올렸다. 무송도 서둘러 답례하며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었다. 그날 무송은 기쁘게 술을 마시다 크게 취하였고, 사람들이 그를 부축하여 방으로 데려가 쉬게 하니 이야기는 일단락된다.

다음 날, 시은의 부자가 상의하며 말했다. "무송이 어젯밤에 몹시 취했으니 분명 숙취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 어찌 감히 그를 데려가겠습니까? 우선 사람을 보내 알아보게 했더니 그놈이 집에 없더라 하고 하루 더 미룬 뒤에 다시 일을 도모합시다."

그날 시은이 무송을 찾아와 말했다. "오늘은 아직 가실 수 없습니다. 제가 사람을 보내 알아보니 그놈이 집에 없었습니다. 내일 식사를 마친 뒤에 형님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내일 가는 것은 상관없지만, 오늘 또 나를 하루 화나게 하는구나."

아침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신 뒤, 시은은 무송과 함께 영채 앞을 한 바퀴 거닐었다. 다시 객실로 돌아온 두 사람은 창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권법과 곤봉술을 겨루어 보았다. 어느덧 정오가 되자 시은은 무송을 집으로 초대했다. 술은 몇 잔만 권할 뿐이었으나, 밥반찬과 술안주는 셀 수 없이 많이 차려냈다. 무송이 막 술을 마시려는데, 시은이 안주만 계속 내오며 술을 권하지 않자 마음속으로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무송은 점심 식사를 마치고 일어나 작별 인사를 한 뒤, 객실로 돌아와 자리에 앉았다.

그때 하인 두 명이 와서 무송의 목욕을 시중들었다. 무송이 물었다. "너희 집 소관영이 오늘 어찌하여 고기 안주만 내오고 술은 좀처럼 내오지 않는 것이냐? 무슨 뜻이냐?" 하인이 대답했다. "도두(都頭)님께 감히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에 노관영님과 소관영님이 의논하시기를, 원래는 오늘 도두님을 모시고 가려 했으나, 어젯밤 술을 많이 드셔서 혹여 오늘 숙취 때문에 큰일을 그르칠까 염려되어 감히 술을 내오지 못했다고 하셨습니다. 내일 정식으로 도두님을 모시고 일을 처리하려 합니다." 무송이 말했다. "그렇다면 내가 취해서 너희 큰일을 망칠까 봐 걱정한다는 말이냐?" 하인이 대답했다. "정확히 그러하옵니다."

그날 밤 무송은 동이 트기만을 손꼽아 기다렸다. 아침 일찍 일어나 세수를 마친 뒤, 머리에는 만자무늬 두건을 쓰고 몸에는 흙색 무명 저고리를 입었으며, 허리에는 붉은 비단 띠를 둘렀다. 다리에는 행전과 무릎 보호대를 차고 팔조마혜(八搭麻鞋)를 신었다. 그리고 작은 고약 하나를 얻어 얼굴에 있는 '금인(金印, 죄수임을 표시하는 자자)'에 붙여 가렸다.

아침이 되자 시은이 일찍 찾아와 집에서 아침 식사를 하자고 청했다. 무송이 아침 식사를 마치자 시은이 말했다. "뒷마구간에 말이 준비되어 있으니, 말을 타고 가시지요." 무송이 말했다. "내가 발이 부실한 것도 아닌데 굳이 말을 타야겠나? 다만 내 청이 하나 있네." 시은이 대답했다.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아우가 어찌 감히 거절하겠습니까?" 무송이 말했다. "자네와 함께 성 밖으로 나갈 때, '무삼불과망(無三不過望)'을 꼭 지켜주게." 시은이 물었다. "형님, '무삼불과망'이 무슨 뜻

입니까? 소제가 그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무송이 웃으며 말했다. "내 말해주지. 자네가 '장문신'을 치러 성 밖으로 나갈 때, 길가에 주막을 만나면 반드시 나에게 술 세 잔을 대접해야 하네. 만약 세 잔을 채우지 못한다면 그 주막의 술 깃발(망자, 望子)을 지나치지 않겠다는 뜻이지. 이것이 바로 '무삼불과망'이라네."

시은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했다. '쾌활림에서 동문까지는 십사오 리 정도 되고, 술을 파는 집도 열두세 곳쯤 될 텐데, 집집마다 세 잔씩 마신다면 쾌활림에 도착하기도 전에 술 서른다섯, 서른여섯 잔은 거뜬히 마시겠구나. 형님께서 취해버리시면 어찌한단 말인가?'

무송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자네는 내가 취해서 실력이 없을까 봐 걱정하는 모양인데, 나는 술이 없으면 실력도 없는 사람이라네. 술을 한 잔 마시면 한 만큼의 실력이 나고, 다섯 잔을 마시면 다섯 만큼의 실력이 나지. 만약 술을 열 잔이나 마신다면 그 기운이 어디서 솟아날지 나도 모르겠네! 술에 취해 담대해지지 않았다면, 내가 어찌 경양강에서 그 커다란 호랑이를 잡았겠는가? 그때도 나는 아주 흠뻑 취해 있었기에 손을 쓰기 좋았고, 힘과 기세도 넘쳤다네."

시은이 말했다. "형님께서 그런 분인 줄 미처 몰랐습니다. 집에 좋은 술이 얼마든지 있지만, 혹여 형님께서 취해 일을 그르치실까 염려되어 어젯밤에는 감히 술을 내놓지 못하고 형님께 마음껏 권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만약 술을 드셔야 실력이 더 좋아지신다면, 차라리 하인 둘을 먼저 보내 집안의 좋은 술과 과일, 안주를 챙겨 길목에서 기다리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형님과 천천히 나누어 마시며 갈 수 있겠군요."

무송이 말했다. "그렇게 해야 내 마음에 쏙 들겠군! '장문신'을 치러 갈 때 나에게도 어느 정도 담력이 있어야 하지 않겠나. 술이 없으면 어찌 수단과 방법을 발휘하겠는가? 오늘 반드시 그놈을 때려눕혀서 사람들을 한바탕 웃게 만들어 주겠네!"

시은은 즉시 채비를 마쳐 하인 둘에게 음식과 술을 담은 광주리를 메게 하고 동전 몇 푼을 챙겨 먼저 보냈다. 노관영 또한 몰래 건장한 사내 일이십 명을 선발하여 뒤에서 천천히 따라가 호응하도록 미리 일러두었다.

한편, 시은과 무송은 안평채를 떠나 맹주 동문 밖으로 나왔다. 관도를 따라 삼오백 보쯤 걸어가니, 길가에 주막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처마 밑에는 술을 파는 깃발이 높이 걸려 있었고, 먼저 보낸 하인 둘이 이미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시은이 무송을 안으로 안내하여 자리에 앉히자, 하인들은 재빨리 안주를 차려내고 술을 거르고 있었다.

무송이 말했다. “작은 잔으로 마시지 않겠네. 큰 사발로 가져와서 딱 세 잔만 따르게나.”

하인이 큰 사발을 차려내자 술을 따랐다. 무송은 사양하지 않고 단숨에 세 사발을 비운 뒤 자리에서 일어났다. 하인들이 황급히 그릇을 치우고 앞서 달려갔다. 무송이 웃으며 말했다. “이제야 술기운이 좀 도는군. 가세나.”

두 사람은 주막을 떠나 길을 재촉했다. 때는 마침 칠월이라 무더위가 채 가시지 않은 데다 찬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두 사람은 옷깃을 풀어헤치고 다시 일 리 남짓을 더 걸어갔다. 마을도 성곽도

없는 한적한 곳에 이르렀을 때, 숲속 사이로 술집 깃발 하나가 높이 솟아 있는 것이 보였다. 숲 사이로 다가가 살펴보니, 마을 사람들이 술을 빚어 파는 작은 주막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했다.

오래된 길 마을 어귀, 시냇가 옆 주막.
문밖에는 버드나무 그늘 짙게 깔리고, 연못에는 연꽃이 흐드러졌네.
가을바람에 술 깃발은 하늘거리고, 짧은 갈대 발은 뜨거운 햇살을 가리네.
사기 항아리 위에는 차가운 마을 술이 가득 담겨 있고,
진흙 항아리 화로 앞에는 마을 잔치 술이 향긋하게 쪄지고 있네.
술 향기가 십 리를 가기도 전에, 아마 옆집 세 집은 이미 취하겠네.

이때 시은과 무송이 마을 주막 앞에 이르자, 시은이 발을 멈추고 물었다. "이곳은 마을 사람들이 빚은 술을 파는 작은 주막인데, 형님, 좀 드시겠습니까?" 무송이 말했다. "맛이 시건 짜건 쓰건 떫건 가리지 않네. 술이라면 마땅히 세 잔은 마셔야지. 만약 세 잔을 채워 주지 않는다면, 이 주막의 술 깃발(帘)을 그냥 지나치지 않겠네."

두 사람이 자리에 앉자 하인들이 과일과 안주를 차려내고 술을 따랐다. 무송은 연달아 세 사발을 비우더니 곧 자리에서 일어나 떠났다. 하인들은 서둘러 그릇과 집기를 챙겨 앞서 달려갔다. 두 사람이 주막을 나와 다시 일이 리도 채 못 가는데, 길가에 또 다른 주막이 보였다. 무송이 안으로 들어가 다시 세 사발을 마시고는 떠났다. 자세한 이야기는 생략한다.

무송과 시은은 함께 길을 가며 주막을 만날 때마다 들어가 세 잔씩 마셨다. 대략 열 군데 남짓한 좋은 주막에서 술을 마시고 나니, 시은이 보기에 무송은 아직 그리 취한 기색이 아니었다. 무송이 시은에게 물었다. "쾌활림까지는 아직 길이 얼마나 남았나?" 시은이 대답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 앞에 멀리 보이는 숲이 바로 그곳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도착했으면 자네는 다른 곳에서 기다리게. 나는 직접 가서 그 놈을 찾겠네." 시은이 말했다. "그게 좋겠습니다. 소제는 따로 몸을 의탁할 곳이 있습니다. 다만 형님, 부디 마음에 새기시어 적을 얕보지 마십시오." 무송이 말했다. "그건 걱정 말게. 그저 하인을 보내 나를 따라오게만 하게나. 앞에 또 주막이 있으면 다시 마셔야 하니 말일세."

시은은 하인에게 계속해서 무송을 모시게 하고 자신은 따로 길을 떠났다.

무송은 다시 삼사 리 남짓을 더 걸어가며 열 사발 정도의 술을 더 마셨다. 이때는 이미 오패시(午牌時, 낮 12시경) 무렵이라 날이 한창 더웠으나 미풍이 조금씩 불어오고 있었다. 무송은 술기운이 확 올라오는 것을 느끼고 포(布衫, 면 겉옷)를 풀어헤쳤다. 그는 술이 절반 정도만 취한 상태였으나, 마치 완전히 취한 것처럼 몸을 앞뒤로 흔들고 동서로 비틀거리며 걸었다. 숲 앞에 이르자 하인이 손가락으로 앞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앞 정자(丁字) 모양의 삼거리만 지나면 바로 ‘장문신’ 주막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도착했으니 너희는 멀리 가서 숨어 있거라. 내가 그 놈을 때려눕히고 나면 그때 오너라.”

무송이 숲 뒤편으로 달려가 보니, 마치 금강역사처럼 덩치가 산만 하고 위엄이 넘치는 한 사내가 보였다. 그는 흰 면 겉옷을 걸친 채 교의(交椅, 접이식 의자)를 펼쳐 놓고, 파리채를 손에 쥔 채 푸른 회화나무 아래 앉아 바람을 쐬고 있었다. 무송이 그 사람의 생김새를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형용은 추악하고, 생김새는 거칠고 투박하다.
온몸은 자줏빛 살집이 너저분하게 퍼져 있고, 푸른 힘줄 몇 가닥이 곳곳에 불거져 있다.
누런 수염은 비스듬히 말려 올라가, 입가에는 거센 바람이 이는 듯하고,
괴이한 눈은 동그랗게 부릅떴으며, 눈썹 아래 두 눈동자는 별처럼 번뜩인다.
참으로 신도(神荼)·울루(鬱壘) 같은 문신(門神)의 형상이로되, 결코 땅을 딛고 하늘을 떠받치는 대장부의 모습은 아니로다.

무송은 술에 취한 척 비틀거리며 눈을 가늘게 뜨고 그를 슬쩍 살펴보더니, 속으로 생각했다.

'저 덩치 큰 사내가 분명 '장문신'이로구나.'

그러고는 곧장 그를 향해 달려들었다.

다시 삼사십, 길어야 오십 걸음(三五十步)도 채 못 가서, 정자(丁字) 길 어귀에 커다란 주점 하나가 나타났다. 처마 앞에는 술집을 알리는 망간(望竿)이 서 있었고, 그 위에는 '하양풍월(河陽風月)'이라 네 글자가 큼지막하게 쓰인 술 깃대(酒望子)가 걸려 있었다. 돌아 들어가 보니 문 앞에는 푸른 기름칠을 한 난간이 한 줄로 둘러쳐져 있었고, 금박을 입힌 깃발 두 개가 꽂혀 있었으며, 깃발 하나마다 다섯 자씩 금색 글자가 쓰여 있었으니 곧 '취리건곤대(醉裏乾坤大), 호중일월장(壺中日月長)' — '취하면 천지가 넓고, 술병 속의 세월이 길도다' — 라는 글귀였다. 한쪽에는 고기 도마와 받침대, 칼을 잡은 일꾼들이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만두를 찌고 장작을 때는 부엌이 있었다. 안쪽으로 들어가니 커다란 술독 세 개가 일렬로 늘어서 있는데, 모두 절반은 땅에 묻혀 있고 독 안에는 술이 반 너머 들어 있었다. 한가운데에는 계산대(櫃身子)가 놓여 있고, 그 안에는 젊은 여인 하나가 앉아 있었으니, 바로 '장문신'이 맹주에 처음 와서 새로 들인 첩이었다. 원래 서와자(西瓦子) 거리에서 갖은 제궁조(諸宮調)를 노래하던 이름난 기녀(頂老)였다. 그 여인의 생김새가 어떠하였는가 하면.

눈썹은 푸른 산봉우리처럼 비끼고, 눈동자에는 가을 물결이 어리누나.
앵두 같은 입술은 연하게 붉은빛이 어리고, 죽순 같은 손가락은 어린 옥을 살며시 펼친 듯하네.
작은 관(冠)에는 어침(魚魿, 물고기 뇌골로 만든 장식)을 깔아 환히 빛나, 검은 구름 같은 머리채를 가렸다 비추고,
좁고 정교한 옷소매는 석류꽃 빛으로 물들어, 눈처럼 흰 살결을 얇게 감싸네.

금비녀에는 봉황이 꽂혔고, 보석 팔찌에는 용이 둘렸구나.
이 여인을 보면 최호(崔護)가 다시 물을 찾으러 갈 만하고, 탁문군(卓文君)이 다시 술을 파는가 의심할 만하네.

무송은 그 여인을 한 번 훑어보고는, 술에 취한 듯한 눈빛을 유지하며 주막 안으로 곧장 들어갔다. 그러고는 탁자를 마주 보는 자리 하나를 골라 앉았다. 무송은 두 손을 탁자 위에 얹어 누른 채,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그 여인을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여인은 무송과 눈이 마주치자 슬쩍 고개를 돌려 다른 곳을 바라보았다.

무송이 주점 안을 살펴보니 시중드는 일꾼이 대여섯 명쯤 있었다. 무송은 탁자를 두드리며 외쳤다. "술 파는 주인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우두머리 격인 일꾼 하나가 다가와 무송을 보며 물었다. "손님, 술은 얼마나 드시겠소?" 무송이 말했다. "두 각(兩角)만 가져오너라. 우선 좀 맛을 보자." 일꾼은 계산대로 가서 여인에게 두 각의 술을 떠 내려 통에 부으라 하고는, 한 사발 데워 가지고 와서 말했다. "손님, 술맛 좀 보시지요." 무송은 사발을 들어 냄새를 맡더니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좋지 않다, 좋지 않아! 바꿔 오너라!"

일꾼은 무송이 술에 취한 줄로만 알고 계산대 쪽으로 가서 여인에게 말했다. "마님, 그냥 다른 것으로 좀 바꿔 주십시오." 여인은 술을 받아 부어 버리고는 다시 상등 술을 떠 내려 주었다. 일꾼이 받아 가서 또 한 사발 데워 가져왔다. 무송은 사발을 들어 한 모금 마시더니 외쳤다.
"이 술도 좋지 않다! 어서 바꿔 오너라. 그러면 너는 봐주마!"

일꾼은 화를 꾹 참고 술을 들고 계산대 옆으로 가서 말했다. "마님, 그냥 더 좋은 술로 바꿔 주십시오. 저 사람하고는 따지지 마시지요. 손님이 취해서 시비나 걸려는 모양이니, 그냥 제일 좋은 것으로 드리지요." 여인은 다시 한 번 빛깔 좋은 상등 술을 떠서 일꾼에게 건넸다. 일꾼은 술통을 앞에 놓고 또 한 사발 데워 가져왔다. 무송은 마시고 나서 말했다. "이 술은 좀 그럴듯하구나." 그러고는 물었다. "여보게, 너희 주인장 성이 무엇이냐?" 일꾼이 답했다. "장(蔣) 씨입니다." 무송이 말했다. "어째서 이(李) 씨가 아니란 말이냐?" 그 말을 들은 여인이 쏘아붙였다. "이놈이 어디 가서 취해 가지고 여기 와서 공연히 시비를 거는 게냐!" 일꾼이 거들었다. "보아하니 외지에서 온 무식한 놈이라 사정을 모르는 모양이오. 헛소리는 흘려 들으시지요!" 무송이 물었다. "지금 뭐라 하였느냐?" 일꾼이 말했다. "우리끼리 하는 말이니, 손님은 상관 말고 술이나 드시오."

무송이 말했다. "여보게, 저 계산대(궤)에 있는 여인을 내려오게 해서 나와 함께 술을 마시게 하라." 일꾼이 호통쳤다. "허튼소리 마시오! 저분은 주인집 마님이시오." 무송이 말했다. "주인집 마님이면 어떠하단 말이냐? 나와 함께 술 한잔 나누는 것쯤이야 별일도 아니지 않으냐!" 그 말을 들은 여인이 크게 노하여 욕설을 퍼부었다. "죽일 놈! 능지처참할 도둑놈 같으니!" 그러고는 계산대를 박차고 나와 달려들 기세였다.

무송은 재빨리 흙빛 베적삼을 벗어 그 윗자락을 품속에 찔러 넣어 묶고는, 술통을 들어 그대로 바닥에 쏟아 버렸다. 그러고는 계산대 안으로 뛰어들어 마침 달려 나오던 여인을 맞붙잡았다. 무송의 손힘이 워

낙 세니 여인이 어찌 빠져나올 수 있었으랴. 무송은 한 손으로 여인의 허리를 움켜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관(冠)을 쥐어 가루로 부숴 버린 뒤 검은 머리채를 거머쥐어, 계산대 너머로 번쩍 들어 올리고는 탁주(渾酒) 항아리 속으로 그대로 던져 버렸다. '풍덩' 하는 소리와 함께, 가련한 그 여인은 곧장 큰 술독 안에 곤두박혔다.

무송이 척 하고 계산대 앞에서 걸어 나오자, 시중들던 일꾼들 가운데 손발이 좀 빠른 자들 몇이 일제히 달려들었다. 무송은 손을 뻗어 가볍게 한 명을 잡아끌어 와 두 손으로 거머쥐고는 큰 술독 속에 그대로 던져 박아 버렸다. 또 다른 일꾼이 달려들자 머리를 잡아채 휙 던져 그 또한 술독에 처넣었다. 뒤이어 달려든 두 명은 무송의 주먹과 발길질에 그대로 쓰러졌다. 앞서 세 사람은 세 개의 술독에 처박혀 도저히 빠져나오지 못했고, 뒤의 두 사람은 바닥에 쓰러져 기어 일어나지도 못했다. 이 일꾼 패거리는 모두 똥오줌을 지릴 정도로 얻어맞았고, 그중 눈치 빠른 한 놈만이 슬그머니 도망쳐 버렸다.

무송이 말했다. "저놈이 분명 '장문신'에게 알리러 갔을 테니, 내가 마중 삼아 나가서 큰길 위에서 그놈을 때려눕혀 뭇사람들 구경거리나 시켜 주마." 그러고는 성큼성큼 밖으로 걸어 나갔다.

도망친 하수인은 곧장 달려가 '장문신'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소식을 들은 장문신은 깜짝 놀라 의자를 걷어차고 손에 들고 있던 파리채를 내팽개친 채 급히 달려왔다. 무송은 기다렸다는 듯 큰길 한복판에서 그를 맞닥뜨렸다. 장문신은 덩치는 컸으나 근래에 주색에 빠져 몸이 많이 상한 상태였다. 갑자기 놀란 소식을 듣고 달려나오느라 발걸음을 멈추지 못하니, 어찌 호랑이같이 건장한 무송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더구

나 무송은 작심하고 그를 해치우려 마음먹고 있었다. 장문신은 무송을 보자 속으로 그가 술에 취했으리라 얕잡아 보고 앞뒤 가리지 않고 달려들었다.

말로 하면 더디나, 그 순간은 번개 같았다. 무송이 먼저 양 주먹을 장문신의 얼굴 쪽으로 허공에 휘둘러 위협하는 시늉을 하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달아났다. 장문신이 크게 노하여 달려들었으나, 무송의 날아차기에 하복부를 정통으로 맞고는 두 손으로 배를 움켜쥔 채 털썩 주저앉았다. 무송이 한 바퀴 휙 돌아 다가오더니, 이번에는 오른발을 번쩍 들어 곧장 장문신의 이마를 걷어차 정통으로 맞히니, 장문신은 그대로 뒤로 나자빠졌다. 무송은 한 걸음 따라붙어 그의 가슴을 짓누른 뒤, 식초 사발만큼이나 커다란 주먹을 치켜들어 장문신의 얼굴을 향해 내리쳤다.

앞서 말한 장문신을 때려잡는 수법이란 이러하다. 먼저 주먹을 허공에 휘둘러 시늉을 하고는 곧 몸을 돌려, 먼저 왼발을 날려 차 맞히고, 다시 몸을 돌려 오른발을 날려 차는 것이다. 이 한 수가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옥환보(玉環步) 원앙각(鴛鴦腳)'이라 불리는 무공으로, 이는 무송이 평생 갈고닦은 진짜 실력이니 결코 만만히 볼 것이 아니었다. 장문신은 바닥에 나뒹굴며 살려달라고 애걸했다. 무송이 호통을 쳤다. "내가 네 목숨을 살려주기를 원한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를 그대로 따라야 할 것이다!"

장문신이 바닥에서 부르짖었다. "호걸님, 제발 살려주십시오! 세 가지가 아니라 삼백 가지라도 다 따르겠습니다!" 무송은 장문신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그 세 가지를 말해 주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앞으로

얼굴과 모습을 바꾸어 주인을 찾고, 머리를 깎아 눈썹에 맞추고 사람을 죽이러 가게 될 일이 벌어지게 되었으니. 도대체 무송이 말한 그 세 가지가 무엇인지는, 다음 회를 들어 보시라.

제30회 — 시은이 죽을 죄인의 감옥에 세 번 들어가고, 무송이 비운포를 크게 뒤집다

施恩三入死囚牢 武松大鬧飛雲浦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무송은 '장문신' 장충을 땅바닥에 짓누른 채 말했다. "내 네 목숨을 살려주길 원한다면, 내가 말하는 세 가지 조건을 들어라!" 장충이 대답했다. "호걸님, 말씀만 하십시오. 장충이 무엇이든 다 따르겠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첫째, 당장 쾌활림을 떠나 네가 빼앗은 집안 살림과 모든 물건을 원래 주인인 '금안표' 시은에게 즉시 돌려주어라. 누가 네 마음대로 남의 것을 빼앗으라더냐?" 장충이 당황하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무송이 이어서 말했다. "둘째, 내가 지금 너를 놓아주면, 너는 곧장 쾌활림의 우두머리 격인 영웅호걸들을 찾아가 모두 시은에게 사죄하게 해라." 장충이 말했다. "소인이 그리하겠습니다." 무송이 다시 말했다. "셋째, 오늘 모든 것을 다 돌려주고 나면 너는 이 쾌활림을 떠나 오늘 밤 당장 고향으로 돌아가라. 다시는 맹주에 발을 붙이지 마라! 만약 여기서 버티며 돌아가지

않는다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매질을 할 것이다. 열 번을 보면 열 번을 때릴 것이고, 가볍게는 반쯤 죽여놓고 무겁게는 네 목숨을 끊어버릴 것이다. 알겠느냐?" 장충은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필사적으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충이 다 따르겠습니다!" 무송은 땅바닥에 쓰러진 장충을 일으켜 세웠다. 보니 얼굴은 푸르게 멍들고 입술은 부어올랐으며, 목은 한쪽으로 삐뚤어지고 이마에서는 피가 흐르고 있었다. 무송이 장충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어리석은 놈아, 말도 마라! 경양강에서 만난 그 커다란 호랑이도 주먹 몇 번과 발길질 몇 번에 내가 때려잡았다! 너 같은 놈이 대수냐! 어서 물건들을 다 돌려주어라! 조금이라도 늦는 날엔 다시 한번 매질을 해서 네놈 목숨을 끊어놓을 테니!" 그제야 장충은 상대가 무송임을 알아차리고 연신 머리를 조아리며 목숨을 구걸했다. 한창 이야기가 오가는데, 시은이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용맹한 장정 스무서른 명을 거느리고 무송을 돕기 위해 달려왔다. 장충을 제압한 무송을 본 시은은 기쁨을 감추지 못하며 사람들과 함께 무송을 둥글게 에워싸고 환영했다. 무송이 장충을 가리키며 말했다. "주인이 이미 여기 와 계시다. 너는 당장 물건들을 옮기면서, 동시에 사람들을 데려와 사죄하게 해라." 장충이 대답했다. "호걸님, 우선 가게로 가셔서 자리에 앉으십시오."

무송이 일행을 데리고 가게로 가보니, 바닥은 온통 쏟아진 술로 흥건했다. 그 망할 놈의 남녀 두 사람은 술 항아리 안에서 벽을 짚고 더듬으며 발버둥치고 있었다. 여자는 방금 막 항아리에서 기어 나온 참인데, 얼굴은 깨지고 긁혀 엉망이었고 하반신은 술이 줄줄 흘러내리며 끌리고 있었다. 술을 팔던 점원들은 이미 자취를 감춘 뒤였다.

무송이 사람들과 함께 가게 안으로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아 외쳤다. "어서 일어나서 뒷정리를 해라!" 무송은 한편으로는 수레를 준비하고 짐을 챙겨 그 여인을 먼저 보내주도록 조치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다치지 않은 점원들을 시켜, 진(鎭) 안의 우두머리 격인 호걸 십여 명을 가게로 불러 모아 장문신을 대신하여 시은에게 사죄의 말을 올리게 하였다. 좋은 술을 아낌없이 따고 안주도 상 위에 가득 차려 사람들을 앉혔다. 무송은 시은을 장문신보다 윗자리(上首)에 앉혔다. 그리고 사람들의 앞에는 커다란 사발을 놓아주고, 술을 아낌없이 계속 따라주게 했다.

술이 몇 사발째 비워질 무렵, 무송이 입을 열어 말했다.

"여기 계신 마을 어른들,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저 무송은 양곡현에서 사람을 죽인 뒤 죄인 신분으로 이곳에 유배되어 왔습니다. 그러다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으니, '쾌활림의 이 주점은 본래 시 소관영(施小管營, 시은)이 지어 일궈놓은 가옥과 살림이며 장사터였는데, 저 장문신이라는 놈이 세력을 믿고 횡포를 부리며 공공연히 빼앗아 그의 옷과 밥줄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하더군요. 여러분께서는 시은이 저의 주인이라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시은과 아무런 관계도 없습니다. 저는 본디 천하의 이런 도리에 어긋난 자들을 때려잡고자 할 뿐입니다. 길을 가다 불의를 보면 칼을 뽑아 도울 따름이라, 죽음조차 두렵지 않습니다. 사실 오늘 저는 저 장가 놈을 한바탕 주먹과 발길질로 때려죽여 이 해악을 없애버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 계신 어른들의 면면을 보아, 일단 저놈의 목숨만은 잠시 붙여두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밤 당장 저놈을 다른 부(府)로 떠나보내십시오. 만약 여기서 떠나지 않

고 제 눈에 다시 띄는 날에는, 경양강의 호랑이가 바로 저놈의 본보기가 될 줄 아십시오."

사람들은 그제야 그가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무 도두라는 것을 알고, 모두 일어나 장문신을 대신하여 사죄의 말을 올렸다.

"호걸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저놈으로 하여금 곧 짐을 싸 떠나게 하고 가게는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문신은 무송의 기세에 겁을 먹어 감히 다시는 소리를 내지 못했다. 시은은 가재도구와 집기들을 점검하여 가게를 인수받았다. 장문신은 수치심에 얼굴이 벌겋게 달아오른 채 사람들에게 사례하고는, 스스로 수레 한 대를 불러 짐을 실은 뒤 서둘러 떠나갔다.

한편, 무송은 마을 어른들을 모시고 술을 마음껏 마시며 취할 때까지 즐겼다. 밤이 되어 사람들이 모두 흩어지자, 무송은 한바탕 깊은 잠에 빠졌다가 다음 날 진시(辰時, 오전 7시~9시)가 되어서야 깨어났다.

한편, 시 노관영(施老管營, 시은의 아버지)은 아들 시은이 쾌활림 주점을 다시 되찾았다는 소식을 듣고, 손수 말을 타고 곧장 가게로 달려와 무송에게 감사를 표하며 연일 가게에서 술을 마시며 축하했다. 쾌활림 일대의 사람들은 모두 무송이 대단한 인물임을 알고 있었기에, 한 명도 빠짐없이 무송을 찾아와 인사를 건넸다. 이로써 가게를 다시 정비하여 주점을 열었고, 노관영은 안평채(安平寨)로 돌아가 일을 보았다. 시은은 사람을 시켜 장문신이 가족(老小, 노소)을 데리고 어디로 갔는지 알아보았으나, 행방을 알 수 없었다. 그리하여 시은은 그 일은 더 이

상 신경 쓰지 않고 그저 장사에만 전념하며 무송을 가게에 머물게 했다.

그 후 시은의 사업은 예전보다 이문이 서너 할은 더 늘어났고, 각 가게와 도박장(賭坊), 환전소(兌坊)에서도 갑절의 이문에 여윳돈까지 보태어 시은에게 보내왔다. 시은은 무송 덕분에 이렇게 분풀이를 할 수 있었기에, 무송을 마치 부모처럼 극진히 모셨다. 시은이 이렇게 맹주도(孟州道)의 쾌활림을 다시금 굳건히 차지하게 된 일은 더 말할 것이 없다.

바로 이러하다:

남의 길을 빼앗던 자가 다시 빼앗기고,
의리가 많을 때 이로움 또한 많구나.
쾌활림에서 다시금 즐거움을 누리니,
악한 자는 절로 악한 자에게 시달리리라.

어느덧 세월은 흘러 한 달여가 훌쩍 지났다. 무더운 기운은 점차 물러가고 옥같은 이슬이 맺히며 서늘한 기운이 감돌더니, 가을바람이 더위를 몰아내어 어느덧 깊은 가을에 이르렀다. 할 말이 있으면 길어지고, 할 말이 없으면 짧아지는 법이다.

그날 시은은 무송과 가게에 앉아 권법과 창술에 대해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그런데 가게 문 앞으로 군관 두세 명이 말을 한 필 끌고 오더니, 주인에게 다가와 물었다.

"여기 호랑이를 잡았다는 무 도두가 계시는가?"

시은이 보니, 그들은 맹주 수어병마도감(守禦兵馬都監) 장몽방(張蒙方)의 아내(衙內) 친수(親隨)들이었다. 시은이 앞으로 나가 물었다.

"무 도두를 무엇 때문에 찾으시는 거요?"

군관이 대답했다.

"도감 상공의 균지(鈞旨)를 받들고 왔소. 무 도두가 참으로 좋은 사내라고 들으셨기에, 상공께서 특별히 우리를 시켜 말을 끌고 와 그를 모셔 오라 하셨소. 여기 상공의 균첩(鈞帖, 공식 초청장)이 있소."

시은은 균첩을 확인하고는 속으로 생각했다. '이 장 도감은 우리 아버지의 상관이니 그 명령을 따라야 하고, 무송 또한 유배되어 온 죄인이니 그 관할 아래 있는 셈이다. 어쩔 수 없이 보내드려야겠구나.'

시은은 무송에게 다가가 말했다.

"형님, 저분들은 장 도감 상공께서 형님을 모셔 오라고 보내신 분들입니다. 저렇게 말까지 끌고 왔으니, 형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무송은 워낙 강직한 성품이라 곡절을 따지지 않고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다.

"그가 나를 데려가겠다니, 한 번 가봐야지. 가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들어보겠네."

무송은 곧바로 옷과 두건을 갈아입고, 어린 시종(小伴當) 하나를 데리고 말에 올라타 그들과 함께 맹주 성안으로 향했다.

장 도감의 저택 앞에 도착하여 말에서 내린 무송은 군관들을 따라 대청까지 가서 장몽방을 알현했다. 대청에 있던 장몽방은 무송이 오는 것을 보고 크게 기뻐하며 외쳤다.

"안으로 들여보내 인사하게 하라!"

무송은 대청 아래로 나아가 장 도감에게 절을 올린 뒤, 두 손을 맞잡고 옆에 섰다. 장 도감이 무송에게 말했다.

"내가 듣기로 그대는 대장부이자 사내대장부로, 천하에 대적할 자 없는 영웅이라, 남과 더불어 생사를 같이할 수 있다더군. 내 휘하(帳前)에 마침 그와 같은 인재가 빠져 있는데, 혹시 나의 친수제기인(親隨梯己人, 곁에서 모시는 측근)이 되어주겠는가?"

무송은 무릎을 꿇고 감사를 표하며 대답했다.

"소인은 뇌성영(牢城營)에 갇힌 죄수일 뿐입니다. 만약 은상(恩相)께서 거두어 발탁해 주신다면, 마땅히 채찍을 잡고 등자를 따라 은상을 모시겠습니다."

장 도감은 크게 기뻐하며 즉시 과일 함과 술을 내오라고 일렀다. 장 도감은 친히 술을 내려 무송이 잔뜩 취하도록 마시게 했다. 그러고는 대청 옆 행랑에 있는 작은 곁방(耳房) 하나를 정돈하여 무송이 묵을 수

있게 했다. 다음 날, 다시 사람을 시켜 시은에게서 짐을 가져오게 하여, 무송은 장 도감의 집에서 머물러 지내게 되었다.

장 도감은 아침저녁으로 무송을 불러 후당으로 들이고 술과 음식을 대접했으며, 무송이 안방까지 자유롭게 드나들도록 하여 마치 친척처럼 대접했다. 또한 재봉사를 불러 무송에게 안팎으로 한 벌 가득 가을옷을 지어 입혔다. 무송도 이를 보고 내심 기뻐하며 생각했다.

'이 도감 상공께서 나를 이토록 힘써 끌어주시니 참으로 드문 일이다. 이곳에 와 머문 뒤로 한 발짝도 떠나지 못하여, 쾌활림에 가서 시은과 이야기 나눌 겨를도 없구나. 비록 시은이 자주 사람을 보내 나를 살피게 하기는 하나, 아무래도 그 사람들이 이 저택 안까지는 들어오지 못하는 모양이다…….'

무송은 장 도감의 저택에 머무는 동안 상공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다. 사람들이 공적인 일로 상공에게 부탁을 하러 오면, 무송이 도감 상공에게 말하여 부탁을 들어주지 않는 것이 없었다. 이에 사람들이 무송에게 금은보화와 재물, 비단 등을 갖가지로 보내왔다. 무송은 버들가지로 만든 상자를 하나 사서, 이렇게 들어온 물건들을 모두 그 안에 넣어 자물쇠로 채워두었다.

시간은 쏜살같이 흘러 어느덧 다시 팔월 중추절이 되었다. 중추절의 좋은 경치가 어떠한지는 다음과 같은 시로 나타내었다.

맑은 이슬은 차갑게 맺히고, 가을바람은 쓸쓸히 부네.
우물가 오동나무는 잎을 떨구고, 연못 속 연꽃은 씨방을 맺었네.

새로 날아온 기러기 소리는 슬프고, 찬 기운에 귀뚜라미 울음은 급해지네.
바람에 춤추던 버드나무는 반쯤 꺾였는데, 비를 머금은 연꽃은 여전히 곱구나.
가을빛은 계절의 흐름을 따라 가득하고, 둥근 달은 산천을 고르게 비추네.

당시 장 도감은 후당 깊숙한 곳에 있는 원앙루 아래에 잔칫상을 차려놓고 중추절을 축하하며, 무송을 불러 안으로 들어와 함께 술을 마시자고 했다. 무송이 가보니 부인과 식솔들이 모두 연회석에 앉아 있었다. 무송은 술을 한 잔 마신 뒤 몸을 돌려 나가려 했다. 그러자 장 도감이 무송을 불러 세우며 물었다.

"어디를 가려는가?"

무송이 대답했다.

"은상, 부인과 식솔들이 이곳에서 연회를 즐기고 계시니, 소인이 물러나 피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장 도감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그건 아니지. 나는 자네를 의사(義士)로 대접하여 특별히 함께 술을 마시려고 부른 것이니, 마치 제 식구와 다를 바 없는데 어찌 피하려 하는가?"

그러고는 무송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무송이 말했다.

"소인은 죄인인데, 어찌 감히 은상과 나란히 앉을 수 있겠습니까?"

장 도감이 말했다.

"의사, 어찌 그리 남처럼 구는가? 여기에는 외인도 없으니 편히 앉게나."

무송이 대여섯 번이나 사양하며 물러나려 했으나, 장 도감은 도무지 보내주지 않고 기어이 무송을 함께 앉게 했다. 무송은 어쩔 수 없이 무례를 무릅쓰고 멀찍이 몸을 비껴 앉았다. 장 도감은 어린 계집종과 시중드는 여인들을 시켜 계속 권했다. 한 잔, 두 잔, 어느덧 술이 대여섯 잔은 넘어갔다. 장 도감은 과일 상을 내오게 하여 술을 마시게 하고, 음식도 한두 상 더 들여오게 한 뒤,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며 창술에 대해서도 물었다.

장 도감이 말했다.

"대장부가 술을 마시는데 어찌 작은 잔을 쓰겠는가!"

그러고는 큰 은잔을 가져오게 하여 무송에게 술을 가득 채워 권했다. 연달아 몇 잔의 술이 무송의 목을 타고 넘어갔다. 어느덧 밝은 달빛이 동쪽 창가로 환하게 들이쳤다. 무송은 반쯤 취해 예의를 차리는 것도 잊은 채 그저 호탕하게 술을 마셨다. 장 도감은 자신이 아끼는 시녀 옥란을 불러 노래를 부르게 했다. 그 옥란의 생김새가 어떠한지는 다음과 같다.

연꽃잎 같은 얼굴에 앵두 같은 입술이라.
그려놓은 듯 푸른 두 눈썹은 먼 산을 닮았고, 한 쌍의 맑은 눈동자는 가을 물빛처럼 촉촉하네.
가냘프고 하늘하늘한 허리, 초록 비단 치마 사이로 금련(金蓮, 작은 발)이 어른거리고,
희고 향기로운 몸에, 진홍빛 비단 소매가 옥 같은 가는 손가락을 가볍게 감싸네.
봉황 비녀는 구름 같은 머리에 비스듬히 꽂혀 있고,
상아 박자판을 높이 받쳐 들고 대모(玳瑁)로 꾸민 잔칫자리에 단정히 서 있구나.

장 도감이 옥란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다른 외인은 없고, 오직 내 심복인 무 도두뿐이다. 자네는 중추절 달빛 아래의 풍경을 노래하는 곡을 불러 우리에게 들려주게나."

옥란은 박을 손에 들고 앞으로 나와 모두에게 만복을 빌며 인사를 올린 뒤, 곧바로 목청을 가다듬어 소동파 학사가 지은 '중추 수조가'를 부르기 시작했다.

시로 이르되,

밝은 달은 어느 때부터 있었던가, 술잔을 들어 푸른 하늘에 물어보노니. 하늘 위 저 궁궐은 오늘 밤이 어느 해인지 알 길이 없구나. 나는 바람을 타고 저곳으로 돌아가고 싶지만, 옥으로 만든 높은 누각은 너무

높아 추위를 견디지 못할까 두렵구나. 일어나 춤추며 맑은 그림자와 어우러지니, 어찌 (천상이) 인간 세상에 있는 것만 같으랴.

구슬 같은 발을 높이 걷어 올리고 화려한 문을 낮게 내리니, 잠 못 드는 이 위로 달빛이 비치네. 원망할 것도 없거늘, 어찌하여 매번 이별할 때마다 저리도 둥근 것인가? 사람에게는 슬픔과 기쁨, 헤어짐과 만남이 있고, 달에게는 흐림과 맑음, 차고 기운 모습이 있으니, 예부터 이런 일이 온전하기란 참으로 어려운 법이라네. 다만 바라건대, 우리 모두 오래도록 건강하여, 멀리 떨어져 있어도 저 아름다운 달빛을 함께 나누기를.

옥란이 노래를 마치고 상판(象板)을 내려놓은 뒤, 다시 정중히 인사를 올리고는 옆에 서 있었다. 장도감이 또 말했다. "옥란아, 술을 한 차례 올려라." 옥란이 대답하고는 권주반을 가져오자, 시녀가 술을 따랐다. 먼저 상공에게 권하고, 다음으로 부인에게 권한 뒤, 세 번째로 무송에게 술을 권했다. 장도감이 술을 가득 채우라고 일렀다. 무송이 어찌 감히 고개를 들 수 있겠는가.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멀찍이 다가가 술잔을 받아 들고는, 상공과 부인에게 크게 두 번 절을 올린 뒤 술을 단숨에 들이켜고는 잔을 돌려주었다.

장도감이 옥란을 가리키며 무송에게 말했다. "이 아이가 꽤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 음률에도 밝고 바느질과 자수 솜씨도 아주 훌륭하다네. 자네가 비천한 신분을 개의치 않는다면, 며칠 내로 길일을 택해 자네의 아내로 삼아주겠네." 무송이 일어나 다시 절하며 말했다. "소인이 어찌 감히 은상댁 식솔을 아내로 삼기를 바라겠습니까? 그런 분에 넘치는 일은 도리어 이 무송의 복(草料)을 깎는 일이 될 뿐입니다." 장도감이

웃으며 말했다. "내가 이미 이렇게 말했으니 반드시 자네에게 주겠네. 사양하며 거절하지 말게. 내가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겠네."

그때 무송은 연이어 열댓 잔의 술을 더 마셨다. 술기운이 올라와 혹여 예의를 잃을까 염려되어,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상공과 부인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한 뒤 앞뜰 복도에 있는 방 문 앞까지 나갔다. 문을 열고 보니 배가 불러 곧바로 잠들기가 어려울 것 같았다. 무송은 방 안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두건도 벗은 뒤, 초봉(哨棒) 하나를 들고 대청 한가운데로 나갔다. 밝은 달빛 아래서 몇 차례 몽둥이를 휘두르며 빙빙 돌려보았다. 하늘을 올려다보니 시간은 대략 삼경(밤 11시~새벽 1시)쯤 되었다.

무송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고 잠자리에 들려는데, 갑자기 뒷채에서 도둑이 들었다며 소란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들려왔다. 무송은 그 소리를 듣고 '장도감 상공께서 이토록 나를 아껴주시는데, 뒷채에 도둑이 들었다니 내가 어찌 가서 돕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했다. 무송은 정성을 다하고자 초봉을 들고 곧장 뒷채로 뛰어 들어갔다. 그러자 노래를 부르던 옥란이 허둥지둥 뛰어나오며 손가락으로 가리켰다. "도둑이 뒷마당으로 도망쳤어요!" 그 말을 들은 무송이 초봉을 들고 성큼성큼 뒷마당으로 쫓아 들어갔으나, 한 바퀴를 돌아도 도둑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무송이 다시 몸을 돌려 나오려는데, 어둠 속에서 긴 의자(板凳) 하나가 날아와 무송의 발을 걸어 넘어뜨렸다. 그사이 군사 일고여덟 명이 달려 나와 "도둑을 잡아라!"라고 외치더니, 무송을 바닥에 눕히고는 곧바로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무송이 급히 소리쳤다. "나다! 나라고!" 하지만 군사들이 어찌 그의 말을 들어주겠는가. 대청 안은 등불이 휘황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는데, 장도감이 대청에 앉아 있는 가운데 군사들이 일제히 소리쳤다. "놈을 끌고 와라!" 군사들은 한 걸음마다 몽둥이로 무송을 때리며 대청 앞으로 끌고 왔다. 무송이 외쳤다. "나는 도둑이 아니라 무송입니다!" 장도감이 이를 보고 크게 노해 안색을 바꾸며 호통을 쳤다. "이 천한 배군(配軍) 놈이, 본래 강도질이나 하던 도둑놈의 심보를 가진 놈이구나! 내가 너를 끌어올려 사람 구실 좀 하게 해주려 했고 조금도 홀대하지 않았거늘, 고작 술자리 한 번 같이 앉게 해줬더니 어찌 이런 짓을 한단 말이냐? 내가 너를 끌어올려 관직이라도 주려 했거늘, 네가 감히 어찌 이런 짓을 저지른단 말이냐!" 무송이 크게 소리쳤다. "상공, 저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도둑을 잡으러 왔는데 어찌 저를 도둑으로 잡으신단 말입니까? 무송은 하늘을 떠받치고 땅에 우뚝 선 대장부이지, 결코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장도감이 꾸짖었다. "이놈이 어디서 거짓말이냐! 당장 저놈을 방으로 압송하여 장물이 있는지 뒤져보아라!" 군사들은 무송을 압송하여 그의 방으로 가서 버드나무 가지로 엮은 상자를 열어보았다. 상자 위쪽에는 옷가지들이 있었으나, 아래쪽에는 은제 술병과 그릇들이 들어 있었는데 그 가치가 대략 백에서 이백 냥은 되어 보였다. 무송은 이를 보고 눈이 휘둥그레져서 억울하다고 소리칠 뿐이었다. 군사들이 상자를 대청 앞으로 들고 나오자, 장도감이 이를 보고 크게 꾸짖었다. "이 무례한 배군 놈아, 장물이 네 상자 안에서 나왔으니 이제 어찌 발뺌하겠느냐! 예부터 '중생을 제도하기는 쉬워도 사람을 제도하기는 어렵다'고 하더니, 네놈이 겉모습은 사람 같아도 속은 아주 도둑놈의 심보를 가졌구나.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니 더 말할 것도 없다!" 장도감은 즉시 장물을 봉인하여 기밀방(機密房)으로 보내 보관하게 하고, 날이 밝으면 이놈과 이야기하겠다고 명했다. 무송이 억울함을 호소했으나 그 말을 들어줄 리 없었

고, 군사들은 장물을 챙겨 무송을 기밀방으로 압송하여 가두어 버렸다. 장도감은 그날 밤 즉시 사람을 보내 지부에게 이 사실을 알렸는데, 압사(押司)와 공목(孔目) 등 위아래 관속들에게 모두 뇌물을 써서 일을 매끄럽게 처리해 두었다.

날이 밝자, 지부가 대청에 앉아 좌우에 명령을 내려 상황을 살피게 했다. 곧 무송이 대청으로 압송되어 왔고, 장물들도 대청 위에 모두 올려졌다. 장도감의 심복이 장도감의 저택에서 도난당했다는 문서를 가져와 지부에게 보여주었다. 지부는 좌우에게 명령하여 무송을 밧줄로 꽁꽁 묶어 엎드리게 했다. 옥졸과 관리들이 심문 도구들을 무송의 앞에 가져다 놓았다. 무송이 입을 열어 결백을 밝히려 하자, 지부가 호통을 쳤다.

"이놈은 원래 멀리 유배 온 죄인 신분인데, 도둑질을 안 하면 무엇이겠느냐? 필시 순간적인 탐욕에 눈이 먼 것이 분명하다. 증거가 이토록 명백하니 이놈의 헛소리는 듣지 말고, 그저 힘껏 매질이나 하라!"

그러자 옥졸과 관리들이 대나무 매를 들어 빗줄기처럼 무섭게 내려치기 시작했다. 무송은 지금은 말해 보아야 소용없음을 깨닫고, 어쩔 수 없이 억울함을 삼키며 자백했다.

"이달 보름날, 관아 안에 은제 술병과 그릇들이 많은 것을 보고 순간 욕심이 생겨, 밤을 틈타 몰래 훔쳐 제 상자에 넣었습니다."

무송은 그렇게 자백서를 써냈다. 지부가 말했다. "이놈이 정말 재물을 보고 눈이 멀었구나. 더 말할 것도 없으니, 당장 칼(枷, 죄인의 목에 씌우는 형구)을 가져와 목에 씌우고 옥에 가두어라."

옥졸이 긴 칼을 가져와 무송의 목에 씌운 뒤, 그를 사형수들이 갇히는 감옥으로 압송하여 가두었다.

시로 이르되,

도감의 탐욕이 참으로 한탄스러워
아내를 내쫓고 계집종을 바쳐 간사한 자에게 팔았네.
어찌 태수의 마음이 이를 사고팔 수 있단 말인가
평범한 백성조차 도둑으로 몰아 잡아가는구나.

한편 무송이 대옥(大牢, 큰 감옥)에 갇히게 되자 속으로 생각했다. '장도감 그놈이 이토록 치밀하게 함정을 파서 나를 빠뜨리다니. 만약 내가 목숨을 건져서 나갈 수만 있다면, 그때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해주마.' 옥졸들은 무송을 감옥에 압송한 뒤, 그의 두 발을 밤낮으로 움직이지 못하게 형구로 묶어버렸고, 양손 또한 나무 말뚝을 박아 고정해 버려 조금도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었다.

한편, 시은은 이미 이 소식을 전해 듣고는 황급히 성안으로 달려 들어와 아버지와 상의했다. 노관영이 말했다. "보아하니 장단련이 '장문신'을 대신해 복수를 하려고 장도감을 매수하여 이런 계책을 꾸며 무송을 함정에 빠뜨린 모양이다. 필시 장단련이 사람을 보내 관아의 위아래 관리들에게 돈을 뿌리고 뇌물을 먹였을 것이니, 다들 그들의 눈치를 보느라 무송의 변명은 듣지도 않고 반드시 그 목숨을 해치려 들 것이다. 내가 생각하기에 무송이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니, 다만 두 관아의

압뢰절급(押牢節級, 감옥을 관장하는 절급)을 매수한다면 목숨만은 건질 수 있을 것이다. 그 다음 일은 또 따로 의논해 보자꾸나."

시은이 말했다. "지금 감옥을 맡고 있는 절급 중에 성이 강 씨인 분이 저와 사이가 아주 좋습니다. 그분께 가서 간곡히 부탁드려 보는 게 어떻겠습니까?"

노관영이 대답했다. "그가 너 때문에 관재수를 겪고 있는데, 네가 가서 구하지 않으면 또 언제 구하겠느냐?"

시은은 은자 백에서 이백 냥을 챙겨 곧장 강절급을 찾아갔으나, 강절급이 감옥에 있어 아직 돌아오지 않은 터였다. 시은은 강절급의 집안 사람을 시켜 감옥에 소식을 전하게 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절급이 돌아와 시은과 만났다. 시은이 이번에 일어난 일을 하나부터 열까지 상세히 말하자, 강절급이 대답했다.

"형님께 숨김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은 모두 장도감과 장단련, 이 두 사람이 성이 같다고 의형제를 맺은 탓입니다. 지금 '장문신'이 장단련의 집에 숨어 있으면서 장단련을 통해 장도감을 매수하게 하고 이런 계책을 짜냈는데, 관아의 위아래 관리들이 모두 '장문신'이 뿌린 뇌물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대청의 지부 또한 그들의 편을 들며 무송의 목숨을 반드시 끊어놓으려 하고 있습니다. 오직 사건을 담당하는 엽공목 한 사람만이 그 뜻에 따르지 않아 무송이 그나마 화를 면한 것입니다. 그분은 충직하고 의리가 있어 죄 없는 사람을 해치려 하지 않으니, 덕분에 무송이 아주 큰 고초는 면했습니다. 이제 형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감옥 안의 일은 제가 알아서 잘 보살피겠습니다. 당장 가

서 무송을 편히 쉬게 하고, 앞으로 조금도 고생시키지 않겠습니다. 형님께서는 어서 사람을 보내 엽공목에게만 잘 부탁하십시오. 사건을 빨리 결론지어 내달라고 청해야 무송의 목숨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시은은 은자 백 냥을 강절급에게 건넸다. 강절급은 처음에는 받기를 사양하며 몇 번이나 거절하다가, 마침내 그것을 받아 들었다.

시은은 강절급과 작별하고 문을 나서서 곧장 영(營)으로 돌아갔다. 그러고는 엽공목과 친분이 있는 서기(書記)를 찾아가 은자 백 냥을 건네며, 부디 사건을 서둘러 결론지어 달라고 간곡히 부탁했다.

엽공목은 이미 무송이 대단한 호걸임을 알고 있었기에, 나름대로 그를 보살펴줄 마음을 품고 문안 서류를 살려두고 있었다. 다만 지부가 장도감에게 뇌물을 받고 청탁을 받은 탓에 형량을 낮추어 주려 하지 않았다. 무송이 남의 재물을 훔쳤다는 죄목이 있으나 죽을 죄는 아니었기에, 서로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면서도 감옥 안에서는 무송의 목숨을 노리고 있었다. 그러다 이번에 은자 백 냥을 더 받게 되자, 엽공목은 이것 역시 무송을 억지로 함정에 빠뜨리려는 의도임을 알아차렸다. 그는 문안 서류를 모두 가볍게 고쳐 써서 무송의 죄를 면해주었고, 이제 기한이 차서 결론이 나기만을 기다리게 되었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부패한 관리들 요직을 차지하고 떼 지어 모여
대낮에 공공연히 황금을 받아 챙기네

서쪽 관청의 공목(孔目)은 마음이 물처럼 맑아
진실한 마음을 도둑의 마음으로 바꾸지 않네

한편, 시은은 이튿날 술과 음식을 아주 풍성하게 차려 준비한 뒤, 강절급에게 부탁하여 안내를 받으며 대감옥으로 들어가 무송을 살피고 밥을 가져다주었다. 이때 무송은 이미 강절급의 보살핌을 받고 있었기에, 형벌과 구금 상태가 아주 완화되어 있었다. 시은은 은자 이삼십 냥을 더 챙겨 여러 작은 감옥 관리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러고는 술과 음식을 가져다 무송에게 먹게 하며 귓속말로 나직이 말했다.

"이번 일은 분명히 장도감이 '장문신'을 대신해 복수를 하려고 형님을 함정에 빠뜨린 것이오. 그러니 부디 마음 편히 먹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오. 내가 이미 사람을 통해 엽공목을 잘 설득해 두었으니, 그분도 형님을 보살펴 주려는 마음이 아주 크다오. 기한이 차서 판결이 내려져 풀려나면, 그때 다시 방도를 찾아보자꾸나."

이때 무송은 구금 상태가 한결 편안해진 터라 이미 탈옥할 마음까지 품고 있었는데, 시은의 말을 듣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았다. 시은은 감옥에서 무송을 위로한 뒤 영(營)으로 돌아왔다. 이틀이 지나 시은은 다시 술과 음식, 재물을 준비하여 강절급에게 부탁해 감옥으로 들어가 무송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만나서 술과 음식을 대접하고, 또 자잘한 은자를 나누어 주어 사람들의 술값으로 쓰게 했다. 집으로 돌아온 시은은 다시 사람들을 매수하여 관아의 위아래에 손을 쓰게 하고, 서류 처리를 서두르라고 재촉했다.

며칠이 흐른 뒤, 시은은 다시 고기와 술을 준비하고 옷가지도 몇 벌 해 가서, 또 강절급에게 부탁하여 감옥으로 들어갔다. 사람들에게 술을 대접하며 무송을 잘 보살펴 달라고 부탁하고, 무송에게 새 옷을 갈아입히며 술과 음식을 먹였다. 이처럼 드나드는 일이 익숙해진 지 며칠째 되던 날, 시은이 세 번째로 대감옥을 찾았다가 그만 장단련의 심복에게 들키고 말았다. 심복은 돌아가서 그 일을 보고했고, 장단련은 곧장 장도감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렸다.

장도감은 다시 사람을 보내 지부에게 금과 비단을 보내며 이 일을 알렸다. 탐관오리인 지부는 뇌물을 받은 터라, 사람을 시켜 수시로 감옥의 창살 아래로 내려보내 살피게 했다. 그러다 한가한 사람이 보이기만 하면 곧장 불러다 문초했다. 시은은 이 사실을 알고는 감히 다시 무송을 보러 가지 못했다. 하지만 무송은 강절급과 여러 감옥 관리들이 알아서 잘 돌봐주고 있었다. 시은은 그 후로 아침저녁으로 강절급의 집을 찾아가 소식을 묻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일이 없었다.

앞뒤로 두 달 가까운 시간이 흘렀다. 엽공목이 온 힘을 다해 주장해 준 덕분에, 지부 쪽의 일도 머지않아 해결될 기미가 보였다. 사실 지부는 장도감이 '장문신'에게서 상당한 양의 은자를 받은 뒤, 장단련과 공모하여 무송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사실을 그제야 알게 되었다. 지부는 속으로 이렇게 생각했다.

'장도감, 자네는 은자를 챙겨 이득을 보았겠지만, 결국 나더러 자네를 위해 사람을 해치게 만들었구먼!'

그렇게 생각하니 일에 의욕이 싹 사라진 지부는 더는 이 사건에 관여하려 하지 않았다.

어느덧 육십 일의 기한이 차자, 감옥에서 무송을 꺼내어 관아 마당에서 가시틀을 벗겼다. 담당 공목인 엽공목이 자백서를 읽고 죄명을 정하니, 곤장 스무 대를 치고 은주(恩州)의 유배지로 보내되, 훔친 물건은 원래 주인에게 돌려주라는 판결이 내려졌다. 장도감은 자기 집 사람을 보내 훔친 물건을 받아 갔다.

관아에서는 무송에게 곤장 스무 대를 치게 한 뒤, 죄명을 새기는 '금인'을 찍었다. 그러고는 일곱 근 반 무게의 무거운 철판이 달린 머리 가시틀을 씌운 뒤, 공문 한 장을 챙겨 건장한 공인(公人) 두 명에게 무송을 호송하라고 명하며 떠날 기한을 정해주었다. 두 공인은 문서를 받아들고 무송을 압송하여 맹주 관아를 나섰다.

본래 무송이 곤장을 맞을 때, 이미 노관영(老管營, 시은의 부친)이 돈을 써서 손을 써 두었을 뿐만 아니라, 엽공목이 그를 보살펴 주고 있었고, 지부 또한 무송이 함정에 빠졌음을 알고 있었기에 그리 무겁게 때리지 않아 형량이 가벼워진 것이었다.

무송은 억울함을 꾹 참으며 머리 가시틀을 쓴 채 성 밖으로 나섰고, 두 명의 공인이 그 뒤를 감시하며 따라붙었다. 일 리 남짓 길을 갔을 때, 관도 옆 주점에서 시은이 달려 나오더니 무송을 보고 말했다.

"형님, 제가 여기서 계속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무송이 시은을 보니 머리에는 수건을 두르고 팔에는 붕대를 감고 있었다. 무송이 물었다.

"자네를 못 본 사이에 어찌 된 일인가? 왜 그런 몰골을 하고 있는가?"

시은이 대답했다.

"형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감옥에서 형님을 세 번 뵙고 난 뒤로, 지부께서 이 사실을 아시고는 수시로 사람을 보내 감옥을 점검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장도감은 감옥 문 양옆에 사람을 배치해 감시하게 했으니, 제가 다시는 감옥 안으로 들어가 형님을 뵐 수가 없었습니다. 그저 강절급의 집에 가서 소식을 물을 뿐이었지요. 보름 전쯤 제가 쾌활림 주점에 있을 때, '장문신' 그놈이 또 군졸들을 거느리고 나타나 행패를 부렸습니다. 제가 그놈에게 또 호되게 매를 맞고는 사람을 시켜 사죄의 말까지 전하게 되었고, 결국 그놈에게 다시 주점을 빼앗기고, 전에 그가 제게 돌려주었던 많은 살림살이마저 도로 그에게 그대로 넘겨주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몸조리하느라 일어나지도 못하고 있었는데, 오늘 형님께서 은주로 유배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길에 입으실 솜옷 두 벌을 챙겨왔습니다. 여기 삶은 거위 두 마리도 준비했으니, 형님께서 두 조각만이라도 드셔 보십시오."

시은은 두 공인을 주점으로 데려가 술을 대접하려 했다. 하지만 두 공인이 어찌 주점 안으로 들어가겠는가. 그들은 퉁명스럽게 내뱉었다.

"무송 이놈은 도둑놈이다. 우리가 네 술과 음식을 먹었다가는 내일 관아에서 시비가 붙을 게 뻔해. 매 맞는 게 무서우면 얼른 꺼져라."

시은은 상황이 여의치 않음을 깨닫고 은자 열 냥 남짓을 꺼내 두 공인에게 건넸다. 그러나 그들은 돈을 받을 생각도 않고, 오히려 화가 난 듯 무송을 재촉하며 길을 떠나려 했다. 시은은 술 두 사발을 가져와 무송에게 먹게 한 뒤, 보따리 하나를 무송의 허리에 묶어주고 삶은 거위 두 마리는 무송의 가시틀에 걸어주었다. 그러고는 무송의 귀에 대고 나직이 속삭였다.

"보따리 안에는 솜옷 두 벌과 여비로 쓸 은전 몇 푼이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길에서 신을 삼베 신발 두 켤레도 넣어두었습니다. 다만 길에서 부디 조심하십시오. 저 도적놈 두 놈(=두 공인)이 결코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 않습니다."

무송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말 안 해도 잘 알고 있네. 저런 놈이 두 놈 더 와도 두렵지 않으니, 자네는 어서 돌아가 몸조리나 하게. 걱정 말게, 내가 알아서 잘 처리할 테니."

시은은 무송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울면서 돌아갔다. 더 말할 것은 없다.

무송이 두 공인과 함께 길을 떠나 몇 리 남짓 가지 않았을 때, 두 공인이 은밀히 의논하며 말했다.

"그 두 놈이 보이지 않는군."

무송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며 냉소했다.

'빌어먹을 놈들, 감히 나를 덮치려고 작정을 했구나!'

무송은 오른손을 가시틀에 고정해 둔 채 왼손만 자유롭게 움직였다. 그는 가시틀에 걸린 삶은 거위를 꺼내 두 공인은 안중에도 없는 듯 혼자 먹기 시작했다. 그렇게 다시 네다섯 리를 더 가더니, 남은 거위 한 마리를 꺼내 오른손으로 뜯고 왼손으로 찢으며 먹는 데만 열중했다. 5리쯤 더 가자 삶은 거위 두 마리를 모두 다 먹어 치웠다.

성에서 대략 여덟아홉 리쯤 떨어졌을 때, 길가 앞쪽에 먼저 두 사람이 서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각각 박도(朴刀, 큰 칼)를 들고 허리에는 요도(腰刀, 허리춤에 차는 칼)를 찬 채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공인들이 무송을 압송해 오는 것을 보자 길을 안내하며 함께 걷기 시작했다. 무송은 두 공인이 박도를 든 두 사람과 눈짓을 주고받으며 암호를 나누는 것을 보았다. 무송은 진즉에 이를 알아채고 상황이 아주 곤란해졌음을 느꼈으나, 겉으로는 못 본 척하며 속으로만 삼켰다.

다시 몇 리 남짓을 가니, 앞쪽에 탁 트인 어포(魚浦, 물고기 잡는 포구)가 나타났다. 사방이 넓은 포구와 큰 강으로 둘러싸인 곳이었다. 다섯 사람이 포구 가의 넓은 판자 다리에 이르자, 어느 패루(牌樓) 위에 '비운포'라는 세 글자가 적힌 현판이 보였다. 무송은 이를 보고 짐짓 물었다.

"이곳 지명이 어디라고 하는가?"

두 공인이 대답했다.

"눈이 먼 것도 아니면서, 다리 옆 현판에 '비운포'라고 적힌 게 안 보이나?"

무송이 발을 멈추며 말했다.

"손 좀 씻어야겠다."

그러자 박도를 든 두 사람이 한 걸음 다가왔는데, 무송이 "물러서라!" 하고 소리치더니 발을 날려 단숨에 걷어찼다. 그들은 공중에서 한 바퀴를 돌아 물속으로 처박혔다. 한 놈이 급히 몸을 돌리려 하자, 무송이 오른발을 들어 퍽 소리가 나게 걷어차 물속으로 밀어 넣었다. 두 공인은 겁에 질려 다리 아래로 도망치려 했다. 무송이 호통을 쳤다.

"어딜 도망가느냐!"

무송은 가시틀을 비틀어 두 동강을 낸 뒤, 다리 아래로 달려 내려갔다. 그 두 공인 중 한 놈은 이미 제풀에 놀라 쓰러져 있었다. 무송은 앞으로 달려가 도망치던 다른 한 놈의 등 뒤를 주먹으로 한 대 쳐서 쓰러뜨린 뒤, 물가에 떨어진 박도를 집어 들었다. 그리고 쫓아가서 박도로 몇 차례를 더 찔러 놈을 숨지게 했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돌려 먼저 놀라 쓰러져 있던 놈에게도 박도로 몇 칼을 휘둘렀다. 물에 빠졌던 두 놈은 겨우 몸을 일으켜 도망치려 했으나, 무송이 뒤쫓아가 한 놈을 베어 넘겼다. 무송은 한 걸음 다가가 (남은) 한 놈의 머리채를 움켜쥐고 꾸짖었다.

"이놈아, 사실대로 말하면 목숨만은 살려주마!"

그놈이 대답했다.

"저희 둘은 '장문신'의 제자들입니다. 스승님과 장단련이 계략을 꾸며, 저희를 보내 공인들을 도와 감시하게 하고 호걸을 해치려 한 것입니다."

무송이 물었다.

"네 스승 '장문신'은 지금 어디 있느냐?"

"오기 전에 스승님과 장단련은 장도감 댁 뒷채인 원앙루에서 술을 마시며, 저희가 돌아와 보고하기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무송이 말했다.

"과연 그렇구나. 하지만 그래도 너를 살려줄 수는 없다."

무송은 칼을 들어 단숨에 그놈을 죽였다. 그리고 그놈의 허리에서 칼을 풀어 그중 좋은 것을 골라 챙긴 뒤, 두 시체를 모두 포구 안으로 밀어 넣었다. 혹시라도 (앞서 죽인) 두 놈이 죽지 않았을까 걱정된 무송은 박도를 들고 그들의 몸에 몇 칼을 더 찔러 넣었다. 다리 위에 서서 잠시 상황을 살피던 무송이 생각했다.

'비록 도둑놈 네 놈을 죽였으나, 장도감과 장단련, 그리고 장문신을 죽이지 못한다면 어찌 이 원한을 풀 수 있겠는가!'

무송은 박도를 든 채 한참을 망설이다가, 결심한 듯 다시 맹주 성안으로 달려갔다.

이 일이 없었더라면, 무송이 탐욕스러운 놈들을 몇 놈 죽여 원한을 풀 기회조차 없었을 것이다. 필시 장도감의 깊은 침실에는 시체가 널브러지고, 붉은 촛불 아래로 피가 흘러 넘치게 될 터였다.

결국 무송이 다시 맹주 성으로 돌아와 어떤 결과를 맞이하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1회 — 장 도감이 원앙루에서 피를 뿌리고, 무행자 무송이 밤에 오공령을 넘다

張都監血濺鴛鴦樓 武行者夜走蜈蚣嶺

이야기는 이러하다. 장 도감은 장 단련이 장 문신을 위해 무송의 목숨을 노리자고 청탁했다는 소식을 들었으나, 정작 네 사람이 비운포에서 무송의 칼에 모두 죽임을 당할 줄은 꿈에도 몰랐다. 당시 다리 위에 서 있던 무송은 한참 동안 생각에 잠겨 망설이다가, 하늘을 찌를 듯한 원한을 느끼며 다짐했다.

"장 도감을 죽이지 못한다면, 이 억울한 분통을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무송은 시신 곁으로 다가가 허리춤에 차고 있던 칼을 풀었다. 그중 가장 잘 드는 칼을 골라 허리에 차고, 튼튼한 박도(朴刀) 하나를 손에 든 채 곧장 맹주성 안으로 돌아왔다. 성안에 들어서니 어느덧 해가 저물어 황혼이 깔려 있었고, 집집마다 문을 닫고 곳곳마다 대문을 걸어 잠근 뒤였다.

십자 거리는 등불로 환하게 빛나고, 구요사(九曜寺)에는 향 연기와 종소리 아른거리네.
둥근 달은 푸른 하늘에 걸려 있고, 몇 점의 성긴 별은 푸른 은하에서 빛나네.
육군(六軍)의 군영 안에서는 나팔 소리 슬피 울려 퍼지고,
오경(五更)의 누각 위에서는 물시계가 똑똑 물방울을 떨어뜨리네.
아름다운 여인들은 짝지어 수놓은 휘장 속으로 돌아가고,
선비들은 짝지어 책 읽던 휘장을 거두네.

무송은 성안으로 들어서자마자 곧장 장 도감의 뒷마당 담벼락 쪽으로 향했는데, 그곳은 마원(말을 기르는 곳)이었다. 무송은 마원 옆에 몸을 숨기고 숨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말을 돌보는 마부는 아직 관아 안에 있는지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었다. 한참을 기다리니 마침 쪽문이 열리며 마부가 등롱을 들고 나왔고, 이내 쪽문이 닫혔다. 무송은 어둠 속에 몸을 숨긴 채 귀를 기울였다. 야경꾼이 치는 북소리를 들어보니 이미 일경(一更) 네 점(四點)이었다. 마부는 건초 더미 위로 올라가 등롱을 걸어두고는 이부자리를 펴고 옷을 벗어 침상에 누워 잠을 청했다.

무송은 문가로 다가가 문을 덜컥거렸다. 그러자 마부가 꾸짖듯 외쳤다. "나으리가 방금 잠드셨다! 내 옷을 훔칠 거면 좀 더 일찍 오지 그랬느냐!"

무송은 박도를 문가에 기대어 세워두고 허리춤의 칼을 뽑아 손에 쥔 채 다시 문을 덜컥거렸다. 마부가 참다못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은 몸으로 침상에서 벌떡 일어나 짚단 젓는 막대기를 들고 문빗장을 뽑았

다. 그러나 문이 열리는 찰나, 무송이 기세를 몰아 문을 밀치고 들어가 마부의 머리채를 낚아챘다. 마부가 비명을 지르려 했으나, 등불 빛 아래 번뜩이는 칼날을 보자 겁에 질려 사지가 떨렸다. 그는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다. "살려주십시오!"

무송이 물었다. "나를 아느냐?"

마부는 목소리를 듣고서야 무송임을 알아차리고 소리쳤다. "형님, 저는 아무 상관 없습니다! 제발 살려주십시오!"

무송이 다시 물었다. "사실대로 말해라. 장 도감은 지금 어디 있느냐?"

마부가 대답했다. "오늘 장 단련, 장 문신과 셋이서 하루 종일 술을 마셨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원앙루에서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무송이 확인하듯 물었다. "그 말이 사실이냐?"

마부가 말했다. "제가 거짓을 말한다면 종기에라도 걸리게 해주십시오."

무송이 말했다. "그렇다면 너를 살려줄 수가 없구나!"

무송은 칼을 휘둘러 마부를 단칼에 죽였다. 시신을 발로 툭 차 밀어 놓고 칼을 칼집에 꽂은 뒤, 등불 아래에서 허리춤에 차고 있던 시은이 보내준 솜옷을 풀었다. 입고 있던 낡은 옷을 벗어 던지고 새 옷 두 벌을 갈아입었다. 문빗장을 꼼꼼히 걸어 잠근 뒤 허리춤에 칼과 칼집을 차고, 마부가 덮고 있던 홑이불로 자잘한 은 부스러기를 뭉치로 싸서 전

대(纏袋)에 넣은 다음 문가에 걸어두었다. 그러고는 문 두 짝을 담벼락 옆에 세워둔 뒤, 먼저 등불을 불어 꺼버렸다. 무송은 어둠을 틈타 밖으로 살짝 빠져나와 박도를 들고 문을 닫고 올라서며 한 걸음씩 담을 넘었다.

이때는 달빛이 꽤 밝았다. 무송은 담을 넘어 담 안쪽으로 뛰어내린 뒤, 먼저 쪽문을 열고 문짝을 치워 옮겨 놓았다. 그러고는 다시 몸을 날려 안으로 들어간 뒤 쪽문을 살짝 닫아걸었다. 문빗장까지 모두 걸어 잠갔다. 무송이 등불이 밝게 비치는 곳을 바라보니 마침 주방이었다. 그곳에는 두 명의 여종이 솥단지 옆에서 투덜거리며 불평을 늘어놓고 있었다.

"하루 종일 모시고 있었는데도 도무지 잠자리에 들 생각을 안 하고 자꾸 차를 찾으시니 원. 그 손님 두 사람도 참 염치없지, 저렇게 취할 때까지 마셔놓고는 내려가서 쉬지도 않고 그칠 줄 모르고 떠들어대기만 하니 말이야."

두 여종은 입을 삐죽거리며 원망 섞인 말을 중얼거리고 있었다. 무송은 박도를 몸에 기대어 세워두고, 허리춤에서 피 묻은 칼을 뽑아 들었다. 그는 문을 홱 밀어젖히며 안으로 들이닥쳐, 먼저 여종 한 명의 머리채를 낚아채고는 단칼에 죽였다. 다른 한 명이 도망치려 했으나 두 발이 마치 못에 박힌 듯 움직이지 않았고, 비명을 지르려 해도 입이 얼어붙은 듯 아무 소리도 내지 못한 채 그저 멍하니 굳어버렸다. 두 여종은 말할 것도 없고, 이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꾼(說話的)이 그 광경을 보았다 해도 놀라 혀가 굳어 말을 잇지 못했을 것이다. 무송은 칼을 휘둘러 나머지 한 명도 죽였다. 그는 두 시신을 아궁이 앞으로 끌어다

놓은 뒤 주방의 등불을 끄고, 창밖에서 들어오는 달빛에 의지해 한 걸음씩 대청마루로 들어갔다.

무송은 이미 관아를 드나들며 길목을 훤히 꿰뚫고 있었다. 그는 곧장 원앙루의 사다리 쪽으로 향하여, 발소리를 죽이고 조심스럽게 위층으로 기어 올라갔다. 이때 장 도감을 수행하던 사람들은 모두 시중드는 일에 지쳐 멀찍이 물러나 쉬고 있었다. 무송은 사다리 입구에서 귀를 기울였다. 장 도감과 장 단련, 그리고 장 문신 세 사람이 나누는 대화가 들려왔다. 장 문신은 연신 감탄하며 말했다.

"나으리께서 저를 도와 원수를 갚아주셨으니, 이 은혜는 반드시 두둑이 갚겠습니다."

그러자 장 도감이 말했다. "내 아우 장 단련의 낯을 봐서가 아니었다면, 누가 이런 일을 하겠느냐! 비록 돈이 좀 들긴 했어도 그놈을 아주 잘 처리해 두었다. 지금쯤이면 거의 그곳에서 손을 썼을 테고, 그놈은 아마 벌써 죽었을 게다. 비운포에서 그를 처치하라 일러두었으니 말이다. 내일 아침 그 네 사람이 돌아오면 모든 것이 분명해지겠지."

장 단련이 거들었다. "그 네 사람이 그놈 하나를 상대하는데 무엇이 문제겠습니까? 그놈에게 목숨이 몇 개 더 있다 한들 다 없어지고 말 겁니다."

장 문신이 말했다. "제 제자들에게도 이미 일러두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손을 써서 그놈을 해치우고 곧장 돌아와 알리라고 말입니다."

시로 이르되,

어두운 방 안은 언제나 속일 수 없으니,
예나 지금이나 간사하고 악한 자는 모두 벌을 받는다.
가을바람 불기도 전에 매미부터 먼저 울어대고,
죽음은 몰래 찾아와도 아무도 알지 못한다.

무송은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 속에서 무명업화(無明業火)의 불길이 삼천 장 높이로 치솟아 푸른 하늘을 뚫을 듯 타올랐다. 그는 오른손에는 칼을 들고 왼손은 다섯 손가락을 쫙 펴서 기세를 올리며 누각 안으로 들이닥쳤다. 누각 안은 서너 개의 촛불이 환하게 빛나고 있고, 곳곳으로 달빛이 스며들어 매우 밝았다. 술잔과 그릇들은 아직 치우지도 않은 상태였다. 장 문신은 교의에 앉아 있다가 무송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라 심장이 구만리 밖으로 튀어나가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말이 채 끝나기도 전, 장 문신이 필사적으로 몸부림치려 할 때 무송이 먼저 칼을 내리쳐 얼굴을 찍어버렸고, 그 바람에 장 문신과 교의가 함께 뒤로 나뒹굴었다. 무송이 몸을 돌려 칼을 다시 겨누자, 장 도감이 그제야 발을 움직여 도망치려 했으나 무송의 칼날이 순식간에 귀밑부터 목까지 갈랐고, 그는 그대로 누각 바닥에 엎어졌다. 두 사람이 목숨을 구걸하며 버둥거렸다. 장 단련은 본래 무관 출신이라 술에 취했음에도 어느 정도 기력이 남아 있었다. 두 사람이 쓰러지는 것을 보고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겠다고 판단한 그는 교의를 번쩍 들어 무송에게 휘둘렀다. 그러나 무송은 가볍게 이를 받아내더니 그대로 밀쳐버렸다. 장 단련은 술이 깨어 정신이 멀쩡한 사람이라 해도 무송의 신력을 당해낼 수 없었기에, 그대로 뒤로 넘어지며 쓰러졌다. 무송이 급히 쫓아 들어가 먼저 칼로 장 단련의 머리를 베어버렸다. 장 문신이 힘이 세어 다시 일어나려 하자, 무송은 왼발을 날려 공중제비를 돌리듯 걷어차 그를 쓰러뜨린

뒤 짓눌러 머리를 베었다. 이어 몸을 돌려 장 도감의 머리까지 베어버렸다. 탁자 위에 술과 고기가 있는 것을 본 무송은 술잔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다. 그렇게 서너 잔을 연달아 마신 뒤, 그는 시신에서 옷자락 한 조각을 베어내 피를 듬뿍 묻혔다. 그러고는 흰 벽에 커다란 글자로 여덟 글자를 써 내려갔다.

"사람을 죽인 자는 호랑이 잡은 무송이다."

그는 탁자 위의 기물들을 발로 짓밟아 뭉개버리고, 몇 가지 물건을 품속에 챙겼다. 이제 아래층으로 내려가려는데, 아래층에서 부인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위층 나으리들이 모두 취하셨으니, 어서 두 사람을 올려보내 부축해 드려라!"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두 사람이 누각 위로 올라왔다. 무송은 사다리 옆 어둠 속에 몸을 숨기고 지켜보았다. 올라온 이들은 바로 며칠 전 무송을 잡으려 했던 장 도감의 친수(親隨) 두 명이었다. 무송은 어둠 속에서 그들을 지나가게 두었다가 길을 막아섰다. 두 사람이 누각 안으로 들어와 피바다 속에 널브러진 세 시신을 보고는, 너무 놀라 서로 얼굴만 쳐다보며 입도 뻥긋하지 못했다. 그 모습은 마치 '머리뼈 여덟 조각을 쪼개고 얼음물 반 통을 들이부은 듯'한 충격이었다. 그들이 뒤를 돌아보려는 찰나, 무송이 등 뒤에서 나타나 칼을 휘둘러 한 명을 단칼에 베어 넘겼다. 남은 한 명이 무릎을 꿇고 살려달라고 애원하자 무송이 말했다.

"너를 살려줄 수는 없다!"

무송은 그의 머리채를 잡고 단칼에 베어버렸다. 화려한 누각에는 피가 튀고, 등불 아래에는 시신이 널브러졌다. 무송이 말했다.

"이왕 저지른 일, 끝을 봐야지. 백 명을 죽인다 해도 어차피 죽을 목숨은 하나뿐 아니겠느냐."

그는 칼을 챙겨 들고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부인이 의아해하며 물었다. "위층에서 대체 무슨 소란이냐?"

무송이 방 앞으로 들이닥치자, 부인은 웬 거한이 나타난 것을 보고는 무심코 물었다. "누구냐?"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송의 칼이 번뜩이며 부인의 얼굴을 내리쳤고, 부인은 방 앞에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다. 무송이 그녀를 눌러놓고 머리를 베려 했으나, 칼날이 머리에 박히지 않고 튕겨 나갔다. 무송이 의아해하며 달빛 아래 칼을 살펴보니, 이미 칼날이 이가 빠져 뭉툭해져 있었다.

무송이 말했다. "칼이 상해서 머리가 베이지 않는구나!"

그는 곧장 뒷문 밖으로 나가 새 박도를 가져왔다. 이가 빠진 칼은 내버려 둔 채, 다시 몸을 날려 누각 안으로 들어갔다. 등불이 밝게 비치는 가운데, 지난번 노래를 부르던 양녀 옥란이 아이 둘을 데리고 등불을 들고 들어오다가, 부인이 바닥에 죽어 있는 것을 보고는 비명을 질렀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쩌나!"

무송은 박도를 움켜쥐고 옥란의 가슴을 찔러 죽였다. 함께 있던 아이 둘 역시 무송의 칼에 찔려 죽으니, 박도 한 자루로 세 명을 단번에 해치운 셈이었다. 무송은 중당을 걸어 나가 앞문을 걸어 잠근 뒤, 다시 안으로 들어가 방 안을 뒤지며 여인 두세 명을 더 찾아내 모두 찔러 죽였다.

무송이 말했다. "방금은 아주 만족스럽구나. 이제 그만 떠나야겠다!"

그는 칼집을 내팽개치고 박도만을 챙겨 들고 각문 밖으로 나갔다. 마원에서 전대(纏袋)를 풀어 내린 뒤, 품속에 챙겨 넣은 은제 술그릇들을 모두 그 안에 담아 허리춤에 묶었다. 그리고는 박도를 거꾸로 쥐고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겼다. 성벽 근처에 다다르자 무송은 생각했다.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가는 붙잡히고 말 것이다. 차라리 밤을 틈타 성을 넘는 게 낫겠다.'

그는 곧장 성벽으로 올라갔다. 맹주성은 작은 고을이라 토성도 그리 높지 않았다. 무송은 성가퀴 너머를 살피며, 우선 박도를 가볍게 짚어 보았다. 칼끝은 위로 향하게 하고 자루 끝은 아래로 향하게 한 뒤, 땅을 박차고 훌쩍 뛰어올라 박도를 지팡이 삼아 짚고 해자 가에 섰다. 달빛 아래 내려다보니 해자의 물은 겨우 한두 자(약 30~60cm) 깊이뿐이었다. 마침 시월 보름 무렵이라 곳곳의 샘물이 모두 말라붙은 상태였다. 무송은 해자 옆에서 신발과 버선을 벗고 다리에 감았던 행전과 무릎 보호대까지 풀어낸 뒤, 옷매무새를 단단히 여미고 해자 바닥을 걸어 건너편 기슭으로 건너갔다. 그러다 문득 시은이 보내준 보따리 안에 여덟 가닥으로 짠 삼 짚신 한 켤레가 들어있던 것이 생각나, 그것을 꺼내 신

었다. 성 안에서 야경꾼의 북소리가 들려올 때쯤은 이미 사경(四更, 새벽 1시~3시 무렵) 세 점이었다.

무송이 말했다. "이제야 겨우 숨통이 좀 트이는구나. 양원(梁園)이 아무리 좋아도 오래 머물 곳은 아니니, 이제 미련 없이 떠나야지."

그는 박도를 들고 동쪽의 작은 길을 향해 달려 나갔다. 시로 이르되,

한낱 길 위에서 칼질할 일만 꾀하면서, 누각 안에서는 술 마시기를 즐겼도다.
한 사람을 해치려다 도리어 많은 이가 목숨을 잃으니,
죽이려는 마음이 칼 쥔 손보다 더 잔혹하도다.
그렇지 않았던들 원혼이 휘감았을 터이니,
어찌 몸을 빼내어 곧장 달아날 수 있었으랴.

한참을 달려 오경(새벽 3시~5시 무렵)에 이르자, 하늘은 어둑어둑하여 아직 밝아오지 않은 상태였다. 밤새 고생한 무송은 몸이 몹시 고단했고, 상처 부위가 다시 덧나 통증이 심해져 도저히 견디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숲속에서 작은 사당 하나를 발견하고는 무송이 그 안으로 뛰어 들어갔다. 그는 박도를 벽에 기대어 세워두고, 보따리를 베개 삼아 눕자마자 그대로 잠이 들었다.

그런데 눈을 감기가 무섭게 사당 밖에서 갈고리 두 개가 쑥 들어오더니 무송을 낚아챘다. 곧이어 두 사람이 안으로 들이닥쳐 무송을 짓누르고는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네 명의 남녀가 말했다. "이 사내놈, 몸집이 아주 실하구나. 형님께 갖다 드리면 참 좋겠어."

무송이 아무리 몸부림쳐 보았지만 벗어날 수 없었다. 네 사람은 무송의 보따리와 박도를 빼앗아 가더니, 마치 양을 끌고 가듯 무송의 발이 땅에 닿지도 못하게 끌고 마을로 향했다. 길을 가는 내내 네 명의 남녀는 자기들끼리 수군거렸다. "이 사내 몸에 피칠갑을 한 것 좀 봐. 대체 어디서 온 거지? 설마 도둑질을 하다가 사람이라도 해친 게 아닐까?"

무송은 아무 말 없이 그들이 떠드는 것을 내버려 두었다. 삼오 리(약 1.5~2km)쯤 갔을까, 이윽고 어느 초가집에 도착하더니 무송을 안으로 밀어 넣었다. 옆쪽 작은 문 안쪽에는 등불이 켜져 있었는데, 네 명의 남녀가 무송의 옷을 벗겨 기둥에 묶어 놓았다. 무송이 주위를 둘러보니 아궁이 옆 들보에는 사람의 다리 두 개가 걸려 있었다.

무송은 속으로 생각했다. '결국 횡사할 운명에 처했으니, 어떻게 죽을지도 모른 채 생을 마감하게 되었구나. 이럴 줄 알았더라면 차라리 맹주 관아에 가서 자수하고 칼을 받아 처형당할지언정, 세상에 깨끗한 이름이라도 남길 걸 그랬다.'

시로 이르되,

간사하고 사악한 무리 다 없애야 한이 비로소 풀리니,
영웅은 난리는 피해도 이름은 피하지 못하네.
천추의 의기는 살아서 부끄러움이 없고,
칠 척의 몸뚱이 죽어도 가볍지 않구나.

네 명의 남녀는 무송의 보따리를 들고 입을 모아 외쳤다. “형님, 형수님! 어서 일어나 보세요! 우리가 아주 실한 물건을 하나 잡아 왔습니다!”

그러자 앞쪽에서 대답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지금 간다! 너희는 손대지 마라, 내가 직접 벗겨서 확인해 볼 테니.”

차 한 잔 마실 정도의 시간이 지나자, 두 사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 무송이 보니 앞에는 한 여인이 있고, 그 뒤에는 덩치 큰 사내가 서 있었다. 두 사람이 눈을 가늘게 뜨고 무송을 자세히 살피더니, 여인이 말했다. “이분은 무 도두(포교) 아주버님 아니세요!”

그러자 사내가 외쳤다. “어서 내 아우를 풀어줘라!”

무송이 보니, 그 사내는 다름 아닌 채원자 장청이었고, 여인은 바로 ‘모야차’ 손이낭이었다. 네 명의 남녀는 깜짝 놀라 서둘러 밧줄을 풀어 무송에게 옷을 입혀 주었다. 이미 너덜너덜해진 머리띠 대신 털모자를 가져다 씌워 주었다. 본래 장청이 십자파에서 운영하는 가게와 작업장이 여러 곳이라 무송은 그곳을 잘 알지 못했다. 장청은 무송을 앞쪽 객석으로 정중히 모신 뒤 인사를 나누었다. 장청은 크게 놀라며 다급히 물었다. “아우님, 어찌 된 일이기에 몰골이 이 모양인가?”

무송이 대답했다. “말하자면 끝도 없네! 자네와 헤어진 뒤에 노성영(감옥)에 갇혔었는데, 거기서 노성영 관영(管營) 시씨의 아들로 ‘금안표’라 불리는 시은을 만났네. 그는 나를 마치 오래된 친구처럼 대하며 매일 좋은 술과 고기를 대접해 주었지. 그는 성 동쪽 쾌활림에 아주 돈 잘 버는 주막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장 단련이 데려온 ‘장문신’이라

는 놈이 세력을 믿고 안하무인으로 굴며 그 가게를 공공연히 강제로 빼앗아 버렸더군. 시은의 하소연을 듣고 내가 길에서 불의를 보고 참지 못해 술에 취한 채로 장문신을 때려눕히고 쾌활림을 되찾아 주었더니, 시은이 나를 무척 존경하게 되었네. 하지만 그 후 장 단련이 장 도감을 매수하여 계략을 꾸몄고, 나를 친수(수행원)로 삼아 장문신을 위해 복수할 함정을 팠다네. 8월 15일 밤, 도적이 들었다며 나를 안으로 유인하더니, 미리 은제 술그릇들을 내 짐 속에 넣어두고는 나를 도둑으로 몰아 맹주 관아로 압송하여 억지로 도둑으로 만들어 자백을 받아내고는 옥에 가두었네. 다행히 시은이 위아래로 돈을 써서 손을 써준 덕분에 화를 입지는 않았고, 사건을 맡은 엽공목(아전)도 의리를 지키고 재물을 아끼지 않으며 선량한 사람을 함정에 빠뜨리려 하지 않았네. 게다가 옥을 맡은 강절급(하급 옥리) 한 명도 시은과 매우 친한 사이라, 두 사람이 힘을 합쳐 나를 지켜준 덕분에 형기가 차서 척장(脊杖)을 맞고 은주로 이배(移配)되는 것만으로 끝날 수 있었지. 어젯밤 겨우 성을 빠져나왔는데, 가증스럽게도 장 도감이 또 계략을 꾸며 장문신에게 제 부하 두 명을 시켜 압송하는 관원들과 함께 길 위에서 나를 처치하게 하더군. 비운포의 한적한 곳에 이르러 그들이 막 손을 쓰려 하기에, 내가 먼저 두 발로 차서 부하 두 명을 물속에 빠뜨려 버렸네. 뒤따라온 그 관원 두 놈도 박도로 하나씩 찔러 죽여 모두 물속에 던져버렸지. 도저히 이 울분을 풀 길이 없어 다시 맹주성으로 돌아갔다네. 일경(저녁 7시~9시 무렵) 네 점쯤 되어 성 안의 마원에 들어가 먼저 말을 먹이던 후조를 죽였고, 담을 넘어 들어가 주방에서 여종 두 명을 죽였네. 곧장 원앙루로 올라가 장 도감과 장 단련, 장문신 세 사람을 모두 죽이고, 친수 두 명도 베어버렸지. 그러고는 아래층으로 내려와 그의 아내와 자식들, 데려다 기른 며느리까지 모조리 찔러 죽였네. 그러고는 밤을 틈타

도망쳐 성벽을 뛰어넘어 빠져나왔는데, 한참을 달리다 보니 몸은 고단하고 상처는 덧나 통증이 심해 도저히 걸을 수가 없더군. 그래서 작은 사당에 들어가 잠시 쉬려다가, 이 네 사람에게 붙잡히고 만 것이네."

네 명의 도적은 바닥에 엎드려 절하며 말했다. "저희 네 명은 모두 장 형님의 일꾼들입니다. 연일 도박에서 돈을 잃는 바람에 숲속에 가서라도 돈벌이를 좀 해보려고 나왔다가, 형님께서 샛길로 오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온몸이 피로 흠뻑 젖어 계신데 하필 토지묘에서 쉬고 계시기에, 저희 네 명은 그분이 누구신지 미처 몰랐습니다. 그나마 장 형님께서 진작에 '반드시 살아있는 놈으로 잡아 오라'고 당부해 두셨기에 저희는 갈고리와 밧줄만 챙겨 나왔을 뿐, 그 당부가 없었더라면 형님의 목숨을 해칠 뻔했습니다. 정말 눈이 있어도 태산을 알아보지 못한 격이라, 잠시나마 형님께 큰 결례를 범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장청 부부는 웃으며 말했다. "우리가 마음에 걸리는 일이 있어서, 요사이 사람들을 반드시 살아있는 채로 잡아 오라고 시키던 참이었거든. 그런데 이 네 놈이 내 속마음을 어찌 알았겠나. 만약 내 아우가 지금처럼 기운이 없지만 않았어도, 너희 네 명은커녕 마흔 명이 달려들어도 감히 접근조차 못 했을 것이다."

네 명의 도적은 그저 머리를 조아릴 뿐이었다. 무송이 그들을 일으켜 세우며 말했다. "도박할 돈이 없다니, 내가 상을 좀 주겠네."

무송은 보따리를 풀어 은 열 냥을 꺼내 네 사람에게 나누어 주었다. 네 명의 도적은 무송에게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장청도 이를 보고 은

두세 냥을 꺼내 네 사람에게 상으로 주었으니, 그들은 각자 나누어 가졌다.

장청이 말했다. “아우님은 내 속마음을 몰라주는구먼! 자네가 떠난 뒤로 혹여나 별일이라도 생겨서 일이 꼬이지는 않았을까 걱정되어, 조만간 돌아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이 사람들에게 ‘물건을 잡을 때는 반드시 살아있는 놈이어야 한다’고 신신당부해 두었네. 상대가 좀 느긋하게 움직여서 살아있는 채로 잡으면 좋겠지만, 만약 상대가 만만치 않아 싸움이 나면 반드시 죽이게 될 터인데, 나는 그들이 칼을 휘두르지 못하게 하고 오로지 갈고리와 밧줄만 쓰라고 일러두었지. 방금 이야기를 듣고는 ‘설마 그럴 리가’ 싶어 의심이 들어 서둘러 사람을 보낸 것인데, 이렇게 아우님을 직접 마주하게 될 줄이야!”

손이낭이 말했다. “아저씨께서 ‘장 문신’을 때려눕히시고 술기운에 그를 이기셨다는 소문은 들었습니다. 오가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지요! 쾌활림에서 장사하는 상인들이 늘 그 이야기를 하곤 하지만, 그 뒤에 이런 일이 벌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아저씨, 몸이 고단하실 테니 우선 객실로 가서 좀 쉬십시오. 나중에 다시 자세히 이야기 나누지요.”

장청은 무송을 객실로 안내해 잠자리에 들게 했다. 부부는 주방으로 가서 무송에게 대접할 맛있는 음식과 술을 준비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음식을 다 차려놓고 무송이 일어나기를 기다렸다. 시가 있어 이를 증명하니,

금보는 혼미한데 칼과 검만 깨어 있고,
하늘은 높고 황제는 멀어 모두 영험함이 없구나.
어찌하여 조정에는 흉한 별들만 가득하고,
도리어 강호에는 구원하는 별이 나타났는가.

한편, 맹주성 장 도감의 집에는 간신히 몸을 숨긴 이들이 있었으나, 오경(새벽 3~5시 무렵)이 되어서야 겨우 밖으로 나올 수 있었다. 사람들은 안쪽에 있는 친수(親隨)들과 바깥에서 당직을 서던 군노(軍牢)들을 모두 불러내어 상황을 살피게 하고 소란을 피웠으나, 이웃 주민 중 누구도 감히 밖으로 나오지 못했다. 날이 밝을 무렵까지 버티다가 맹주부로 달려가 고발했다.

지부(知府)가 보고를 듣고는 크게 놀라 즉시 사람을 내려보내 살해된 인원과 범인이 출몰한 장소를 확인하게 했다. 그는 살해된 인원과 범행 경로를 도면과 장부로 상세히 기록하여 지부에게 보고했다. "먼저 마원(馬院)으로 들어가 보니, 말을 먹이던 후조 한 명이 죽어 있었고 벗어 놓은 낡은 옷 두 벌이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주방 아궁이 쪽으로 가니 여종 두 명이 죽어 있었으며, 뒷문 근처에는 범행에 쓴 이 빠진 칼 한 자루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2층에서는 장 도감 한 명과 친수 두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그 밖에 손님으로 청해 온 장 단련과 '장문신' 두 명도 죽어 있었습니다. 흰 회벽에는 옷자락에 피를 묻혀 '사람을 죽인 자는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이다(殺人者打虎武松也)'라고 여덟 글자가 크게 적혀 있었습니다. 1층에서는 부인 한 명이 찔려 죽었고, 밖에서는 옥란과 유모 두 명, 그리고 자녀 세 명이 찔려 죽었습니다. 모두

합쳐 남녀 열다섯 명을 살해하고 금은 술그릇 여섯 점을 약탈해 갔습니다."

지부는 보고를 마친 뒤 즉시 사람을 보내 맹주성의 네 성문을 모두 지키게 했다. 또한 군사와 포교들을 배치하고 성 안의 방(坊)과 구역의 이정(里正)들에게 명령하여, 집집마다 문을 열고 뒤져 흉악범 무송을 샅샅이 수색하게 했다.

다음 날, 비운포의 보정(保正) 등이 달려와 고했다. "포구 안에서 네 명이 살해되었습니다. 비운포 다리 아래에 살해된 혈흔이 있고, 시신은 모두 물속에 있습니다."

지부가 고소장을 접수하자, 해당 현의 현위(縣尉)가 내려와 사람들을 시켜 시신 네 구를 건져 올리고 모두 검시하게 했다. 두 명은 본부의 관원이었고 나머지 두 명은 유족이 있는 자들이었기에, 각각 관을 마련해 시신을 수습한 뒤 모두 관아로 와서 고소하며 범인을 잡아 목숨으로 갚게 하라고 재촉했다. 성 안은 사흘 동안 문을 닫고 집집마다 낱낱이 뒤지며 수색했다. 다섯 집을 묶어 한 연(連)으로, 열 집을 묶어 한 보(保)로 삼아 어느 곳 하나 빠뜨리지 않고 뒤졌다. 지부는 문서를 작성하여 관리를 해당 관할 지역으로 파견했다. 각 향, 각 보, 각 도, 각 마을에 이르기까지 집집마다 샅샅이 뒤져 흉악범 무송을 잡으라고 명했다. 또한 무송의 본적, 나이, 생김새와 특징을 적고 초상화까지 그려 넣으며, 신상금 삼천 관(貫)을 내걸었다. 만약 무송의 행방을 아는 자가 주(州)로 와서 알리면 문서에 따라 즉시 상금을 내릴 것이며, 만약 범인을 집에 숨겨 재워주고 먹인 자가 적발되어 관에 알려지면 범인과

똑같이 처벌하겠다고 했다. 이 수색령은 인근 주와 부에도 두루 알려져 함께 범인을 쫓게 했다.

한편, 무송은 장청의 집에서 사나흘 동안 머물렀다. 그사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긴박하게 돌아갔다. 관아에서는 성 밖의 여러 마을까지 관리를 보내 흉악범을 잡으려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다. 장청은 이 소식을 듣고 무송에게 말했다. "아우님, 내가 일이 무서워 자네를 오래 머물게 하지 못하는 게 아니네. 지금 관아의 수색이 워낙 긴박해서 집집마다 샅샅이 뒤지고 있으니, 자칫 내일이라도 실수가 생기면 우리 부부를 원망하게 될까 두렵네. 그래서 자네가 몸을 의탁할 좋은 곳을 하나 찾아두었네. 전에도 말한 적이 있긴 하지만, 자네가 진심으로 갈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구먼."

무송이 말했다. "나도 요 며칠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네. 일이 이렇게 터질 줄 알았으니 어찌 이곳에 편히 몸을 둘 수 있겠나? 형님 한 분은 계셨으나 형수에게 비정하게 해를 입으셨고, 이제 겨우 이곳에 왔나 싶더니 또 이런 곤경에 처했으니 말이네. 본가의 친척들도 모두 없으니 말이야. 오늘 형님께서 이런 좋은 곳을 알려주시며 무송더러 가라 하시니 내가 어찌 가지 않겠나? 다만 그곳이 어디인지만 알려주게."

장청이 말했다. "청주(靑州) 관할 아래 있는 이룡산 보주사라는 곳이라네. '화화상' 노지심과 '청면수'라 불리는 호걸 양지가 그곳에서 노략질을 하며 한 지역을 장악하고 산채를 틀고 있지. 청주의 관군들도 감히 그들을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한다네. 아우님은 그곳으로 가야만 겨우 화를 면할 수 있을 것이야. 다른 곳으로 갔다가는 결국 잡히고 말 걸세. 그곳에서 자주 내게 편지를 보내 함께 합류하자고 청해 오지만,

나는 고향을 떠나기가 어려워 가지 못했을 뿐이라네. 내가 편지를 한 통 써서 아우님의 재주를 상세히 적어 보낼 테니, 내 체면을 봐서라도 자네를 무리에 끼워주지 않겠나."

무송이 말했다. "형님 말씀이 옳네. 나도 마음은 굴뚝같았으나 때가 맞지 않고 인연이 닿지 않았을 뿐이네. 이미 사람을 죽여 일이 벌어졌으니 몸을 숨길 곳이 없는 지금이야말로 가장 좋은 방책이로군. 형님, 당장 편지를 써서 주게. 나는 오늘 바로 떠나겠네."

장청은 즉시 종이를 가져와 상세히 편지를 쓴 뒤, 무송에게 건네고 가는 길에 먹을 술과 음식을 챙겨주었다. 그때 '모야차' 손이낭이 장청을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어찌 그리 무턱대고 아주버님을 보내려 드나요? 저러다가는 앞길에서 분명 사람들에게 붙잡히고 말 거예요."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 제가 어찌 가면 안 된다는 말씀입니까? 어찌 사람들에게 붙잡힌단 말입니까?"

손이낭이 말했다. "아주버님, 지금 관아에서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신상금 삼천 관(貫)을 내걸고 초상화까지 그려서, 본적과 나이, 생김새를 명확히 적어 사방에 붙여놓았다고요. 아주버님 얼굴에는 지금 두 줄로 '금인(金印, 자자형으로 새긴 죄인 표식)'이 또렷이 찍혀 있으니, 앞길을 가다가는 분명 발뺌하지 못할 겁니다."

장청이 말했다. "얼굴에 고약 두 장 붙이면 되지 않겠소?"

손이낭이 웃으며 말했다. "세상에 당신만 참 영리하시네요. 그런 얼토당토않은 소리를 하다니, 그렇게 해서 관리들을 어떻게 속인단 말이

에요? 제게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만, 아주버님께서 따르지 못하실까 봐 걱정이네요."

무송이 말했다. "재난을 피해 달아나야 하는 처지에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손이낭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말씀드린다고 해서 아주버님께서 화내시면 안 됩니다."

무송이 말했다. "형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르겠소."

손이낭이 말했다. "이 년 전쯤, 어떤 두타(頭陀, 떠돌이 수행승) 한 명이 이곳을 지나가다가 저에게 당해 쓰러진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며칠 동안 만두 속으로 만들어 먹었지요. 그런데 그가 남긴 물건이 좀 있어요. 쇠로 만든 머리테(界箍) 하나와 옷 한 벌, 검은 베로 지은 직철(直裰) 한 벌, 여러 색의 짧은 술이 달린 띠 하나, 그리고 승려임을 증명하는 도첩(度牒) 한 장이 있었지요. 또 백여덟 개의 사람 정수리뼈로 만든 염주 한 줄과 상어 가죽 칼집 하나, 그리고 설화빈철(雪花鑌鐵)로 벼려 만든 계도(戒刀) 두 자루도 있었고요. 이 칼은 종종 한밤중에 휘파람 같은 울음소리를 내는데, 아주버님도 예전에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이제 피난을 가시려면 머리카락을 자르고 행자(行者)로 꾸며야 이마의 '금인'을 가릴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도첩이 있으면 몸을 지키는 신표가 되고, 나이와 생김새도 아주버님과 비슷하니 이 어찌 전생의 인연이 아니겠어요? 아주버님께서 그 두타의 이름을 대고 길을 가시면 누가 감히 와서 캐묻겠습니까? 이 방법이 어떠신가요?"

장청이 손뼉을 치며 말했다. “이낭의 말이 맞네! 내가 그 수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구먼.”

정히 이러하니,

재난을 피하려 길을 떠나니 앞길이 험하고 눈이 많구나 변장하여 신분을 감추고 지혜로써 위기를 넘겨보세.

체포하는 기세는 번개처럼 급하고,
위태로운 처지는 거센 파도와 같구나.
재앙을 피하고 벗어나고 싶다면,
모름지기 수행자가 되어야 하리라.

장청이 물었다. “아우님, 생각은 어떠한가?”

무송이 말했다. “그것도 괜찮겠네. 다만 내가 출가인(승려) 같아 보이지 않을까 걱정일 뿐이네.”

장청이 말했다. “내가 한번 입혀 봐서 어떠한지 보세.”

손이낭이 방으로 들어가 꾸러미를 가져와 풀어헤치니, 옷가지가 잔뜩 나왔다. 손이낭은 무송에게 옷을 안팎으로 챙겨 입게 했다. 무송이 스스로 살펴보니, 마치 자기 몸에 맞춰 만든 옷 같았다. 무송은 검은 비단 도포를 입고 띠를 맸다. 이어 펠트 모자를 벗어 내려놓고 머리카락을 풀어 가지런히 접어 올린 뒤, 계고(界箍兒)를 둘러 묶고 염주를 목에 걸었다. 장청과 손이낭이 그 모습을 보고는 둘 다 갈채를 보내며 외쳤다.

"정말 전생부터 정해진 인연이로구나!"

무송도 거울을 가져와 자신을 비춰보고는 껄껄 웃음을 터뜨렸다. 장청이 물었다. "아우님, 어찌 그리 크게 웃는가?"

무송이 말했다. "거울에 비춰 보니 나 스스로도 우스워서 그러네. 나도 행자 노릇을 제법 할 만하군. 형님, 어서 내 머리카락을 잘라 주게."

장청은 가위를 들고 무송의 앞뒤 머리카락을 모두 잘라 주었다.

시로 이르되,

호랑이 잡는 별호는 예부터 이충에게 있었으나,
무송의 별호는 아직 정해지지 않은 채 비어 있었네.
다행히 야차(손이낭)가 좋은 방도를 일러 주니,
단번에 행자로 하여금 신통을 드러내게 하였네.

무송은 일이 매우 급박하게 돌아가는 것을 보고 서둘러 짐을 챙겨 길을 떠나려 했다. 그때 장청이 다시 말했다.

"아우님, 내 말 좀 들어보게. 내가 잇속을 챙기려는 게 아니라, 장 도감의 집에서 가져온 술그릇들을 여기 두고 가게나. 내가 그걸 자잘한 은냥으로 바꿔 줄 테니, 그걸 가져가서 노자로 쓰면 만에 하나도 실수가 없을 걸세."

무송이 말했다. "형님 말씀이 옳소."

무송은 가져온 물건들을 전부 장청에게 넘겼고, 한 보따리 부스러기 금은으로 바꾸어 전대에 담아 허리에 매었다. 무송은 술과 음식을 배불리 먹은 뒤 장청 부부에게 작별 인사를 고했다. 그는 허리에 계도 두 자루를 차고 그날 밤 모든 채비를 마쳤다. 손이낭은 도첩을 꺼내 비단 주머니를 꿰매 그것을 담은 뒤, 무송에게 살갗에 닿도록 가슴 앞에 걸게 했다. 무송은 부부에게 거듭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길을 나서려는데 장청이 다시 당부했다.

"아우님, 길에서 매사에 조심하고 절대 방심해서는 안 되네. 술은 적게 마시고, 남과 다투지도 말게나. 출가인답게 행동도 좀 하고 말일세. 성급하게 굴다가는 정체가 탄로 날 수 있으니 매사 침착해야 하네. 만약 이룡산에 도착하거든 꼭 편지를 써서 보내주게. 우리 부부도 여기서 계속 지내는 건 오래갈 방법이 못 되니, 조만간 가산을 정리해 우리도 산으로 들어가 합류할 생각이라네. 아우님, 부디 몸조심하게. 그리고 부디 노 두령님과 양 두령님께 안부를 꼭 전해 주게나."

무송은 작별 인사를 하고 문을 나서며, 두 소매를 걷어 올리고 성큼성큼 걸음을 옮겼다. 장청 부부는 그 뒷모습을 보고는 갈채를 보내며 외쳤다.

"과연, 정말 훌륭한 행자로구나!"

다만 그 모습은 이러했다.

앞머리는 눈썹을 가릴 만큼 드리웠고, 뒷머리는 들쭉날쭉 목덜미에 닿아 있었다. 검은 비단 도포는 마치 먹구름이 몸을 덮은 듯했고, 알록

달록한 띠는 마치 꽃무늬 구렁이가 몸을 휘감은 듯했다. 이마에 두른 계고는 찬란히 빛나 어렴풋이 불타는 눈에 금빛 눈동자(火眼金睛) 같았고, 몸에 걸친 알록달록한 베 누비옷은 마치 구리 힘줄과 쇠 뼈를 가진 듯했다. 두 자루 계도는 쳐들면 살기가 가을 하늘에 뻗쳤고, 백 개의 해골을 꿴 염주는 염불을 욀 때마다 슬픈 바람이 되어 길에 가득 일었다. 사람을 잡아먹는 나찰도 그 앞에서는 손을 모아 절할 것이요, 불법을 수호하는 금강역사도 그 모습에 눈살을 찌푸릴 법했다.

그날 밤, 무송은 장청 부부와 작별하고 커다란 나무가 있는 십자파를 떠나 길을 나섰다. 때는 시월 무렵이라 해가 짧아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이 되었다. 길을 간 지 쉰 리도 채 되지 않았을 무렵, 멀리 높은 고개 하나가 보였다. 무송은 밝은 달빛을 빌려 한 걸음 한 걸음 고개를 올라갔는데, 아마도 초경(初更)쯤 된 듯했다. 무송이 고개 정상에 서서 바라보니, 달이 동쪽에서 떠올라 고개의 풀과 나무를 눈부시게 비추고 있었다.

한창 구경을 하고 있는데, 앞쪽 숲속에서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무송이 말했다. “또 무슨 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건가! 이렇게 텅 비고 적막한 고개에 대체 누가 저리 웃고 떠드는 거지?”

무송은 숲 너머로 달려가 살펴보았다. 소나무 숲 사이 산기슭에 초가집 열댓 칸으로 된 작은 분암(墳庵)이 하나 있었다. 작은 창문 두 개가 열려 있었는데, 그 창가에서 한 선생(도사)이 여인을 품에 안고 달을 보며 희롱하며 웃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를 본 무송은 마음속에서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살기가 솟구쳤다. 그는 속으로 생각했다. ‘산속 숲에서 수행하는 출가자가 어찌 저런 짓을 한단 말인가!’

무송은 즉시 허리춤에서 잘 벼린 은빛 계도 두 자루를 뽑아 들고 달빛 아래 비추어 보며 말했다. “칼은 아주 좋구나. 내 손에 들어온 뒤로 아직 한 번도 써 보지 못했으니(개시를 못 했으니), 이 망할 놈의 선생 놈으로 먼저 칼을 시험해 봐야겠다.”

그는 칼 한 자루를 손목에 걸어 두고, 다른 한 자루는 다시 칼집에 꽂았다. 그러고는 검은 도포 두 소매를 등 뒤로 묶어 올리고 암자 앞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그 소리를 들은 선생은 뒷창문을 닫아버렸다. 무송은 돌덩이를 집어 들어 문을 내리쳤다. 그러자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옆으로 열리더니 도동 하나가 걸어 나오며 호통을 쳤다. “너는 누구길래 이 야심한 밤중에 소란을 피우며 문을 두드리고 난리냐?”

무송은 부릅뜬 괴이한 눈을 번뜩이며 크게 외쳤다. “우선 이 새 같은 놈으로 칼을 시험해 주마!”

말이 끝나기도 전에 무송이 손을 휘두르자, 챙그랑 하는 소리와 함께 도동의 머리가 옆으로 떨어지며 바닥에 쓰러졌다. 그러자 암자 안에 있던 선생이 “누가 내 도동을 죽였느냐!”라고 크게 외치며 밖으로 뛰어나왔다. 선생은 양손에 보검 두 자루를 휘두르며 무송에게 달려들었다. 무송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내 재주는 상자 속에서 꺼낼 필요도 없지. 바로 내 가려운 데를 긁어 주는구나!”

무송은 칼집에서 다시 계도를 뽑아 들고, 양손에 계도를 쥔 채 선생을 맞이했다. 두 사람은 밝은 달빛 아래에서 서로 치고받으며 싸우기 시작했다. 두 자루의 검에서는 차가운 빛이 번뜩였고, 두 자루의 계도에서는 서늘한 기운이 뿜어져 나왔다. 한참을 싸우는 모습은 마치 날아

오르는 봉황과 춤추는 난새 같았고, 잠시 후의 싸움은 마치 매가 토끼를 낚아채는 듯했다. 두 사람이 십여 합을 겨루던 중, 산고개 옆에서 둔탁한 소리가 크게 울리더니 둘 중 한 명이 쓰러졌다. 차가운 칼빛 그림자 사이로 머리가 떨어지고, 살기 어린 무리 속에서 핏빛 비가 흩뿌려졌다.

결국 이 치열한 싸움 끝에 쓰러진 자는 누구일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2회 — 무행자 무송이 취하여 공량을 때리고, 금모호 임충이 의리로 송강을 풀어주다

武行者醉打孔亮 錦毛虎義釋宋江

두 사람이 열댓 합을 겨루는 사이, 무행자(무송)가 일부러 빈틈을 보였다. 그 도사가 그것에 속아 두 자루의 검을 휘두르며 베어 들어오자, 무송이 몸을 홱 돌려 적의 자세를 똑똑히 살피고는 단 한 자루의 계도(戒刀)로 후려쳤다. 그러자 왕도인의 머리가 옆으로 굴러떨어지고 몸뚱이는 바위 위로 쓰러졌다.

무송이 크게 소리쳤다. "암자 안에 있는 여인은 어서 나오너라! 죽이지는 않을 테니, 무슨 사연인지 말해 보아라!"

그러자 암자 안에서 한 여인이 걸어 나오더니 바닥에 엎드려 절을 올렸다. 무송이 말했다. "절하지 마라. 우선 이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저 자는 네게 어떤 사람인지 말해 보아라."

여인이 울면서 대답했다. "저는 이 고개 아래 장 태공 댁 딸입니다. 이 암자는 저희 조상님 묘를 지키는 분암(墳庵)이지요. 저 도사는 어디 사람인지도 모르나, 저희 집에 묵으며 음양에 능하고 풍수를 잘 안다고 떠벌렸습니다. 저희 부모님께서 그를 장원에 머물게 두신 것이 잘못이었습니다. 게다가 이곳 묘 자리의 지리를 보아 달라고 청해 데려오셨는데, 그자가 감언이설로 꾀어 며칠 더 머물게 하더니, 어느 날 저를 보고는 떠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두세 달을 머물며 저희 부모님과 오라비, 올케의 목숨까지 모두 해치고는, 저를 강제로 이 분암(墳庵)에 가두어 살게 했습니다. 저 도동(道童) 역시 다른 곳에서 납치해 온 자입니다. 이 고개는 오공령(蜈蚣嶺)이라 불리는데, 저 자는 이 고개의 풍수가 좋다는 이유로 스스로를 '비천오공(飛天蜈蚣)' 왕도인이라 칭했습니다."

무송이 물었다. "남은 친척은 없느냐?" 여인이 대답했다. "친척은 몇 집 있으나 모두 평범한 농사꾼이라, 누가 감히 저 자와 다투려 들겠습니까?" 무송이 다시 물었다. "저 자에게 재물이 좀 있더냐?" 여인이 말했다. "금은보화 일이백 냥(兩) 정도는 모아두었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있다면 어서 가서 챙겨 두어라. 나는 곧 이 암자에 불을 지를 것이다."

여인이 물었다. "스님, 술과 고기를 좀 드시겠습니까?" 무송이 말했다. "있거든 가져와서 대접해다오." 여인이 말했다. "스님, 어서 암자 안으로 들어오셔서 드십시오." 무송이 의심하며 말했다. "혹시 누군가 나를 암습하려는 것은 아니냐?" 여인이 대답했다. "제 목숨이 열 개라도 어찌 감히 스님을 속이겠습니까?"

무송이 여인을 따라 암자 안으로 들어가니, 작은 창가 탁자 위에 술과 고기가 차려져 있었다. 무송은 큰 사발로 한바탕 마셨다. 여인이 금은보화를 모두 챙기자, 무송은 곧장 안쪽에 불을 질렀다. 여인은 금은보화가 든 꾸러미를 받들어 무송에게 바치며 목숨만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무송이 말했다. "나는 네 것을 받지 않겠다. 네가 가져가서 몸이나 잘 돌보며 살거라. 어서 가거라! 어서!"

여인은 절을 하며 감사를 표하고 고개를 내려갔다. 무송은 두 시신을 모두 불길 속에 던져 태워버렸다. 그러고는 계도를 거두어 차고서 밤을 도와 고개를 넘어, 청주(青州) 땅을 향해 길을 떠났다.

다시 십여 일을 길을 가니, 마을이나 주막, 저잣거리나 읍내를 가릴 것 없이 곳곳에 무송을 잡으라는 방이 붙어 있었다. 방이 여기저기 붙어 있었으나, 무송은 이미 행자의 차림을 하고 있었기에 길에서 그를 붙잡아 캐묻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때는 마침 십일월이라 날씨가 몹시도 추웠다. 무송은 길을 가며 술과 고기를 사 먹었으나, 몰아치는 추위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다. 그러다 어느 흙 언덕을 오르는데, 저 멀리 앞에 아주 험준하게 생긴 높은 산이 보였다. 무송이 언덕을 내려와 삼오리쯤 걸어가니, 저 멀리 주막 하나가 나타났다. 문 앞에는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집 뒤로는 돌이 널브러진 험한 산이 둘러싸고 있었는데, 가까이서 보니 마을에 있는 작은 주막이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문 앞에는 시냇물이 흐르고, 산 그림자가 초가집에 비치고 있었다. 성긴 울타리 곁에는 매화가 옥 같은 꽃술을 피워냈고, 작은 창가에는

소나무가 푸른 용처럼 굽어 있었다. 검은 가죽을 씌운 탁자와 의자 위에는 질그릇과 사발들이 즐비하게 놓여 있었고, 황토로 쌓은 담장에는 주선(酒仙)과 시객(詩客)의 시 구절이 가득 그려져 있었다. 푸른 깃발 하나가 찬바람에 춤을 추니, 시 한 구절이 나그네의 발길을 붙잡는 듯했다. 그야말로 기병이 향기를 맡고 말 멈추어 쉬어가고, 돛단배가 풍미를 알고 배를 멈추게 할 만한 곳이었다.

무송이 흙 언덕을 지나 마을 주막 안으로 곧장 들어가 자리를 잡고 앉더니, 소리 높여 말했다. "주인장, 우선 술 두 각(角)만 가져오시오. 고기도 좀 사서 먹어야겠소." 주인이 대답했다. "스님께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술은 거친 백주(茅柴白酒)뿐이고 고기는 벌써 다 팔리고 없습니다." 무송이 말했다. "우선 술이라도 가져와서 이 추위라도 좀 달래야겠소." 주인은 곧 술 두 각을 떠서 큰 사발에 가득 담아 무송에게 내어주고, 익힌 채소 한 접시를 곁들여 주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두 각의 술을 다 마신 무송이 다시 두 각을 더 가져오라고 하자, 주인은 또 술 두 각을 떠서 큰 사발에 가득 담아 내왔다. 무송은 오로지 술을 마시는 데만 열중했다. 앞서 언덕을 넘어올 때 이미 술기운이 서너 푼쯤 올라 있던 차에, 이 네 각의 술을 단숨에 다 들이켜고 다시 찬 북풍까지 몰아치니 술기운이 확 치밀어 올랐다. 무송이 큰 소리로 떠들며 말했다. "주인장, 정말 팔 물건이 하나도 없단 말이오? 당신이 직접 먹으려고 챙겨둔 고기라도 좀 내어주시오. 한꺼번에 돈을 치르리다." 주인이 웃으며 말했다. "이 스님은 참 별난 분이시군요. 술과 고기만 찾으시니 대체 어디서 가져다드린단 말입니까? 스님, 그냥 포기하십시오." 무송이 말했다. "내가 공짜로 먹겠다는 것도 아닌데, 어찌 팔아주지 않는단 말이오?" 주인이 대답했다.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백주뿐

인데 다른 것을 어디서 구하겠습니까?" 두 사람이 가게 안에서 실랑이를 벌이고 있을 때, 밖에서 웬 장한 하나가 서너 명의 부하를 거느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왔다. 무송이 그 장한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머리에는 물고기 꼬리처럼 붉은 두건을 쓰고
몸에는 오리 머리처럼 초록빛 전포를 입었네.
발에는 흙먼지 묻은 장화를 신었고
허리에는 몇 자 되는 붉은 띠를 둘렀구나.
얼굴은 둥글고 귀는 커다란 데다
입술은 넓고 입 모양은 네모졌네.
키는 일곱 자가 넘는 훤칠한 체구에
나이는 스물네댓 살쯤 되었으리라.
용모는 당당하고 건장한 사내이나
여색을 탐하지 않는 젊은이로다.

그 장한이 일행을 데리고 가게 안으로 들어오자, 주인이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맞이했다. "대랑(大郎)님, 어서 앉으십시오." 장한이 말했다. "내가 시킨 일은 다 준비해 두었느냐?" 주인이 대답했다. "닭과 고기는 이미 다 삶아 두었으니, 대랑님께서 오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장한이 다시 물었다. "내 청화옹(青花瓮) 술은 어디 있느냐?" 주인이 말했다. "여기 있습니다." 장한은 일행을 이끌고 무송의 맞은편 자리에 앉았고, 함께 온 서너 명의 부하들은 그 아래쪽에 앉았다. 주인이 곧 청화옹 술 한 동이를 받쳐 들고 나와 흙마개를 열더니, 커다란 흰 대야에 술을 콸콸 부었다. 무송이 곁눈질로 살펴보니, 그것은 땅속에

묻어 숙성시킨 아주 좋은 술이었는데, 바람을 타고 술향기가 솔솔 풍겨 왔다. 무송은 그 술향기를 맡으니 목구멍이 간질간질하여, 당장이라도 달려들어 뺏어 먹고 싶은 심정이었다. 주인이 다시 부엌으로 들어가 접시를 받쳐 들고 나오더니, 잘 삶은 닭 한 쌍과 살코기 한 대접을 장한의 앞에 놓아주었다. 그러고는 채소를 차려내고 국자로 술을 떠서 데우기 시작했다. 무송은 자기 앞에 놓인 것이 고작 채소 한 접시뿐인 것을 보고는 울컥 화가 치밀었다. 눈은 호사이나 배는 고프고, 설상가상으로 술기운까지 올라오니, 당장이라도 주먹으로 탁자를 박살 내고 싶은 기분이었다. 무송이 소리쳤다. "주인장, 이리 와 보시오! 이놈이 손님을 아주 우습게 보는구나!" 주인이 급히 달려와 물었다. "스님, 너무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술이 필요하시면 말씀만 하십시오." 무송이 눈을 부릅뜨며 호통쳤다. "이놈이 도무지 도리를 모르는구나! 저 청화옹 술과 닭고기 같은 것들을 어찌 내게 팔지 않는단 말이냐? 나도 똑같이 돈을 내겠다!" 주인이 말했다. "저 술과 고기는 모두 대랑님께서 댁에서 직접 가져오신 것으로, 제 가게에서는 자리만 빌려 잡수시는 것뿐입니다." 무송은 먹고 싶은 마음뿐이라 주인의 설명을 들으려 하지 않고, 한마디로 일갈했다. "개소리! 개소리!" 주인이 항변했다. "스님이라는 분이 어찌 이리 막무가내입니까!" 무송이 호통쳤다. "이 나으리가 어찌 막무가내라는 거냐? 내 네 것을 거저먹어 버릴 테다!" 주인이 말했다. "스님께서 스스로를 '나으리(老爺)'라 칭하는 건 난생처음 봅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무송이 벌떡 일어나 다섯 손가락을 활짝 펴고 주인의 얼굴을 향해 한 번에 후려쳤다. 주인은 비틀거리며 저 멀리까지 나동그라졌다. 맞은편에 앉아 있던 장한이 이를 보고 크게 노했다. 주인의 얼굴 반쪽이 퉁퉁 부어올라 한참 동안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본 장한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무송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 망할 두타(頭陀) 놈이

본분도 모르고 어찌 이리 함부로 손을 놀린단 말이냐! '출가인은 진심(嗔心)을 일으키지 말라'고 하지 않았느냐!" 무송이 대꾸했다. "내가 놈을 때린 게 당신이랑 무슨 상관이란 말이냐!" 장한이 화를 내며 말했다. "내가 좋게 타이르는데, 이 망할 두타 놈이 감히 말로 나를 모욕해?" 무송은 그 소리에 더욱 화가 나 탁자를 밀치고 앞으로 나서며 외쳤다. "이놈아, 지금 누구더러 하는 소리냐!" 장한이 웃으며 말했다. "이 망할 두타 놈이 나랑 한판 붙어보겠다는 게냐? 그야말로 태세(太歲, 그해를 주관하는 흉신)의 머리 위에서 흙을 파헤치는 격이로구나!" 장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소리쳤다. "이 도둑놈 같은 행자 놈아, 나와서 얘기 좀 하자!" 무송이 맞받아쳤다. "내가 네놈이 무서워 못 때릴 줄 아느냐!" 무송이 문가로 달려들자, 장한이 잽싸게 문밖으로 나갔다. 무송이 뒤쫓아 나가자, 장한은 무송의 체구가 건장한 것을 보고 얕잡아 볼 수 없음을 깨닫고 문가에 자세를 잡고 서서 그를 기다렸다. 무송이 달려들어 장한의 손을 붙잡았다. 장한이 힘을 써서 무송을 떼어 막으려 했으나, 무송의 천근만근 같은 신력(神力)을 어찌 당해내겠는가. 무송이 단숨에 잡아 품으로 끌어당기더니, 한 번 비틀어 던지자 어린아이를 뒤집어 엎듯 장한이 속수무책으로 나동그라졌다. 이를 지켜보던 서너 명의 마을 장정들은 손발이 떨리고 다리가 후들거려 감히 앞으로 나서지 못했다. 무송은 장한을 짓누르고,

무송이 주먹을 치켜들더니 사정없이 내리꽂았다. 스무서른 대를 연달아 때린 무송은 장한을 번쩍 들어 올리더니, 문밖 계곡물 속으로 휙 던져버렸다. 서너 명의 마을 장정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일단 계곡으로 뛰어들어 장한을 건져 올린 뒤 부축하며 남쪽으로

떠났다. 한 대 맞은 주인은 얼굴이 저려 움직이지도 못한 채, 방 안으로 들어가 몸을 숨겼다.

무송이 말했다. "좋구나! 너희는 다 가버려라. 이 나으리는 술과 고기를 먹을 테다!" 무송은 사발을 가져다 흰 대야에 담긴 술을 떠서 먹는 데만 정신이 팔렸다. 탁자 위에 놓인 닭 한 쌍과 고기 한 대접은 아직 손도 대지 않은 상태였다. 무송은 젓가락도 쓰지 않고 두 손으로 고기를 움켜쥐고 마음껏 뜯어 먹었다. 반 시진도 채 되지 않아 술과 고기, 닭을 거의 다 비워냈다. 술에 잔뜩 취한 무송은 입고 있던 직철(直裰, 승복) 소매를 등 뒤로 묶어 매고는 가게 문을 나서서 계곡을 따라 걸어갔다. 그런데 북풍이 갑자기 몰아치기 시작하자, 무송은 발걸음을 가누지 못하고 비틀거리며 길을 재촉했다. 주막에서 겨우 4, 5리쯤 걸어갔을까, 길가 흙담 너머에서 누렁이 한 마리가 나타나 무송을 보고 짖어댔다. 무송이 살펴보니 커다란 누렁이 한 마리가 따라오며 짖어대는 것이었다. 술에 잔뜩 취해 괜히 시비를 걸고 싶었던 무송은, 개가 자꾸 따라오며 짖어대는 것이 얄미워 왼손으로 칼집에서 계도(戒刀) 한 자루를 쑥 뽑아 들고 성큼성큼 다가갔다. 누렁이는 계곡가를 빙빙 돌며 계속 짖어댔다. 무송이 칼을 휘둘러 내리쳤으나 허공을 갈랐고, 너무 힘을 준 나머지 머리는 무겁고 발은 가벼워져 그대로 곤두박질치며 계곡물 속으로 굴러떨어졌다. 무송은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다. 겨울날이라 계곡물은 거의 말라 있어 깊이가 겨우 한두 자(약 30~60cm)밖에 되지 않았으나, 그 물이 어찌나 차가운지 견딜 수가 없었다. 겨우 몸을 일으켜 보니 온몸이 물에 흠뻑 젖어 있었고, 아까 그 계도는 계곡물 속에 잠겨 있었다. 무송이 고개를 숙여 칼을 건지려던 찰나, 다시 콰당 하며 물속으로 고꾸라져 계곡물 속에서 허우적거렸다. 그때 언덕 위 한쪽

담장 너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맨 앞에 선 장한은 전립(氈笠子) 모자를 쓰고 거위 노란빛 모시비단 누비웃옷(鵝黃紵絲衲襖)을 입었으며 손에는 초봉(哨棒, 호신용 단봉) 한 자루를 들고 있었다. 그 뒤로 십여 명의 사람들이 나무 자루의 흰 곤봉을 든 채 뒤따랐다. 그들 중 한 명이 가리키며 말했다. "저 계곡물에 있는 도둑놈 같은 행자가 바로 작은 형님을 때린 놈입니다. 지금 작은 형님께서 행방을 모르시자, 큰 형님께서 장정 스무서른 명을 이끌고 곧장 주막으로 그놈을 잡으러 가셨는데, 그놈이 마침 이쪽으로 와 있군요."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 멀리서 매를 맞았던 사내가 옷을 갈아입고 손에는 박도(朴刀) 한 자루를 든 채, 뒤로 스무서른 명의 장객(莊客)을 거느리고 나타났다. 모두 이름난 장사들이었다. 그가 누구였는가 하면, 이런 자들로 불리는 무리였으니.

키다리 왕삼(長王三), 땅딸이 이사(矮李四). 급할 땐 삼천 리를 달린다는 급삼천(急三千), 굼뜨면 팔백 리도 못 간다는 만팔백(慢八百). 울타리 위 똥덩이 파상분(笆上糞), 똥 속의 구더기 시리저(屎裏蛆).

쌀 속 벌레 미중충(米中蟲), 밥 속 방귀 반내비(飯內屁). 새 위에 박힌 가시 조상자(鳥上刺), 모래알 같은 사소생(沙小生). 나무 동무 목반가(木伴哥), 소힘줄 우근(牛筋) 등이라.

이 스무 명 남짓한 이들은 모두 장원의 우두머리 격인 장객들이었고, 나머지는 마을의 건달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창과 몽둥이를 끌고 그 대한을 따라 호기롭게 휘파람을 불며 무송을 찾아 나섰다. 담장 곁에 다다라 무송을 발견하자, 그들은 무송을 가리키며 노란 저고리를 입은 대한에게 말했다. "저 도둑놈 같은 두타가 바로 아우님을 때린 놈입

니다!" 그 대한이 말했다. "일단 저놈을 잡아다가 장원으로 끌고 가서 낱낱이 매질하며 캐물어 보겠다." 그가 "쳐라!" 하고 호통을 치자, 서른에서 마흔 명에 달하는 무리가 한꺼번에 달려들었다. 가엾은 무송은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한 채 겨우 일어나려 발버둥 쳤으나, 사람들이 일제히 달려들어 가로로 끌고 거꾸로 잡아당기는 바람에 결국 시냇물 속에서 끌려 나오고 말았다. 담장 옆 모퉁이를 돌아드니 큰 장원 하나가 나타났는데, 양옆으로는 높고 하얀 담벼락이 둘러쳐져 있고, 늘어진 버드나무와 우뚝한 소나무가 담장과 마당을 에워싸고 있었다. 사람들은 무송을 거칠게 밀어 넣고는 그의 옷을 벗기고 계도와 보따리를 빼앗았다. 그러고는 무송을 큰 버드나무에 끌어다 묶고, 등나무 회초리 한 다발을 가져오게 하여 그를 차근차근 매질하기 시작했다.

매질이 서너 대 채 되지 않았을 때, 장원에서 한 사람이 걸어 나오며 물었다. "너희 형제는 또 누구 때문에 싸우는 것이냐?"

그러자 두 대한이 손을 맞잡고 예를 갖추며 대답했다. "스승님, 말씀 올립니다. 저희가 오늘 이웃 장원의 지인 서너 명과 함께 앞쪽 작은 주막에 가서 술을 세 잔 정도 마시려 했습니다. 그런데 저 도둑놈 같은 행자가 쳐들어와 행패를 부리며 저희를 호되게 때렸습니다. 그러고는 저희를 물속에 처박아 얼굴이 다 깨지고 얼어 죽을 뻔했는데, 다행히 아는 이가 구해준 덕분에 겨우 살아 돌아왔습니다.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고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그놈을 찾으러 갔더니, 그놈이 저희 술과 고기를 다 먹어 치우고는 대낮부터 문 앞 시냇가에 취해 쓰러져 있더군요. 그래서 이놈을 붙잡아 이곳으로 끌고 와 낱낱이 심문하려는 참입니다. 저 도둑놈 같은 중을 보십시오. 진짜 승려 같지도 않은 게 얼굴에

'금인'이라 불리는 문신이 두 개나 있는데, 머리카락을 늘어뜨려 가린 걸 보니 분명 죄를 짓고 도망 중인 죄수임이 틀림없습니다. 저놈의 근본을 물어본 뒤 관가에 넘겨 죄를 가리게 하겠습니다."

매를 맞아 다친 대한이 거들었다. "물어봐서 뭐 하겠습니까! 저 대머리 도둑놈이 저를 이토록 만신창이로 만들어 놓았으니, 한두 달은 꼼짝없이 누워 지내야 할 판입니다. 차라리 저놈을 때려죽인 뒤 불태워 버리는 게 제 분풀이에 훨씬 낫겠습니다."

말을 마친 그가 다시 등나무 채찍을 들어 매질하려는데, 방금 나온 사람이 말했다. "아우야, 그만해라. 내가 저자를 좀 자세히 살펴보마. 저 사람도 범상치 않은 호걸 같구나."

이때 무 행자는 이미 술이 깨어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다. 그는 그저 눈을 감은 채 가만히 매를 맞으며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다. 장원에서 나온 그 사람이 먼저 다가가 무송의 등에 난 곤장 자국을 살펴보더니 말했다. "이상하구나, 이 모양을 보니 형벌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흉터로구나." 그는 무송의 앞으로 돌아가 얼굴을 살피더니, 손으로 무송의 머리카락을 움켜쥐어 들어 올리고 눈을 부릅뜨며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러더니 외쳤다. "이 사람은 내 아우 무이랑이 아니냐!" 그제야 무 행자가 두 눈을 번쩍 뜨고 그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형님이 아니십니까!" 그러자 그 사람이 호통을 쳤다. "어서 풀어주어라, 이 사람은 내 아우다!" 노란 저고리를 입은 이와 매를 맞았던 이가 모두 깜짝 놀라 다급히 물었다. "이 행자가 어째서 스승님의 아우라는 말씀입니까?" 그 사람이 대답했다. "이 사람은 내가 너희에게 늘 말하던,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때려잡은 무송이다. 그가 지금 어찌하여 행자가 되

었는지는 나도 모르겠구나." 두 형제가 그 말을 듣고는 황급히 무송을 묶은 줄을 풀어주었다. 그러고는 마른 옷 몇 벌을 가져와 갈아입게 한 뒤, 초당 안으로 부축해 들어갔다. 무송이 절을 올리려 하자, 그 사람은 기쁨과 놀라움이 교차하는 기색으로 무송을 붙들며 말했다. "아우야, 아직 술이 다 깨지 않았으니 일단 앉아서 이야기하자꾸나." 무송도 그 사람을 보자 반가운 마음이 들어 술기운이 절반쯤은 깨었다. 따뜻한 물을 가져와 세수하고 양치하게 하고 술 깨는 음식을 좀 먹인 뒤, 무송은 다시 그 사람에게 절을 올리며 옛이야기를 나누었다.

그 사람은 다름 아닌 운성현 출신으로, 성은 송이고 이름은 강이며 자는 공명이었다. 무 행자가 말했다. "형님이 시 대관인의 장원에 계신 줄로만 알았는데, 어찌하여 이곳에 계십니까? 혹 제가 형님과 꿈속에서 만난 것은 아니겠지요?" 송강이 대답했다. "시 대관인의 장원에서 너와 헤어진 뒤로 그곳에서 반년 정도 더 머물렀다. 집안 형편은 어떠한지, 아버님께서 걱정하시지는 않을지 염려되어 우선 아우 송청을 집으로 돌려보냈지. 그 뒤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관가 일은 주(朱)·뇌(雷) 두 도두가 힘써준 덕분에 집안은 이미 별일이 없고, 다만 본인만 잡으면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이미 해포문서(전국 수배문)를 발해 곳곳에서 뒤쫓고 있다'고 적혀 있었다. 그런데 그 일도 이미 어느 정도 누그러진 모양이다. 마침 이곳 공 태공께서 여러 차례 사람을 보내 장원에 소식을 물으셨다. 그러다 송청이 집에 돌아간 뒤로 송강이 시 대관인의 장원에 있다고 알려준 모양이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을 시 대관인의 장원까지 보내 나를 이곳으로 모셔온 것이다. 이곳이 바로 백호산이고, 이 장원이 바로 공 태공의 장원이다. 방금 너와 싸운 자는 공 태공의 작은아들인데, 성격이 급하고 남들과 다투기를 좋아하여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독화성(獨火星)' 공량이라 부른단다. 그리고 노란 저고리를 입은 저 아이는 공 태공의 큰아들로, 사람들은 모두 '모두성(毛頭星)' 공명이라 부르지. 이 두 사람이 창봉(槍棒) 익히기를 좋아하여 내가 조금 가르쳐준 덕분에 나를 스승이라 부른단다. 나는 이곳에 반년을 머물렀다. 이제 막 청풍채(淸風寨)에 한번 다녀오려던 참이라 요 며칠 사이에 길을 떠나려던 참이었지. 내가 시 대관인의 장원에 있을 때, 네가 경양강에서 호랑이를 잡았다는 소문도 들었고, 양곡현에서 도두가 되었다는 말도 들었다. 게다가 서문경과 싸워 죽였다는 소식까지 들었지. 그 뒤로 네가 어디로 유배되었는지는 알 길이 없었는데, 아우는 어쩌다가 행자가 되었느냐?"

무송이 대답했다. "형님과 시 대관인의 장원에서 헤어진 뒤, 저는 경양강에 가서 호랑이를 잡았습니다. 그것을 양곡현으로 가져가니 지현(知縣)이 저를 높이 평가하여 도두로 삼아주었습니다. 그러다 형수의 인정 없는 행실로, 그녀가 서문경과 통정하여 약을 먹여 형 무대를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두 사람을 모두 죽이고 본현(本縣)에 자수했으나, 사건이 동평부로 넘겨졌습니다. 그 후 진 부윤(陳府尹)이 힘써 도와준 덕분에 맹주(孟州)로 유배 판결을 받았습니다." 십자파(十字坡)를 지나다 장청과 손이랑(孫二娘)을 어찌 만났는지, 맹주에 이르러 어떻게 시은(施恩)을 알게 되고 '장문신(蔣門神)'을 어찌 때려눕혔는지, 어찌 장 도감(張都監) 일가 열다섯 식구를 죽이고 다시 장청의 집으로 도망쳤는지, '모야차(母夜叉)' 손이랑이 자신을 두타 행자(頭陀行者)로 꾸며준 연유, 그리고 오공령(蜈蚣嶺)을 지나며 칼을 시험 삼아 왕도인(王道人)을 죽인 일과, 마을 주막에서 술을 마시다 취해서 공 형(공량)을 때린 일까지, 자기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송

강에게 자세히 들려주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공명·공량 두 사람은 깜짝 놀라 몸을 굽혀 절을 올렸다. 무송은 황급히 답례하며 말했다. "방금 제가 큰 결례를 범했습니다. 부디 노여워하지 마십시오!" 공명·공량이 말했다. "저희 형제가 '눈이 있어도 태산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有眼不識泰山).'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무 행자가 말했다. "두 분이 이 무송을 알아보아 주신 김에, 제 도첩과 편지, 짐과 옷가지를 잘 말려 주시되, 두 자루 계도와 이 염주만은 잃어버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공명이 대답했다. "그 점은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이미 사람을 시켜 거두게 해 두었으니, 가지런히 정돈하여 돌려드리겠습니다." 무 행자가 절하며 감사를 표했다. 이어 송강이 공 태공을 모셔오니 모두가 한자리에서 인사를 나누었다. 공 태공이 술과 음식을 차려 극진히 대접하니, 그 이야기는 더 말할 것도 없었다.

그날 밤 송강은 무송을 불러 함께 자리에 앉아 지난 1년여간의 일을 이야기를 나누었고, 송강은 마음속으로 매우 기뻐했다. 무송은 이튿날 날이 밝자마자 일어나 세수를 마친 뒤, 중당으로 나가 함께 아침 식사를 했다. 공명은 그곳에서 곁을 지켰고, 공량도 통증을 참아가며 함께 자리를 함께했다. 공 태공은 즉시 양을 잡고 돼지를 잡아 잔치를 베풀도록 준비했다. 그날 마을의 이웃과 친척 몇 가구가 안부를 물으러 찾아왔고, 문하의 사람들도 몇몇 찾아와 인사를 올렸다. 송강은 마음속으로 매우 흡족했다.

그날 잔치가 끝나자 송강이 무송에게 물었다. "둘째 형님, 이제 어디로 가서 몸을 의탁할 생각이십니까?"

무송이 대답했다. "어젯밤 형님께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채원자' 장청이 저에게 편지를 보내, 이룡산 보주사의 '화화상' 노지심이 있는 곳으로 가서 합류하라고 하더군요. 그도 곧 산으로 올라올 예정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것도 좋겠구나. 사실 숨기지 않고 말하자면, 최근 우리 집에서 편지가 왔는데 청풍채의 두령인 '소이광' 화영이 내가 염파석을 죽인 일을 알고는, 부디 청풍채에 와서 며칠이라도 머물러 달라고 몇 번이고 편지를 보내왔다네. 이곳이 청풍채와 그리 멀지 않으니 나도 요 며칠 사이에 떠나려던 참이었지. 다만 날씨가 변덕스러워 아직 출발하지 못했을 뿐이라네. 조만간 그곳에 한번 다녀올 생각인데, 차라리 아우와 함께 가는 게 어떻겠나?"

무송이 말했다. "형님, 저를 데리고 그곳에 가서 머물게 해주시다니 참으로 귀한 정이십니다! 하지만 제가 저지른 죄가 워낙 무거워 사면을 받더라도 용서받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이룡산으로 들어가 산적의 길을 택해 피난하려 합니다. 또한 저는 이미 머리를 깎은 행자가 되었으니 형님과 함께 가기는 어렵습니다. 길에서 사람들의 의심을 사게 되면 자칫 형님께까지 해가 될까 두렵습니다. 형님과 제가 생사를 같이한다 해도, 화영의 산채에 누를 끼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저는 이대로 이룡산으로 가겠습니다. 하늘이 도우시어 훗날 죽지 않고 살아남아 조정의 부름을 받게 된다면, 그때 형님을 찾아뵈어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가 조정에 귀순하려는 마음을 가졌으니 하늘이 반드시 도우실 걸세. 아우의 뜻이 정 그러하다면 억지로 권하지는 않겠네. 그저 며칠만 더 내 곁에 머물다 가게나."

그 후 송강과 무송은 공 태공의 장원에서 열흘 넘게 머물렀다. 송강과 무송이 떠나려 하자 공 태공 부자가 어찌 그냥 보내주려 하겠는가. 사나흘을 더 붙들었으나 송강이 완강히 떠나겠다고 고집하니, 공 태공은 어쩔 수 없이 송별 잔치를 마련했다. 하루 동안 극진히 대접한 뒤, 이튿날 새로 지은 행자 옷 한 벌—검은 무명 직철(直裰)과, 가져왔던 도첩·편지·계고(界箍, 머리에 두르는 철제 띠)·염주·계도·금은 따위를 무송에게 돌려주었다. 또한 여비로 쓰라며 두 사람에게 각각 은 쉰 냥씩을 건넸다. 송강이 사양하며 받지 않으려 했으나 공 태공 부자가 워낙 완강하여 결국 짐 꾸러미 속에 챙겨 넣었다. 송강은 옷가지와 무기를 정돈했고, 무송은 예전처럼 행자 옷을 입고 철제 계고(界箍)를 머리에 둘렀다. 목에는 사람 정수리뼈로 만든 염주를 걸고, 두 자루의 계도를 차고는 짐 꾸러미를 챙겨 허리에 묶었다. 송강은 박도(朴刀)를 들고 허리에는 요도(腰刀)를 찬 채 전립(氈笠, 털모자)을 쓰고 공 태공에게 작별을 고했다. 공명·공량은 장객(莊客)들에게 짐을 지게 하여, 두 형제가 직접 스무 리 남짓한 길을 송강·무 행자를 배웅하며 따라 나갔다. 마침내 송강과 무 행자에게 절을 올리고 작별을 고했다. 송강은 스스로 짐 꾸러미를 짊어지며 말했다. "장객들이 멀리까지 배웅할 것 없네. 나 혼자 무 아우와 가겠네." 공명·공량은 작별 인사를 나누고 장객들과 함께 집으로 돌아갔으니, 그 이야기는 더 말할 것 없다. 한편 송강과 무송 두 사람은 길을 가며 이런저런 한담을 나누다가 저녁이 되자 길가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아침 일찍 일어나 함께 또 길을 떠났다. 두 사람이 밥을 먹고 다시 4, 50리쯤 나아가니 한 시진(市鎭)에 이르렀는데, 지명은 서룡진(瑞龍鎭)이라 하였고 그곳은 삼거리 길목이었다. 송강이 그곳 사람에게 물었다. "소인들이 이룡산과 청풍진(淸風鎭)으로 가려 하는데,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그곳 사람이 대답했다. "그 두 곳은

같은 길로 가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룡산으로 가시려면 서쪽 길로 가셔야 하고, 청풍진으로 가시려면 동쪽 길로 가셔서 청풍산을 지나면 바로 그곳입니다." 송강은 자세한 설명을 듣고는 무송에게 말했다. "아우, 오늘 자네와 헤어지게 되었으니 여기서 술 석 잔을 나누며 작별의 정을 나누세." 사(詞)는 「완계사(浣溪沙)」 곡조에 부쳐, 오로지 이별의 정을 노래한 것이다.

손을 맞잡고 이별에 임하니 작별의 말 어렵기만 한데, 산과 숲의 경물은 한창 시들어 쇠잔하고, 장한 회포는 적막한데 나그네 주머니마저 다 비었네. 나그네 길에 시름이 밀려와 혼이 끊어질 듯하고, 역참(郵亭)에 묵으며 빈 칼자루를 헛되이 두드리니(풍환의 고사처럼 신세를 한탄하니), 홀로 가련하여라, 긴긴밤이 끝없이 괴롭기만 하구나.

무 행자가 말했다. "제가 형님을 한 구간만 더 배웅해 드리고 돌아가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럴 것 없네. 예부터 '그대를 천 리 길까지 배웅해도 결국은 한 번 헤어지는 법(送君千里, 終有一別)'이라 하지 않았나. 아우, 자네는 그저 만 리 앞길만 바라보며 한시라도 빨리 그곳에 당도하게나. 무리에 들어간 뒤에는 술버릇을 좀 삼가게. 만약 조정에서 초안(招安)이 내린다면, 자네가 노지심과 양지를 설득하여 함께 귀순하도록 할 수도 있을 걸세. 훗날 변방에 나가 한 칼 한 창으로 공을 세워, 처에게는 봉작이 내려지고 자손은 음덕으로 관직을 잇게 한다면, 오랜 뒤에 청사(青史)에 좋은 이름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니, 사람으로 한세상 산 보람이 헛되지 않을 걸세. 나는 백 가지 중에 한 가지도 능한 게 없어, 충심은 있으되 진취할 길이 없네. 하지만 아우처럼 영웅적인 사람은 반드시 큰 사업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니, 이 어리석은 형의

말을 마음에 새겨두고 훗날 다시 만날 날을 도모하세." 무 행자는 그 말을 듣고 주막에서 술을 몇 잔 더 마신 뒤 술값을 치렀다. 두 사람이 가게를 나와 시진(市鎭) 어귀 삼거리 길목에 이르자, 무 행자는 송강에게 네 번 절을 올렸다. 송강은 눈물을 흘리며 차마 헤어지지 못한 채 무송에게 다시 당부했다. "아우, 내 말을 잊지 말게. 술버릇을 좀 삼가고, 부디 몸조심, 또 몸조심하게!" 무 행자는 그길로 서쪽으로 떠나갔다. 독자 여러분, 이 대목을 잘 기억해 두시라. 무 행자는 그길로 이룡산으로 가 노지심·양지와 합류하니, 그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한다.

한편, 송강은 무송과 헤어진 뒤 몸을 돌려 동쪽을 바라보며 청풍산으로 향하는 길을 잡았다. 길을 가는 내내 무송 생각뿐이었다. 그렇게 며칠을 더 걸어갔을까, 멀리서 청풍산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산의 경치는 이러하였다.

사방팔방이 험준하고 높이 솟아 있으며, 산세는 사방으로 가파르고 험악했다.

우뚝 솟은 고송은 학이 날개를 편 듯 기묘하게 뻗어 있고, 가지가 뒤엉킨 고목에는 덩굴 식물이 어지럽게 매달려 있었다. 폭포수는 세차게 쏟아져 내려, 그 차가운 기운이 살갗을 파고들 만큼 소름 끼치게 했다. 짙은 녹음 아래로 쏟아지는 맑은 빛은 눈을 찌를 듯 강렬하여 꿈속에서도 정신이 번쩍 들 정도였다. 계곡물 소리 사이로 나무꾼의 도끼질 소리가 간간이 들려오고, 우뚝 솟은 봉우리 위로는 산새들의 슬픈 울음소리가 울려 퍼졌다. 사슴과 노루들은 떼를 지어 가시덤불 사이를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여우들은 무리 지어 다니며 먹이를 찾아 앞뒤로 울부짖

었다. 이곳이 부처님이 수행하는 곳이 아니라면, 분명 거친 무리가 약탈을 일삼는 곳임이 틀림없어 보였다.

송강은 눈앞에 보이는 높은 산이 기묘하게 생겼으며 나무가 울창한 것을 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했다. 산 구경에 정신이 팔려 한참을 걷다 보니 어디서 묵어야 할지도 미처 묻지 못한 상태였다. 어느덧 날이 어두워지자 송강은 마음속으로 당황하며 생각했다.

'만약 여름철이라면 이 숲속에서 무턱대고 하룻밤을 지내도 그만이련만, 하필이면 한겨울 날씨라니. 바람과 서리가 매섭고 밤은 차가우니 견뎌 내기도 어렵겠구나. 혹시라도 독충이나 호랑이, 표범 같은 맹수가 나타나면 어떻게 맞서겠는가? 자칫 목숨을 잃을지도 모르겠구나!'

송강은 걱정스러운 마음에 동쪽으로 난 작은 길을 향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어림잡아 초경(初更, 저녁 7~9시) 무렵쯤 되었을까, 마음은 점점 더 초조해졌고 바닥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다. 그러다 그만 산적들이 쳐 놓은 발걸이 덫줄(絆腳索)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다. 그때 숲속에서 방울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더니, 매복해 있던 졸개 산적 열네댓 명이 튀어나와 고함을 지르며 송강을 덮쳤다. 산적들은 송강을 뒤집어엎고는 삼끈으로 꽁꽁 묶은 뒤, 그가 차고 있던 박도와 짐 보따리까지 빼앗았다. 그러고는 횃불을 밝힌 채 송강을 산 위로 끌고 올라갔다. 송강은 그저 속수무책으로 괴로워할 뿐이었다. 곧이어 그는 산채로 압송되었다.

송강이 횃불 아래를 살펴보니, 사방이 나무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었고 가운데에는 초가집 한 채가 있었다. 그 초가집 안에는 호랑이 가죽을 씌운 의자 세 개가 놓여 있었고, 그 뒤로는 초가집 백여 채가 늘어서 있었다. 산적 놈들은 송강을 마치 粽子(쫑즈, 떡처럼 꽁꽁 묶은 모양새)처럼 돌돌 말아 장군주에 묶어 놓았다. 대청에 있던 몇몇 산적 놈들이 말했다.

"대왕께서 방금 잠드셨으니 일단 가서 알리지 마라. 대왕께서 술이 깨시면 그때 모셔와서, 이놈의 심장과 간을 꺼내 해장국을 끓여 먹자꾸나. 우리 모두 신선한 고기 한 점씩 먹는 거다."

송강은 장군주에 묶인 채 속으로 생각했다.

'아이고, 내 팔자야! 고작 기생 하나 죽였다고 이토록 고생을 하다니. 설마 내 목숨이 여기서 끊어지게 될 줄이야!'

산적들이 촛불을 밝히자 주위가 환해졌다. 송강은 이미 몸이 얼어붙어 감각조차 없을 정도로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그는 그저 눈을 굴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고개를 떨군 채 한숨을 내쉴 뿐이었다.

밤이 깊어 이삼경(二三更)쯤 되었을 때, 대청 뒤편에서 졸개 산적 서너 명이 걸어 나오며 외쳤다.

"대왕께서 깨어나셨다!"

그러고는 대청의 등촉 심지를 돋우어 주위를 환하게 밝혔다. 송강이 곁눈질로 살펴보니, 방금 나타난 대왕은 머리카락을 거위배 모양의 쌍상투(鵝梨角兒)로 틀어 올린 위에 붉은 비단 수건을 동여매고, 몸에는 대추빛 모시 비단으로 지은 누비 두루마기(棗紅紵絲衲襖)를 걸친 채 가운데 놓인 호랑이 가죽 의자에 앉았다. 그 대왕의 생김새가 어떠한가? 다음과 같았다.

붉은 머리 노란 수염에 두 눈은 동그랗고,
긴 팔과 넓은 허리는 기운이 하늘을 찌르네.
강호에서 금모호라 불리지만,
호걸의 본래 성은 연씨라네.

그 호걸은 산동(山東) 내주(萊州) 출신으로, 성은 연(燕)이고 이름은 순(順)이며 별호는 '금모호(錦毛虎)'라 하였다. 본래 양과 말을 팔던 행상 출신이었으나, 밑천을 다 까먹고 떠돌다 녹림의 무리에 들어가 산적질을 하게 되었다. 연순은 술이 깨자 가운데 놓인 의자에 앉아 물었다.

"얘들아, 이놈은 어디서 잡아 온 것이냐?"

졸개 산적이 대답했다.

"저희가 뒷산 길목에서 매복하고 있는데, 숲속에서 방울 소리가 들리기에 살펴보니 이놈이 혼자 짐 꾸러미를 메고 가다가 덫줄에 걸려 넘어지기에 잡아 왔습니다. 그래서 대왕님께 해장국 거리로 바치고자 했습니다."

연순이 말했다.

"잘했다! 어서 가서 다른 대왕 두 분도 모셔와 함께 먹자꾸나."

졸개가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청 양옆에서 호걸 두 명이 걸어 들어왔다. 왼쪽 사람은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에 번뜩이는 두 눈을 지녔는데, 그 차림새가 어떠한가? 다음과 같았다.

하늘빛 누비 두루마기엔 비단 자수로 보철을 댔고,
생김새는 험상궂고 성격은 거칠구나.
재물과 여색을 탐하는 가장 흉포한 강도,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왕왜호(王矮虎)라.

그 호걸은 양회 출신으로, 성은 왕이고 이름은 영이며, 키가 작고 다부진 체격이라 강호에서는 '왜각호'라 불렀다. 본래 수레를 모는 짐꾼 출신이었으나, 길을 가다 재물을 보고 욕심이 생겨 행객을 털다가 관가에 들통이 나자 옥을 탈출해 도망쳤다. 이후 청풍산으로 흘러 들어와 연순과 함께 이 산을 차지하고 도둑질을 하며 살고 있었다. 오른쪽 사람은 얼굴이 희고 깨끗하며, 두 갈래로 난 콧수염이 입을 살짝 덮고 있었다. 몸집은 마른 듯하면서도 어깨가 벌어진 수려한 모습이었으며, 머리에는 진홍색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한가? 다음과 같았다.

누비 두루마기에는 금실 자수로 짙은 녹색 무늬가 빛나고, 이리처럼 날렵한 허리에는 전군(征裙)을 단단히 동여매었다.

산채의 호걸은 붉은 수건을 두르고 있었고, 강호의 백면낭군은 얼굴이 희고 깨끗했다.

이 호걸은 조상이 절서 소주 사람으로, 성은 정이고 이름은 천수이다. 태생이 얼굴이 희고 잘생겨서 사람들이 모두 '백면낭군'이라 불렀다. 본래 은을 두드려 물건을 만드는 일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으나, 어려서부터 창과 봉을 익히는 것을 좋아하여 강호를 떠돌게 되었다. 그러다 청풍산을 지나던 중 왕영과 마주쳐 오십여 합을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이를 본 연순이 그의 수단이 대단함을 알아보고 산에 머물게 하여, 세 번째 자리인 제삼의 교의를 내주었다.

세 두령이 자리에 앉았다. 왕영이 곧 말했다. “얘들아, 마침 술 깨는 데 좋은 탕을 만들기에 딱 좋구나. 어서 움직여서 저 소의 심장과 간을 꺼내어, 술을 깨게 하는 매콤하고 새콤한 탕을 세 그릇쯤 만들어라.” 그러자 한 졸개가 커다란 구리 대야에 물을 떠 와 송강 앞에 놓았다. 또 다른 졸개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손에는 번뜩이는 칼 한 자루를 쥐고 있었다. 물을 떠 온 졸개가 양손으로 물을 확 끼얹어 송강의 가슴팍을 적셨다. 본래 사람의 심장은 뜨거운 피로 가득 차 있는데, 이 차가운 물을 끼얹어 피를 식힌 뒤에 심장과 간을 꺼내야 맛이 훨씬 부드럽고 좋기 때문이었다. 졸개가 송강의 얼굴에 대고 물을 계속 끼얹자, 송강이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아아, 송강이 여기서 죽는구나!” 연순은 그가 ‘송강’이라고 말하는 것을 직접 듣고는 졸개를 꾸짖어 멈추게 했다. “물을 뿌리지 마라!” 연순이 물었다. “저놈이 방금 뭐라고 ‘송강’이라 했느냐?” 졸개가 대답했다. “저놈이 입으로 ‘송강이 여기서 죽는구나’라고 말했습니다.” 연순이 자리에서 일어나 다가가 물었다. “이보시오, 당

신은 송강을 아시오?" 송강이 말했다. "내가 바로 송강이오." 연순이 더 가까이 다가가 다시 물었다. "당신은 어디의 송강이란 말이오?" 송강이 대답했다. "나는 제주 운성현에서 압사로 일하는 송강이오." 연순이 말했다. "혹시 당신이 산동의 '급시우' 송공명, 즉 염파석을 죽이고 강호로 도망쳐 나온 그 송강은 아니오?" 송강이 말했다. "그걸 어찌 알았소? 내가 바로 송삼랑이오."

연순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졸개의 손에서 날카로운 칼을 뺏어 밧줄을 모두 끊어버렸다. 그러고는 자신이 입고 있던 대추빛 모시 비단 저고리를 벗어 송강의 몸에 둘러주고, 가운데에 놓인 호피(虎皮) 교의에 안아 앉혔다. 그리고 왕영과 정천수를 불러 어서 내려오라고 하자, 세 사람이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송강은 교의에서 굴러 내려와 답례하며 물었다.

"세 분 장사께서 어찌하여 소인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이토록 극진한 예우를 갖추시는 것입니까? 그 뜻이 무엇입니까?"

송강 또한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 그러자 세 호걸도 일제히 무릎을 꿇었다. 연순이 말했다.

"이 못난 아우는 그저 뾰족한 칼로 제 두 눈을 도려내고 싶을 따름입니다. 좋은 분을 알아보지 못하고, 한순간 분간하지 못한 채 까닭도 묻지 않아 하마터면 의사(義士)를 해칠 뻔했으니 말입니다. 하늘이 다행히 어진 형님께서 직접 큰 함자를 일러주시게 하지 않았다면, 저희가 어찌 자세히 알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강호의 녹림(綠林) 사이를 떠돈 지 십수 년인데, 어진 형님께서 의(義)에 기대어 재물을 흩어 곤궁한

이를 구제하고 위태로운 이를 부지(扶持)하신다는 큰 명성을 익히 들어왔습니다. 다만 인연이 얕아 존안을 뵙지 못해 한스러웠을 뿐인데, 오늘 하늘이 만남을 마련해 주시니 참으로 마음에 흡족합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송강이 무슨 덕과 능력이 있다고 귀공께서 이토록 마음에 두시고 과분히 아껴주시는 것입니까."

연순이 말을 이었다.

"인형(仁兄)께서는 어진 이를 예우하고 호걸들과 사귀시니 그 명성이 천하에 자자합니다. 누가 흠모하고 존경하지 않겠습니까! 양산박이 근래 얼마나 번창하고 있는지는 사해에 다 알려져 있는데, 누군가 말하기를 그 모든 것이 인형의 은혜 덕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인형께서는 홀로 어디서 오셨으며, 어찌하여 이곳까지 오게 되셨습니까?"

송강은 조개(晁蓋)를 구한 일, 염파석을 죽인 일, 시진(柴進)과 공태공(孔太公)에게 한참을 의탁했던 일, 그리고 이번에 청풍채로 '소이광(小李廣)' 화영을 찾아가려는 일까지 — 이런 일들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려주었다. 세 두령은 매우 기뻐하며 즉시 옷 한 벌을 가져와 송강에게 갈아입혔다. 그러고는 곧바로 양을 잡고 말을 잡아 밤새 잔치를 베풀었다. 그날 밤 오경(五更)에 이르도록 술을 마시고서야 졸개들을 시켜 송강을 편히 쉬게 했다.

다음 날 진패(辰牌, 오전 7시~9시) 무렵에 일어나서는 길에서 겪은 여러 가지 일과 함께, 무송이 얼마나 대단한 영웅인지에 대해 이야기했다. 세 두령은 발을 구르며 한탄했다.

"우리에게 인연이 없구려. 만약 그를 이곳으로 모셔올 수 있었다면 더없이 좋았을 텐데, 그가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것이 한스럽소."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락된다. 송강은 청풍산에 도착한 뒤 닷새나 이레 동안 머물렀는데, 매일같이 좋은 술과 음식을 대접받으며 지냈으니 그 이야기는 더 말할 필요도 없다.

때는 마침 섣달 초순이라, 산동(山東) 사람들에게는 해마다 납일(臘日)에 성묘하는 관습이 있었다. 마침 졸개 하나가 산 아래에서 보고하러 올라와 말했다.

"큰길에 가마 한 대가 지나가는데, 일고여덟 명이 뒤따르며 합(盒) 두 개를 메고 무덤에 종이를 태우러 가고 있습니다."

왕영은 여색을 밝히는 사내라, 그 보고를 듣자마자 그 가마에 분명 여인이 타고 있을 것이라 짐작했다. 그는 즉시 졸개 서른에서 쉰 명을 모아 산을 내려가려 했다. 송강과 연순이 어찌 그를 막을 수 있었겠는가. 왕영은 창과 칼을 챙겨 들고 징을 한 차례 울린 뒤 산을 내려가 버렸다.

그 사이 송강, 연순, 정천수 세 사람은 채(寨) 안에서 술을 마시고 있었다. 왕영이 떠난 지 두세 시진(時辰) 정도 지났을 때, 멀리 정찰을 나갔던 졸개가 돌아와 보고했다.

"왕 두령께서 길 중간까지 쫓아가시니 일고여덟 명의 군한(軍漢)들은 모두 달아나 버리고, 가마 속에 타고 있던 여인을 붙잡으셨습니다. 다만 은으로 만든 향합(香盒) 하나만 있을 뿐, 다른 재물은 아무것도 없었다고 합니다."

연순이 물었다.

"그 여인은 지금 어디로 메고 갔느냐?"

졸개가 대답했다.

"왕 두령께서 이미 산 뒤편 방으로 데려가셨습니다."

연순이 크게 웃었다. 송강이 말했다.

"왕영 아우가 여색을 탐하려 하다니, 호걸이 할 짓이 아니로구나."

연순이 말했다.

"이 아우가 다른 일은 무엇이든 앞장서서 잘하지만, 유독 이런 고질병이 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두 분도 나와 함께 가서 그를 권유해 봅시다."

연순과 정천수는 송강을 안내하여 산 뒤편에 있는 왕영의 방으로 곧장 향했다. 방문을 밀고 들어가 보니, 왕영이 그 여인을 품에 안고 희롱하고 있었다. 세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본 왕영은 황급히 여인을 밀쳐

내고는 세 사람에게 앉으라고 청했다. 송강이 그 여인을 살펴보니 다음과 같았다. 하얀 옷을 입고 허리에는 상복 치마를 두르고 있었는데, 화장을 전혀 하지 않았음에도 몸매가 자연스레 요염했고, 분을 바르지 않았음에도 타고난 자태가 빼어나고 수려했다. 눈썹은 봄볕을 머금은 듯 가녀린 눈썹이 마치 서시가 미간을 찌푸린 듯했고, 눈동자는 가을 물결에 떨어지는 빗방울처럼 이슬을 머금어 마치 여희가 눈물을 흘리는 듯한 모습이었다.

송강이 그 여인을 보고 물었다.

"낭자, 어느 집안의 부인인가? 이런 때에 밖을 돌아다니니 무슨 급한 일이라도 있는 것이오?"

여인은 부끄러운 듯 앞으로 나서며 정중하게 예를 갖춘 뒤 대답했다.

"저는 청풍채 지채(知寨, 우두머리)의 아내입니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신 뒤 소상(小祥, 망자의 1주기 제사)을 지내려 무덤가에 종이를 태우러 온 것입니다. 어찌 한가하게 돌아다녔겠습니까? 대왕님, 부디 제 목숨을 살려 주십시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속으로 생각했다.

'내가 지금 화영을 찾아가려 하는데, 설마 화영의 아내는 아니겠지? ……내가 어찌 구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송강이 다시 물었다.

"그대의 남편인 화 지채는 어찌하여 함께 성묘를 나오지 않았소?"

여인이 대답했다.

"대왕님, 저는 화 지채의 아내가 아닙니다."

송강이 말했다.

"방금 청풍채 지채의 부인이라고 하지 않았소."

여인이 말했다.

"대왕님께서 모르시는 모양입니다만, 지금 청풍채에는 문관과 무관 두 명의 지채가 있습니다. 무관 지채는 화영이고, 문관 지채가 바로 제 남편인 유고입니다."

송강은 생각했다.

'그의 남편이 화영과 동료라면, 내가 구해주지 않았을 때 내일 그곳에 가서 얼굴을 어떻게 보겠는가.'

송강이 왕영에게 말했다.

"내가 할 말이 하나 있는데, 들어줄 용의가 있는가?"

왕영이 말했다.

"형님, 말씀만 하십시오. 괜찮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호걸이 '골수를 빼먹는다(남의 것을 탐한다)'는 말을 듣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기 마련이네. 내가 듣기로 이 낭자는 조정 관리의 부인이라는데, 내 체면과 강호의 '대의'를 생각해서라도 이 여인을 산 아래로 돌려보내 부부의 정을 나누게 해주는 게 어떻겠나?"

왕영이 말했다.

"형님,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 왕영은 본래 곁에 모실 부인 하나 없었습니다. 게다가 요즘 세상은 저 관복 입은 자들이 망쳐놓은 것 아닙니까? 형님께서 그것까지 신경 쓰실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저를 좀 봐서 넘어가 주십시오."

송강이 무릎을 꿇으며 말했다.

"아우가 만약 아내를 맞이하고 싶다면, 나중에 내가 좋은 여인을 골라 예물을 갖춰 아우를 모실 여인을 얻어주겠네. 하지만 이 낭자는 내 친구의 동료이자 정직한 관리의 아내이니, 인정을 베풀어 그냥 보내주는 것이 어떻겠나."

그러자 연순과 정천수가 일제히 송강을 부축하며 말했다.

"형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입니다."

송강이 다시 고마움을 표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정말 고맙네."

연순은 송강이 이 여인을 구하려는 의지가 워낙 완강한 것을 보고, 왕영이 찬성하든 말든 상관하지 않고 가마꾼들에게 명령하여 여인을 메고 가게 했다. 여인은 그 말을 듣고 마치 촛불을 켜듯 연신 절을 하며 송강에게 고마워했다.

"대왕님, 감사합니다!"

송강이 말했다.

"부인, 나에게 감사할 것 없소. 나는 산채의 대왕이 아니라 그저 운성현에서 온 손님일 뿐이오."

여인은 절을 올린 뒤 산을 내려갔다. 가마꾼 두 명도 목숨을 건졌기에, 여인을 메고 마치 날아갈 듯이 산을 내려갔다. 그들은 마치 부모님이 다리를 두 개 더 만들어주지 않은 것을 한스러워할 정도로 급히 서둘러 떠났다.

왕영은 부끄럽고 답답하여 아무 말도 못 하고 있었는데, 송강이 그를 앞뜰로 끌고 나가 타일렀다.

"아우야, 너무 조급해하지 말게. 내가 나중에 어떻게든 아우에게 좋은 아내를 얻어주어 즐겁게 해주겠네. 내 결코 약속을 어기지 않겠네."

연순과 정천수는 그 모습을 보고 웃음을 터뜨렸다. 왕영은 송강의 의리와 예법에 눌려 속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으나, 감히 화를 내지도 못하고 그저 억지 웃음을 지을 뿐이었다. 그 후 송강과 함께 산채에서 연회를 즐긴 일은 말할 것도 없었다.

결국…은 어떻게 될까.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한편, 청풍채의 군졸들은 순식간에 부인을 빼앗기고는 어쩔 수 없이 돌아와, 채에 이르러 유 지채(劉知寨)에게 보고하며 말했다.

"부인께서 청풍산 강도들에게 납치당하셨습니다."

유고(劉高)는 그 말을 듣고 크게 노하여, 갔던 군졸들이 일을 그르쳤다고 호통치며 어찌하여 부인을 버려두고 왔느냐고 큰 몽둥이로 호되게 매질했다. 군졸들이 변명하며 말했다.

"저희는 고작 대여섯 명뿐인데, 저쪽은 서른에서 마흔 명이나 되니 어찌 맞서겠습니까!"

유고가 호통쳤다.

"헛소리 마라! 만약 가서 부인을 되찾아오지 못한다면, 모두 옥에 가두어 죄를 물을 것이다."

군졸들은 닦달을 견디다 못해 어쩔 도리가 없자, 본채(本寨) 안의 군건(軍健) 일고여든 명을 간청하여 모았다. 그들은 각자 창과 봉을 들고 부인을 되찾아올 요량으로 길을 나섰다. 그런데 뜻밖에도 길 중간에서 가마꾼 두 명이 부인을 메고 날아갈 듯 달려오는 것을 마주쳤다. 군졸들이 부인을 맞이하며 물었다.

"어찌 산 아래로 내려오실 수 있었습니까?"

부인이 대답했다.

"그놈이 나를 산채로 잡아갔는데, 내가 유 지채의 부인이라 말하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 황급히 내게 절을 하더니, 가마꾼을 시켜 나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 주었느니라."

군졸들이 말했다.

"부인, 저희를 가엾이 여기신다면 상공께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가 싸워서 부인을 되찾아온 것이라고요. 그래야 저희가 맞은 매를 임시나마 면할 수 있습니다."

부인이 말했다.

"내가 알아서 둘러댈 방도가 있느니라."

군졸들은 절을 하며 고마워하고는 가마를 에워싸고 길을 떠났다. 군졸들은 가마꾼들이 너무 빨리 가는 것을 보고 한마디 했다.

"자네들 평소 마을에서 가마를 멜 때는 거위걸음·오리걸음처럼 느릿느릿하더니, 오늘은 어찌 이리 빨리 가는가?"

가마꾼 두 명이 대답했다.

"본디 잘 걷지도 못하는데, 등 뒤에서 큼지막한 율폭(栗暴, 주먹으로 머리를 후려치는 매)이 날아드니 어쩔 수 없지요."

사람들이 웃으며 말했다.

"귀신이라도 본 게냐? 등 뒤에 누가 있단 말이냐?"

그제야 가마꾼들이 뒤를 돌아보고 말했다.

"아이고! 제가 너무 급히 걷느라 발뒤꿈치가 뒤통수를 치고 있었네요."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다. 가마를 호위하여 채로 돌아오자, 유 지채는 크게 기뻐하며 부인에게 물었다.

"누구의 도움으로 돌아왔소?"

부인이 대답했다.

"그놈들이 나를 잡아가서 간사하게 능욕하려 하기에 따르지 않았소. 막 나를 죽이려는 찰나에 내가 지채의 부인이라 말하는 것을 듣고는 감히 손을 대지 못하고 황급히 절을 하더이다. 그때 마침 이 많은 사람들이 와서 나를 빼앗아 돌아오게 된 것이오."

유고는 그 말을 듣고 곧 술 열 병과 돼지 한 마리를 가져오게 하여 군졸들에게 상으로 내렸으니, 그 이야기는 더 말할 필요가 없다.

한편, 송강은 그 부인을 구해 산 아래로 돌려보낸 뒤, 산채에서 닷새에서 이레가량 더 머무르다가, 화 지채(花知寨)를 찾아가기로 마음먹고 작별을 고하고 산을 내려가려 했다. 세 두령이 간곡히 만류했으나 붙잡지 못하자 송별연을 베풀어 전송했고, 각자 약간의 금붙이와 보물을 송강에게 보내어 보따리에 묶어 주었다.

그날 송강은 일찍 일어나 세수를 하고 아침을 먹은 뒤 행장을 꾸리고, 세 두령에게 작별을 고하고 산을 내려왔다. 세 호걸은 술과 안주를

준비하여 산 아래 관도(官道) 옆 이십여 리까지 직접 배웅하며 술잔을 나누고 헤어졌다. 세 사람은 차마 헤어지지 못하고 신신당부했다.

"형님, 청풍채에 다녀오시는 길에 반드시 다시 산채로 들러 잠시라도 머무셔야 합니다."

송강은 보따리를 등에 메고 박도(朴刀)를 든 채 말했다.

"다시 만날 날을 기약합시다."

크게 읍(揖)하고는 그들과 헤어져 길을 떠났다. 만약 이야기를 들려주는 자(說話人)가 송강과 같은 시대에 태어나 어깨를 나란히 하며 자랐더라면, 허리를 끌어안고 팔을 잡아 끌어 돌려세웠으리라. 송공명(宋公明)은 다만 화 지채를 찾아가려 한 까닭에, 하마터면 시신을 묻을 땅조차 없이 죽을 뻔하였다. 참으로 험난한 일을 겪는 것은 모두 천수(天數)요, 풍운을 만나는 것이 어찌 우연이겠는가.

필경 송강이 화 지채를 찾아가는 길에 어떤 사람과 마주치게 될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3회 — 송강이 밤에 소오산을 살펴보고, 화영이 청풍채를 발칵 뒤집다

宋江夜看小蠍山 花榮大鬧清風寨

이야기는 이러하다. 이 청풍산은 청주에서 그리 멀지 않아, 길로 치면 백 리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다. 청풍채는 청주의 삼거리 길목인 청풍진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이 삼거리 길은 세 곳의 험한 산으로 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곳 청풍진에 청풍채를 세워 관리하게 된 것이다. 그곳에도 삼사천에서 오천 호 정도의 가구가 모여 살았는데, 청풍산과는 불과 한 역참(站) 남짓한 거리밖에 되지 않았다. 그날 세 명의 두령은 산 위로 올라갔다.

한편, 송강은 혼자서 보따리를 등에 멘 채 청풍진으로 들어서더니, 곧바로 화영 지채의 거처가 어디인지 물었다. 마을 사람이 대답했다. "청풍채 관아는 저기 저 장터 한복판에 있습니다. 남쪽에 있는 작은 채는 문관인 유 지채의 저택이고, 북쪽에 있는 작은 채가 바로 무관인 화영 지채의 저택입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사람에게 고맙다 인사를 한 뒤 북쪽 채로 향했다. 채 입구에 이르자 문을 지키는 군사 몇 명이

보였는데, 송강은 이름을 밝히고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청했다. 그러자 채 안에서 한 젊은 장교가 걸어 나오더니, 송강을 붙잡고 정중히 절을 올렸다. 그 젊은 장교의 생김새는 이러했다.

하얀 치아와 붉은 입술에 눈매가 준수하고,
두 눈썹은 귀밑까지 길게 뻗어 맑으니,
가느다란 허리와 넓은 어깨는 원숭이 같구나.
거친 말도 잘 타며 매 사냥을 즐기네.

백 걸음 밖 버드나무 잎도 꿰뚫을 만큼 팔 힘이 굳세고,
활을 당기니 가을 달처럼 둥글고 선명하구나.
새 깃털 화살 쏘아 올리니 차가운 별빛이 터져 나온다.
사람들은 그를 '소이광'이라 칭송하니,
그 장수의 아들은 바로 화영이라네.

걸어 나온 젊은 장교는 다름 아닌 청풍채의 무관이자 '소이광'이라 불리는 화영이었다. 화영의 차림새는 이러했다.

몸에 입은 전포에는 금빛과 비취색 자수가 놓였고,
허리에 두른 옥띠에는 산서(山犀)의 뿔이 박혔네.
짙푸른 두건엔 작은 고리 두 개가 달려 있고,
문무화(文武花) 장화에는 초록빛이 나직이 감도네.

화영은 송강이 절을 올리는 것을 보고는 군사들에게 소리쳐 보따리와 박도, 허리칼을 받게 한 뒤, 송강을 부축하여 정청으로 모셨다. 그리고는 송강을 정청 중앙에 있는 시원한 평상에 앉게 했다. 화영은 다시 머리를 조아리며 네 번이나 절을 올리고는 일어나서 말했다. "형님과 헤어진 뒤 손꼽아 보니 벌써 5, 6년이 지났습니다. 늘 형님을 그리워했습니다. 그러다 형님께서 요사스러운 염파석을 죽이신 뒤로, 관가에서 공문을 보내 곳곳에서 추격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는 마치 가시방석에 앉은 듯 마음이 초조하여, 서신을 열댓 통이나 써서 형님의 장원에 안부를 물었으나 혹시 전달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하늘이 도우셔서 다행히 형님을 이곳에서 뵙게 되었으니, 이 한 번의 만남만으로도 평생의 한이 풀릴 것 같습니다." 말을 마친 화영이 다시 절을 했다. 송강이 그를 부축하며 말했다. "아우는 예법을 차리는 데만 신경 쓰지 말고, 어서 앉게나. 내 이야기를 좀 들어보게." 화영이 비스듬히 앉자, 송강은 염파석을 죽인 일부터 시진에게 의탁하게 된 일, 그리고 공태공의 장원에서 무송을 만난 일, 청풍산에서 붙잡혔던 일, 연순을 만난 일 등을 하나하나 자세히 들려주었다. 화영은 이야기를 다 듣고 대답했다. "형님께서 이토록 많은 고난을 겪으셨다니요. 오늘 다행히 형님을 뵙게 되었으니, 우선 이곳에 몇 년간 머무시며 안정을 찾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만약 아우의 동생 송청이 공태공의 장원으로 편지를 보내오지 않았다면, 나 역시 특별히 아우를 찾아오려 했었네." 화영은 송강을 후당으로 모셔 앉히고는 아내 최씨를 불러 어른께 절을 올리게 했다. 인사가 끝나자 화영은 여동생도 불러 형님께 인사하게 했다. 그러고는 송강에게 옷과 신발을 갈아입게 하고 향기로운 물로 목욕을 하게 한 뒤, 후당에 연회를 차려 먼 길 오느라 쌓인 피로를 풀 수 있도록 대접했다.

그날 연회 자리에서 송강은 유 지채의 부인을 구해준 일을 화영에게 자세히 이야기했다. 이야기를 다 들은 화영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형님, 아무 까닭도 없이 그 여인을 구해줘서 무엇 하시겠습니까? 도리어 저놈의 입을 막을 좋은 기회를 놓치신 것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게 무슨 소린가! 듣기로는 그 여인이 청풍채 지채의 부인이라기에, 아우의 동료 체면을 생각해서 왕왜호의 눈총은 아랑곳하지 않고 힘을 다해 산에서 내려보내 구해준 것이네. 어찌 그리 말하는가?"

화영이 대답했다. "형님께서는 모르십니다. 제가 입을 함부로 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청풍채는 청주의 요충지입니다. 만약 저 혼자 이곳을 지키고 있었다면 원근의 강도들이 어찌 감히 청주를 이토록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저런 못난 글품쟁이 같은 놈을 정지채로 앉혔는데, 저놈은 문관이면서 능력도 없습니다. 부임한 뒤로 마을의 살림 좀 있는 몇몇 가구들을 속여 재물을 갈취하고 법도를 어지럽히는 등 못된 짓을 안 하는 법이 없습니다. 저는 무관인 부지채로서 매번 저놈 때문에 화가 치밀어, 저런 더럽고 짐승 같은 놈을 당장이라도 죽여 버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그런데 형님께서는 어찌 저놈의 부인을 구해주셨습니까? 무엇보다 그 계집이 아주 어질지 못한 사람이라, 그저 남편을 부추겨 어질지 못한 일을 시키고 양민을 해치며 뇌물을 탐하게 만들 뿐이니, 차라리 그 천한 년이 욕을 좀 보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형님께서 그런 못된 사람을 잘못 구해주신 것입니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타이르듯 말했다. "아우, 자네가 틀렸네! 예부터 '원수는 풀 수는 있어도 새로 맺어서는 안 된다'고 했네. 그는 자네

와 동료 관원이니, 비록 과실이 있더라도 자네가 그의 허물은 덮어주고 선한 면을 드러내야지, 어찌 그리 짧게 생각하는가."

화영이 말했다. "형님 말씀이 지극히 옳습니다. 내일 관아에서 유 지채를 만나면, 그의 처자를 구해준 일을 이야기하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아우가 그렇게 해주면 자네의 덕망도 드러날 것이네."

화영의 부부와 식구들은 아침저녁으로 정성을 다해 술과 음식을 올리며 송강을 극진히 모셨다. 그날 밤에는 후당 처마 아래에 침상을 마련하여 송강이 편히 쉴 수 있게 했다. 다음 날에도 다시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했다.

이야기는 이렇다. 송강은 화영의 채에 머무는 동안 나흘이나 닷새 동안 술을 마시며 지냈다. 화영의 수하에는 마음을 터놓고 지내는 측근들이 몇 있었는데, 하루에 한 명씩 번갈아 가며 부스러기 은전 몇 푼을 챙겨 송강의 곁에 붙여주었다. 그들은 매일 송강을 모시고 청풍진 거리로 나가 저잣거리의 북적임과 마을의 도관과 사찰 등을 한가로이 구경하며 즐기게 했다. 그날 이후로 측근들은 매일 송강을 모시고 나가 저잣거리에서 한가하게 놀게 했다. 청풍진에는 작은 공연장(勾欄)도 몇 군데 있고 찻집과 술집은 말할 것도 없이 즐비했다. 송강은 측근과 함께 공연장에서 한차례 구경하고, 다시 근처 마을의 사찰이나 도관을 유람하기도 했으며, 저잣거리 술집에 들러 술을 마시기도 했다. 자리를 뜰 때면 측근이 은을 꺼내 술값을 치르려 했으나, 송강은 한사코 마다하고 직접 부스러기 은을 꺼내 계산했다. 송강은 돌아온 뒤에도 화영에

게 이 일을 말하지 않았다. 함께 술을 마시던 측근들은 은전도 그대로 남고 한가로운 시간도 보낼 수 있어 기뻐하며, 매일 한 명씩 번갈아 송강의 말동무가 되어 함께 나들이를 다녔다. 비용은 매번 송강이 냈다. 송강이 채에 온 뒤로 그를 공경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없었다. 송강이 화영의 채에 머문 지 어느덧 한 달 남짓 지나니, 섣달이 다 가고 봄이 돌아와 정월 대보름이 다가오고 있었다.

한편, 청풍채 마을 사람들은 정월 대보름을 축하하기 위해 등불 축제를 열기로 의논하고 준비에 들어갔다. 돈과 물자를 거두어 토지대왕묘 앞에 작은 오산(鰲山) 등붕을 세우고, 그 위에 형형색색의 비단과 꽃을 장식한 뒤 오륙백 개의 꽃등을 매달았다. 토지대왕묘 안에서는 온갖 사화(社火)와 민속놀이가 펼쳐졌다. 집집마다 문 앞에 등붕을 세워 등불을 내걸고 서로 화려함을 겨루었으며, 저잣거리에는 온갖 재주를 부리는 이들이 다 모여들었다. 비록 수도인 경사만큼 화려하지는 않았으나, 이 또한 인간 세상에 내려온 천상과 같았다.

마침 송강이 채에서 화영과 술을 마시고 있을 때가 정월 대보름이었다. 그날은 날씨가 맑고 화창했다. 화영은 사시(巳時, 오전 9시~11시 사이) 무렵에 말을 타고 관아로 가서, 저녁에 저잣거리의 소란을 단속할 군사 수백 명을 점호했다. 또한 여러 군사를 나누어 보내 사방의 책문(柵門)을 지키게 했다. 미시(未時, 오후 1시~3시 사이)쯤 되어 채로 돌아온 화영은 송강에게 간식을 먹자고 권했다.

송강이 화영에게 말했다. "듣자하니 오늘 밤 저잣거리에서 꽃등을 밝힌다던데, 나도 가서 구경하고 싶네."

화영이 대답했다. "아우가 본래 형님을 모시고 가야 마땅하나, 관직을 맡고 있는 몸이라 한가로이 함께 나들이를 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 밤 형님께서는 집안사람 두서너 명과 함께 등불을 구경하시되, 일찍 돌아오십시오. 저는 집에서 작은 가연(家宴)을 차려놓고 술 세 잔 기울이며 명절을 축하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러는 게 좋겠네."

어느덧 날이 저물고 동쪽 하늘에서 밝은 달이 떠올랐다.

시로 이르되,

물시계 구리 항아리 재촉하지 말아라,
별빛 내리는 다리 위 불꽃 나무 환히 밝았는데.
오산은 푸른 구름 위로 높이 솟아 있는데,
어느 나그네 찾아와 이곳을 보지 않는가!

그날 밤, 송강은 화영의 집안 친수(親隨) 측근 두세 명을 데리고 천천히 발걸음을 옮겼다. 청풍진에 이르러 등불을 구경하니, 집집마다 문 앞에 등붕(燈棚, 등을 거는 시렁)을 세우고 꽃등을 내걸어 놓았는데, 등에는 여러 가지 옛이야기 그림이 그려져 있었고, 색색의 비단을 오려 만든 백모란 등불이며 부용·연꽃 모양의 신기한 등불들도 가득했다. 네다섯 사람이 서로 팔짱을 끼고 대왕묘 앞에 이르러 그 작은 오산(鰲山, 자라 모양으로 쌓아 올린 등불산 장식)을 바라보니, 과연 이러하였다.

산돌에는 두 마리 용이 물놀이하고, 구름과 노을 속엔 한 마리 학이 하늘을 향하네.
금연꽃 등불, 옥매화 등불, 유리 빛깔 찬란히 흔들리고;
연꽃 등불, 부용꽃 등불, 비단 자수처럼 흩뿌려지네.
은나방은 색채를 겨루며, 짝지어 향기로운 구슬을 따라 춤추고;
버들꽃은 빛을 다투며, 가닥가닥 화려한 휘장을 스치네.
마을 노래와 북소리는, 등불 그림자 속에서 시끌벅적하고;
베 짜는 여인과 일꾼들은, 촛불 빛 아래서 함께 즐기네.
비록 아름다운 풍류 노래는 없어도, 풍년 든 큰해를 마음껏 축하하리.

송강 일행 네 사람은 오산(鰲山) 앞에서 한참을 구경하다가 천천히 남쪽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오칠백 걸음쯤 갔을까, 앞쪽에서 등불이 휘황찬란하게 빛나고 있었고, 사람들이 한 무리 모여 있는 커다란 담장 집 대문 앞이 아주 북적거리고 있었다. 징 소리가 울려 퍼지자 구경하던 사람들이 환호성을 질렀다. 송강이 살펴보니, 그것은 바로 포로(鮑老) 춤(가면을 쓴 인형이 추는 민속춤)을 추는 무리였다. 송강은 키가 작아 사람들 뒤에 서서는 보이지가 않았다. 그러자 함께 온 측근이 사화대(社火隊, 민속놀이 행렬)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송강이 잘 볼 수 있게 길을 터주었다. 포로 춤을 추는 자가 몸을 우스꽝스럽게 비비 꼬며 추는 모습을 보고, 송강은 허허거리며 크게 웃었다.

그 담장 안을 들여다보니, 유 지채 부부와 아낙네 몇 명이 모여 구경하고 있었다. 송강의 웃음소리를 들은 유 지채의 아내가 등불 아래서 송강을 알아보고는 남편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 검고 키 작은 사내가 바로 지난번 청풍산에서 나를 납치해 갔던 도적놈이에요!" 유 지채는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더니, 곧바로 측근 예닐곱 명을 불러 저 웃고 있는 검은 사내를 잡아 오라고 명령했다. 송강은 그 소리를 듣고 얼른 몸을 돌려 달아났다. 하지만 열 집 앞을 채 지나기도 전에 군사들이 따라붙어 송강을 붙잡고 끌고 왔으니, 그 모습이 마치 검은 매가 자줏빛 제비를 쫓는 격이며 맹호가 어린 양을 잡아먹는 형국이었다. 송강은 채로 끌려가 네 줄의 거친 삼밧줄에 꽁꽁 묶인 채 관청 앞마당으로 끌려갔다. 함께 있던 측근 세 명은 송강이 붙잡혀 가는 것을 보고는, 얼른 도망쳐 돌아가 화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한편, 유 지채는 대청에 앉아 그놈을 데려오라고 명령했고, 사람들은 송강을 에워싸서 대청 앞마당에 무릎 꿇렸다. 유 지채가 호통을 쳤다. "이놈! 너는 청풍산에서 약탈을 일삼는 강도라지 않느냐. 그런데 어찌 감히 제멋대로 등불 구경을 하러 왔단 말이냐! 이제 붙잡혔으니 무슨 변명을 하려느냐?" 송강이 말했다. "소인은 본래 운성현의 손님 장삼이라 하며, 화 지채와는 오랜 벗 사이입니다. 이곳에 머문 지 꽤 되었으나, 청풍산에서 약탈을 한 적은 결코 없습니다."

그러자 유 지채의 아내가 병풍 뒤에서 나타나며 소리쳤다. "이놈이 끝까지 발뺌을 하는구나! 내가 너를 대왕이라 불렀던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송강이 대답했다. "부인, 틀리셨습니다. 그때 제가 부인께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소인은 본래 운성현의 손님인데, 이곳에 납치되어 온 몸이라 산 아래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말입니다."

유 지채가 다시 물었다. "네가 손님이라면 어디서 납치를 당했다는 말이냐? 오늘 어떻게 산을 내려와서 여기까지 등불 구경을 하러 왔단

말이냐?" 그러자 그 여인이 말했다. "이놈이 산에 있을 때, 아주 기세등등하게 가운데 의자에 앉아 있었단 말입니다! 내가 대왕이라 불렀는데 사람 대접은커녕 눈길 한번 주지 않았어요!" 송강이 말했다. "부인, 제가 부인을 온 힘을 다해 산 아래로 구해준 것은 까맣게 잊으시고, 어찌 오늘 저를 억지로 도적으로 몰아세우십니까!"

그 말을 들은 여인은 크게 노하여 송강을 손가락질하며 욕을 퍼부었다. "저렇게 뻔뻔스럽고 질긴 놈을 매질하지 않으면 어찌 정신을 차리겠느냐!" 유 지채가 맞장구를 쳤다. "옳은 말씀이다!" 그러고는 매를 가져오라 명령하여 그놈을 때리게 했다. 연달아 두 차례나 매질을 가하니, 송강은 살점이 터지고 피가 철철 흘러내렸다. 유 지채는 곧바로 쇠사슬로 송강을 묶게 한 뒤, "내일 죄수 수레에 태워 '운성호' 장삼을 주부로 압송하라"고 명령했다.

한편, 송강을 모시던 측근들은 황급히 달려가 화영에게 이 사실을 알렸다. 화영은 그 말을 듣고 크게 놀라, 즉시 편지 한 통을 써서 유능한 측근 두 명에게 건네며 유 지채에게 전하라고 명령했다. 측근들은 편지를 품에 안고 서둘러 유 지채의 집 앞으로 달려갔다. 그들이 문을 지키던 군사에게 들어가 "화 지채께서 사람을 보내 문앞에서 편지를 전하라 하십니다"라고 보고하자, 유고는 사람을 불러 그를 대청으로 오게 했다. 측근이 편지를 올리자, 유고는 봉투를 뜯어 읽으며 말했다.

화영이 동료(僚兄) 상공의 자리 앞에 삼가 올립니다.

저의 변변치 못한 친척인 유(劉) 어른께서 근래에 제주(濟州)에서 오셨는데, 등불 구경을 하다가 뜻하지 않게 귀하의 위엄을 범하고 말았

습니다. 부디 사정을 헤아려 너그러이 용서하시고 풀어 주신다면 마땅히 찾아뵙고 감사의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거친 글씨로 예를 갖추지 못하였으나, 부디 살펴 주시기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유고는 편지를 읽고 크게 분노하며 종이를 갈기갈기 찢어버리고는 크게 꾸짖었다. "화영 이놈이 무례하기 짝이 없구나! 네가 조정의 관리이면서 어찌 강도 놈과 한패가 되어 나를 속이려 드느냐? 이 도적놈은 이미 운성현의 장삼이라고 자백했는데, 네놈은 어찌하여 유 어른이라 쓴 것이냐? 내가 네놈 장난감인 줄 아느냐! 성이 유 씨라고 적은 것은 나와 성이 같으니, 그렇게 하면 내가 그놈을 풀어줄 줄 알았더냐!" 유고는 좌우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편지를 전하러 온 사람을 밖으로 밀쳐내게 했다. 측근은 채에서 쫓겨나 급히 돌아와 화영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화영은 그 말을 듣고 탄식하며 외쳤다. "형님께서 고초를 겪고 계시는구나! 어서 내 말을 준비해라!" 화영은 곧장 갑옷을 갖춰 입고 활과 화살을 챙긴 뒤, 창을 움켜쥐고 말에 올라탔다. 그리고 군사 서른에서 쉰 명가량을 거느리고 모두 창과 몽둥이를 든 채 유고의 채로 돌진했다. 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화영을 보고 어찌 감히 막아서겠는가? 화영의 기세가 심상치 않음을 보고는 모두 겁에 질려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화영은 대청 앞까지 거침없이 달려가 말에서 내리며 손에 창을 쥐었고, 서른에서 쉰 명의 부하들은 대청 앞에 진을 쳤다. 화영이 외쳤다. "유 지채는 나와서 말해 보라!" 유고는 그 소리를 듣고 혼비백산하여, 무관인 화영이 무서워 감히 밖으로 나와 얼굴을 마주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화영은 유고가 나오지 않자 잠시 기다리다가, 좌우 군사들에게 명령하여 양옆의 작은 방들을 샅샅이 뒤지라고 호통을 쳤다. 서른에서 쉰 명의 군사가 일제히 수색에 나서자, 복도 옆 작은 방에서 송

강을 찾아냈다. 송강은 밧줄에 묶여 대들보에 거꾸로 매달려 있었고, 쇠사슬로 묶인 채 두 다리는 피떡이 되어 있었다. 군사들이 급히 밧줄을 끊고 쇠사슬을 풀어 송강을 구해냈다. 화영은 군사들에게 송강을 먼저 집으로 데려다주라고 일렀다. 화영은 다시 말에 올라 창을 움켜쥐고는 호통을 쳤다. "유 지채, 네가 명색이 정식 지채라면서 감히 화영을 어찌하려 드느냐! 어느 집에 친척이 없겠느냐! 대체 무슨 속셈이냐? 내 사촌 형님을 집에 가둬놓고 억지로 도적놈으로 몰다니, 사람을 너무 우습게 보는구나. 내일 반드시 너와 결판을 내겠다!" 화영은 부하들을 데리고 자신의 채로 돌아가 송강의 상태를 살폈다.

한편, 유고는 화영이 사람을 구해 떠난 것을 보고는 급히 백여 명에서 이백 명가량의 군사를 모아 화영의 채를 습격해 사람을 빼앗아 오라고 명령했다. 그 이백 명 중에는 새로 들어온 교두(教頭) 두 명이 있었다. 우두머리 교두가 창과 도법이 제법 뛰어났으나 화영의 무예에는 미치지 못했기에, 감히 유고의 뜻을 거스르지 못하고 부하들을 이끌고 화영의 채로 달려왔다. 문을 지키던 군사들이 안으로 들어가 화영에게 이 사실을 보고했다.

이때는 아직 날이 채 밝지 않았는데, 이백 명에 달하는 군사들이 문 앞에 옹기종기 모여 있었다. 화영의 무예가 대단하다는 소문을 들은 탓에 누구도 감히 먼저 들어가지 못하고 망설였다. 그러다 날이 환히 밝자 두 짝 대문이 열려 있는 것이 보였다. 대청에는 화 지채가 앉아 있었는데, 왼손에는 활을 들고 오른손에는 화살을 메기고 있었다. 군사들이 문 앞에 모여 있자 화영이 활을 치켜들며 크게 호통을 쳤다.

'이 군사 놈들아! 원한에는 저마다 머리(주체)가 있고, 빚에는 저마다 주인이 있는 법이다. 유고가 시켰다고 해서 그놈을 위해 굳이 공을 세우려 들지 마라! 너희 그 새로 온 교두 두 놈은 아직 이 화 지채의 무예를 보지 못했으니, 오늘 먼저 너희에게 화 지채의 활 솜씨를 보여주겠다. 그러고도 그놈 유고를 위해 공을 세우려는 자가 있거든 겁 없이 들어오너라! 우선 저 대문 위 왼쪽 문신(門神)이 든 골도두(骨朶頭, 곤봉 끝)를 맞춰 보겠다!'

화영은 화살을 먹이고 활시위를 가득 당기더니, '맞아라!' 하고 외치며 화살을 날렸다. 화살은 정확히 문신의 골도두에 명중했다. 군사들이 모두 깜짝 놀랐다. 화영은 다시 두 번째 화살을 집어 들며 크게 외쳤다.

'자, 다들 내 두 번째 화살을 보아라! 오른쪽 문신의 투구에 달린 붉은 술(朱纓)을 맞히겠다!'

슈슉 하고 날아간 화살은 한 치도 어긋남 없이 붉은 술 정중앙에 박혔다. 두 화살이 그대로 양쪽 문짝에 꽂혔다. 화영은 다시 세 번째 화살을 꺼내 들며 호통쳤다.

'자, 세 번째 화살을 보아라! 너희 대열 가운데 흰 옷 입은 교두의 가슴(심장)을 쏘겠다!'

그 교두가 '아이쿠!' 하고 비명을 지르며 얼른 몸을 돌려 먼저 도망쳤다.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며 일제히 흩어져 달아났다. 화영은 채의 문을 닫게 한 뒤 뒷마루로 가서 송강을 살폈다.

화영이 말했다. '소제가 형님을 잘못 모셔 이런 고초를 겪게 해드렸습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나는 괜찮네. 다만 유고 그놈이 자네와 순순히 끝낼 것 같지 않으니 걱정이군. 우리도 멀리 내다본 방책을 세워야겠네.'

화영이 말했다. '이 관고(官誥, 임명장)야 내던지더라도 그놈과 끝장을 보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 여인이 은혜를 원수로 갚는 바람에 남편을 시켜 나를 이렇게 한바탕 매질하게 만들었네. 본래 내 진짜 이름을 밝히고자 했으나, 혹시 (전에 죽인) 염파석(閻婆惜) 사건이 발각될까 두려워 운성현의 손님 장삼이라고만 둘러댔네. 그런데 괘씸하게도 유고 놈이 무례하게 나를 「운성호(鄆城虎) 장삼」으로 만들어 주(州)로 압송하려 죄수 수레에 가두려 하니 말이네. 청풍산의 도적 두목으로 몰리면 순식간에 칼에 베이고 살이 발려 죽을 판이었네. 현제(賢弟) 자네가 직접 와서 힘껏 구해주지 않았다면, 아무리 동순철설(銅脣鐵舌)의 말재주가 있다 한들 그놈과 변명조차 통하지 않았을 걸세.'

화영이 말했다. '저는 그저 그자가 글을 읽은 사람이니 같은 성(姓)의 친척이라는 정을 생각해 주리라 여겨 「유 어른(劉丈)」이라 적었는데, 설마 그렇게 인정머리가 없을 줄은 몰랐습니다. 이미 집으로 모셔왔으니 다시 대책을 의논해 보지요.'

송강이 말했다. '현제가 잘못 생각했네. 자네의 호기로운 위세를 빌려 사람을 구해 왔으니 매사를 세 번 생각해야 하네. 예부터 「밥 먹을 때는 체할까 조심하고, 길을 갈 때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지 않았

나. 그놈은 자네에게 공공연히 사람을 빼앗기고 급히 사람을 보내 다시 빼앗으려다 자네 위세에 한 번 눌려 군사들이 죄다 흩어졌으니, 어찌 그냥 끝내려 들겠나? 분명 자네와 문서(공식 소송)로 따지려 들 걸세. 오늘 밤 나는 먼저 청풍산으로 올라가 피신해 있을 테니, 자네는 내일 그놈과 시치미를 떼며 맞서 보게. 결국에는 문관과 무관이 화합하지 못해 다툰 공무(公務) 송사에 지나지 않을 걸세. 그러나 만일 내가 다시 그에게 붙잡혀 간다면, 그때는 자네도 변명할 길이 없어지네.'

화영이 말했다. '저는 그저 한 가지 용맹뿐인 무부(武夫)일 뿐이라 형님처럼 높은 식견과 멀리 내다보는 안목이 부족합니다. 다만 형님의 상처가 깊어 걸음을 옮기시기조차 힘드실까 그것이 걱정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괜찮네. 일이 급하니 지체할 수 없네. 산 아래까지만 견뎌 가면 되네.'

그날 송강은 상처에 고약을 붙이고 술과 고기를 좀 들고는, 짐 꾸러미는 모두 화영에게 맡겨두었다. 황혼 무렵, 화영은 군사 두 명을 시켜 송강을 채(柵) 밖으로 호송해 보냈다. 송강이 그 밤을 도와 산으로 향한 일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한편, 유고는 군사들이 하나둘 채로 흩어져 돌아오는 것을 보고 말했다. "화 지채의 용맹함이 실로 대단하구나. 누가 감히 가까이 가서 그 화살을 받아내겠느냐!" 두 교두가 맞장구쳤다. "그놈 화살에 맞으면 몸에 구멍이 뻥 뚫릴 텐데, 어찌 감히 가겠습니까." 유고는 결국 문관이라 속셈이 깊고 교활했다. 그는 곧 이렇게 생각했다. '화영이 사람을 빼앗아 갔으니, 분명 밤사이에 그를 청풍산으로 도망치게 했을 터이

고, 내일은 나에게 따지러 오겠지. 상사에게 고해봐야 결국 문무관 사이의 다툼으로 비칠 뿐인데, 내가 어찌 그를 어찌할 수 있겠는가? 차라리 오늘 밤 군사 스무서른 명을 뽑아 오 리 밖에서 기다리게 하자. 만약 운 좋게 그를 붙잡는다면, 몰래 집에 가두어 두었다가 밤사이에 몰래 주부(州府)에 보고하여 관군이 내려와 잡아 가게 하면 된다. 그러면 화영과 함께 그놈의 목숨까지 끊어놓을 수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되면 나 혼자 이 청풍채를 차지할 수 있으니, 그놈들에게 기를 펴지 못할 일도 없을 것이다.'

그날 밤, 유고는 스무 명 남짓한 군사를 뽑아 각자 창과 몽둥이를 들려 밤중에 보냈다.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쯤 되었을 때, 파견 나갔던 군사들이 송강을 뒤로 묶어 압송해 왔다. 유고는 이를 보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내 예상대로로구나! 우선 저놈을 뒷마당에 가두어라. 아무도 알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고는 즉시 상소문을 작성하여 심사숙고한 뒤, 심복 두 명을 보내 밤을 도와 청주부로 달려가 급히 보고하게 했다.

다음 날, 화영은 송강이 청풍산으로 갔다고만 생각하고 집에서 기다리며 속으로 '그놈이 어떻게 나오나 보자!' 하고 생각할 뿐, 전혀 아는 체를 하지 않았다. 유고 역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니, 양쪽 모두 서로의 속사정을 알지 못했다.

한편, 청주부 지부는 마침 집무실에 올라 공무를 보고 있었다. 그 지부의 성은 복성으로 모용(慕容)이며, 이름은 언달(彦達)이라 하는데, 지금의 황제인 휘종 천자의 모용 귀비(慕容貴妃)의 오라비였다. 그는

누이동생의 권세를 등에 업고 청주 땅에서 안하무인으로 행동하며, 선량한 백성을 해치고 동료들을 기만하는 등 못된 짓을 일삼았다.

지부가 막 관아로 돌아가 아침 식사를 하려는데, 좌우의 아전들이 유 지채(劉知寨)가 올린 신장(申狀)을 전달하며 도적의 일에 관한 공무를 급히 보고했다. 지부가 유고의 문서를 받아 읽더니 깜짝 놀라며 말했다. 「화영은 공신(功臣)의 아들인데, 어찌 청풍산의 강도와 결탁했단 말이냐? 이 죄는 결코 가볍지 않다만, 아직 사실인지 거짓인지는 알 수 없는 일이다.」

지부는 즉시 본주의 병마도감(兵馬都監)을 불러 대청으로 오게 한 뒤 일을 맡겼다. 그 도감의 성은 황(黃)이고 이름은 신(信)이었다. 그는 무예가 매우 뛰어나 청주 땅을 위엄으로 누르고 있었기에 사람들은 그를 '진삼산(鎭三山)'이라 불렀다. 청주 땅에는 그가 다스리는 관할 안에 세 곳의 험한 산이 있었는데, 첫째가 청풍산이고, 둘째가 이룡산이며, 셋째가 도화산이었다. 이 세 곳은 모두 강도들이 출몰하는 곳이었다. 황신은 스스로 이 세 산의 무리들을 모두 잡아들이겠다고 호언장담했기에 '진삼산'이라는 별호가 붙은 것이었다.

병마도감 황신이 대청에 올라 지부의 명을 받들고 나와, 건장한 군사 쉰 명을 뽑아 갑옷을 입혔다. 그리고 말에 올라 상문검(喪門劍)을 치켜든 채 밤을 도와 청풍채로 내려가 곧장 유고의 채 앞에 이르러 말에서 내렸다. 유 지채가 마중을 나와 그를 뒷방으로 모시고 예를 갖춘 뒤, 한편으로는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하고 한편으로는 군사들을 호궤(犒饋)했다. 그러고는 뒤편에서 송강을 끌고 나와 황신에게 보여주었다.

황신이 말했다. 「이놈은 물어볼 것도 없소. 당장 밤사이에 죄수 수레를 짜서 이놈을 그 안에 가두시오.」

그들은 송강의 머리에 붉은 비단을 씌우고 종이 깃발을 꽂았는데, 거기에는 '청풍산 적수(賊首) 운성호 장삼(鄆城虎張三)'이라고 적혀 있었다. 송강은 감히 변명할 엄두도 내지 못한 채 그들이 시키는 대로 할 수밖에 없었다.

황신이 다시 유고에게 물었다. 「장삼을 붙잡을 때 화영이 알고 있었소?」

유고가 대답했다. 「소관이 어젯밤 이경에 그를 붙잡아 몰래 집 안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화영은 그저 장삼이 산으로 떠난 줄로만 알고 집에 편히 앉아 있을 뿐입니다.」

황신이 말했다. 「그렇다면 일이 아주 쉽겠구려. 내일 아침 양주(羊酒) 한 벌을 마련하여 대채(大寨)의 공청에 차려 놓게 하고, 사방에 군사 삼사오십 명을 매복시켜 대비하게 하시오. 내가 직접 화영의 집으로 가서 그를 청해 오되, '모용 지부께서 자네와 문무관 사이의 불화를 들으시고 특별히 나를 보내 술을 두고 화해를 권하게 하셨네' 하고 둘러대겠소. 그를 속여 공청에 데려오거든, 내가 술잔을 던지는 것을 신호로 삼아 즉시 손을 써서 붙잡은 뒤, 함께 주부로 압송하면 될 것이오. 이 계책이 어떻소?」

유고가 갈채하며 말했다. 「역시 상공(相公)의 식견이 높으십니다. 참으로 묘책입니다! 그야말로 '독 안의 자라를 잡듯, 손만 대면 잡는 격(瓮中捉鱉 手到拿來)'이로군요.」

그날 밤 계책을 정한 뒤, 다음 날 새벽이 되자 먼저 대채(大寨) 좌우 양편의 막사 안에 군사들을 매복시켰고, 대청에는 술과 음식 자리를 거짓으로 차려 놓았다. 아침 식사 무렵, 황신은 말에 올라 수행원 두서너 명만을 데리고 화영의 채 앞에 이르렀다. 군사가 들어가 보고를 하자 화영이 물었다. 「무슨 일로 왔느냐?」 군사가 대답했다. 「황 도감께서 특별히 찾아오셨다고 하십니다.」 화영은 그 말을 듣고 곧 밖으로 나와 마중했다. 황신이 말에서 내리자 화영은 그를 대청으로 모셔 예를 갖춘 뒤 물었다. 「도감 상공(相公), 무슨 공무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황신이 말했다. 「하관(下官)이 지부의 부르심을 받고 분부를 들었는데, 그대의 청풍채 안에서 문무관 사이가 화목하지 못하다 하시며 그 까닭은 알 수 없으나, 지부께서는 두 분이 사적인 원한 때문에 공무를 그르칠까 진실로 염려하시어, 특별히 나 황아무를 시켜 양주(羊酒)를 가지고 이리로 와서 두 분의 화해를 권하라 하셨소. 이미 대채 공청에 자리를 마련해 두었으니, 어서 말을 타고 함께 가십시다.」

화영이 웃으며 말했다. 「저 화영이 어찌 감히 유고를 능멸하겠습니까? 그는 엄연한 정지채(正知寨)가 아닙니까. 다만 그가 자꾸 저의 허물을 찾으려 들 따름인데, 뜻밖에 지부까지 놀라시게 하고 도감 상공께서 이 누추한 채까지 수고스럽게 왕림해 주셨으니, 화영이 무엇으로 보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황신이 화영의 귓가에 대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지부께서는 오직 자네 한 사람만을 위해서네. 만일 병장기를 부려야 할 일이 생긴다 해도, 그는 문관이라 무엇을 할 수 있겠나? 자네는 그저 내 말대로만 하게.」 화영이 말했다. 「도감의 두터운 보살핌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황신은 곧 화영을 청해 함께 문밖으로 나가 말에 오르게 했다. 화영이 말했다. 「우선 도감께서 잠시 머무시

며 술 석 잔이라도 드시고 가시지요.」 황신이 대답했다. 「이야기를 다 풀고 나서 마음껏 마신들 무슨 상관이겠나.」 화영은 그제야 말을 준비하라 일렀다.

두 사람은 나란히 말을 타고 곧장 대채에 이르렀다. 말에서 내리자 황신은 화영의 손을 잡고 함께 공청으로 올라갔는데, 보니 유고가 이미 공청에 먼저 와 있었다. 세 사람이 서로 인사를 나누자 황신이 술을 가져오라 일렀다. 수행원은 이미 화영의 말을 밖으로 끌고 나가 채의 문을 닫아버렸다. 화영은 계략인 줄도 모르고, 그저 황신이 같은 무관이니 결코 나쁜 뜻은 없을 것이라 생각했다.

황신이 술 한 잔을 들어 먼저 유고에게 권하며 말했다. 「지부께서 자네 문무 두 관원이 동료 사이에 화목하지 못하다는 말을 들으시고 무척 근심하시어, 오늘 특별히 나 황신을 보내 두 분께 권면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소. 부디 조정에 보답하는 일을 중하게 여기시고, 이후의 일은 함께 의논하여 처리하시오.」 유고가 대답했다. 「변변치 못한 저 유고가 그래도 사리(事理)와 법도를 조금은 아는데, 지부 은상(恩相)께서 이토록 마음을 써주실 줄이야. 저희 두 사람은 본래 다툰 일도 없는데, 이는 외인이 헛되이 전한 말일 뿐입니다.」 황신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훌륭하도다!」

유고가 술을 마시자 황신은 다시 두 번째 잔을 따라 화영에게 권했다. 「비록 유 지채가 저렇게 말씀하시지만, 필시 한가한 자들이 헛되이 퍼뜨린 소문 때문에 이렇게 된 모양이니, 우선 한 잔 드시게.」 화영이 잔을 받아 마셨다. 유고가 술잔 한 벌을 들어 한 잔을 따라 황신에게 답례하며 말했다. 「도감 상공께서 이 비천한 곳까지 왕림해 주시

느라 수고를 끼쳐 드렸으니, 이 잔을 가득 비워 주십시오.」 황신이 술잔을 받아 손에 들고 사방을 한 번 둘러보니, 군사 십여 명이 우르르 대청으로 몰려들었다. 황신이 술잔을 바닥에 내던지자, 뒷방에서 외침이 한 차례 일었고, 양옆 막사에서 건장한 군사 삼사오십 명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와 화영을 덮쳐 공청 앞에 쓰러뜨렸다.

황신이 호통을 쳤다. 「묶어라!」 화영이 연거푸 소리쳐 외쳤다. 「내가 무슨 죄를 지었단 말이오!」 황신이 크게 웃으며 꾸짖었다. 「네 이놈, 그래도 감히 소리를 지르느냐! 청풍산의 강도들과 결탁하여 함께 조정을 배반했으니 그 죄가 어떠하냐! 내가 너의 지난날의 낯을 보아 네 집안 노소(老小)는 놀라게 하여 잡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화영이 외쳤다. 「그래도 증거는 있어야 할 것이오!」 황신이 말했다. 「증거 하나 보여 주마. 진짜 장물(贓物)과 진짜 도적을 똑똑히 보게 해줄 터이니, 너에게 억울함을 안기지는 않으마. 좌우에 명하노니, 끌고 오너라!」

잠시 후, 죄수 수레 한 대와 종이 깃발 하나, 붉은 머리띠 하나가 밖에서 밀려 들어왔다. 화영이 그것을 보니,

바로 송강이었다. 두 사람은 눈을 부릅뜨고 입을 다물지 못한 채, 서로 마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황신이 호통을 쳤다. 「이는 결코 내가 한 일이 아니다. 여기 고발인 유고가 있지 않느냐.」

화영이 말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사람은 제 친척입니다. 본래 운성현(鄆城縣) 사람인데, 억지로 비틀어 도적으로 만들려 하신다면 상사(上司)에 가서 따로 분변할 곳이 있을 것입니다.」

황신이 말했다. 「네가 이미 그렇게 말한다면, 일단 너를 주부로 압송할 터이니 가서 직접 따져 보아라.」 그러고는 유 지채에게 채의 병사 백 명을 점검해 호송에 나서게 했다.

화영이 황신에게 말했다. 「도감께서 저를 속여 데려오시어 비록 저를 붙잡으셨으나, 조정에 이르러도 그와 따져 볼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저와 도감께서 같은 무직 관원의 체면을 보시어, 제 옷을 벗기지 마시고 죄수 수레 안에 그대로 앉아 가게 해 주십시오.」

황신이 대답했다. 「그 한 가지는 어렵지 않으니 곧 네 뜻대로 해 주마. 유 지채와 함께 주부로 가서 시시비비를 명확히 가려, 사람의 목숨을 헛되이 해치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때 황신과 유고는 모두 말에 올라, 두 대의 죄수 수레를 감압(監押)하고 군사 삼사십 명과 채의 병사 백 명을 거느린 채 수레를 에워싸고 청주부로 향하는 길을 떠났다. 이 길로 인하여 분히 가르침이 있었으니—불꽃 더미 속으로 수백 칸 집과 인가가 보내지고, 칼과 도끼의 숲 속에서 일이천 잔명(殘生)이 살해되리라. 정히 이르되,

일을 일으키매 일이 생기리니 그대는 [남을] 원망치 말지요, 사람을 해치매 사람이 그대를 해치리니 그대는 노여워 말지로다.

결국 송강을 청주부로 압송하게 되었는데, 과연 어떻게 몸을 빼낼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4회 — 진삼산을 진압하며 청주도를 뒤흔들고, 벽력화가 밤에 와력장으로 달아나다

鎭三山大鬧青州道 霹靂火夜走瓦礫場

이야기는 이러하다. 황신이 말에 올라타 손에는 상문검을 가로로 쥐고 있었다. 유고 지채 역시 군복을 갖춰 입고 말에 올라 손에는 창을 들고 있었다. 그를 따르는 백사오십 명의 군사와 채병들은 저마다 창과 몽둥이를 들고 허리춤에는 단도와 날카로운 칼을 차고 있었다. 북을 두 번 치고 징을 한 번 울리자, 송강과 화영을 압송하여 청주를 향해 떠났다.

사람들은 모두 청풍채를 떠나 길을 나섰다. 삼사십 리쯤 갔을까, 앞쪽에 커다란 숲이 나타났다. 산기슭에 다다랐을 때, 앞서가던 채병이 가리키며 말했다.

"숲속에서 누군가 엿보고 있습니다!"

그 말에 모두 발을 멈추고 섰다. 황신이 말 위에서 물었다.

"왜 멈춰 서느냐?"

군사가 대답했다.

"앞쪽 숲속에서 누군가 저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황신이 호통을 쳤다.

"신경 쓰지 말고 그냥 가자!"

숲에 점점 가까워지는데, 갑자기 징 스무서른 개가 한꺼번에 울려 퍼지며 챙챙 소리를 냈다. 채병들은 혼비백산하여 도망칠 궁리만 했다. 황신이 호통을 쳤다.

"게 멈춰라! 모두 대열을 정비하라!"

황신이 이어 외쳤다.

"유고 지채, 그대는 죄수 수레를 지키시오!"

말 위에 있던 유고는 대답도 못 한 채 입으로만 "구고구난 천존이시여, 저를 구하소서!"라고 중얼거렸다. 그는 속으로 경전 십만 권을 바치고 절 삼백 개를 세워줄 테니 제발 살려달라고 빌었다. 겁에 질린 그의 얼굴은 마치 요괴가 든 동아처럼 푸르락퍼르락 변했다. 황신은 무관이라 그나마 담력이 있어 말을 몰아 앞으로 나아가 살폈다. 그러자 숲 사방에서 삼오백 명의 졸개들이 일제히 쏟아져 나왔다. 하나같이 체격이 건장하고 인상이 험악한 자들이 머리에는 붉은 수건을 두르고, 덧옷

을 입은 채 허리에는 날카로운 칼을 차고 장창을 든 모습으로 일행을 포위했다.

뒤이어 숲속에서 세 명의 호한이 뛰어 내려왔다. 한 명은 푸른 옷을, 한 명은 초록 옷을, 한 명은 붉은 옷을 입고 있었다. 세 사람 모두 금박을 입힌 만자 무늬 두건을 쓰고 허리에는 도를 찼으며, 손에는 박도를 들고 길을 막아섰다. 가운데에 있는 이는 '금모호' 연순이었고, 위쪽은 '왜각호' 왕영, 아래쪽은 '백면낭군' 정천수였다. 세 호한이 크게 외쳤다.

"지나가는 자는 여기서 멈춰라! 통행료로 황금 삼천 관을 내놓으면 그대로 보내주겠다!"

황신이 말 위에서 호통을 쳤다.

"이놈들, 무례하게 굴지 마라! '진삼산' 황신이 여기 있다!"

세 호한이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네가 '진삼산'이라 해도 통행료 황금 삼천 관은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절대로 보내주지 않겠다!"

황신이 말했다.

"나는 관아의 공무를 수행 중인 도감이다. 네놈들에게 줄 통행료가 어디 있느냐?"

그러자 세 호한이 비웃으며 말했다.

"네가 고작 도감인 것은 물론이고, 황제께서 행차하신다 해도 통행료 삼천 관은 내야 한다. 만약 돈이 없다면 공무를 수행하는 몸을 여기 잡아두고, 돈을 가져올 때까지 기다리겠다!"

황신은 크게 노하여 욕설을 내뱉었다.

"이 강도 놈들, 감히 어찌 이리 무례하단 말이냐!"

황신은 좌우에 북을 치고 징을 울리라고 명령했다. 그러고는 말을 몰아 검을 휘두르며 연순을 향해 돌진했다. 세 호한이 일제히 박도를 치켜들고 황신과 맞서 싸웠다. 황신은 세 호한이 동시에 달려들자 말 위에서 필사적으로 열 합 넘게 싸웠으나, 어찌 세 사람을 당해낼 수 있겠는가? 게다가 유고는 문관이라 앞으로 나설 수도 없었고, 상황이 이쯤 되자 도망칠 궁리만 했다. 황신은 세 호한에게 붙잡혀 명성에 먹칠을 할까 두려워, 그저 말을 몰아 잽싸게 왔던 길로 되돌아갔다. 세 우두머리는 박도를 휘두르며 그 뒤를 쫓았다. 황신은 부하들은 안중에도 없이 혼자 말을 달려 청풍진으로 도망쳐 버렸다. 군사들은 황신이 말을 돌려 달아나는 것을 보고는 소리를 지르며 죄수 수레를 내팽개치고 사방으로 흩어져 달아났다.

결국 유고만 남게 되었다. 유고는 상황이 좋지 않음을 깨닫고 황급히 말머리를 돌리며 채찍질을 세 번이나 했다. 그러나 말이 막 움직이려 할 때, 졸개 하나가 밧줄을 던져 말다리를 걸어버리는 바람에 유고는 말과 함께 바닥으로 나동그라졌다. 졸개들이 한꺼번에 달려들어 유고를 붙잡고 죄수 수레를 빼앗았다. 그때 화영이 이미 자신의 수레를 부수고 밖으로 나와 밧줄을 끊어버린 뒤였다. 화영은 수레를 부수어 송

강을 구출해냈다. 졸개들은 유고를 뒤로 묶어버리고 그가 타고 있던 말과 수레를 끌던 말 세 마리를 빼앗았다. 그들은 유고의 옷을 벗겨 송강에게 입히고, 말들은 먼저 산 위로 보냈다. 세 호한과 화영, 그리고 졸개들은 유고를 알몸 상태로 꽁꽁 묶어 산채로 압송했다.

알고 보니 이 세 호한은 송강의 소식을 알지 못해, 유능한 졸개 몇 명을 산 아래로 내려보내 청풍진에 가서 소식을 알아보게 했던 것이었다. 그러다 "도감 황신이 술잔을 부딪치며 신호를 보내 화영 지채와 송강을 잡아 수레에 가두었으니, 이제 청주로 압송해 간다"라는 말을 듣고는, 곧장 사람과 말을 이끌고 큰길로 크게 돌아서 나타나 길을 미리 차단하고 작은 길에도 사람을 배치해 대기하게 했던 것이다. 덕분에 두 사람을 구출하고 유고를 붙잡아 산채로 돌아올 수 있었다.

그날 밤 산채에 도착하니 이미 이경(二更, 밤 9시~11시 사이) 무렵이었다. 일행은 모두 취의청에 모였다. 송강과 화영을 가운데 앉히고 세 호한이 마주 앉아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했다. 연순은 아이들에게 각자 가서 술을 먹으라고 일렀다. 화영은 대청에서 세 호한에게 감사를 표하며 말했다.

"저 화영과 형님은 세 장사 덕분에 목숨을 구하고 원한도 갚았으니, 이 은혜를 어찌 다 갚겠습니까. 다만 화영에게는 청풍채에 아내와 어린 누이동생이 있는데, 분명 황신에게 붙잡혔을 터라 이를 어찌 구해야 할지 걱정입니다."

연순이 말했다.

"지채께서는 안심하십시오. 황신 따위가 감히 부인에게 감히 손을 대지는 못할 것입니다. 만약 붙잡았다 해도 반드시 이 길을 지나가야 할 테지요. 내일 우리 형제 셋이 산을 내려가 지채의 부인과 누이동생을 데려오겠습니다."

그러고는 졸개들을 산 아래로 보내 먼저 상황을 살피게 했다. 화영이 다시 말했다.

"장사들의 큰 은혜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송강이 말을 이었다.

"우선 저 유고라는 놈부터 이리로 끌어오시오."

연순이 대답했다.

"그놈을 장군 기둥에 묶어놓고 배를 갈라 심장을 꺼내 형님께 축하의 선물로 바치겠습니다."

화영이 거들었다.

"그놈은 제가 직접 손을 써서 베어버리겠습니다."

그러자 송강이 꾸짖었다.

"이놈, 나는 너와 예전에도 원한이 없었고 근래에도 원수진 일이 없거늘, 어찌 그 음흉한 계집의 말만 믿고 나를 해치려 들었느냐! 오늘 이렇게 붙잡혀 왔으니, 무슨 변명할 말이라도 있느냐?"

화영이 말했다.

"형님, 그놈에게 뭘 더 물어보시겠습니까?"

그러고는 칼로 유고의 가슴을 단번에 도려내어, 그 심장을 송강 앞에 바쳤다. 졸개들이 시체를 한쪽으로 끌고 갔다. 송강이 말했다.

"오늘 이 천한 놈을 죽였으나, 그 음탕한 여편네를 죽이지 못했으니 아직 가슴 속의 울분이 다 풀리지 않는구려."

왕영이 말했다.

"형님, 걱정 마십시오. 내일 제가 직접 산을 내려가 그 여자를 잡아오겠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 차지로 삼아 마음껏 누리겠습니다."

모두가 크게 웃었다. 그날 밤 술을 마시고 각자 잠자리에 들었다. 이튿날 일어나 청풍채를 치는 일을 의논했다. 연순이 말했다.

"어제 아이들이 고생을 많이 했으니, 오늘은 하루 쉬게 하고 내일 아침 일찍 산을 내려가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 말이 옳소. 서둘러서 일을 그르치기보다는 사람과 말을 튼튼히 쉬게 하는 것이 좋겠소."

산채에서 군마를 정돈하여 출발할 채비를 하는 동안, 한편에서는 도감 황신이 말을 달려 청풍진의 대채로 돌아가더니, 곧장 채의 병사와 말들을 점검하고 사방의 울타리 문을 엄중히 지키게 했다. 황신은 장계

를 써서 두 명의 교군두목(教軍頭目, 군사 훈련을 담당하는 장교)에게 명하여 말을 달려 모용 지부에게 급히 보고하게 했다. 지부는 긴박한 군사 보고를 듣고는 밤을 도와 집무실로 나갔다. 황신이 올린 장계를 읽어보니 이러했다.

"화영이 반역을 일으켜 청풍산의 강도들과 결탁하였으니, 청풍채가 곧 무너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상황이 매우 급하니 어서 용맹한 장수를 보내 이곳을 지키게 하소서."

지부는 이를 보고 크게 놀라, 사람을 보내 청주 지휘사 총관이자 본주의 병마를 거느린 진 통제(秦統制)를 급히 불러 군사 중대사를 의논하게 했다. 그 사람은 본래 산후 개주 출신으로 성은 진이고 이름은 명이다. 성격이 급하고 목소리가 뇌성벽력 같아 사람들이 그를 '벽력화' 진명이라 불렀다. 조상이 군관 출신이라 낭아봉을 휘두르는데, 그 용맹함은 만 명의 적도 당해낼 수 없을 정도였다. 진명은 지부의 부름을 듣자마자 곧장 관아로 달려가 지부를 뵙고 예를 갖추었다. 모용 지부가 황신의 긴급 보고서를 꺼내 진명에게 보여주자, 진명이 크게 분노하며 말했다.

"그 빨간 모자 놈이 감히 이토록 무례하게 굴다니요! 지부님께서는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 못난 놈이 즉시 군마를 일으켜 저 도적 놈을 잡지 못한다면, 다시는 지부님을 뵙지 않겠습니다!"

모용 지부가 말했다.

"장군께서 만약 지체하신다면, 저놈들이 청풍채를 먼저 쳐버릴까 두렵소."

진명이 대답했다.

"어찌 지체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즉시 밤을 새워 인마를 점검하고,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하겠습니다."

지부는 크게 기뻐하며 서둘러 술과 고기, 마른 양식을 준비하게 하여 성 밖에서 먼저 기다리며 군사들을 격려하게 했다. 진명은 화영이 반역을 일으켰다는 말에 분노가 치밀어 말에 올라 지휘사로 달려갔다. 그는 곧장 마군 백 명과 보병 사백 명을 소집하여 성 밖으로 나가 정렬시킨 뒤 출정 준비를 마쳤다.

한편, 모용 지부는 먼저 성 밖 사찰에서 만두를 쪄내고 커다란 사발을 차려 놓은 뒤 술을 데워 준비했다. 병사 한 사람당 술 세 사발과 만두 두 개, 삶은 고기 한 근씩을 배정했다. 막 준비를 마치려는데 군마들이 성 밖으로 나오는 것이 보였다. 군마들이 나가는 모양새를 보니 매우 정연하고 질서 정연하였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불타는 듯 펄럭이는 깃발은 붉은 불꽃 같고, 빽빽하게 늘어선 창과 극은 삼베 가닥처럼 가득하구나. 팔괘의 형상으로 진을 치고 긴 뱀처럼 늘어선 기세는, 참으로 귀신도 놀라고 신도 겁낼 만하도다. 창끝에는 푸른 빛과 자줏빛 불꽃이 번뜩이고, 수놓은 띠를 단 깃발은 노을처럼 붉게 휘날리는데, 말발굽 소리는 사방에서 어지럽게 뒤섞여 들려오니, 천지에 살기가 가득한 이 싸움의 승패는 과연 누구의 손에 달려 있는가.

그날 이른 아침, 진명이 군마를 정돈하고 성 밖으로 나가 대열을 갖추었다. 진명은 붉은 깃발에 '병마총관 진통제 영병기행(兵馬總管 秦

統制 領兵起行, 병마총관 진 통제가 군사를 거느리고 출발함)'이라 크게 써 붙인 뒤 군사를 이끌고 길을 떠났다. 모용 지부는 진명이 온갖 갑옷과 무장을 갖추고 성을 나서는 모습을 보고, 과연 비할 데 없는 영웅이라 생각했다. 그 모습은 이러하였다.

투구 위의 붉은 술은 불꽃처럼 세차게 휘날리고, 비단 도포는 피를 적신 듯 붉은빛이 완연하다. 쇠사슬로 엮은 갑옷은 금빛 별처럼 번뜩이며, 구름무늬 장식의 장화에는 푸른 빛이 감돌고 거북등무늬 갑옷은 은빛이 겹겹이 쌓여 있구나.

말은 마치 전설 속의 영물 해치처럼 용맹하게 날뛰고, 늑대 이빨 모양의 몽둥이에는 구리 못이 빽빽이 박혀 있으니, 진명이 화가 나면 두 눈을 부릅뜨는 모습은 실로 무시무시했다.

성미는 벽력화처럼 불같으니, 호랑이 같은 장수는 바로 진명이라.

이때 '벽력화' 진명이 말을 타고 성 밖으로 달려 나왔다. 성 밖에서 모용 지부가 군사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보고는, 급히 부하들에게 군기를 챙기게 한 뒤 말에서 내려 지부를 뵙고 인사를 올렸다. 인사를 마치자 지부는 술잔을 들어 몇 마디 당부의 말을 건넸다. "기회를 잘 살펴서, 하루빨리 승전보를 전해 오게나." 격려가 끝나자 신호용 포를 쏘아 올렸고, 진명은 지부와 작별한 뒤 쏜살같이 말에 올라탔다. 그는 대열을 정비하고 군사들을 재촉하며, 거침없는 기세로 청풍채를 향해 돌진했다.

원래 이 청풍진은 청주 동남쪽에 위치해 있는데, 정남쪽에서 청풍산으로 향하면 비교적 가까운 길을 통해 산 북쪽의 작은 길로 일찍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다.

한편, 청풍산 채에 있던 졸개들이 사정을 자세히 알아내어 산으로 보고했다. 산채의 호한들이 막 청풍채를 치러 가려던 참에, "진명이 군사를 이끌고 몰려온다!"라는 보고가 들려왔다. 호한들은 서로 얼굴만 마주 볼 뿐 모두 겁에 질려 어쩔 줄 몰랐다. 그러자 화영이 말했다. "모두 당황하지 마시오. 예로부터 적군이 눈앞에 닥쳤을 때는 반드시 맞서 싸워야 하는 법이오. 졸개들에게 술과 밥을 든든히 먹여 두고, 내 말대로만 하시오. 우선 힘으로 맞서 싸운 뒤에 지혜를 써서 승리를 거두는 식으로 하면 되지 않겠소?" 송강이 말했다. "좋은 계책이오! 바로 그렇게 합시다." 그날 송강과 화영은 먼저 계책을 세운 뒤, 졸개들에게 각자 준비하라고 일렀다. 화영은 스스로 잘 길들여진 말 한 필과 갑옷 한 벌, 그리고 활과 화살, 철창을 골라 모두 갖추고 기다렸다.

한편, 진명이 군사를 거느리고 청풍산 아래에 이르러 산에서 십 리 떨어진 곳에 진을 쳤다. 다음 날 오경(새벽 네 시 무렵), 군사들이 아침밥을 먹고 신호용 포를 한 발 쏘아 올리더니, 곧장 청풍산을 향해 달려가 탁 트인 곳을 골라 군마를 배치하고 북을 치기 시작했다. 산 위에서 하늘을 울리는 징 소리가 들려오더니, 한 무리의 군마가 아래로 달려내려왔다. 진명이 말의 고삐를 잡아 멈추고 낭아봉을 가로로 든 채 눈을 부릅뜨고 살펴보니, 졸개들이 떼를 지어 '소이광' 화영을 호위하며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산비탈 앞에 이르자 징 소리가 한 번 울렸고, 화

영은 진형을 갖추어 섰다. 화영은 말 위에서 철창을 높이 치켜든 채 진명을 향해 인사를 건넸다.

진명이 크게 호통을 쳤다. "화영! 네 조상은 대대로 장군 집안이었고 너 또한 조정의 관원이다. 한 지역의 지채가 되어 나라의 녹을 먹고 있으니 무엇이 부족하단 말이냐? 그런데 어찌 도적 떼와 결탁하여 조정에 등을 돌린단 말이냐! 내가 오늘 너를 잡으러 왔으니, 일의 사리를 안다면 어서 말에서 내려 포박을 받아라. 괜히 손에 피를 묻히고 발을 더럽히지 말고 말이다!"

화영이 웃음을 띠며 대답했다. "총관님, 제 말을 들어 보십시오. 이 화영이 어찌 감히 조정에 등을 돌리겠습니까? 실은 유고 그놈이 없는 일을 꾸며내어 관직을 빙자해 사사로운 원한을 갚으려 한 탓에, 화영은 집이 있어도 돌아갈 수 없고 갈 나라조차 찾을 수 없어 잠시 이곳에 몸을 피한 것뿐입니다. 부디 총관님께서 자세히 살피시어 저를 구해 주시길 바랍니다."

진명이 말했다. "여전히 말에서 내려 포박당하지 않고 무엇을 더 기다리느냐? 도리어 교묘한 말로 군심을 선동하는구나!" 그러고는 좌우에 명령하여 북을 치게 했다. 진명은 낭아봉을 휘두르며 화영을 향해 돌진했다.

화영이 크게 웃으며 외쳤다. "진명, 네 이놈! 좋은 사람이 양보해 주는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구나. 내가 너를 상관으로 여겨 대접해 주려 했거늘, 내가 정말로 너를 두려워할 줄 아느냐!" 화영은 즉시 말을 달려 창을 내지르며 진명과 맞붙었다.

두 사람은 청풍산 아래에서 격렬하게 싸웠으니, 참으로 바둑이 맞수를 만나면 요행을 부릴 수 없고, 장수가 좋은 적수를 만나면 그 실력을 마음껏 펼친다는 격이었다. 두 장수의 싸움을 살펴보니 이러하였다.

한 쌍의 남산 맹호와 두 마리의 북해 창룡이 맞붙은 듯했다. 용이 노할 때는 머리의 뿔이 솟구치고, 호랑이가 싸울 때는 발톱과 이빨이 사나워지는 법이다. 사나운 발톱과 이빨은 마치 비단털 뭉치에서 떨어지지 않는 은갈고리 같고, 솟구치는 뿔과 머리는 마치 금빛 나무를 흔드는 구리 잎사귀 같았다. 뒤집히고 뒤집히며 점강창은 한순간도 쉴 틈이 없었고, 오가며 맞붙는 낭아봉에는 수천 가지의 초식이 담겨 있었다. 낭아봉이 머리 위로 내리쳐질 때는 정수리에서 불과 한 끗 차이였고, 점강창이 힘차게 찔러 들어올 때는 심장을 겨냥해 반 치 차이로 아슬아슬하게 비껴갔다. 점강창을 휘두르는 장사는 그 위풍이 두우(斗牛) 별자리조차 얼어붙게 할 듯했고, 낭아봉을 휘두르는 장군은 그 기세가 마치 구름과 번개가 몰아치는 듯했다. 한 명은 사직을 받드는 천봉장군이요, 다른 한 명은 강산을 정돈하는 흑살신이었다.

그 자리에서 진명과 화영이 맞붙어 마흔에서 쉰 합가량 싸웠으나, 어느 쪽도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화영은 한참 동안 합을 겨루다 일부러 빈틈을 보이고는, 말을 돌려 산 아래 작은 길로 달아나기 시작했다. 진명이 크게 노하여 뒤쫓아갔다. 화영은 창을 말 안장 고리에 걸어 매달아 두고 말을 멈춰 세웠다. 그러고는 왼손으로 활을 집어 들고 오른손으로 화살을 뽑아 시위를 가득 당기더니, 몸을 틀어 진명의 투구 꼭대기를 향해 화살 한 대를 날렸다. 화살은 정확히 투구에 명중하여 붉은 술이 달린 커다란 장식물을 떨어뜨렸으니, 마치 진명에게 신호라도

보내는 듯했다. 진명은 깜짝 놀라 감히 더 추격하지 못하고 급히 말을 돌려 물러났다. 진명이 다시 몰아붙여 싸우려 할 때, 졸개들이 일제히 소리를 지르며 산 위로 달아나 버렸다. 화영 또한 다른 길을 택해 산채로 돌아갔다.

진명은 부하들이 모두 흩어져 달아나는 것을 보고 속이 타들어 갈 듯 화가 치밀어 말했다. "이 무뢰한 도적 놈들이 감히 나를 능멸하다니!" 진명은 징과 북을 울리라고 명령하며 군사를 몰아 산 위로 향했다. 군사들이 일제히 함성을 지르며 올라갔고, 보병들이 먼저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그러나 산봉우리 두세 개를 넘자마자, 험준한 곳에서 통나무와 돌덩이, 잿병, 그리고 뜨거운 오물들이 쏟아져 내려와 공격해 왔다. 앞서가던 군사들은 쉴 새 없이 뒤로 물러났는데, 순식간에 서른에서 쉰 명가량 쓰러지는 바람에 결국 다시 산 아래로 퇴각할 수밖에 없었다.

진명은 성미가 급한 사람이었기에, 머리끝까지 치밀어 오른 화를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다. 그는 군마를 이끌고 산을 한 바퀴 돌아 내려가 다른 길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기로 했다. 한참을 헤매다 오시(午時, 낮 12시 무렵)가 되었을 때, 서쪽 산에서 징 소리가 울리더니 숲속 사이로 붉은 깃발을 든 군사 한 무리가 번쩍 나타났다. 진명이 군사를 이끌고 그들을 잡으러 급히 달려갔으나, 징 소리는 멎었고 붉은 깃발도 보이지 않았다. 진명이 길을 살펴보니 제대로 된 길은커녕 땔감을 나르는 좁은 오솔길뿐이었고, 그마저도 뒤엉킨 나무와 꺾인 나뭇가지들이 길목을 가로막고 있어 도저히 올라갈 수가 없었다.

병사들에게 길을 내라고 명령하려던 찰나, 한 병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동쪽 산에서 징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깃발을 든 군사 한 무리가 나타났습니다!" 진명은 즉시 군마를 이끌고 날 듯이 동쪽 산으로 달려갔으나, 막상 도착해 보니 징 소리는 이미 멎었고 붉은 깃발도 온데간데없었다. 진명이 말을 타고 사방으로 길을 찾아 헤맸지만, 사방에는 뒤엉킨 나무와 꺾인 나뭇가지들뿐이라 땔감을 나르던 오솔길마저 꽉 막혀 있었다.

그때 정찰하던 병사가 다시 달려와 보고했다. "서쪽 산에서 또 징 소리가 들리더니, 붉은 깃발을 든 군사들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진명은 말에 채찍질을 하며 다시 서쪽 산으로 달려갔으나, 막상 도착해 보니 사람 그림자조차 보이지 않았고 붉은 깃발도 이미 사라진 뒤였다. 성미가 급한 진명은 분통이 터져 이를 갈며 이를 득득 갈았다.

서쪽 산에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는데, 이번에는 동쪽 산에서 땅을 울릴 듯한 징 소리가 다시 들려왔다. 진명은 급히 군마를 이끌고 다시 동쪽 산으로 달려갔으나, 막상 도착해 보니 도적 놈은커녕 붉은 깃발조차 보이지 않았다.

진명은 가슴이 터질 듯 분통이 치밀었으나, 다시 군사들을 재촉해 길을 찾아 산으로 올라가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그때 서쪽 산에서 또다시 함성이 들려왔다. 진명은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군마를 크게 몰아 서쪽 산으로 달려갔다. 하지만 산 위아래를 샅샅이 살펴봐도 사람 그림자 하나 보이지 않았다. 진명은 군사들에게 호통을 치며 양쪽 길을 나누어 산을 수색하게 했다. 그때 한 군사가 다가와 보고했다.

"이 근처에는 제대로 된 길이 없습니다. 동남쪽으로 가야 올라갈 수 있는 큰길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여기서 억지로 길을 찾아 올라가다가는 큰 변을 당할까 두렵습니다."

진명은 그 말을 듣고 말했다.

"그렇게 큰길이 있다면 밤을 새워서라도 당장 가야겠다!"

그러고는 군사들을 이끌고 동남쪽 모퉁이를 향해 힘차게 달려갔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 사람과 말은 지칠 대로 지쳐 있었다. 겨우 산 아래에 도착해 막 진영을 치고 저녁을 먹으려는데, 갑자기 산 위에서 횃불이 어지럽게 치솟고 징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진명은 분노가 치밀어 사오십 명의 마군을 이끌고 산 위로 달려 올라갔다. 그런데 산속 숲 사이에서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려와 군사 몇 명에게 부상을 입혔다. 진명은 어쩔 수 없이 말머리를 돌려 산 아래로 내려와 군사들에게 우선 저녁 식사부터 하게 했다. 겨우 불을 지펴 음식을 만들려는데, 산 위에서 팔구십 개의 횃불이 번쩍이며 휘파람 소리와 함께 쏟아져 내렸다. 진명이 급히 군사를 이끌고 나서려 하자, 산 위의 횃불들이 일제히 꺼져 버렸다. 그날 밤은 달빛이 비쳤으나 먹구름이 뒤덮여 있어 그리 밝지 않았다. 진명은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군사들에게 명령해 횃불을 밝히고 나무를 태우게 했는데, 그때 산 입구에서 북과 피리 소리가 들려왔다. 진명이 말을 달려 올라가 보니, 산꼭대기에 열댓 개의 횃불이 켜져 있었고 그 불빛 아래로 화영이 송강을 모시고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진명은 그 모습을 보고 가슴이

답답해 견딜 수가 없어, 말을 멈춰 세우고 산 아래에서 크게 욕설을 퍼부었다.

화영이 대답했다.

"진 통제(秦統制),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오. 일단 돌아가서 쉬었다가, 내일 나와 생사를 걸고 승부를 가려봅시다."

진명이 크게 소리쳤다.

"이 반역 놈아, 당장 내려오너라! 내가 지금 너와 삼백 합을 겨뤄보고 나서야 가만두겠다!"

화영이 웃으며 말했다.

"진 총관(秦總管), 오늘 고생이 많으셨으니 내가 이긴다 해도 떳떳한 승리는 아니오. 일단 돌아가시고 내일 다시 오시오."

진명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산 아래에서 계속 욕을 해댔다. 길을 찾아 올라가고 싶었지만 화영의 화살이 두려워 그저 산비탈 아래에서 소리만 지를 뿐이었다. 한창 욕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부하 군사들이 함성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다. 진명이 급히 산 아래로 내려가 보니, 이쪽 산에서 화포와 불화살이 일제히 쏟아져 내려오고 있었다. 뒤이어 이삼십 명의 잔챙이들이 무리를 지어 어둠 속에서 활과 쇠뇌를 쏘며 사람들을 공격했다. 군사들은 비명을 지르며 일제히 저쪽 산 옆의 깊은 구덩이로 몸을 피하려 했다. 이때는 이미 삼경(밤 11시~새벽 1시) 무렵이라, 군사들이 겨우 쇠뇌의 화살을 피하나 했더니, 상류로부터 거센

물줄기가 쏟아져 내려와 일행과 말이 모두 시냇물 속에 휩쓸렸고, 저마다 살려고 발버둥쳤다. 겨우 기슭으로 기어오른 자들은 잔챙이들이 던진 갈고리에 걸려 산 위로 생포되어 갔고, 올라오지 못한 자들은 모두 시냇물에 빠져 죽었다.

한편, 진명은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머리가 깨질 듯한 와중에 옆으로 난 작은 길 하나를 발견했다. 진명은 말머리를 돌려 산으로 급히 달려 올라갔다. 그러나 채 삼사십 걸음도 가지 못해 사람과 말과 함께 함정에 빠지고 말았다. 양옆에 매복해 있던 쉰 명의 갈고리잡이들이 진명을 낚아채더니, 그가 입고 있던 전투복과 갑옷, 투구, 무기를 모두 벗겨내고는 밧줄로 꽁꽁 묶어버렸다. 그리고 말까지 끌어 올려, 모두 청풍산으로 끌고 갔다.

알고 보니 이 모든 함정은 화영과 송강의 계책이었다. 먼저 잔챙이들을 동쪽과 서쪽에 나누어 배치해 진명이 지치고 혼란스러워지도록 유인했다. 그러고는 미리 흙자루로 두 시냇물의 물길을 막아두었다가, 밤이 깊어지자 사람과 말을 시냇가로 몰아넣은 뒤 막아두었던 물을 한꺼번에 터뜨렸다. 거세게 몰아치는 급류에 군마들이 속수무책으로 휩쓸려 죽어 나갔다. 진명이 이끌고 온 오백 명의 군사 중 태반이 물에 빠져 죽어 목숨을 잃었고, 백오십에서 백칠십 명가량을 생포하고 좋은 말 칠팔십 필을 빼앗았으나, 도망쳐 돌아간 자는 단 한 명도 없었다. 그 뒤에 진명마저 말 함정에 빠져 생포된 것이었다.

잔챙이들이 진명을 붙잡아 산채로 데려왔을 때는 이미 날이 밝아 있었다. 다섯 호한이 취의청에 앉아 있는데, 잔챙이들이 포박된 진명을 청 앞마당에 풀어놓았다. 이를 본 화영이 급히 의자에서 일어나 마당으

로 내려가더니, 직접 밧줄을 풀어 진명을 부축해 청 위로 모시고 올라가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렸다. 진명이 당황하여 답례하며 말했다.

"나는 붙잡혀 온 죄인인데, 너희가 내 몸을 갈가리 찢어 죽여도 모자랄 판에 어찌 나에게 절을 한단 말이냐?"

화영이 무릎을 꿇고 말했다.

"저 잔챙이들이 위아래를 몰라 결례를 범하였으니, 부디 용서하여 주십시오."

그러고는 곧바로 옷을 가져다 진명에게 입혀 드렸다. 진명이 화영에게 물었다.

"여기 앉아 계신 대장 호한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화영이 대답했다.

"이분은 저 화영의 형님이신 운성현의 송강 압사님이십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세 분은 산채의 주인인 연순, 왕영, 정천수입니다."

진명이 말했다.

"그 세 분은 나도 잘 아는 이들이오. 그런데 저 송 압사라는 분이 혹시 산동에서 '급시우'라 불리는 송공명 아니시오?"

송강이 대답했다.

"소인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진명이 급히 절을 올리며 말했다.

"명성은 익히 들었으나, 오늘 이렇게 의로운 선비를 뵙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송강은 당황하여 연신 답례했다. 진명이 송강의 다리가 불편한 것을 보고 물었다.

"형님, 어찌하여 다리가 불편하신 겁니까?"

송강은 운성현을 떠날 때부터 유 지채에게 고초를 당하기까지의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진명에게 들려주었다. 진명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다.

"한쪽 말만 듣고 판단했다가는 큰 오해를 할 뻔했구려. 내가 나중에 주(州)로 돌아가 모용 지부에게 이 일을 반드시 전하겠소."

연순은 진명을 며칠 동안 머물게 하며 소와 말을 잡아 성대한 잔치를 베풀었다. 산으로 끌고 온 군사들은 모두 산 뒤편 방에 가두어 두고, 그들에게도 술과 음식을 대접했다.

진명이 술을 몇 잔 마시더니 자리에서 일어나 말했다.

"장사들이여, 나에게 이토록 정을 베풀어 죽이지 않고 갑옷과 말, 무기까지 돌려주었으니 고맙소. 이제 나는 주(州)로 돌아가겠소."

그러자 연순이 말했다.

"총관님, 그건 안 될 말씀입니다. 청주에서 이끌고 온 오백 명의 군마를 모두 잃었는데 어떻게 주로 돌아가신단 말입니까? 모용 지부가 총관님의 죄를 묻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이 거친 산채에서 잠시 머무는 게 어떻겠습니까? 우리도 말의 피로를 풀 겸, 여기서 산적질하며 은금을 나누고 옷도 갖춰 입는 것이, 저 관가 놈들에게 고개를 숙이는 것보다 낫지 않겠습니까?"

진명은 그 말을 듣고는 곧장 청 아래로 내려가며 말했다.

"나 진명은 살아서는 대송의 사람이고, 죽어서는 대송의 귀신이다! 조정에서 나를 병마총관이자 통제사 직책까지 맡겼고, 나 또한 그 직분에 어긋난 짓을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반역자가 되어 강도질을 하겠는가? 너희들이 나를 죽이려 한다면 죽여라. 하지만 너희들에게 굴복하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화영이 급히 따라 내려가 그를 붙들며 말했다.

"진 형님, 노여움을 푸시고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저 또한 조정 관리의 자식입니다. 어찌할 도리가 없어 이렇게 몰린 것이니 부디 이해해 주십시오. 총관님께서 산적이 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어찌 억지로 따르라고 강요하겠습니까? 우선 잠시 앉아 계십시오. 잔치가 끝나면 제가 반드시 형님의 갑옷과 투구, 말과 안장, 그리고 무기들을 모두 찾아 돌려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진명은 앉을 기색이 없었다. 화영이 다시 권했다.

"총관님께서는 밤새도록 힘을 쏟아 하루 낮밤을 고생하셨으니 기력이 다하셨을 텐데, 저 말에게도 먹이를 듬뿍 주어 배불리 먹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진명은 그 말을 듣고 속으로 생각하니 과연 맞는 말이었다. 그는 다시 청 위로 올라와 앉아 술을 마셨다. 다섯 호한이 차례로 술잔을 올리며 대화를 나누고 술을 권했다. 진명은 몸이 천근만근 무거웠던 데다 호한들이 권하는 술을 거절하지 못해, 결국 기분 좋게 취해버리고는 장방으로 부축받아 들어가 잠이 들었다. 다른 이들은 각자 할 일을 하러 갔으니,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이다.

한편, 진명은 자고 일어나 다음 날 진시(辰時, 오전 7~9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에서 깨어났다. 그는 벌떡 일어나 세수를 마치고 곧장 산을 내려가려 했다. 호한들이 모두 달려와 붙잡으며 말했다.

"총관님, 우선 아침 식사라도 하시고 출발하십시오. 저희가 배웅해 드리겠습니다."

성격이 급한 진명은 곧바로 산을 내려가려 했다. 사람들은 황급히 술과 음식을 차려 대접했다. 그러고는 투구와 갑옷을 꺼내 진명에게 입혀 드리고, 말을 끌어다 준 뒤 낭아봉까지 챙겨주었다. 먼저 사람들을 보내 산 아래에서 대기하게 한 뒤, 다섯 호한이 모두 진명을 산 아래까지 배웅하며 작별 인사를 나누고 말과 무기들을 돌려주었다. 진명은 말을 타고 낭아봉을 손에 쥔 채, 날이 밝은 틈을 타 청풍산을 떠나 청주를 향해 전력 질주했다.

십 리쯤 달려가니 마침 사시(巳時, 오전 9~11시) 무렵이었다. 멀리서 먼지가 어지럽게 일어나는 것이 보였으나, 오가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이를 본 진명은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들었다. 성 밖까지 가보니, 원래 수백 가구가 살던 마을은 온통 불에 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깨진 기와 조각들이 사방에 널려 있었다. 그곳에는 죽은 남녀의 시체가 셀 수도 없이 널브러져 있었다. 진명은 이 광경을 보고 크게 놀라, 말을 몰아 폐허를 지나 성벽 근처까지 달려가 성문을 열라고 크게 외쳤다. 그러나 성문 옆의 조교(吊橋, 성문 앞에 걸린 도개교)는 높이 들려 있었고, 성 위에는 군사들의 깃발이 나부끼며 뇌목(擂木, 굴려 떨어뜨리는 통나무)과 포석(炮石, 던지는 돌)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진명이 말을 멈춰 세우고 크게 소리쳤다.

"성 위에서 조교를 내려라! 나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라!"

성 위에서 이미 진명을 알아본 사람들이 북을 치며 소리쳤다. 진명이 다시 외쳤다.

"내가 진 총관이다! 어찌하여 나를 성 안으로 들여보내지 않는 것이냐?"

그러자 모용 지부가 성벽 여장(女牆) 옆에 서서 크게 꾸짖었다.

"이 반역 놈아, 어찌 부끄러운 줄을 모르느냐! 어젯밤에 군마를 이끌고 와서 성을 공격하여 수많은 백성을 죽이고 집들을 불태워놓고는, 오늘 또 성문을 속여 열려고 하다니! 조정이 너를 박대한 적이 없거늘, 네 놈이 어찌 이토록 어질지 못한 짓을 한단 말이냐! 이미 사람을 보내 조

정에 상주(上奏)하였으니, 조만간 너를 붙잡아 네놈의 몸을 갈가리 찢어 죽일 것이다!"

진명이 크게 외쳤다.

"공조(公祖, 지부에 대한 존칭)께서 오해하셨습니다! 저는 군마를 잃고 저놈들에게 붙잡혀 산으로 끌려갔다가 이제야 겨우 빠져나온 것입니다. 어젯밤에 어찌 성을 친 일이 있겠습니까?"

지부가 호통을 쳤다.

"네놈의 말과 갑옷, 무기와 투구를 내가 어찌 모르겠느냐! 성 위의 사람들이 네놈이 붉은 두건의 무리(紅頭子)를 지휘하며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지르는 것을 똑똑히 보았거늘, 어찌 발뺌을 한단 말이냐? 네가 패하여 붙잡혔다면 어찌 오백 명의 군사 중 소식을 전하러 돌아온 자가 단 한 명도 없겠느냐? 지금 성문을 속여 열고 가족을 데려갈 속셈인 모양이지만, 네 처자는 이미 오늘 아침에 모두 죽였다! 믿기지 않거든 직접 보아라!"

군사가 창 끝에 진명의 아내의 머리를 꿰어 높이 들어 올리며 진명에게 보여주었다. 성격이 급한 진명은 아내의 머리를 보자마자 가슴이 터질 듯한 분노를 느꼈다. 그는 변명할 겨를도 없이 그저 억울함에 통곡할 뿐이었다. 성 위에서는 쇠뇌의 화살이 비처럼 쏟아져 내렸고, 진명은 겨우 몸을 피하며 사방에 꺼지지 않은 불길이 치솟는 것을 보았다. 진명은 말을 돌려 폐허 속을 헤매며 차라리 죽을 곳을 찾고 싶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그는 다시 예전 길로 말을 몰았다.

십 리쯤 더 갔을 때, 숲 사이에서 한 무리의 인마가 나타났다. 앞장선 다섯 마리의 말 위에는 다름 아닌 송강, 화영, 연순, 왕영, 정천수가 타고 있었고, 그 뒤로 백여 명의 잔챙이들이 따르고 있었다. 송강이 말 위에서 몸을 굽히며 물었다.

"총관님, 어찌하여 청주로 돌아가지 않고 홀로 말을 달려 어디로 가시는 겁니까?"

진명은 그 물음에 분노를 터뜨리며 말했다.

"하늘도 덮어주지 않고 땅도 실어주지 않을, 능지처참을 당해 마땅한 어떤 도적놈이 나를 사칭하여 성을 치고 백성들의 집을 부수며 양민들을 학살하였소! 그놈 때문에 내 처자식 일가가 몰살당해, 나는 이제 하늘로 오를 길도 땅으로 들어갈 문도 없게 되었소. 만약 그놈을 만나기만 한다면 이 낭아봉이 부서지도록 박살을 내고야 말 것이오!"

그러자 송강이 말했다.

"총관님, 노여움을 푸십시오. 부인을 잃으셨더라도 괜찮습니다. 소인이 친히 총관님께 중매를 서 드리겠습니다."

"제게 좋은 계책이 있습니다. 총관님께서는 우선 돌아가시지요. 여기서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산채로 가서 자세히 말씀드린 뒤 다 함께 움직이시지요."

진명은 하는 수 없이 그 뜻에 따라 다시 청풍산으로 돌아왔다. 가는 길에 별다른 이야기는 없었으나, 산정(山亭) 앞에 이르자 말에서 내렸

고, 일행은 모두 함께 산채 안으로 들어갔다. 잔챙이들이 이미 취의청(聚義廳)에 술과 과일, 음식들을 차려 놓았다. 다섯 호한은 진명을 청에 모셔 가운데 자리에 앉혔다. 다섯 호한이 일제히 무릎을 꿇자, 진명도 서둘러 답례하며 함께 무릎을 꿇었다.

송강이 입을 열어 말했다.

"총관님, 부디 꾸짖지 마십시오. 어제 총관님을 산에 머물게 하려 했으나 한사코 거절하시기에, 이 송강이 한 가지 계책을 냈습니다. 총관님과 닮은 졸병에게 총관님의 갑옷과 투구를 입히고, 그 말을 태운 뒤 낭아봉을 가로 든 채 청주 성 아래로 내달리게 하여, 붉은 두건의 무리를 지휘하며 사람을 죽이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연순과 왕왜호(王矮虎, 왕영)가 오십여 명을 거느리고 가서, 마치 총관님이 직접 가족을 데리러 가신 양 꾸며 사람을 죽이고 불을 질렀습니다. 이로써 미리 총관님의 돌아갈 길을 끊어 버린 것입니다. 오늘 저희 모두가 특별히 죄를 청하고자 합니다."

진명은 이 말을 듣고 분노가 치밀어 송강 일행과 한판 싸워보려 했으나, 이내 속으로 생각을 가다듬었다. 첫째는 자신이 천상의 별과 인연이 닿아 있다는 점이요, 둘째는 저들이 자신을 부드럽게 대하며 예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이며, 셋째는 혹여 싸워도 저들을 이기지 못할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결국 그는 화를 억누르며 말했다.

"그대 형제들이 나를 머물게 하려는 마음은 좋았으나, 결과적으로 나에게 너무도 가혹한 일을 저질러 내 처자식 일가족을 모두 잃게 만들었소."

송강이 대답했다.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형님께서 어찌 마음을 다해 저희를 따르시겠습니까? 부인을 잃으셨다면, 마침 제가 알기로 화 지채(花知寨, 화영)에게 매우 현숙한 누이가 한 분 있다고 합니다. 제가 직접 중매를 서고 예물을 갖추어 총관님의 아내로 모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진명은 사람들이 이토록 서로 아끼고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서야 비로소 마음을 놓으며 귀순하기로 했다. 사람들은 모두 송강을 가운데 앉히고, 진명을 상석에, 화영을 그 옆에 앉혔으며, 나머지 세 호한이 차례로 앉았다. 그들은 풍악을 크게 울리며 술을 마시고 청풍채를 칠 일을 논의했다.

진명이 말했다.

"그 일은 어렵지 않으니 형제들께서 마음 쓰실 것 없습니다. 황신은 첫째로 제 휘하에 있는 자이고, 둘째로 제가 그에게 무예를 가르쳤으며, 셋째로 저와 사이가 가장 좋은 자입니다. 내일 제가 먼저 가서 산채의 문을 열게 한 뒤, 한바탕 말로 그를 설득해 입화·귀순하게 하겠습니다. 그러고는 화 지채의 가족을 모셔 나오고, 유고의 그 악독한 처를 잡아다가 형님의 원수를 갚아 드리는 첫 상견례 선물로 바치면 어떻겠습니까?"

송강이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총관님께서 이토록 흔쾌히 허락해 주시니, 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날 연회가 끝나고 모두 각자 휴식을 취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아침 식사를 마친 뒤, 모두 갑옷을 갖춰 입었다. 진명은 말에 올라 먼저 산을 내려와 낭아봉을 손에 든 채 청풍진을 향해 전력 질주했다.

한편, 황신은 청풍진에 도착하자마자 진(鎭) 안의 군사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려 단속하고, 산채의 병사들을 불러 모아 밤낮으로 방비하며 산채 문을 굳게 지켰다. 또한 감히 싸우러 나가지도 못한 채, 청주에서 지원군이 오는지 확인하려고 사람을 계속 보내 살폈으나 청주에서 군사를 보내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산채 문 밖에 진 통제(秦統制, 진명)께서 홀로 말을 타고 와서 문을 열라고 합니다!"라는 보고가 들려왔다. 황신이 그 말을 듣고 말을 달려 문가로 가 보니, 과연 말 한 필에 사람 하나뿐이었고 수행하는 이도 없었다. 황신은 즉시 산채 문을 열고 조교(吊橋)를 내려서 진 총관을 맞이했다. 그는 진명을 대채 공청(大寨公廳, 산채의 집무 대청) 앞까지 모셔다드리고 상청에 모셨다.

예를 나눈 뒤 황신이 물었다.

"총관님, 어찌하여 홀로 이곳까지 오셨습니까?"

진명은 우선 군마를 잃은 사정을 먼저 말한 뒤, 이어서 말했다.

"산동의 '급시우(及時雨)' 송공명은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의리를 중시하여 천하의 호한들과 사귀니, 그를 경모하지 않는 자가 어디 있겠나? 지금 그가 청풍산에 있고, 나 또한 이번에 산채에 입화(入夥)하였네. 자네 또한 처자식이 없으니, 내 말을 듣고 함께 산채로 들어와 저 문관 놈에게 시달리는 일을 면하는 게 어떻겠는가?"

황신이 대답했다.

"은혜로운 분이 그곳에 계시다면, 황신이 어찌 따르지 않겠습니까? 다만 송공명이 산에 있다는 말은 듣지 못했는데, 어찌하여 이번에는 '급시우' 송공명이 등장한 것입니까?"

진명이 웃으며 말했다.

"바로 며칠 전 자네가 압송했던 '운성호(鄆城虎)' 장삼이 그분일세. 본명을 밝혔다가는 자신의 송사가 불거질까 두려워, 그저 장삼이라고만 둘러댄 것이지."

황신은 그 말을 듣고 발을 동동 구르며 말했다.

"만약 송공명이신 줄 알았더라면 길에서라도 놓아드렸을 것입니다. 한순간 생각이 미치지 못한 채 유고의 한쪽 말만 듣고 따르다가, 하마터면 그분의 목숨을 해칠 뻔했습니다."

진명과 황신이 공해(公廨, 집무실) 안에서 길 떠날 채비를 의논하고 있을 때, 산채 병사가 달려와 보고했다.

"두 갈래의 군마가 징과 북을 울리며 진(鎭)으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진명과 황신은 그 말을 듣자마자 모두 말에 올라 적을 맞이하러 나갔다. 군마가 산채 문가에 이르러 바라보니, 먼지가 해를 가리고 살기가 하늘을 뒤덮을 듯했다. 두 갈래의 군병이 진(鎭)을 향해 몰려드는 가운데, 네 명의 호한이 산을 내려오고 있었다.

결국 진명과 황신이 어떻게 적을 맞이하게 될지는 다음 회에서 풀어 보기로 한다.

제35회 — 석 장군 마을 가게에 편지를 부치고, 소이광 양산에서 기러기를 쏘다

石將軍村店寄書 小李廣梁山射雁

그때 진명과 황신 두 사람이 울타리 문밖으로 나가 살펴보니, 마침 두 갈래로 나뉘어 오던 군마들이 모두 도착하고 있었다. 한쪽은 송강과 화영이 이끄는 무리였고, 다른 한쪽은 연순과 왕애호가 이끄는 무리였는데, 각각 백오십여 명씩 거느리고 있었다. 황신이 즉시 채병들에게 들교를 내리고 채문을 활짝 열게 하여, 두 무리의 인마가 모두 진(鎭) 안으로 들어오도록 맞아들였다.

송강은 곧바로 명령을 내렸다. "백성 한 명도 해치지 말고, 채병도 단 한 명도 다치게 하지 마라! 먼저 남쪽 채(南寨)로 쳐들어가서 유고일가의 노소들을 모조리 죽여라!"

왕애호는 앞장서서 그 여인을 먼저 가로챘다. 졸개들은 남쪽 채에 있는 모든 가산과 금은보화, 귀한 보물들을 남김없이 수레에 실었다. 또한 말과 소, 양들도 모조리 끌고 나왔다. 화영은 자기 집으로 가서 있

는 재물들을 모두 수레에 싣고, 처자식과 누이동생을 데리고 나왔다. 졸개들 가운데 청풍진 출신인 사람들은 모두 돌려보냈다. 수많은 호걸이 채비를 마치자, 일행은 청풍진을 떠나 모두 산채로 돌아왔다.

수레와 인마가 모두 산채에 도착하자, 정천수가 그들을 맞이하여 취의청으로 안내했다. 황신은 호걸들과 인사를 나눈 뒤 화영의 옆자리에 앉았다. 송강은 화영의 가족들이 머물 곳을 마련해 주라고 명하고, 유고의 재물은 부하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왕애호는 그 여인을 잡아 자신의 방에 숨겼다.

연순이 물었다. "유고의 아내는 지금 어디 있소?"

왕애호가 대답했다. "이번 기회에 이 아우의 압채부인(押寨夫人, 산채의 안주인)으로 삼을 생각이오."

연순이 말했다. "그렇게 하든지 말이오. 우선 그 여자를 불러오시오, 내 할 말이 있소."

송강이 거들었다. "나도 마침 그 여자에게 물을 것이 있다."

왕애호가 여자를 청 앞까지 불러오니, 그 여인은 울며 살려달라고 애원했다. 송강이 호통을 쳤다. "이 망측한 여편네야! 내가 너를 산 아래로 구해주려 한 것은 네가 관리의 아내이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어찌 이리 원망하며 은혜를 원수로 갚느냐? 오늘 이렇게 붙잡혀 온 것이 대체 무슨 이치란 말이냐!"

연순이 벌떡 일어나며 말했다. "이런 음탕한 여편네에게 물어 무엇 하겠습니까?" 그러고는 허리춤의 칼을 뽑아 휘둘러 여인을 단칼에 두 토막 내버렸다.

왕애호는 여인이 베이는 것을 보고 크게 분노하여, 박도를 빼앗아 들고 연순과 맞붙으려 했다. 송강 일행이 모두 일어나 그들을 말렸다. 송강이 말했다. "연순이 이 여인을 죽인 것도 무리는 아니다. 아우야, 보아라. 내가 온 힘을 다해 이 여인을 산 아래로 구해주어 부부가 다시 만나게 해주려 했건만, 저 여자는 오히려 남편을 시켜 나를 해치려 하지 않느냐. 아우야, 저 여자를 곁에 두어봤자 나중에 너에게 해만 될 뿐 이로울 것이 없다. 송강이 나중에 더 좋은 여인을 얻어 네 마음을 흡족하게 해주마."

연순이 말했다. "형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어쩔 수 없지만, 죽이지 않고 살려두어봤자 쓸모도 없을뿐더러 나중에 반드시 형님께 해를 끼칠 것입니다."

왕애호는 사람들의 만류에 아무 말 없이 입을 다물었다. 연순은 부하들에게 시켜 시신과 혈흔을 깨끗이 치우게 한 뒤, 연회를 베풀어 축하하게 했다.

다음 날, 송강과 황신이 혼례를 주관하고 연순, 왕애호, 정천수가 중매를 서서 화영의 누이동생을 진명에게 시집보내기로 했다. 혼례에 필요한 모든 예물은 송강과 연순이 준비했다. 사나흘 동안 연회를 베풀며 즐겁게 지냈다.

혼례를 치르고 또 대엿새쯤 지났을 때, 졸개 하나가 소식을 알아내어 산 위로 올라와 보고했다. "청주 모용지부(慕容知府)가 문서를 올려 중서성(中書省)에 화영, 진명, 황신이 반역을 꾀했다고 아뢰었답니다. 이제 대군을 일으켜 청풍산을 쓸어버리러 올 것이라고 합니다!"

호걸들이 이 말을 듣고 상의했다. "이곳은 작은 산채라 오래 머물 만한 곳이 못 됩니다. 만약 대군이 들이닥쳐 사방을 에워싸면 어떻게 적을 맞이하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내게 한 가지 계책이 있는데, 여러분의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소."

그러자 호걸들이 일제히 말했다. "부디 그 좋은 방책을 들려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이 남쪽에 양산박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둘레가 팔백여 리나 됩니다. 그 가운데에 완자성(宛子城)과 요아와(蓼兒洼)가 있고, 조개 천왕(晁天王)이 삼사천 명의 군마를 거느린 채 수박(水泊)을 차지하고 있어서, 관군이며 도적잡이도 감히 똑바로 쳐다보지도 못합니다. 우리가 어찌 인마를 챙겨 그곳으로 가서 합류하지 않겠습니까?"

진명이 말했다. "그런 곳이 있다면 참으로 좋지요. 다만 안내해 줄 사람이 없다면 그들이 어찌 우리를 순순히 받아주겠습니까?"

송강이 크게 웃으며, 예전에 '생신강(生辰綱)'을 탈취했던 금은보화 사건을 이야기했다. 유당이 편지를 보내 금을 사례했다는 이야기와,

그 일로 인해 염파석을 죽이고 강호로 도망쳤던 일까지 모두 털어놓았다.

진명이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말했다. "그렇다면 형님이야말로 그곳의 큰 은인이시군요! 일이 급하니 지체할 것 없이 서둘러 채비를 합시다."

그들은 그날 바로 의논을 마치고, 십여 대의 수레를 마련하여 가족들과 금은보화, 옷가지, 짐 등을 모두 수레에 실었다. 좋은 말도 이삼백 필이나 되었다. 산채에 남기를 원치 않는 졸개들에게는 은자를 쥐여주어 각자 산 아래로 내려가 다른 주인을 찾아가게 했고, 가고자 하는 이들은 대열에 합류시켰다. 이들은 진명이 데려온 군졸들과 합쳐 모두 삼사백 명에 달했다.

송강은 일행을 세 무리로 나누어 산을 내려가게 했는데, 마치 양산박의 도적을 토벌하러 가는 관군인 양 꾸몄다. 산 위에서 모든 채비를 마친 뒤, 수레에 짐을 싣고 불을 질러 산채를 흔적도 없이 태워버린 다음 두 대(隊)로 나누어 산을 내려갔다.

첫째 무리는 송강과 화영이 이끄는 사오십 명에 삼사십 필의 말로, 대여섯 대의 수레를 둘러싸고 가족 행렬을 앞세워 먼저 나아갔다.

둘째 무리는 진명과 황신이 이끄는 무리로, 팔구십 필의 말과 필요한 수레들을 거느리고 뒤를 따랐다.

마지막 무리는 연순, 왕애호, 정천수 세 사람이 이끄는 무리로, 사오십 필의 말을 거느리고 뒤를 받쳤다.

일이백 명의 인마가 청풍산을 떠나 양산박을 향해 길을 잡았다. 길에서 사람들이 이토록 많은 군마를 보았으나, 깃발에 '초적을 잡는 관군'이라고 분명히 적혀 있었기에 감히 가로막는 자가 없었다. 그렇게 대엿새쯤 길을 가니 청주에서 멀리 떨어지게 되었다.

한편, 송강과 화영 두 사람이 앞장서서 말을 달리고, 그 뒤로는 가족들을 태운 수레들이 뒤따랐으며, 뒤쪽의 인마와는 이십여 리 정도의 거리를 두고 떨어져 있었다. 앞장서 가던 중 대영산이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양옆으로 높은 산 두 개가 나란히 솟아 있고 그 사이로 넓은 역로가 뻗어 있는 형세였다.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나아가는 도중, 앞쪽 산에서 징과 북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이 들렸다. 화영이 말했다. "앞에 분명 강도가 있는 모양입니다."

화영은 창을 단단히 쥐고 활과 화살을 꺼내 정돈한 뒤, 비어대(飛魚袋, 화살통)에 제대로 꽂아 넣었다. 그러고는 말을 탄 군사들에게 명하여 뒤따라오던 두 무리의 군마를 재촉해 오게 하고, 수레와 인마를 진영을 갖춰 세우게 했다. 송강과 화영은 이십여 명의 기병을 거느리고 앞길을 살피러 나아갔다.

앞으로 반 리 남짓 더 나아가니, 일백여 명은 되어 보이는 인마 무리가 보였다. 그 무리의 맨 앞에는 한 젊은 장사가 호위받으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았다.

머리에는 금테와 옥장식을 두른 삼차관을 쓰고, 몸에는 꽃무늬가 수놓아진 화려한 비단 도포를 입었다. 갑옷은 불꽃무늬가 새겨진 비늘 갑

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붉은 마노 띠를 둘렀다. 타고 있는 말은 마치 용이 꿈틀거리는 듯한 붉은 빛이 도는 명마였고, 손에는 붉은색으로 칠한 방천화극을 들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하급 군사들은 모두 붉은 옷에 붉은 갑옷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

그 장사는 창을 가로로 들고 말 위에 올라앉은 채, 산비탈 앞에서 크게 외쳤다. "오늘 나와 승부를 겨루어, 누가 이기고 지는지 끝을 보자!" 그러자 건너편 언덕 뒤편에서 일백여 명은 되어 보이는 인마 무리가 우르르 몰려나왔다. 그 무리의 맨 앞에도 흰 옷을 입은 한 젊은 장사가 호위받으며 나아가고 있었다. 그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았다.

머리에는 상서로운 눈송이 무늬가 새겨진 삼차관을 썼고, 몸에는 차가운 서리가 내려앉은 듯한 강철 갑옷을 입었다. 흰 비단 도포는 햇빛을 받아 눈부시게 빛났고, 은빛 꽃무늬가 새겨진 허리띠는 밝은 달빛마저 무색하게 할 만큼 찬란했다. 타고 있는 말은 마치 옥으로 빚은 짐승처럼 매끄러운 빛을 냈으며, 손에는 은빛 장식이 달린 차가운 창을 휘두르고 있었다. 그 뒤를 따르는 하급 군사들은 모두 흰 옷에 흰 갑옷을 갖춰 입은 모습이었다.

그 장사 역시 손에 방천화극을 들고 있었다. 이쪽은 모두 흰색 깃발을 내걸었고, 저쪽은 온통 붉은색 깃발을 내걸었다. 양쪽에서 붉고 흰 깃발이 휘날리고, 땅을 울리는 듯한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두 장사는 한마디 말도 주고받지 않고, 각자 손에 든 화극을 치켜든 채 타고 있던 말을 박차며 넓은 길 한복판에서 서로 맞붙어 승부를 겨루기 시작했다. 화영과 송강은 이 광경을 보고 말의 고삐를 당겨 멈춰 서서

지켜보았는데, 과연 두 사람의 싸움은 눈이 번쩍 뜨일 만큼 대단했다. 그 모습이 어떠했는가 하면, 다음과 같았다.

깃발은 허공을 휘감으며 돌아가고, 전투복은 바람에 나부꼈다. 붉은 노을의 그림자 속에서는 땅에 닿을 듯 구름 조각들이 휘몰아치고, 하얀 눈빛 속에서는 들불처럼 번지는 불꽃 덩어리들이 요동쳤다. 마치 고향의 겨울 저물녘에 동백과 매화 꽃봉오리가 빛을 다투고, 봄기운 완연한 궁궐 정원에서 오얏꽃 가루와 복숭아꽃 빛깔이 색채를 겨루는 듯했다.

한 사람은 남방의 화(火) 기운을 받아, 마치 하늘 위 단로(丹爐) 속에서 타오르는 불길처럼 움직였고, 다른 한 사람은 서방의 금(金) 기운을 받아, 마치 태화봉(泰華峰) 정상에서 옥정(玉井)의 물이 솟구치는 듯했다. 송무기(宋無忌)가 분노에 차서 불노새(火騾子)를 몰아 서리 내린 숲을 내달리는 듯하고, 풍이신(馮夷神, 황하의 수신)이 노여움을 터뜨려 옥산예(玉狻猊)를 타고 꽃밭 사이를 종횡무진 누비는 듯하였다.

두 장사는 각자 방천화극을 휘두르며 서른 합 넘게 싸웠으나, 좀처럼 승부를 가리지 못했다. 말 위에 앉아 지켜보던 화영과 송강은 그 모습에 환호성을 질렀다. 화영이 말을 몰아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 보니, 두 장사는 어느덧 깊은 골짜기까지 내려가 싸우고 있었다. 두 자루의 화극에는 하나는 금전표자미(금빛 표범 꼬리 장식)가, 다른 하나는 금전오색번(금빛 오색 깃발 장식)이 달려 있었는데, 두 무기가 뒤엉키는 바람에 위쪽의 융조(絨絛, 술끈)가 서로 묶여 버려 도저히 갈라놓을 수 없는 지경이었다.

말 위에서 이를 발견한 화영은 즉시 고삐를 당겨 말을 멈춰 세웠다. 그리고 왼손으로는 비어대(飛魚袋, 활집)에서 활을 꺼내고, 오른손으로는 주수호(走獸壺, 짐승 무늬가 새겨진 화살통)에서 화살을 뽑아 시위에 먹였다. 화영은 활시위를 팽팽히 당긴 채 표범 꼬리 장식의 술끈이 가장 가까운 곳을 겨냥하더니, 휘익 소리를 내며 화살을 날려 정확히 그 끈을 끊어 버렸다. 그러자 엉켜 있던 두 화극이 비로소 양옆으로 갈라졌고, 이를 지켜보던 이백여 명의 장정은 일제히 환호성을 내질렀다.

두 장사는 싸움을 멈추고 말들을 몰아 송강과 화영의 말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고는 말 위에서 몸을 굽혀 예를 갖추며 말했다. "부디 신전장군(神箭將軍)의 크신 함자를 알려 주시기를 청합니다."

화영이 말 위에서 대답했다. "나의 의형은 운성현 압사인 '급시우' 송공명이며, 나는 청풍진 지채인 '소이광' 화영이라 하오."

그 말을 들은 두 장사는 화극을 땅에 꽂아 세워 두고, 말에서 내려 마치 금산이 무너지고 옥기둥이 쓰러지듯 큰절을 올리며 말했다. "두 분의 성함을 오래전부터 익히 들어 알고 있었습니다."

송강과 화영은 황급히 말에서 내려 두 장사를 부축해 일으키며 물었다. "두 장사께서는 성함이 어찌 되시는가?"

붉은 옷을 입은 장사가 말했다. "소인의 성은 여요, 이름은 방이라 합니다. 본래 담주 사람인데, 평소 여포의 사람됨을 흠모하여 본받고자 이 방천화극을 익혔기에 사람들은 저를 '소온후' 여방이라 부릅니다. 생약 장사를 하며 산동까지 왔다가 밑천을 다 날리는 바람에 고향

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우선 이 대영산(對影山)을 차지하고 도적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장사가 와서 저의 산채를 빼앗으려 하기에, 제가 그와 산을 하나씩 나누어 가지자고 제안했으나 그가 도무지 응하지 않아, 매일같이 산 아래로 내려와 싸워 왔습니다. 뜻밖에 오늘 이렇게 귀한 분들을 뵙게 되니, 본디 인연이 정해져 있었나 봅니다."

송강이 다시 흰 옷을 입은 장사에게 성이 무엇인지 묻자, 그가 대답했다. "소인의 성은 곽이요, 이름은 성이라 합니다. 본래 서천(西川) 가릉(嘉陵) 사람인데, 수은 장사를 하다가 황하에서 풍랑을 만나 배가 뒤집히는 바람에 고향으로 돌아가지 못했습니다. 예전에 가릉 본 고장의 병마제할(兵馬提轄)이신 장(張)씨께 방천극을 배워 매우 능숙하게 다루게 되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를 '새인귀' 곽성이라 부릅니다. 강호에서 대영산에 화극을 쓰는 자가 산을 차지하고 도적질을 한다는 말을 듣고, 화극 솜씨를 겨루어 보고자 곧장 이곳으로 왔습니다. 십수 일을 연이어 싸웠으나 승부를 가리지 못하던 차에, 뜻밖에 오늘 두 분 어른을 뵙게 되었으니 하늘이 내려 주신 행운입니다."

송강은 방금 있었던 일을 모두 들려주고는 이렇게 말했다. “이렇게 귀한 인연으로 만났으니, 두 분이 싸움을 멈추고 화해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두 장사는 크게 기뻐하며 모두 흔쾌히 응했다.

시로 이르되,

구리 사슬로 칼을 권하는 일은 여전히 쉬운 일이나,
화살촉으로 창을 권하는 일은 더욱 기이하고 드물구나.
영웅들이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곳이라면,
날카로운 칼날이 단단한 쇠를 끊어낼 때 의심할 필요 없으리.

뒤따라오던 부대도 모두 도착하여, 사람들은 하나둘씩 서로 인사를 나누며 대면했다. 여방이 먼저 산 위로 사람들을 안내하여 소를 잡고 말을 잡아 잔치를 베풀었다. 다음 날에는 곽성이 술과 음식을 차려 잔치를 열었다.

송강이 두 사람에게 제안했다. "두 분이 우리와 뜻을 같이하여 함께 양산박으로 가서 조개의 무리에 합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두 사람은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뻐하며 모두 흔쾌히 응했다.

그들은 곧 두 산의 인마를 점검하고 재물을 챙겨 길을 떠나려 했다. 그때 송강이 말했다. "잠시 기다리시오. 그렇게 가면 안 됩니다. 만약 우리 쪽에서 삼오백 명의 인마가 양산박으로 향한다면, 저쪽에도 사정을 살피는 첩자가 있어 사방에 소문을 낼 것입니다. 혹여 우리가 정말로 그들을 잡으러 가는 것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와 연순이 먼저 가서 소식을 전한 뒤, 여러분이 뒤따라오도록 세 차례로 나누어 이동합시다."

화영과 진명이 말했다. "형님의 생각이 참으로 명쾌하십니다. 마땅히 그렇게 계획하여 차례차례 나아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형님께서 먼

저 반나절 정도 길을 나서시면, 저희가 인마를 독려하여 곧 뒤따라가겠습니다."

한편, 대영산의 인마가 차례차례 길을 떠나는 상황은 차치하고, 송강과 연순이 각각 말을 타고 수행원 십여 명을 거느린 채 먼저 양산박으로 향했다. 길을 이틀간 달려 정오쯤 되었을 때, 한창 길을 가고 있는데 관도 옆에 커다란 주점이 하나 보였다. 송강이 보고 말했다.

"얘들아, 다들 걷느라 지쳤으니 술을 좀 사서 기운을 차리자꾸나."

송강과 연순은 말에서 내려 주점 안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부하들에게 말의 배를 묶은 끈을 풀어주게 하고는 모두 주점 안으로 들어와 자리를 잡고 앉았다.

송강과 연순이 먼저 가게 안을 살펴보니, 커다란 탁자는 세 개뿐이었고 작은 탁자는 몇 개 되지 않았다. 그중 커다란 탁자 하나에는 이미 누군가 자리를 잡고 앉아 있었다. 송강이 그 사람을 살펴보니, 차림새가 어떠했는가?

머리에는 돼지 입 모양의 두건을 쓰고, 뒷머리에는 태원부에서 만든 금불환(金不換)식 구리 고리 두 개를 꽂고 있었다. 위에는 검은 소매의 겉옷을 입었으며, 허리에는 흰색 띠를 둘렀다. 아래에는 무릎 보호대를 차고 삼베로 만든 신을 신고 있었다. 탁자 옆에는 짧은 몽둥이를 기대어 세워 두었고, 탁자 끝에는 옷보따리를 놓아두었다. 그 사람은 키가 여덟 자 정도로 훤칠했고, 얼굴은 누르스름한 빛이 도는 골격이 굵은 얼굴에 눈매는 형형했으나 수염은 하나도 없었다.

송강이 주막 주인을 불러 말하기를, "내 일행이 많으니, 저 안쪽 탁자에 우리 둘이 좀 앉겠소. 저 손님에게 말해서 저 큰 탁자를 우리 일행에게 양보하고 자리를 옮기게 해 주시오."라고 했다. 주막 주인이 대답했다. "예, 알겠습니다."

송강과 연순이 안쪽에 자리를 잡고 앉은 뒤, 먼저 주인에게 술을 가져오라 일렀다. "먼저 일행들에게 큰 사발로 한 사람당 세 사발씩 주고, 고기도 있으면 좀 사 와서 다 같이 먹게 한 뒤에, 그다음에 내게 술을 따라 주시오."

주인은 일행들이 모두 술청 옆에 빙 둘러서 있는 것을 보고, 공인(公人) 차림새의 그 손님에게 다가가 말했다. "수고스러우시겠지만, 상하(上下) 어른께서 저 큰 탁자를 안쪽에 계신 두 관인의 일행에게 좀 양보해 주시지요."

그 사내는 주인이 자신을 '상하(上下, 송대에 군졸·공인 등을 통칭하던 호칭)'라고 부른 것이 못마땅하여 짜증 섞인 목소리로 외쳤다.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앉는 법이거늘, 무슨 관인의 일행이라며 자리를 옮기라는 거요! 이 어르신은 못 바꾸오!"

연순이 그 소리를 듣고 송강에게 말했다. "형님, 저 사람 무례한 것 좀 보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그냥 내버려 두어라. 너도 저 사람과 똑같이 따지지 마라!" 하며 연순을 눌러 말렸다. 그 사내는 고개를 돌려 송강과 연순을 보며 냉소를 흘렸다.

주인이 다시 조심스럽게 말을 건넸다. "어르신, 제 장사도 좀 봐주셔야지요. 자리를 좀 옮겨 주시는 게 뭐가 그리 어렵습니까?"

사내가 크게 화를 내며 탁자를 내리쳤다. "이 빌어먹을 것들아, 사람 볼 줄도 모르고 혼자 있는 이 어르신을 괴롭혀 자리를 바꾸라고 하느냐? 설령 조관가(趙官家, 송조의 황제)라 할지라도 이 어르신은 죽어도 안 바꾼다! 한 번만 더 소리를 높였다간 이 굵은 목의 주먹이 너를 가만두지 않을 줄 알아라!"

주인이 말했다. "소인이 딱히 뭐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사내가 호통을 쳤다. "네깟 놈이 감히 무슨 말을 더 하겠느냐!"

연순이 이 상황을 참지 못하고 나섰다. "이보시오, 이 사내야! 당신도 어지간히 거세군. 안 바꾸겠다면 그만이지, 어찌 그렇게 사람을 겁박한단 말이오?"

사내가 벌떡 일어나 짧은 몽둥이를 손에 쥐며 맞받아쳤다. "내가 그를 욕하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냐! 이 어르신은 천하에 딱 두 사람한테만 양보하고, 나머지는 전부 발밑의 진흙으로 친다!"

연순이 화가 치밀어 의자를 들어 올려 때려주려 하자, 송강은 저 사내의 말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끼고 몸을 가로막으며 말렸다. "모두 그만들 하게. 내 하나 물어봅시다. 당신이 천하에 양보한다는 그 두 사람이 대체 누구요?"

사내가 말했다. "말해 주면 당신은 깜짝 놀라 멍해질 거요."

송강이 말했다. "그 두 호걸의 대명(大名)을 듣고 싶구려."

사내가 답했다. "한 분은 창주 횡해군(滄州橫海郡)의 시세종(柴世宗, 후주 세종)의 손자로, '소선풍' 시진(柴進) 대관인이라는 분이오."

송강은 속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물었다. "그럼 나머지 한 분은 누구요?"

사내가 말했다. "이분은 더욱 대단한 분인데, 바로 운성현 압사이자 산동의 '급시우' '호보의' 송공명(宋公明)이시오."

송강은 연순을 보며 속으로 웃었고, 연순은 얼른 의자를 내려놓았다. 사내가 다시 말을 이었다. "이 어르신은 이 두 분 외에는 대송의 황제라 해도 두렵지 않소."

송강이 말했다. "잠시 기다려 보시오. 당신이 그 두 분을 들먹이니, 나도 그분들을 다 아는 터요. 당신은 그 두 분과 어디서 만났소?"

사내가 말했다. "당신이 그분들을 안다면 거짓을 말하지 않겠소. 3년 전에 시 대관인의 장원에 넉 달 남짓 머물렀지만, 송공명은 만나 뵙지 못했소."

송강이 물었다. "그럼 혹시 흑삼랑(黑三郎)을 찾으려는 것이오?"

사내가 답했다. "지금 바로 그분을 찾으러 가는 길이라오."

송강이 다시 물었다. "누가 당신더러 그분을 찾으라 하던가요?"

사내가 말했다. "그분의 친아우 '철선자' 송청(宋清)이 가서(家書)를 부치며 그분을 찾아가라고 일렀소."

송강은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며 앞으로 나아가 그를 붙들고 말했다. "'인연이 있으면 천 리 길도 와서 만나고, 인연이 없으면 얼굴을 마주해도 만나지 못한다'더니, 내가 바로 그 흑삼랑 송강이오."

사내가 송강을 찬찬히 살펴보더니 절을 올리며 말했다. "하늘이 도우셔서 이 아우가 형님을 뵙게 되었습니다. 하마터면 어긋나, 공태공의 장원까지 헛걸음할 뻔했군요."

송강은 사내를 안쪽으로 끌고 들어가 물었다. "근래에 집안에는 별일이 없었소?"

사내가 대답했다. "형님께 아룁니다. 소인의 성은 석이요, 이름은 용이라 합니다. 본래 대명부 사람인데, 평소 도박판을 차려 생계를 이어왔습니다. 본 고향에서는 소인에게 '석장군(石將軍)'이라는 별명을 지어 주었습니다. 도박을 하다가 주먹질로 사람을 하나 때려죽이는 바람에 도망쳐 시 대관인의 장원에 머물렀습니다. 강호를 오가는 사람들에게 형님의 크신 이름을 익히 들었기에, 특별히 운성현으로 형님을 찾아가 의탁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형님께서 일이 있어 출타하셨다는 말을 듣고 있던 차에, 마침 사랑(四郎, 송청)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소인이 시 대관인의 이야기를 꺼내자, 그분께서 형님이 백호산 공태공의 장원에 계신다고 일러 주셨습니다. 이 아우가 꼭 형님을 뵙고 인사를 드리고 싶다 하자, 사랑께서 특별히 이 가서(家書)를 써서 소인에게 주시며 공태공의 장원으로 부쳐 형님께 전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만약 형님을 찾아 뵙거든 형님께 급히 돌아오시라고 전해 달라 하셨습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겨 물었다. "우리 장원에는 며칠이나 머물렀소? 혹시 우리 아버님을 뵙지는 못했소?"

석용이 답했다. "그곳에는 그저 하룻밤만 묵고 바로 떠났습니다. 태공 어른은 뵙지 못했습니다."

송강은 양산박에 합류하게 된 사정을 석용에게 모두 이야기해 주었다. 석용이 말했다. "시 대관인의 장원을 떠난 뒤로 강호에서 오직 형님의 크신 이름만을 들었습니다. 재물을 아끼지 않고 의를 행하시며, 곤궁한 이를 구하고 위급한 이를 돕는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이제 형님께서 그곳에 들어가 합류하시니, 부디 소인도 꼭 데려가 주십시오."

송강이 말했다. "그건 네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일이다. 너 한 사람쯤이 무슨 대수이겠느냐! 어서 와서 연순과 인사나 나누거라." 그러고는 주인을 불러 이곳에 술 세 잔을 따라 오게 했다.

술자리가 끝나자, 석용은 보따리에서 가서를 꺼내 황급히 송강에게 건넸다.

송강이 편지를 받아 살펴보니, 봉투가 거꾸로 붙어 있는 데다 '평안(平安)'이라는 글자조차 적혀 있지 않았다. 송강은 마음속으로 의구심이 더욱 깊어져 서둘러 봉투를 뜯었다. 편지를 처음부터 읽어 내려가다 절반쯤 이르렀을 때, 뒷부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버님께서 올해 정월 초에 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지금 집에 빈소를 차려두었으며, 오로지 형님께서 오셔서 묘지로 옮겨 매장(遷葬)

해 주시기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제발, 제발 절대로 늦으시면 안 됩니다! 송청이 피눈물을 흘리며 올립니다.」

송강은 편지를 다 읽고는 비통한 비명을 내질렀다. 그는 어쩔 줄 모른 채 가슴을 쾅쾅 치며 자책했다. 「불효막심한 역자(逆子) 같으니! 못된 짓만 일삼다가 아버님께서 돌아가셨는데도 자식 된 도리조차 다하지 못했으니, 짐승과 다를 게 무엇이란 말이냐!」 그는 머리를 벽에 찧으며 통곡하기 시작했다. 연순과 석용이 급히 달려들어 그를 붙들었다. 송강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울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겨우 정신을 차렸다. 연순과 석용 두 사람이 달래며 말했다. 「형님, 제발 너무 번뇌하지 마십시오.」 송강이 연순에게 분부했다. 「내가 정이 박해서 이러는 게 아니다. 사실 내 마음속에는 오로지 이 늙은 아버님만이 늘 걸렸는데, 이제 돌아가셨다 하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가야겠다. 형제들은 알아서 산으로 올라가도록 하라.」 연순이 다시 권했다. 「형님, 태공 어른께서 이미 돌아가셨다면 집에 도착해도 뵙지 못할 것입니다. 세상에 죽지 않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부디 마음을 너그럽게 가지시고 저희 형제들을 이끌어 주십시오. 그때 제가 아우로서 형님을 모시고 가서 분상(奔喪)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예부터 「머리 없는 뱀은 나아가지 못한다(蛇無頭而不行)」고 했습니다. 형님께서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그쪽에서 어찌 우리를 받아주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내가 너희를 산으로 데려다 주려면 며칠을 지체할지 모르니 그럴 수는 없다. 자세한 사정을 적은 편지 한 통을 써서 모두 그 안에 적어둘 테니, 석용도 너희와 함께 데리고 가서 한꺼번에 산에 올라 입당하도록 해라. 지금 이 사실을 몰랐다면 그만이지만, 이미 하늘이 알게 하신 이상 하루가 일 년 같고 눈썹이 타는 듯한 급한 마

음뿐이다. 말도 타지 않고 수행원도 한 명 데려가지 않은 채 밤을 도와 홀로 집으로 달려가겠다.」 연순과 석용은 도저히 송강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송강은 주막 주인에게 붓과 벼루를 빌리고 종이 한 장을 얻었다. 그는 한편으로는 눈물을 흘리고 한편으로는 편지를 써 내려가며, 종이 위에 거듭거듭 당부의 말을 적어 넣었다. 다 쓰고 나서는 봉투를 풀로 붙이지 않은 채 연순에게 건네 보관하게 했다. 이어 석용의 팔답마혜(八答麻鞋, 송대에 신던 한 종류의 삼신)를 빌려 신고, 은자 약간을 챙겨 몸에 품었다. 허리에는 요도(腰刀)를 차고 석용의 단봉(短棒)까지 챙긴 그는 술과 음식도 입에 대지 않은 채 곧장 문을 나서려 했다. 연순이 말했다. 「형님, 진(秦) 총관과 화 지채(花知寨, 화영의 청풍채 지채 직책)가 오셔서 한 번 얼굴이라도 보신 뒤에 떠나셔도 늦지 않습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기다릴 수 없다. 내 편지가 가면 아무런 막힘이 없을 것이다. 석가 아우가 자세한 사정을 다 말해줄 터이니, 나를 대신해서 형제들에게 잘 전해주어라. 분상하러 급히 떠나는 송강을 가엾이 여겨 허물치 말아 달라고 말이다.」 송강은 당장이라도 한 걸음에 집에 닿고 싶은 심정으로, 마치 날아가는 듯이 홀로 길을 떠났다.

한편, 연순과 석용은 그 주막에서 술과 음식, 점심거리를 조금 먹고 술값을 치렀다. 이어 석용이 송강의 말을 타고 수행원들을 데리고 나서서, 주막에서 불과 삼오 리쯤 떨어진 곳에 있는 큰 객점(客店)을 찾아가 머물며 일행을 기다리기로 했다. 이튿날 진패시(辰牌時, 진시 무렵) 즈음이 되자 일행이 모두 도착했다. 연순과 석용이 그들을 맞이하며 송강 형님이 분상하러 급히 떠났다는 자세한 사정을 설명했다. 그러자 사

람들이 연순을 원망하며 말했다. 「자네는 어째서 형님을 좀 붙잡아 두지 않았는가?」 석용이 대신 설명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형님은 당장이라도 따라 죽으려 하셨는데, 어찌 발걸음을 멈추려 하셨겠나? 한시라도 빨리 집에 날아가시고 싶어 하셨네. 그래서 자세한 사정을 적은 편지를 이곳에 남겨두셨으니, 우리는 그저 가기만 하라고 하셨네. 그쪽(양산박)에서 편지를 보고 나면 아무런 막힘이 없을 것이라고 하셨네.」 화영과 진명이 편지를 읽어본 뒤 사람들과 상의하며 말했다. 「일이 길 한복판에서 벌어졌으니 진퇴양난이로구나. 되돌아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흩어질 수도 없다. 그저 가는 수밖에 없으니, 이 편지를 봉해서 모두 함께 산 위로 가지고 올라가 보여 주자. 만약 그쪽에서 받아주지 않으면 그때 가서 따로 방도를 강구하기로 하세.」

아홉 명의 호걸이 한 무리가 되어 삼사백에서 오백 명의 군마를 이끌고, 큰 길을 따라 산으로 올라가기 위해 점차 양산박에 가까이 다가갔다. 일행이 갈대밭을 지나가고 있을 때, 수면 위에서 징과 북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다. 사람들이 살펴보니 온 산과 들판에 형형색색의 깃발이 가득했고, 물 위에서는 빠른 배 두 척이 노를 저어 나오고 있었다. 앞장선 배에는 졸개(小嘍囉) 삼사십 명이 늘어서 있었고, 뱃머리 가운데에는 두령 한 명이 앉아 있었는데 바로 「표자두(豹子頭)」 임충이었다. 그 뒤를 따르는 초선(哨船, 호위선)에도 졸개 삼사십 명이 타고 있었으며, 그 뱃머리에도 두령 한 명이 앉아 있었으니 바로 「적발귀(赤髮鬼)」 유당이었다. 앞선 배 위의 임충이 큰 소리로 꾸짖으며 물었다. 「너희는 대체 누구냐? 어느 곳 관군이기에 감히 우리를 잡으러 왔단 말이냐? 너희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일 것이니, 우리

양산박의 큰 이름을 똑똑히 알아두어라!」 화영과 진명 등이 모두 말에서 내려 강가에 서서 대답했다. 「우리는 관군이 아닙니다. 산동 「급시우(及時雨)」 송공명 형님의 편지를 가지고 왔으니, 특별히 대채(大寨)에 입당하고자 찾아온 것입니다.」 임충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송공명 형님의 편지가 있다면 우선 앞쪽으로 건너오너라. 주귀의 주막으로 가서 먼저 편지를 받아 본 뒤에, 다시 모시러 오겠다.」 배 위에서 푸른 깃발을 한 번 흔들자, 갈대밭 사이로 작은 배 한 척이 노를 저어 나왔다. 배에는 어부 세 명이 타고 있었는데, 한 명은 배를 지키고 나머지 두 명은 육지로 올라와 말했다. 「여러 장군께서는 모두 저를 따라오십시오.」 그러는 사이 수면 위에 떠 있던 초선 두 척 중 한 척에서 흰 깃발을 흔들고 징을 울리니, 두 척의 초선이 일제히 떠나갔다.

일행은 그 광경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며 말했다. 「정말로 이런 곳이라면 어느 관군이 감히 가까이 올 수 있겠는가? 우리 산채가 어찌 여기에 미칠 수 있겠는가?」 사람들은 두 어부를 따라 큰 길을 굽이굽이 돌아 「한지홀률(旱地忽律)」 주귀의 주막에 이르렀다. 주귀는 사정을 듣고 일행을 맞이하며 모두와 인사를 나누었다. 곧바로 황소 두 마리를 잡고, 정해진 분량의 술과 음식을 풀어 대접하게 한 뒤 편지를 받아 읽어 보았다. 그러고는 먼저 수정(水亭)에서 향전(響箭, 우는 화살) 한 발을 쏘아 강 건너 갈대밭으로 날렸더니, 어느새 빠른 배 한 척이 노를 저어 다가왔다. 주귀는 졸개(小嘍囉)에게 분부하여 편지를 먼저 산 위로 올려보내 보고하게 하는 한편, 주막에서는 돼지와 양을 잡아 아홉 명의 호걸을 대접하게 하고, 군마들은 사방에 풀어 쉬게 하였다.

다음 날 진패시(辰牌時, 진시 무렵)가 되자, 군사 오학구(吳學究, 오용)가 직접 주귀의 주막으로 마중 나와 일행을 맞이했고, 모두가 한 명 한 명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다. 인사가 끝나고 자세한 사정을 묻고 있을 때, 이미 이삼십 척의 큰 백조선(大白棹船)이 마중을 나와 있었다. 오용과 주귀는 아홉 명의 호걸을 배에 오르게 했고, 노약자와 수레, 인마와 짐들도 각자 배에 실어 금사탄(金沙灘)을 향해 나아갔다. 육지에 올라 소나무 길을 지나는데, 수많은 호걸이 조 두령(晁頭領, 조개)을 따라 한껏 갖춘 고악(鼓樂, 북과 풍악)을 울리며 마중을 나왔다. 조개가 앞장서서 아홉 명의 호걸과 만나 관문 안으로 맞아들였다. 일행은 각자 말을 타거나 가마를 타고 곧장 취의청(聚義廳)에 이르러 한 쌍씩 예를 갖추어 인사를 나누었다. 왼쪽 교의(交椅) 한 줄에는 조개, 오용, 공손승, 임충, 유당, 완소이, 완소오, 완소칠, 두천, 송만, 주귀, 백승이 앉았다. 「백일서(白日鼠)」 백승은 몇 달 전 제주(濟州) 태뢰(太牢, 감옥)에서 옥을 뚫고 탈주해 양산박으로 들어와 입당했는데, 모두가 오학구가 사람을 보내 손을 써서 백승을 구해낸 덕분이었다. 오른쪽 교의 한 줄에는 화영, 진명, 황신, 연순, 왕영(王英), 정천수, 여방, 곽성, 석용이 앉았다. 두 줄로 나란히 앉은 가운데에는 향로에 향을 피워 올리고 각자 맹세를 세웠다. 그날은 풍악을 크게 울리며 소와 말을 잡아 성대히 잔치를 벌였다. 한편으로는 새로 온 화반(火伴)들을 청 아래로 불러 참배하게 하고, 두령들은 소두목들을 거느리고 그들의 잔치 자리를 따로 챙기게 했다. 또한 뒷산의 방채(房舍)를 정리해 노약자와 가족들을 모두 안돈시켰다. 자리에서 진명과 화영이 송공명의 좋은 점을 여러 가지 칭찬하며, 청풍산에서 원수를 갚고 서로 죽인 일을 이야기하자 두령들은 모두 그 말을 듣고 크게 기뻐했다. 이어서 두 사람은, 일찍이 여방과 곽성이 극법(戟法)을 겨룰 때 화영이 화살 한 발로 융조(絨絛,

끈)를 끊어 두 사람의 화극(畫戟)을 갈라놓았던 일까지 이야기했다. 조개는 다 듣고도 마음속으로 믿지 못하는 듯 모호하게 응대했다. 「정말로 그렇게 정확하게 쏘아 맞혔단 말인가? 다음에 기회가 되면 활 쏘는 솜씨를 한번 견주어 보세.」

그날 술기운이 한창 오르고 여러 요리가 차려지자, 두령들이 모두 말했다. "잠시 산 앞을 거닐며 구경하고 다시 잔치에 참석합시다." 두령들이 서로 양보하며 계단을 내려가 한가로이 거닐며 산세 구경을 즐겼다. 산채 앞 세 번째 관문에 이르렀을 때, 하늘에서 기러기 떼가 울어대는 소리가 드높게 들려왔다.

화영은 생각했다. '조개가 방금 내 화살 솜씨를 믿지 못하는 눈치였으니, 오늘 여기서 실력을 제대로 보여주어 다른 두령들이 앞으로 나를 경외하게 만들어야겠다.'

화영이 주위를 살펴보니 일행 중에 활과 화살을 지닌 자가 있었다. 화영은 그에게 활 한 장을 빌려달라고 청했다. 손에 쥐어보니 금박을 입힌 매혹적인 까치 무늬의 활이었는데, 딱 화영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얼른 좋은 화살 하나를 집어 들고 조개에게 말했다. "방금 형님께서 제가 붉은 끈을 끊었다는 말을 듣고 두령님들께서 믿지 못하는 듯하셨습니다. 저 멀리 기러기 떼가 날아오고 있으니, 제가 큰소리는 치지 않겠습니다만 이 화살로 저 기러기 떼 중 세 번째 기러기의 머리를 맞혀 보겠습니다. 만약 맞히지 못한다면 두령님들께서는 저를 비웃으셔도 좋습니다."

화영은 화살을 시위에 걸고 활을 가득 당겨 조준을 마친 뒤, 하늘을 향해 화살을 쏘아 올렸다. 그 광경은 이러했다.

까치 그림 그려진 활은 둥근 달을 품고, 깃털 달린 화살은 흩어지는 별처럼 날아간다.
활을 당기는 손길은 힘차고, 시위를 떠나는 기세는 매우 빠르다.
기러기 떼가 하늘을 가로지르듯 팽팽하고, 화살을 쏘는 모습은 탄력 있는 대나무처럼 매끄럽다.
그림자는 구름 속에 떨어지고, 소리는 풀숲 안에서 들려온다.
은하수 흐르는 기러기 행렬은 부러질 듯 놀라지만, 영웅의 기러기 떼는 서로 만나 기쁨을 나눈다.

화영이 쏜 화살은 과연 기러기 떼 중 세 번째 기러기를 정면으로 맞혔고, 기러기는 산비탈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급히 군사들을 시켜 확인해 보니, 화살이 세 번째 기러기의 머리에 그대로 박혀 있었다. 조개와 여러 두령은 이 광경을 보고 모두 깜짝 놀라며 화영을 가리켜 '신비장군(神臂將軍, 신의 팔을 가진 장군)'이라 칭송했다. 오용 또한 찬탄하며 말했다. "장군을 '소이광'에 비유하는 것은 부족합니다. 설령 전설적인 명궁 양유기라 할지라도 이 신묘한 솜씨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우리 산채의 영광입니다!" 이후 양산박에서 화영을 경외하며 우러러보지 않는 이가 없었다.

두령들은 다시 연회장으로 돌아와 잔치를 이어갔고, 저녁이 되자 각자 휴식을 취했다. 이튿날, 산채에서는 다시 연회를 준비하며 앉을 자리를 정했다. 본래는 진명이 화영보다 윗자리였으나, 화영이 진명의

처남이었기에 사람들은 양보하여 화영을 임충의 바로 아래 자리인 다섯 번째 자리에 앉혔다. 그다음으로 진명이 여섯 번째, 유당이 일곱 번째, 황신이 여덟 번째 자리에 앉았다. 그 아래로는 삼완(三阮) 다음으로 연순, 왕애호, 여방, 곽성, 정천수, 석용, 두천, 송만, 주귀, 백승이 차례로 앉으니, 이렇게 총 스물한 명의 두령이 자리를 잡았다. 자리가 모두 정해지자 축하 연회도 마무리되었다. 산채에서는 적군인 관군에 맞설 준비를 위해 커다란 배와 집, 수레와 여러 물품을 새로 만들고, 창과 칼, 무기, 갑옷, 투구 등을 제작하며, 깃발과 의복, 활과 화살 등을 정돈하느라 눈코 뜰 새 없이 분주하게 움직였다.

한편, 송강은 주막을 떠나 밤새도록 길을 달려 돌아왔다. 그날 신시(申時, 오후 서너 시) 무렵, 고향 마을 어귀에 있는 장 사장의 주막에 도착해 잠시 쉬어가기로 했다. 장 사장은 평소 송강의 집과 왕래가 잦아 사이가 매우 좋았다. 장 사장은 송강의 안색이 좋지 않고 눈물을 몰래 흘리는 것을 보고 물었다.

"압사님, 일 년 반이나 집에 못 오시다 오늘 이렇게 기쁘게 돌아오셨는데, 어찌 얼굴에 근심이 가득하고 마음이 이리 좋지 않으십니까? 관가의 일도 이제 사면을 받았으니 분명 죄가 줄었을 텐데 말입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어르신 말씀이 맞습니다. 관가의 일은 차치하더라도, 하나뿐인 친부께서 돌아가셨으니 어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러자 장 사장이 크게 웃으며 말했다.

"압사님, 지금 농담하시는 겁니까? 어르신께서는 방금 전 저와 술을 한잔하고 가셨습니다. 간 지 겨우 반 시진(약 한 시간)밖에 안 되었는데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송강이 말했다.

"어르신, 제발 저를 놀리지 마십시오."

송강은 곧바로 집에서 온 편지를 꺼내 장 사장에게 보여주었다.

"아우 송청이 분명히 썼습니다. 아버님께서 올해 정월 초하루에 돌아가셨으니, 제가 돌아와 장례를 치르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입니다."

장 사장은 편지를 읽어보고는 혀를 차며 말했다.

"에이, 참나!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오늘 낮 무렵에 동촌의 왕 어르신과 함께 제 가게에서 술을 드시고 가셨는데, 제가 어찌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마음속에 의구심이 생겼으나,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 없었다. 한참을 고민하던 송강은 밤이 깊어지기를 기다렸다가 장 사장과 작별하고 서둘러 집으로 향했다.

송강이 장원에 도착해 문을 두드려 보았으나 아무런 기척이 없었다. 장원의 하인들이 송강을 보고는 모두 달려 나와 절을 올렸다. 송강이 물었다.

"아버님과 아우는 어디 계시느냐?"

하인이 대답했다.

"어르신께서는 매일같이 압사님을 기다리느라 눈이 빠질 지경이셨는데, 이제야 돌아오셨으니 참으로 기뻐하십니다. 방금 전에는 동촌의 왕 사장과 함께 마을 어귀 장 사장의 주막에서 술을 드시고 돌아오셔서, 지금 안방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송강은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라 들고 있던 단봉(短棒)을 내팽개치고 곧장 초당으로 뛰어 올라갔다. 초당에 들어서니 송청이 형을 맞이하며 절을 올리고 있었다. 송강은 아우가 상복조차 입지 않은 것을 보고는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어 올라 송청을 손가락질하며 꾸짖었다.

"이 불효막심한 놈아, 네가 정녕 제정신이냐! 아버님께서 멀쩡히 살아 계신데 어찌 그런 편지를 써서 나를 놀린단 말이냐? 사람을 두세 번이나 죽을 자리를 찾아 헤매게 만들고, 울다가 실신할 지경까지 만들다니! 네가 어찌 이리도 불효한 자식이란 말이냐!"

송청이 사정을 설명하려 했으나, 병풍 뒤에서 송태공이 나타나며 외쳤다.

"얘야,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이건 네 아우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매일같이 너를 그리워하며 얼굴 한 번 보기를 간절히 바라다가, 아우에게 내가 죽었다고 편지를 쓰게 하여 네가 빨리 돌아오게끔 한 것이다. 또 듣자하니 백호산 일대에 강도들이 많다는데, 혹여 네가 한순간의 유혹에 빠져 산채로 들어가 불충불효한 사람이 될까 걱정이 되었단다. 그

래서 급히 편지를 보내 너를 집으로 불러들인 것이니라. 게다가 시진(柴進) 대관인 쪽에서 온 석용에게도 편지를 보냈단다. 이 모든 것은 다 내 뜻이니 아우를 원망하지 마라. 나는 방금 장 사장의 주막에서 돌아오는 길에 네가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었느니라."

송강은 그 말을 듣고 머리를 조아려 송태공에게 절을 올렸다. 슬픔과 기쁨이 교차하며 눈물이 앞을 가렸다. 송강이 다시 아버지께 여쭈었다.

"요즘 관가 형편은 어떠한지요? 이미 사면령이 내려졌다면 죄가 분명 줄었을 텐데, 방금 전 장 사장도 그렇게 말하더군요."

송태공이 말했다.

"네 아우 송청이 돌아오기 전에는 주동과 뇌횡이 힘을 써준 덕분에, 그 이후로는 해포문서(범죄자를 잡으라는 관청의 명령서) 한 장이 한 번 내려왔을 뿐 다시는 우리를 잡으러 오지 않았단다. 내가 왜 너를 급히 불러들였는지 말해주마. 최근 조정에서 황태자를 책봉하면서 사면령을 내렸다는 소식을 들었다. 민간에서 큰 죄를 지은 자들도 한 단계씩 감형되어 이미 각지에 시행되고 있다고 하더구나. 설령 관가에 붙잡힌다 해도 도형(徒刑, 징역)이나 유형(流刑, 유배) 정도일 뿐 목숨을 잃을 정도는 아닐 게다. 그러니 그 일은 일단 그대로 두고, 다시 따로 방도를 찾아보면 된다."

송강이 다시 물었다.

"주동과 뇌횡, 두 도두(都頭, 포교 우두머리)는 장원에 온 적이 있습니까?"

송청이 대답했다.

"그저께 소식을 들었는데, 두 분 다 파견을 나갔다고 합니다. 주동은 동경(東京)으로 갔고, 뇌횡은 어디로 갔는지 모릅니다. 요즘 현에는 조씨 성을 가진 새로운 구섭공사(勾攝公事, 관청의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하급 관리) 두 명이 새로 부임했습니다."

송태공이 말했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으니, 어서 방에 들어가 좀 쉬거라."

온 가족이 기쁨에 젖어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하늘은 어느덧 어둑어둑해지고, 동쪽 하늘에 달이 떠오르니 대략 일경(一更, 저녁 7시~9시 사이) 무렵이었다. 장원의 사람들은 모두 잠자리에 들었으나, 갑자기 앞뒤 대문 쪽에서 함성이 터져 나왔다. 살펴보니 사방에 횃불이 가득했고, 사람들이 송가장을 둥글게 에워싸며 소리치고 있었다.

"송강, 도망가지 마라!"

그 소리를 들은 송태공은 연신 비명을 지르며 괴로워했다.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장차 큰 강가에는 수많은 호걸이 모여들 것이요, 번화한 거리 한복판에서는 충성스럽고 의로운 기개가 드높아질 터였다.

결국 송강이 장원에서 어떻게 위기를 벗어날 것인가. 다음 회에서 이어진다.

제36회 — 양산박 오용이 대종을 추천하고, 양양령에서 송강이 이준을 만나다

梁山泊吳用舉戴宗 揭陽嶺宋江逢李俊

이야기는 이러하다. 당시 송태공이 사다리를 타고 담장 위로 올라가 살펴보니, 횃불 무리 속에 백여 명쯤 되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다. 그 선두에 서 있는 두 사람은 운성현의 신참 도두(포교 우두머리)인 형제였는데, 한 명은 조능이라 하고 다른 한 명은 조득이라 하였다.

두 사람은 크게 소리쳤다. “송태공, 네가 사리를 분별할 줄 안다면 아들 송강을 내놓아라! 그러면 우리가 알아서 처리하겠다. 만약 아들을 내놓지 않는다면, 너 같은 늙은이까지 통째로 잡아 가버리겠다!”

송태공이 물었다. “송강은 언제 돌아온단 말이냐?”

그러자 조능이 말했다. “헛소리 마시오! 마을 입구에서 송강이 장 사장의 가게에서 술을 먹고 돌아가는 것을 본 사람도 있고, 여기까지 따라온 사람도 있소. 네가 어찌 발뺌할 수 있겠느냐?”

사다리 옆에 있던 송강이 말했다. “아버지, 저런 자들과 말싸움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제가 직접 나서서 관가에 가더라도 상관없습니다. 현청과 관아에 아는 사람이 많고, 이미 사면을 받은 일이라 반드시 죄를 줄여줄 것입니다. 저런 자들에게 하소연해서 무엇하겠습니까? 저 조씨 놈은 원래 악질적인 놈인데, 이제 운 좋게 도두 자리를 꿰찼으니 도리를 알 리가 있겠습니까! 저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는 자에게 괜히 매달릴 필요 없습니다.”

송태공이 울며 말했다. “내 자식 고생이 참으로 기구하구나.”

송강이 말했다. “아버지,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관가에 가는 것은 오히려 다행입니다. 내일 제가 강호로 떠나서 불을 지르고 사람을 죽이는 거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그물에 걸리게 된다면, 어떻게 아버지를 뵐 수 있겠습니까? 설령 다른 주나 부로 유배를 간다 해도 정해진 기한이 있으니, 훗날 돌아와서 반드시 아버지를 모시며 효도를 다하겠습니다.”

송태공이 말했다. “네가 정 그렇다면, 내가 여기저기 손을 써서라도 좋은 곳으로 갈 수 있게 해보마.”

송강이 사다리를 타고 올라오며 외쳤다. “그만들 좀 소란 피우시오! 내 죄는 이미 사면을 받았으니 죽지는 않을 것이오. 그러니 두 도두께서는 부디 저희 집으로 들어와 술을 몇 잔 나누시지요. 내일 관가에 함께 가도록 합시다.”

조능이 말했다. “잔머리 굴려서 우리를 속여 넘길 생각 마시오!”

송강이 말했다. “제가 어찌 아버지와 형제들에게 폐를 끼치겠습니까? 그저 어서 집 안으로 들어오기나 하시오.”

송강은 사다리를 내려와 대문을 열고, 두 도두를 집 안 대청으로 모셔 앉혔다. 그리고 밤을 새워 닭을 잡고 거위도 삶아 술과 함께 정성껏 대접했다. 백 명의 토병들에게도 술과 음식을 나누어 주며 돈이나 물건 등을 챙겨 주었다. 또한 은자 스무 냥을 따로 떼어 두 도두에게 건네며 잘 부탁한다고 뇌물을 보냈다.

시로 이르되,

도두는 돈만 보면 좋아하고,
돈 없으면 험상궂게 노려보네.
그래서 이 돈을 '잘 보아 달라는 돈(好看錢)'이라 부르니,
돈만 있을 뿐, 법도 없고 관청도 없구나.

그날 밤, 두 도두는 송강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이튿날 새벽 오경(五更)에 그들은 함께 현청 앞으로 가서 기다렸다. 날이 밝아 송강을 압송하여 현청으로 들어오니, 마침 지현 시문빈이 공판을 열려고 대청(大堂)에 올라(升堂)가던 참이었다. 도두 조능과 조득이 송강을 압송해 오는 것을 본 시문빈은 크게 기뻐하며 송강에게 자백서(供狀)를 쓰라고 명령했다. 이에 송강은 즉시 죄를 자백하는 진술서를 단숨에 써 내려갔다.

"지난해 가을 무렵, 잘못되게도 염파석을 사들여(典贍) 첩으로 삼았는데, 그녀의 행실이 좋지 못한 데다 한순간 술기운을 빌려 다투고 싸

우던 끝에 그만 그녀를 실수로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 후 줄곧 죄를 피해 도망 다니다가, 이번에 관가에 붙잡혀 와 지난 일을 조사받으니, 제가 자백한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어떠한 변명도 할 말이 없습니다."

지현 시문빈이 서류를 다 읽고는 일단 송강을 옥에 가두어 처분을 기다리게 했다. 온 현의 사람들이 송강이 붙잡혔다는 소식을 듣고, 평소 그를 아끼던 이들이 너도나도 지현을 찾아가 송강의 선행을 늘어놓으며 형을 깎아 달라고 간청했다. 지현 또한 속으로 이미 송강을 여덟 푼은 풀어 줄 마음이 있었기에, 즉시 자백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무거운 큰 칼(長枷)과 수갑(手杻) 채우는 것을 면해 준 채 그저 옥에 가벼이 가두어 두는 정도(散禁)로 처분했다.

송태공은 몸소 나서서 위아래로 뇌물을 쓰며(買上告下) 돈과 비단을 풀었다. 그때 염파석은 이미 죽은 지 반년이 지나 고소할 피해자 측(苦主)이 없었고, 장삼 또한 정인(粉頭, 염파석)을 잃은 처지라 더 이상 원수를 갚겠다고 나서지 않았다. 현청에서는 서류를 정리하여 60일의 기한이 차기를 기다렸다가, 송강을 제주(濟州)로 압송해 판결을 받게 하였다.

본주 부윤(府尹)이 압송 사유를 살펴보고는, 사건이 사면령(赦宥) 이전의 일이라 이미 감형이 적용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송강에게 척장(脊杖) 스무 대를 치고 강주(江州) 뢰성(牢城)으로 자배(刺配)하기로 결정했다. 본주의 관리들 중에도 송강을 알아보는 이들이 있었고, 게다가 송강이 뇌물로 쓸 돈도 넉넉했기에, 이른바 '단장자배(斷杖刺配)'라 일컬어지는 처분을 받기는 했으나, 증거를 들이대며 다투는 피해자 측도 없었던 데다 여러 사람의 두둔이 있어 형벌이 그리 무겁지

않게 마무리되었다. 관청에서는 송강에게 길 가는 동안 쓰는 칼(行枷)을 채우고 공문서 한 통을 첨부한 뒤, 장천과 이만이라는 두 명의 호송 공인(防送公人)을 붙여 송강을 압송하게 했다.

두 공인은 공문을 받아 들고 송강을 압송하여 주아(州衙, 주 관청) 앞으로 데려갔다. 그곳에는 송강의 아버지 송태공과 동생 송청이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두 공인에게 술을 대접하고 은자도 넉넉히 쥐여 주었다. 그러고는 송강의 옷을 갈아입히고 보따리를 묶어 준 뒤 삼베 신을 신겼다.

송태공은 송강을 한적한 곳으로 불러 신신당부했다. "강주는 물자가 풍족하고 먹을 것이 많은 좋은 고장이라 들었다. 내가 특별히 돈을 써서 너를 그곳으로 보내도록 손을 써 두었으니, 너는 마음 편히 먹고 잘 견뎌내거라. 내가 사랑(四郎, 집안 사람)을 시켜 너를 보러 가게 할 것이고, 여비도 인편이 있을 때마다 자주 부쳐 주마. 네가 지금 가는 길에 마침 양산박을 지나게 될 터인데, 만약 그들이 산에서 내려와 너를 빼앗아 자기네 무리에 끌어들이려 하더라도 결코 그 말을 따라서는 안 된다. 그랬다가는 불충불효한 놈이라는 손가락질을 받게 될 것이니, 이 점을 반드시 가슴 깊이 새겨 두어라. 아들아, 길을 천천히 조심해 가거라. 하늘이 너를 가엾게 여기시어 부디 빨리 돌아와 부자가 다시 만나고 형제도 함께 모일 수 있기를 바란다."

송강은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께 절을 올리고 작별을 고했다. 동생 송청은 송강을 한참 길까지 배웅했다. 송강은 떠나기 전 동생에게 당부했다. "내가 떠난다고 너희가 너무 걱정하지 마라. 다만 아버님 연세가 높으신 데다 나 또한 거듭 관재(官災)에 시달려 고향을 등지고 떠나게

되었구나. 아우야, 너는 그저 집에 머물면서 아버님을 잘 모시거라. 나를 따라 강주까지 와서 아버님을 돌볼 사람이 없게 만드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나는 강호에 아는 이가 많으니, 만나는 이마다 그 누가 나를 돕지 않겠느냐? 여비 정도는 절로 마련할 길이 있을 것이다. 하늘이 나를 가엾게 여기신다면, 언젠가 다시 돌아올 날도 있으리라!"

송청은 눈물을 흘리며 작별 인사를 하고 집으로 돌아가 아버지 송태공을 모시게 되었으니, 이 이야기는 여기서 일단 갈무리한다.

한편, 송강이 두 공인과 함께 길을 떠났다. 장천과 이만은 이미 송강에게 은자를 넉넉히 받았고, 게다가 송강이 워낙 대단한 호걸임을 알고 있었기에 길 위에서 그를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세 사람이 하루를 걸어 저녁 무렵 객주에 도착해 여장을 풀고 불을 피워 밥을 지은 뒤, 술과 고기를 사서 두 공인에게 대접했다.

송강이 그들에게 말했다. "두 분께 사실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가는 길이 마침 양산박 근처를 지나게 됩니다. 그 산채에 호걸들이 몇 있는데, 내 이름을 듣고 산에서 내려와 나를 납치해 갈까 걱정입니다. 자칫하면 두 분까지 놀라게 할까 봐 염려되니, 내일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출발합시다. 큰길은 피하고 샛길로만 돌아갑시다. 몇 리를 더 돌아가더라도 괜찮습니다."

두 공인이 대답했다. "압사님,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다면 저희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저희도 샛길로 가기로 마음먹었으니, 분명 그들과 마주칠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날 밤 계획을 세워두었다. 다음 날 새벽 다섯 경(오경, 새벽 3시~5시 사이)이 되자마자 불을 피워 길을 나섰다. 두 공인과 송강은 객주를 떠나 오로지 샛길로만 걸었다. 한참을 걸어 30리쯤 되었을까, 저 앞 산등성이 너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다. 송강은 그 모습을 보고 속으로 비명을 질렀다. 나타난 이들은 다름 아닌 양산박의 호걸 '적발귀' 유당이었다. 그는 서른에서 쉰 명쯤 되는 무리를 이끌고 곧장 두 공인을 죽이려 달려들었다. 장천과 이만은 겁에 질려 소리를 지르며 바닥에 넙죽 엎드렸다. 송강이 외쳤다. "아우님, 대체 누구를 죽이려는 것이오?"

유당이 말했다. "형님, 이 두 놈을 죽이지 않고 무엇을 기다리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그대의 손을 더럽히지 마시오. 그 칼을 내게 주면 내가 직접 죽이겠소."

두 공인은 울며 불며 소리쳤다. "이제 정말 큰일 났구나!"

유당은 송강에게 칼을 건네주었다. 시로 이르되,

죄지었으되 공인을 마주하고도 도망치려 하지 않고,
구하려는 사람을 만날수록 그 뜻이 더욱 굳건해지네.
마음 두텁게 쓰는 데서 교묘한 꾀가 생겨나니,
공인을 죽이지 않고 도리어 그 칼을 빌리는구나.

송강이 칼을 받아 들고 유당에게 물었다. "공인들을 죽이려 하다니, 그게 무슨 뜻인가?"

유당이 대답했다. "산에 계신 형님(조개)의 명령을 받들었습니다. 형님께서 관가에 연루되셨다는 소식을 듣고, 운성현 옥을 부수어 형님을 구해내려 했으나 형님께서 아직 옥에 계시지 않아 고생을 안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강주로 유배를 가신다는 소식을 듣고,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까 염려되어 대소 두령들에게 명해 네 갈래 길목마다 보내 형님을 기다렸다가 맞이해 산으로 모시도록 했습니다. 그러니 이 두 공인 놈들을 죽이지 않고 어찌하겠습니까?"

송강이 말했다. "이것은 형제들이 나를 대접해 주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나를 불충불효의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일이오. 이런 식으로 나를 협박한다면 차라리 내 목숨을 끊는 게 낫지, 송강이 어찌 살겠소." 말을 마친 송강은 칼을 들어 자신의 목을 베어 자결하려 했다. 유당이 황급히 송강의 팔을 붙들며 말했다. "형님, 일단 진정하시고 천천히 의논합시다." 그러고는 송강의 손에서 칼을 뺏어 들었다.

송강이 다시 말했다. "그대들이 진정 나를 가엾게 여긴다면, 내가 강주 감옥에서 형기를 다 채우고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시오. 그때 다시 형제들을 만나겠소."

유당이 말했다. "형님, 그 말씀은 제가 함부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저 앞 큰길에 군사 오학구(吳學究)와 화 지채(花知寨)께서 형님을 맞이하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제가 부하를 시켜 그분들을 모셔와 함께 의논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나는 오직 이 말 한마디를 했을 뿐이니, 그대들이 어떻게 의논하든 마음대로 하시오."

부하가 보고하러 간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오용과 화영이 말을 타고 앞장서 나타나더니 수십 명의 기마대가 뒤를 이어 송강의 앞으로 달려왔다. 그들이 말에서 내려 예를 갖춘 뒤, 화영이 물었다. "형님, 어찌하여 칼(枷, 죄인의 목에 씌우는 칼)을 벗지 않으셨습니까?"

송강이 대답했다. "아우님, 그게 무슨 소린가! 이것은 국가의 법도인데 어찌 감히 함부로 손을 대겠는가!"

오용이 웃으며 말했다. "형님의 뜻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일이야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형님을 산채에 머물게 하지 않을 뿐이지요. 조개 두령께서도 형님을 뵌 지 오래되어, 이번 기회에 형님과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십니다. 잠시만 산채로 모셔가 술이라도 한잔 나누고 나서 바로 길을 떠나시도록 모시겠습니다."

송강이 그 말을 듣고 말했다. "역시 선생만이 송강의 마음을 알아주는구려." 송강은 두 공인을 일으켜 세우며 덧붙였다. "이 두 사람을 안심시켜 주시오. 차라리 내가 죽을지언정 이들을 해치게 해서는 안 되오."

두 공인이 울먹이며 말했다. "모두 압사(押司)님께서 살려주시는 덕분입니다."

일행은 모두 큰길을 벗어나 갈대밭 가장자리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이미 배가 와 있었다. 그때 배에 올라 산 앞 큰길까지 건너간 뒤, 다시

산가마를 사람들에게 메게 하여 곧장 단금정(斷金亭)에 이르러 잠시 쉬었다. 그러고 나서 부하들을 사방으로 보내 두령들을 모두 청해 한자리에 모이게 한 뒤, 송강을 산 위로 맞이해 취의청에서 서로 만나도록 했다.

조개가 말했다. "운성현에서 목숨을 구한 뒤로, 형제들은 하루도 빠짐없이 형님의 큰 은혜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게다가 형님께서 여러 호걸을 이끌고 산으로 오시도록 이끌어 주셨으니, 이 초라한 산채를 빛내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저는 헤어진 뒤로 음탕한 여인을 죽이고 강호를 떠돌며 한 해 반을 보냈습니다. 본래 형님을 뵙고자 산으로 올라가려 했으나, 우연히 주막에서 석용을 만나 집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아버님께서 세상을 떠나셨다는 소식이었지요. 그런데 아버님께서는 혹여 송강이 호걸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염려되어, 저를 집으로 불러들이려고 일부러 그런 편지를 쓰신 것이었습니다. 비록 관가에 연루되기는 했으나, 다행히 위아래 관리들이 보살펴 준 덕분에 큰 화는 면했습니다. 이제 강주로 유배를 가게 된 것도 오히려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마침 형제들이 저를 불러주었으니 어찌 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제 이렇게 형님들의 얼굴을 뵈었으니, 형기가 다 되어가는 상황이라 오래 머물 수가 없으니 이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어찌 그리 서두르십니까! 우선 잠시 앉으시지요."

두 사람이 중간에 앉자, 송강은 두 공인을 자신의 의자 뒤에 앉게 하여 한 발짝도 떨어지지 않은 채 곁을 지켰다.

조개가 수많은 두령을 불러 송강에게 예를 갖추게 한 뒤, 두 줄로 나누어 앉혔고 부하들은 술을 따랐다. 먼저 조개가 잔을 권하고, 그 뒤를 이어 군사 오학구(吳學究)와 공손승부터 시작해 백승에 이르기까지 차례차례 잔을 권해 내려갔다. 술이 몇 차례 돌자 송강이 일어나 감사의 뜻을 표하며 말했다.

"형제님들의 깊은 우애를 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송강은 죄를 지은 몸이라 차마 오래 머물 수 없으니, 이만 작별을 고하겠습니다."

조개가 말했다. "형님, 어찌 그리 서운한 말씀을 하십니까! 형님께서 저 두 공인을 해치지 않으려 애쓰시는 것은 잘 압니다. 그러니 차라리 그들에게 금은보화를 넉넉히 쥐여주어 돌려보내십시오. 양산박에서 강제로 빼앗아 간 것이라고 말하면, 그들이 죄를 뒤집어쓰는 일은 없을 것입니다."

송강이 대답했다. "형님, 그런 말씀 마십시오. 그것은 저를 높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저를 괴롭게 하시는 일입니다. 집에 연로하신 아버님이 계시는데, 송강이 단 하루도 효도를 다하지 못했습니다. 아버님의 가르침을 어기고 어찌 아버님께 짐이 되는 짓을 하겠습니까? 예전에 잠시 흥에 겨워 형제님들과 뜻을 같이하려 했으나, 천만다행으로 주막에서 석용을 만나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안내받았습니다. 아버님께서는 제가 호걸들과 함께 산으로 들어가 버렸을까 염려되어 일부러 그런 편지를 쓰신 것이었습니다. 차라리 관가에서 재판을 제대로 받고 속히 유배를 떠나라고 신신당부하셨습니다. 떠나기 직전에도 제게 몇 번이고 당부하시기를, 부디 즐거움에 빠져 집안을 망치지 말고 아버지를 놀라게 하여 근심 끼쳐드리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아버님

의 엄한 가르침을 따르지 않는다면, 이는 하늘의 이치를 거스르고 부모의 가르침을 저버리는 불충불효한 짓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살아 무엇하겠습니까? 만약 저를 산 아래로 내려보내 주지 않으시겠다면, 차라리 형제님들의 손에 죽기를 청하겠습니다."

말을 마친 송강은 눈물을 비 오듯 흘리며 바닥에 엎드려 절했다. 조개와 오용, 공손승이 일제히 그를 일으켜 세웠다. 사람들이 말했다. "형님께서 강주로 가시겠다는 뜻이 워낙 완강하시니, 오늘은 마음 편히 하루 머무르십시오. 내일 아침 일찍 산 아래로 모셔다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세 번, 다섯 번을 거듭 권한 끝에야 송강은 산채에서 하루 동안 술을 마실 수 있었다. 송강은 칼(枷)을 벗게 해주어도 차마 벗지 않았고, 그저 두 공인과 함께 일어나고 앉으며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다.

그날 밤을 하룻밤 묵어간 뒤,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자 송강은 단호히 떠나겠다고 했다. 오용이 말했다.

"형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게 아주 아끼는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지금 강주에서 양원(兩院) 압로(押牢) 절급(節級)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성은 대(戴)요 이름은 종(宗)이라, 그곳 사람들은 그를 대 원장(戴院長)이라 부릅니다. 도술을 부릴 줄 알아 하루에 팔백 리를 갈 수 있다 하여 사람들은 그를 '신행태보(神行太保)'라 부르지요. 의리가 매우 깊고 재물을 아끼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젯밤 제가 그에게 보내는 편지를 한 통 써 두었으니 형님께서 가져가십시오. 그곳에 도착하시면

그 사람과 친분을 맺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기면 형제들에게 알려 주십시오."

두령들이 송강을 붙잡으려 애썼으나 소용이 없자, 잔치를 베풀어 송강을 배웅하기로 했다. 그들은 금은보화 한 쟁반을 꺼내 송강에게 주었고, 은자 이십 냥을 꺼내 두 공인에게 주었다. 이어 송강의 보따리를 메고 모두 산 아래까지 내려가 하나둘 작별 인사를 나누었다. 오용과 화영은 나룻터 건너편까지, 큰길에서 이십 리 떨어진 곳까지 송강을 직접 배웅했다. 그 후 두령들은 산 위로 돌아갔다.

한편, 송강은 두 공인을 데리고 길을 떠나 강주로 향했다. 공인들은 산채에서 나온 수많은 인마와 송강에게 일일이 절을 올리는 두령들의 모습을 보고는, 송강이 받은 은자도 꽤 넉넉한 것을 알게 되어 길을 가는 내내 송강을 지극정성으로 모셨다. 세 사람이 길을 나선 지 보름 남짓 지났을 무렵, 마침내 눈앞에 높은 고개가 나타났다. 두 공인이 말했다.

"다 왔습니다! 이 게양령(揭陽嶺)만 넘으면 바로 심양강(潯陽江)이 나옵니다. 거기서 강주까지는 물길로 가면 그리 멀지 않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날씨가 따뜻하니 서둘러 고개를 넘어 숙소를 찾아봅시다."

공인이 대답했다. "압사님 말씀이 옳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 재촉하며 고개를 향해 달려갔다. 반나절쯤 걸어 간신히 고갯마루를 넘으니, 고개 발치에 주막 하나가 보였다. 그곳은 험

준한 절벽을 등지고 문 앞에는 기괴한 나무가 서 있었으며, 앞뒤로 초가집들이 늘어서 있었다. 나무 그늘 아래로 가보니 술을 판다는 깃발이 걸려 있었다. 송강은 그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이 들어 공인들에게 말했다.

"마침 배도 고프고 목도 마른 참인데, 마침 이 고개에 주막이 있으니 술이라도 한 잔 마시고 갑시다."

세 사람이 주막 안으로 들어서자, 두 공인은 짐을 내려놓고 수화곤(水火棍, 한쪽은 붉게 한쪽은 검게 칠한 공인들의 호송용 곤봉)을 벽에 기대어 놓았다. 송강은 두 공인을 상석에 앉게 하고 자신은 그 아랫자리에 앉았다. 반 시진이 지나도록 아무도 나오지 않자 송강이 소리쳐 물었다.

"어찌하여 주인장이 나오지 않소?"

그러자 안에서 대답이 들려왔다. "갑니다, 갑니다!"

옆방 문 사이로 한 사내가 걸어 나왔는데, 그 생김새가 어떠하였냐면,

붉은 곱슬 수염은 어지러이 흩날리고,
핏줄 선 호랑이 눈은 둥그렇게 부릅떴네.
게양령(揭嶺)에서 사람 죽이는 마귀의 화신이요,
풍도(酆都)의 「최명판관(催命判官, 목숨을 재촉하는 판관)」이로다.

그 사내가 나왔는데, 머리에는 해진 두건을 쓰고 몸에는 무명 조끼를 걸쳐 두 팔을 드러내고 있었으며, 허리에는 무명 수건을 두르고 있었다. 그는 송강 일행 세 사람을 보고 인사하며 물었다.

"손님들, 술을 얼마나 드릴까요?"

송강이 물었다. "우리가 길을 오느라 배가 몹시 고픈데, 여기 파는 고기는 무엇이 있소?"

사내가 대답했다. "삶은 소고기와 탁한 백주(渾白酒)뿐입니다."

송강이 말했다. "그게 제일 좋겠군. 우선 삶은 소고기 두 근(斤)을 썰어 오고, 술도 한 각(角, 작은 술 단위) 가져오시오."

그러자 사내가 말했다. "손님, 말씀은 이해합니다만, 제가 이 고개에서 술을 파는 처지라 돈을 먼저 내셔야 술을 드실 수 있습니다."

송강이 말했다. "돈을 먼저 내고 술을 마시는 게 당연하지. 나도 그러는 게 좋다네. 우선 은자를 꺼낼 테니 기다리게."

송강은 보따리를 풀어 은자 조각들을 꺼냈다. 사내는 옆에 서서 곁눈질로 슬쩍 살펴보더니, 송강의 보따리가 묵직한 것이 꽤 짭짤한 구경거리가 되겠다는 생각에 속으로 무척 기뻐했다. 송강에게 은자를 건네받은 사내는 안으로 들어가 술 한 통을 떠 오고 소고기 한 접시를 썰어 왔다. 그리고 커다란 사발 세 개와 젓가락 세 쌍을 놓으며 술을 거르고 있었다.

세 사람은 음식을 먹으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요즘 강호의 악당들 중에 수많은 호걸이 당하는 일이 있다더군. 술과 고기에 몽한약(蒙汗藥)을 타서 사람들을 마비시킨 뒤 재물을 빼앗고, 심지어 사람 고기를 가져다가 만두 속으로 만든다나 봐. 나는 도저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는 믿기지 않는구먼!"

술을 파는 사내가 웃으며 말했다. "세 분이 그렇게 말씀하시니 안 드시는 게 좋겠군요. 제 술과 고기에는 다 마비약이 들어 있거든요."

송강이 웃으며 말했다. "이 형씨가 우리가 마비약 이야기를 하니 놀리려고 하는구먼."

두 공인도 거들었다. "형씨, 뜨겁게 한 사발 정도는 주시오."

사내가 말했다. "뜨겁게 드시겠다면 데워 오겠습니다."

사내가 술을 데워 와서 세 사발에 따라 주었다. 마침 배고프고 목마른 차에 술과 고기가 눈앞에 있으니 어찌 먹지 않겠는가? 세 사람이 각자 한 사발씩 들이켰는데, 곧 두 공인이 눈을 부릅뜨고 입가에는 침을 흘리며 서로를 붙잡고 뒤로 넘어지기 시작했다. 송강이 벌떡 일어나 소리쳤다.

"자네들 어찌 한 사발 마시자마자 이리 취한단 말인가!"

그들을 부축하려 앞으로 나갔으나, 송강도 갑자기 눈앞이 어지러워지더니 그대로 바닥에 엎어졌다. 세 사람 모두 눈을 뜬 채 서로를 마주

보며 멍하니 누워 있었는데, 몸이 마비되어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었다.

주막 주인 사내가 말했다. "고맙기도 하구나! 며칠째 장사가 없더니, 오늘 하늘이 이 세 짐짝의 장사거리(三頭行貨)를 내게 보내주는구나."

사내는 먼저 송강을 질질 끌고 가서 산 바위 옆에 마련된 인육방(人肉作房)에 데려가 사람 가죽 벗기는 의자에 올려놓았다. 그러고는 두 공인도 끌고 들어갔다. 다시 나온 사내는 송강의 보따리와 짐을 모두 뒷방으로 옮겼다. 보따리를 풀어보니 모두 금은(金銀)이었다. 사내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이 주막을 운영한 지 여러 해 동안 이런 죄수를 본 적이 없는데, 이 정도 죄인이 어찌 이리 재물이 많단 말인가? 이건 하늘이 나에게 내려준 선물이로구나!"

사내는 보따리를 다시 잘 싸매고는, 문 앞으로 나가 화부(火家, 주막의 일꾼들) 몇이 돌아오기를 기다려 시체를 가르고 벗길 채비를 했다.

사내는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지켜보았으나 사람이 돌아오는 기색은 보이지 않았고, 다만 고개 아래에서 세 사람이 고개를 향해 달려 올라오는 것만 보였다. 사내가 그들을 알아보더니 황급히 마중 나가며 물었다.

"형님, 어디를 다녀오시는 길입니까?"

세 사람 중 한 대한(大漢)이 대답했다. "우리는 일부러 어떤 사람을 맞이하러 이 고개까지 올라왔네. 헤아려보니 올 만한 노정의 날짜가 된 것 같아서 말이야. 나는 매일 나와서 고개 아래에서만 기다렸는데도 보이지 않으니, 도대체 어디서 지체되는지 모르겠네."

사내가 물었다. "형님께서는 도대체 누구를 기다리시는 겁니까?"

대한이 말했다. "아주 빼어난 호한(好漢)을 기다리고 있네."

사내가 다시 물었다. "빼어난 호한이라니, 어떤 분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대한이 대답했다. "자네도 그분의 대명(大名)을 들어본 적이 있을 걸세. 바로 제주(濟州) 운성현(鄆城縣)의 송 압사(押司), 송강이라네."

사내가 말했다. "혹시 강호에서 말하는 산동의 '급시우(及時雨)' 송 공명 말씀이십니까?"

대한이 말했다. "바로 그 사람이라네."

사내가 또 물었다. "그분이 어찌하여 이 길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까?"

대한이 답했다. "나도 본디 모르네. 얼마 전 제주에서 온 어느 지인이 말하기를, '운성현의 송 압사 송강이 무슨 일 때문인지 제주부에서 일이 터져, 강주(江州) 뇌성(牢城)으로 단배(斷配)되었다'고 하더군. 다른 길은 없으니 필시 이 길로 지나갈 것이라 짐작했지. 그가 운성현에 있을 때에도 나는 그와 만나 사귀고 싶었는데, 이번에 마침 이 길을

지나간다는데 어찌 사귀지 않을 수 있겠나? 그래서 고개 아래에서 며칠째 그를 맞이하려 기다렸는데, 네댓 날이 지나도록 죄수가 한 명도 지나가지 않더군. 그래서 오늘 이 두 형제와 함께 산책 삼아 산고개로 올라와 자네 가게에서 술이나 한 사발 마실 겸 자네도 볼 겸 들른 것이라네. 요즘 자네 가게 장사는 좀 어떠한가?"

사내가 말했다. "형님께 숨길 게 뭐 있겠습니까. 요 몇 달 사이 장사가 영 신통치 않더니, 오늘 천지신명께 감사하게도 장사거리(行貨) 셋을 잡았고 챙길 물건도 좀 생겼습니다."

대한이 황급히 물었다. "셋이라니, 어떤 자들인가?"

사내가 대답했다. "공인(公人) 둘에 죄수 하나입니다."

대한이 깜짝 놀라며 물었다. "그 죄수가 혹시 검고 키가 작으며 뚱뚱한 사람인가?"

사내가 대답했다. "정말 그리 키가 크지는 않고, 얼굴색은 자단(紫棠) 빛이 돕니다."

대한이 다급히 물었다. "아직 손을 대지는 않았느냐?"

사내가 대답했다. "방금 막 작방(作房)으로 끌고 들어갔습니다. 일꾼들(火家)이 아직 돌아오지 않은 까닭에 아직 가죽을 벗기지는 않았습니다."

대한이 말했다. "내가 가서 그자를 한번 확인해 봐야겠네."

네 사람은 곧장 바위 옆에 마련된 사람 고기 방으로 들어갔다. 그곳에는 송강과 두 공인이 사람 고기 벗기는 의자에 거꾸로 엎어져 머리가 땅을 향하고 있었다. 대한은 송강을 보았으나 그가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얼굴에 찍힌 금인(金印) 또한 무엇을 뜻하는지 알 길이 없어 어리둥절했다. 그러다 문득 생각이 난 듯 말했다.

"우선 공인의 보따리를 가져오게. 공문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이네."

사내가 대답했다. "좋은 생각이십니다."

사내는 방으로 들어가 공인의 보따리를 가져와 풀어 보았다. 그 안에는 커다란 은괴 하나와 자잘한 은자 조각들이 들어 있었다. 이어 문서 주머니를 풀어 차비(差批, 관청의 명령서)를 확인한 일행은 모두 탄식하며 말했다.

"이런,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로다!"

대한이 말했다. "하늘이 나에게 오늘 이 고개로 올라오라 명하신 덕분에 아직 손을 쓰지 않았으니, 자칫하면 우리 형님의 목숨을 끊을 뻔했구나."

시로 이르되,

원한과 복수는 피하기 어려우나,
기회를 만나는 것은 멀리서 찾을 일이 아니네.
철신을 신고 닳도록 찾아 헤매도 보이지 않더니,
막상 얻게 되면 아무런 힘도 들지 않는구나.

대한이 사내에게 외쳤다. "어서 해독제를 가져오게! 우선 우리 형님부터 구해야 하네."

사내도 당황하여 서둘러 해독제를 조제했고, 대한과 함께 작방으로 들어가 먼저 칼(枷)을 풀어 송강을 부축해 일으켜 세운 뒤 해독제를 입에 부어 넣었다. 네 사람은 송강을 앞쪽 손님 자리(客位)로 메고 나갔다. 대한이 그를 부축하자 송강이 점차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다. 눈앞에 사람들이 서 있는 것을 보았으나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고, 다만 대한이 두 형제로 하여금 송강을 부축하게 한 채 머리를 조아리며 절을 올리는 것을 보았다.

송강이 물었다. "누구십니까? 제가 꿈을 꾸는 것은 아닙니까?"

술을 팔던 사내도 절을 올렸다. 송강이 답례하며 말했다. "두 형님, 어서 일어나십시오. 이곳은 도대체 어디입니까? 감히 두 분의 존함을 여쭈어도 되겠습니까?"

대한이 대답했다. "제 성은 이(李), 이름은 준(俊)이라 합니다. 본관(祖貫)은 여주(廬州) 사람이며, 오로지 양자강(揚子江)에서 사공(舶公) 노릇을 하며 생계를 잇고 있습니다. 물길에 능하여 사람들이 모두 저를 '혼강룡(混江龍) 이준'이라 부릅니다. 여기 술을 파는 이는 이 게 양령(揭陽嶺) 사람으로, 오로지 밀상(私商) 노릇을 생업으로 삼고 있어, 사람들이 모두 그를 '최명판관(催命判官) 이립'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 두 형제는 이곳 심양강(潯陽江) 가의 사람으로, 오로지 사염(私鹽)을 가져다 이곳에 팔러 다니다가 이준의 집에 의탁해 몸을 붙이고 있는 이들입니다. 큰 강에서 잠수에 능하고 배도 잘 모는 형제인데,

한 명은 '출동교(出洞蛟) 동위(童威)'라 하고, 다른 한 명은 '번강신(翻江蜃) 동맹(童猛)'이라 합니다."

두 사람도 송강에게 네 번 절을 올렸다. 송강이 물었다. "방금 송강을 마취시켜 놓고서 어떻게 제 성명을 아셨습니까?"

이준이 말했다. "제게 아는 지인이 한 명 있는데, 얼마 전 장사 일로 제주에서 돌아오며 형님의 대명(大名)을 말하고, 일이 터져 강주 뇌성으로 가게 되었다고 하더이다. 이준은 평소 형님을 사모하여 늘 귀현(貴縣)으로 찾아가 형님께 인사드리고자 하였으나, 인연이 박하여 가지를 못했습니다. 이번에 인형(仁兄)께서 강주로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필시 이 길로 지나실 것이라 여겨, 닷새 이레 동안 잇달아 고개 아래에서 인형을 기다렸으나 오시지 않더이다. 오늘 무심코 천행(天幸)으로 이준이 두 형제와 함께 산고개로 올라와 술 한 잔 마시러 들렀다가 이립을 만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깜짝 놀라 황급히 작방으로 가서 살펴보았으나 형님을 알아보지 못했지요. 그러다 문득 생각이 떠올라 공문을 가져다 보고서야 형님임을 알았습니다. 감히 여쭙겠습니다만, 운성현에서 압사로 계신다고 들었는데 어찌하여 강주로 유배를 오게 되셨습니까?"

송강은 염파석(閻婆惜)을 죽인 일부터 석용(石勇)의 마을 주점에서 편지를 전한 일, 집으로 돌아가 일이 발각된 일, 이번에 강주로 유배 오게 된 사정까지 상세히 풀어놓았다. 네 사람은 그 이야기를 듣고 탄식을 금치 못했다.

이립이 말했다. "형님, 차라리 이곳에 머무르시고 강주 뇌성까지 가서 고생하지 마십시오."

송강이 답했다. "양산박에서도 죽기 살기로 나를 만류했으나 나는 끝내 머물지 못하였네. 집에 계신 노부친께 누가 될까 두려워서 말일세. 그런데 어찌 이곳에 머물 수 있겠나?"

이준이 말했다. "형님은 의사(義士)시니 결코 함부로 행동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자네는 어서 저 두 공인부터 구해주게."

이립이 서둘러 일꾼들(火家)을 불렀는데, 마침 모두 돌아와 있었다. 곧 두 공인을 앞쪽 손님 자리로 끌어내어 해독제를 먹여 깨워주자, 두 공인은 서로를 멀거니 바라보며 말했다. "우리가 길을 오느라 고생을 해서 그런지, 술에 이리도 쉽게 취해버렸구려!"

그 말을 듣고 사람들이 모두 웃음을 터뜨렸다.

그날 밤 이립은 술을 차려 일행을 정성껏 대접했고, 일행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었다. 다음 날, 또 술과 음식을 마련해 대접하고는 보따리를 내어 송강과 두 공인에게 돌려주었다. 그렇게 작별 인사를 나눈 뒤, 송강은 이준, 동위, 동맹, 그리고 두 공인과 함께 고개를 내려와 곧장 이준의 집으로 가서 쉬었다. 이준은 술과 음식을 마련해 정성껏 대접하며 송강을 결의 형님으로 모시고, 집에 며칠간 머물게 했다. 송강이 떠나려 하자 이준은 더 붙잡을 수 없어, 은자 몇 냥을 챙겨 두 공인에게 노자로 주었다. 송강은 다시 칼(行枷)을 쓰고 보따리와 행리(行李)를 챙긴 뒤, 이준과 동맹, 동위에게 작별을 고하고 게양령(揭陽嶺) 아래를 떠나 강주를 향해 길을 잡았다.

세 사람이 반나절을 걸으니 어느덧 미패(未牌) 시분, 곧 미시(未時, 오후 1시~3시) 무렵이 되었다. 어느 곳에 이르러 보니 인가가 빽빽하게 모여 있고, 시정(市井)은 사람들로 떠들썩하니 시끄러웠다. 마침 어느 시진(市鎭)에 이르렀는데, 그곳에 한 무리가 둘러서서 무언가를 구경하고 있었다. 송강이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들어가 살펴보니, 한 사내가 창봉(槍棒)을 휘두르며 고약을 팔고 있었다. 송강과 두 공인은 발길을 멈추고 그가 창봉을 휘두르는 것을 한 차례 구경했다. 그 교두(教頭)가 손에 든 창봉을 내려놓고 다시 권법 한 자락을 펼치자, 송강이 갈채를 보내며 말했다. "창봉과 권법이 참으로 훌륭하구려!"

그러자 그 사내는 쟁반 하나를 집어 들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소인은 먼 곳에서 온 사람으로, 귀하신 분들 계신 이 땅에 특별히 일을 보러 왔습니다. 비록 사람을 놀라게 할 재주는 없으나 오로지 은관(恩官)들의 도움에 의지하여, 멀리서는 이름을 자랑하고 가까이서는 재주를 뽐내며 살고 있습니다. 근육이 결리는 데 좋은 고약이 필요하신 분은 지금 사 가십시오. 고약이 필요 없으시다면 부디 은자나 동전이라도 베풀어 주시고, 그저 빈손으로 지나치지는 말아 주십시오."

교두가 쟁반을 들고 한 바퀴 돌렸으나, 돈을 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사내가 다시 말했다. "보시는 분들, 부디 손을 높이 들어 베풀어 주십시오."

또 한 바퀴를 돌렸지만 사람들은 그저 흰 눈을 뜨고 바라볼 뿐 아무도 돈을 내어 상으로 주지 않았다. 송강은 사내가 두 바퀴나 돌렸음에도 돈을 내는 이가 없어 황망해하는 것을 보고는, 공인에게 은자 다섯 냥을 꺼내게 하고 외쳤다. "교두, 나는 죄를 지은 몸이라 줄 것이 별로

없네. 이 은자 다섯 냥은 그저 작은 성의이니 너무 가볍다고 여기지 말게나!"

사내는 은자 다섯 냥을 받아 손바닥에 받쳐 들고는 큰 소리로 외쳤다. "이렇게 이름난 게양진(揭陽鎭)에 사정을 헤아릴 줄 아는 호한(好漢)이 단 한 명도 없어 우리를 추켜세워 주지 않으니 한심하구나! 다행히 이 은관(恩官)께서, 본인 자신이 지금 관에 죄로 얽혀 계신 처지인데도 또 이곳을 지나가시는 길에 도리어 은자 다섯 냥을 베풀어 주시는구나. 이르되,

'그 옛날 사람들은 정원화(鄭元和)를 비웃었네, 오로지 청루(青樓)에 가서 웃음과 노래만 사들였다고. 거리낌없이 돈을 쓰면서도 집안의 호부(豪富)는 따지지 않으니, 풍류란 옷을 많이 걸치는 데 있지 않은 법이라네.'

이 은자 다섯 냥이 다른 곳의 은자 쉰 냥보다 훨씬 귀중하도다. 소인이 직접 절을 올리오니, 부디 은관께서 귀하신 성함을 알려주시면 소인이 천하에 널리 전하겠나이다."

송강이 대답했다. "교사(教師), 이만한 물건이 무어 그리 값나간다고 감사를 표할 것까지는 없네."

말을 나누는 사이, 사람들 무리 속에서 한 거한(大漢)이 인파를 헤치고 앞으로 달려 나오며 크게 외쳤다. "저놈은 어떤 잡놈이냐? 어디서 굴러들어온 죄수란 말이냐! 감히 우리 게양진의 위풍을 깎아내리려 들다니!"

그러고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송강을 치러 달려들었다. 이 다툼이 일어남으로 인해, 심양강(潯陽江) 위에는 바다를 휘젓는 푸른 용 같은 호걸 몇 명이 모이게 되고, 양산박에는 산을 타고 오르는 맹호 같은 영웅 한 무리가 더해지게 되었다. 결국 그 사내가 무엇 때문에 송강을 치려 했는지는, 다음 회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라.